2021년 우리말글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주제 : 한국어문학 연구의 다양성

◆ 일 시 : 2021. 11. 06.(토), 13:00-17:10

◆ 장 소 : 비대면 개최(ZOOM)

◆ 주 최 : 우리말글학회

우 리 말 글 학 회

http://www.urimalgeul.org

◇◇◇◇◇◇◇◇◇◇ 대 회 일 정 표 ◇◇◇◇◇◇◇◇◇◇

▣ 회원등록(13:00～13:20)

▣ 제1부: 개회식 및 연구윤리(13:20～13:30) ····· 사회: 박규준(대구대)

- 개회사····· 박호관(대구대, 우리말글학회장)
- 우리말글학회 연구윤리 규정·····박규준(대구대)

▣ 제2부: 기조발표(13:30～15:00) ····· 사회: 전용숙(대구대)

◆ 13:30-14:00 ▽ 논문제목 : 국어학 연구의 다양성·····허용(한국외대)
◆ 14:00-14:30 ▽ 논문제목 : 국문학 연구의 다양성····· 서경석(한양대)
◆ 14:30-14:50 ▽ 종합 토론 : 자유 토론

▣ 제3부: 분과 발표(15:00～16:50)····· 각 분과별 발표장

◎ 국어학/(한)국어교육 분과·····사회: 강보선(대구대), 박용찬(대구대)

◆ 15:00-15:30 ▽ 논문제목: 중국인 학습자의 중복자음 연음 오류 분석
-최적성이론을 바탕으로
▽ 발표자: 왕신(한국외대)
▽ 토론자: 박은혜 (한국외대)

◆ 15:30-16:00 ▽ 논문제목: 한국어 자음동화 환경에서 실현되는 유아 발화 연구
▽ 발표자: 노채환(사이버외대)
▽ 토론자: 윤영해(아주대)

○ 16:00-16:10 ▽ 휴 식

◆ 16:10-16:40 ▽ 논문제목: 성인 필자의 쓰기 특성 분석
▽ 발표자: 류마리아(전남대)
▽ 토론자: 박준범(경남대)

◆ 16:40-17:10 ▽ 논문제목: 부산 지역 문장종결표현 '-대이'의 의미
- 억양 패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발표자: 이옥희(부산대), 박유경(서울대)
▽ 토론자: 이철우(경운대)

◎ 고전문학 분과····· 사회: 엄기영(대구대), 조은희(대구대)

◆ 15:00-15:30 ▽ 논문제목: 신립 설화의 원귀 의미 연구 - 수용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 발표자: 박진아(경북대)
▽ 토론자: 김기호(영남대)

◆ 15:30-16:00 ▽ 논문제목: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수용의 계통
-김삼불(金三不) 校注本『海東歌謠』를 중심으로-
▽ 발표자: 유정란(고려대)
▽ 토론자: 권현주(영남대)

○ 16:00-16:10 ▽ 휴 식

◆ 16:10-16:40 ▽ 논문제목: 壬辰倭亂 永川地域 義兵活動 槪觀
▽ 발표자: 최재호(3사관학교)
▽ 토론자: 김진수(육군군사연구소)

◆ 16:40-17:10 ▽ 논문제목: <옥루몽(玉樓夢)> 군담에 나타난 징악(懲惡)의 특수성과 그 의미
▽ 발표자: 서정현(경북대)
▽ 토론자: 황형식(대구대)

◎ 현대문학 분과····· 사회: 주영중(대구대), 송효정(대구대)

◆ 15:00-15:30 ▽ 논문제목: 오장환 시에 나타난 죄의식 연구
▽ 발표자: 차성환(명지전문대)
▽ 토론자: 이은실(수원대)

◆ 15:30-16:00 ▽ 논문제목: 최승자 초기 시에 드러난 죽음과 사랑
▽ 발표자: 문혜연(한양대)
▽ 토론자: 정치훈(건국대)

○ 16:00-16:10 ▽ 휴 식

◆ 15:30-16:10 ▽ 논문제목: 해방공간, 장덕조 소설의 젠더화된 인식 고찰
-장편소설『十字路』를 중심으로-
▽ 발표자: 김윤서(대구대)
▽ 토론자: 손미란(동국대)

◆ 16:40-17:10 ▽ 논문제목: 장인의 윤리와 고집의 무덤
-이청준의 「줄광대」, 「과녁」을 중심으로-
▽ 발표자: 조소명(한양대)
▽ 토론자: 곽은희(동아대)

차 례

<기조 발표>

국어학 연구의 다양성 ····· 허용(한국외국어대) · 1
국문학 연구의 다양성 ····· 서경석(한양대) · 19

<국어학/(한)국어교육 분과>

중국인 학습자의 중복자음 연음 오류 분석
–최적성이론을 바탕으로 ····· 왕신(한국외국어대) · 21
한국어 자음동화 환경에서 실현되는 유아 발화 연구 ····· 노채환(사이버한국외국어대) · 37
성인 필자의 쓰기 특성 분석 ····· 류마리아(전남대) · 49
부산 지역 문장종결표현 '–대이'의 의미
– 억양 패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이옥희(부산대), 박유경(서울대) · 81

<고전문학분과>

신립 설화의 원귀 의미 연구 – 수용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 박진아(경북대) · 109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수용의 계통
–김삼불(金三不) 校注本『海東歌謠』를 중심으로– ····· 유정란(고려대) · 125
壬辰倭亂 永川地域 義兵活動 槪觀 ····· 최재호(육군3사관학교) · 141
<옥루몽(玉樓夢)> 군담에 나타난 징악(懲惡)의 특수성과 그 의미 ····· 서정현(경북대) · 159

<현대문학분과>

오장환 시에 나타난 죄의식 연구 ····· 차성환(명지전문대) · 183
최승자 초기 시에 드러난 죽음과 사랑 ····· 문혜연(한양대) · 201
해방공간, 장덕조 소설의 젠더화된 인식 고찰
–장편소설『十字路』를 중심으로– ····· 김윤서(대구대) · 217
장인의 윤리와 고집의 무덤
–이청준의 「줄광대」, 「과녁」을 중심으로– ····· 조소명(한양대) · 231

<연구윤리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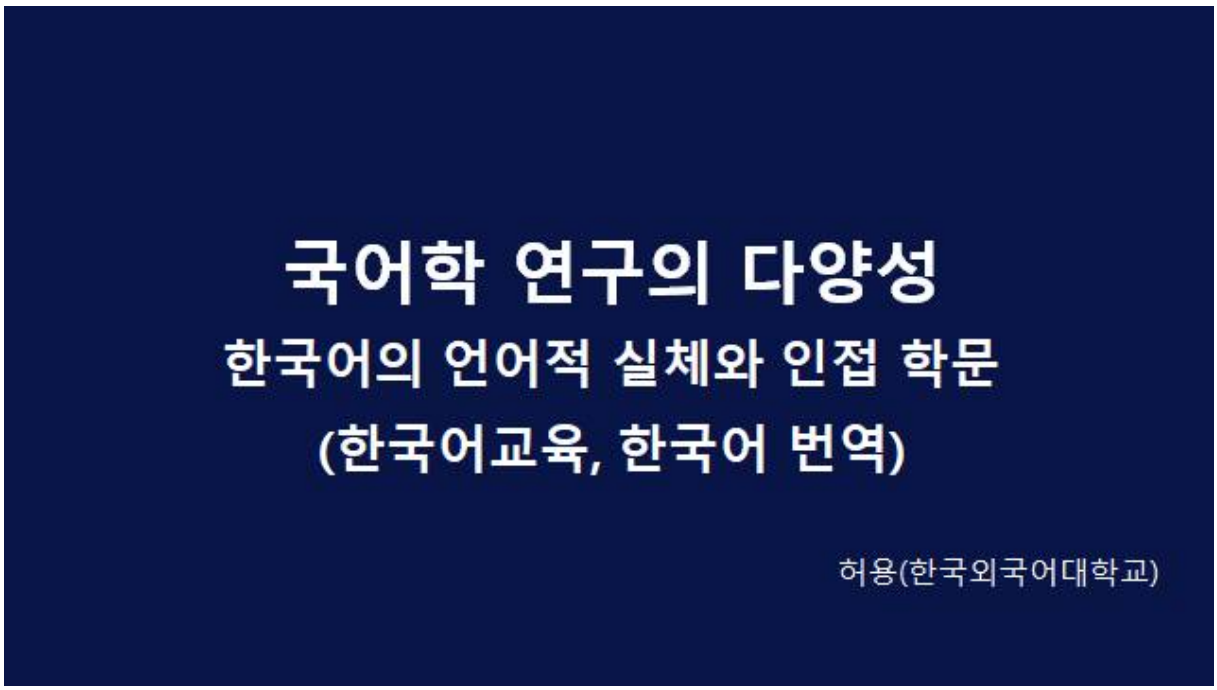
우리말글학회 연구윤리 규정 ····· ·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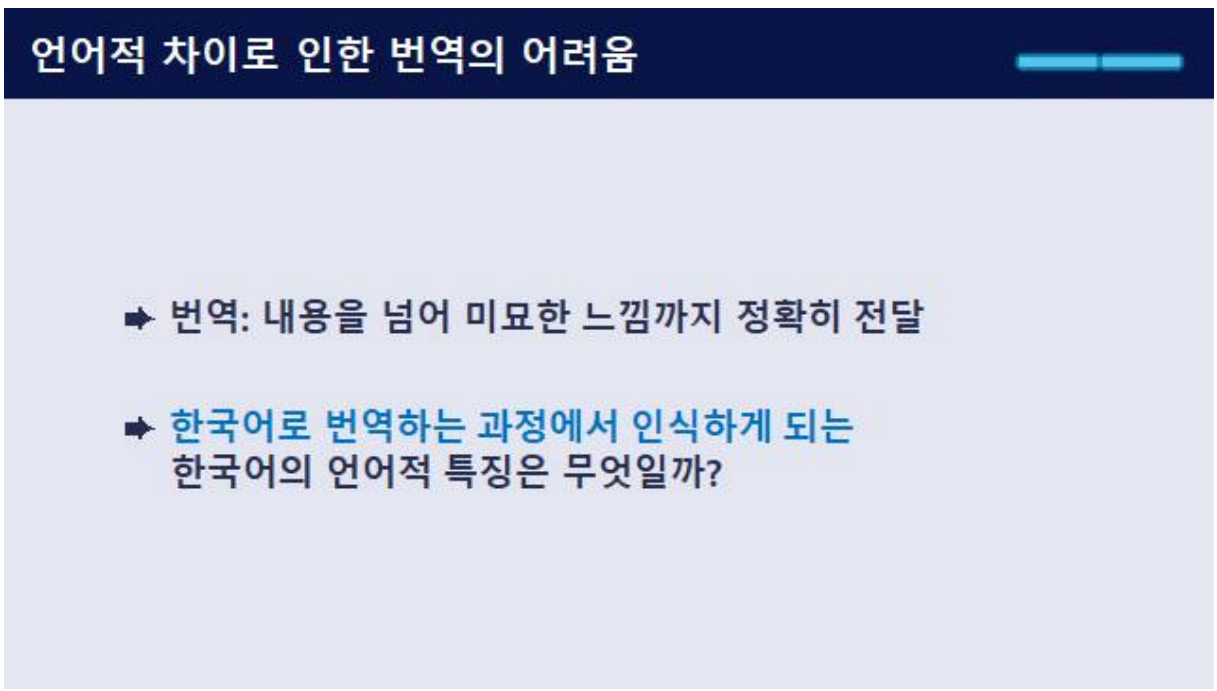
<기조발표>

국어학 연구의 다양성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와 인접 학문
(한국어교육, 한국어 번역)

허용(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

➧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differences that do not matter)의 경우에도 좀 더 상황에 적합한 고급의 한국어 표현

원문: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은 하루 책을 읽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역번역문: 통계청은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은 하루 책을 읽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 오류나 1:1 대응의 대조언어학적 관점을 넘어선 또 다른 접근: 언어 유연성 필요(번역의 어려움)

언어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

① 기계 번역(한국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 한국어의 특징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yNHpVoulpU

원문(영어):
Hi, I'm a huge fan of yours, and I'm looking forward to your next release. Take care!

기계 번역문(구글):
안녕, 나는 너의 큰 팬이고, 너의 다음 번 릴리스를 기대하고 있다. 조심해!

➧ 높임법 & 어휘의 문제

언어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

② 긴 관형사절 주어

원문(한국어)

:이제 [중년이 되어 한 가정의 아빠, 엄마가 된] 소년소녀들이 자녀들의 고사리 손을 잡고 이 공원을 찾는다.

번역문(중국어)

: 很多中年父母都带着年幼的儿女来这里参观学习。

➡ 논리적 모순으로 '소년소녀'대신 '중년 부모'를 주어로

➡ 한국어 원문의 느낌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언어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

1.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가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생은 게임에 빠졌다가 자기의 시험성적에 충격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

2.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아름다운 여행지로 꼽을 수 있는 제주도는 매년 찾아오는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제주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아름다운 여행지로 꼽힌다. 제주도는 매년 찾아오는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언어적 차이로 인한 번역의 어려움(수식어 + 피수식어)' 논리적으로 무엇이 문제?

가. 키가 크는 우유
나.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
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바지
라. 네가 먹은 그릇은 네가 닦아라.
마. 어제 먹은 식당은 아주 비싸다.
바. 살 돈도 없으면서 멀 그렇게 보니?
사. (이 꽃씨 좀 심어 줘.) 알았어. 심을 삽 좀 갖다 줘.
아. 속죄 받을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것도 일본 문화의 특성이다.

< '이(理)의 한국, 법(法)의 일본, 중앙일보', 2019. 7. 24>

→ 영어와 같이 문법성이 강한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 오류 문장, 번역 어려움
→ 화법성이 강한 한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표현

➡ 한국어는 수식어와 수식을 받는 말 사이에 의미-화용적 관계가 언어 외적 배경 지식 등 '성립 가능한 연관성'이 상정되면 문장은 이루어진다.

<동과 서>

명사로 세상을 보는 서양인

VS

동사로 세상을 보는 동양인

(1) 정보(사실) 중심 언어 VS. 관계(상황) 중심 언어

정보: 밖에 비가 온다.

영어: "it's raining outside." (내용 전달에 초점)

한국어: "밖에 비 와." "밖에 비가 옵니다." (내용+대화 당사자 간의 관계)

"우리가 언제 반말하는 사이였나?" (높임법: 내용 외적 요소가 언어 내용을 지배)

(1) 정보(사실) 중심 언어 VS 관계(상황) 중심 언어

<인간 언어들이 가지는 특별한 구조> (2013년 9월 26일)

인간의 언어에는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의 경우 같은 종의 동물들은 같은 신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역시 눈물과 웃음은 보편적으로 슬픔과 기쁨을 나타내지만, 언어만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언어들이 가능한 언어 구조 중 특정한 몇 가지 구조에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셉 그린버그는 2천 개가 넘는 언어를 분석한 후 거의 모든 언어에서 주어(Subject)는 목적어(Object)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동사(verb)와 목적어(O)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언어는 크게 영어와 같이 동사가 먼저 나타나는 SVO 언어와 일본어와 같이 목적어가 먼저 나타나는 SOV 언어로 나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알려주는 조사(markers)는 SOV 언어에서 훨씬 많이 나타나며 SVO 언어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어의 'The girl kicks ball.'은 우리말로 '소녀가 공을 찬다.'와 같이 표현되며 추가적인 품사가 있어야 합니다.

1. 정보(사실) 중심 언어 VS 관계(상황) 중심 언어

지난 7월 심리과학(Psychological Science)지에는 이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MIT의 테드 깁슨과 그의 연구팀은 이러한 차이가 주어와 목적어의 분명한 구분을 위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주어와 목적어가 충분히 떨어져 있어 혼동의 염려가 적은 SVO 언어에서는 부가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지만, 주어와 목적어가 연달아 등장하는 SOV 언어에서는 이를 분명히 나타낼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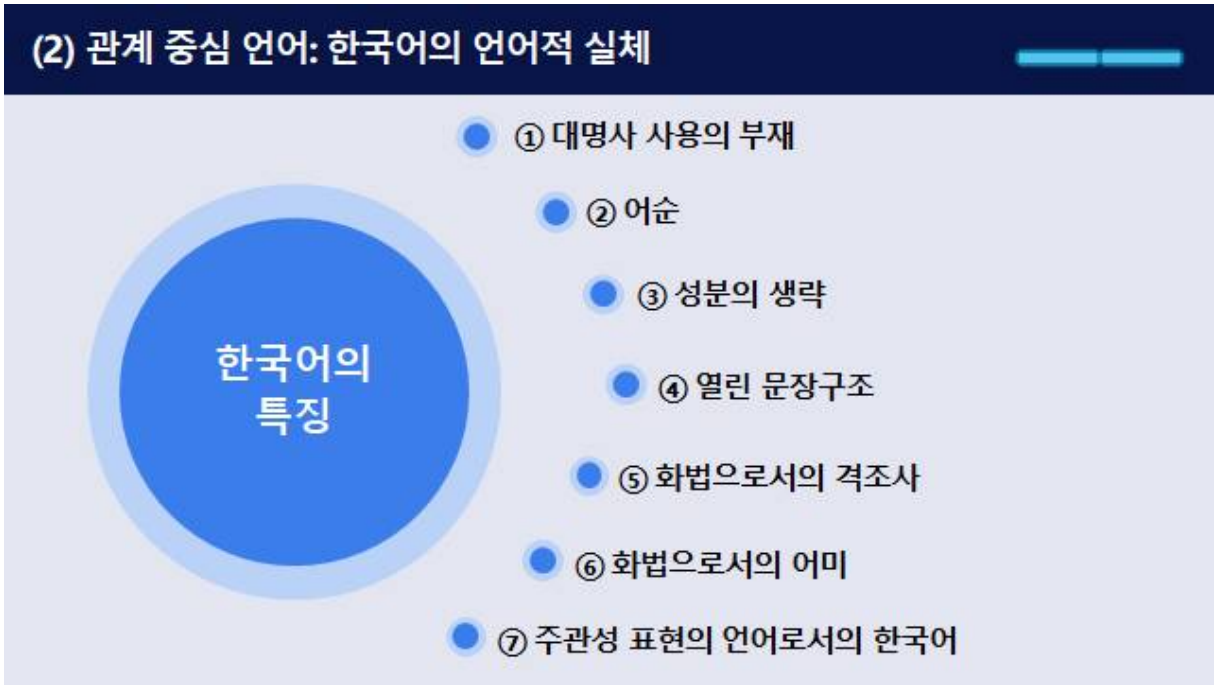
이를 보이기 위해 이들은 기발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소녀가 공을 찬다.'는 문장을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동작으로만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녀, 공, 찬다는 행동의 순서로 이를 묘사했습니다. 즉 이들은 SOV의 순서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찬다'는 행동에서 주어가 소녀이고 목적어가 공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실험에서 이들은 '소녀가 소년을 찬다.'는 문장을 역시 신체동작으로만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찬다'는 행동의 주어로는 소녀와 소년이 모두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이 실험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소녀를 묘사한 후 찬다는 행동을 나타냈고, 그 다음 소년을 묘사했습니다. 곧 SVO의 순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SVO 언어인 영어사용자들에게만이 아니라, SOV 언어인 한국어와 일본어 사용자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조사의 사용이 SOV 언어에만 나타나는 이유가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는 가설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줍니다.

1. 정보(내용) 중심 언어 VS 관계(상황) 중심 언어

그렇다면 왜 SVO 언어에 비해 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SOV 언어가 지구상에는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깁슨은 여기에 대해, 실험에서와 같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SOV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설명은 곧바로 왜 인간은 SOV를 선호하는가 하는 새로운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왜 일부 SOV 언어에서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SVO 언어에서는 조사가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도 남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Hartshorne 2013)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① 대명사 사용의 부재

할머니는 고향이 이북이십니다. 할머니는 함경도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중학교를 마치실 때쯤 전쟁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스무 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시어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할머니는 가끔씩 고향의 부모 형제들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시지 못하셨습니다.

☛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대명사를 사용할 자리임에도 한국어에서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② 어순

❶ 대화의 특징: 양방향성이어서 수정이 가능하고 서로 공유하는 부분은 생략도 가능

❷ 자유 어순: 일정한 순서가 있다기보다는 대화 상황에 따라 정보를 이어가면 된다.

예: 가. 철수가 영희를 좋아해. → 영희를 철수가 좋아해.
나. 철수가 그 사과 먹었어. → 그 사과는 철수가 먹었어.
다. 우리 반에서 철수가 가장 키가 커. → 키가 크기는 우리 반에서 철수가 제일이지.
라. 글쎄, 그 집 사위를 영수로 하겠다 하네, 고모네가.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③ 성분의 생략

❷ 화법적인 한국어: 생략 가능

엄마: ∅ 숙제 다 했니?
아이: 응, ∅ ∅ 다 했어.
엄마: ∅ ∅ 끝까지 똑바로 다 한 거야?
아이: 응, ∅ 제대로 하느라고 ∅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 문법적 접근: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
▶ 화법적 접근: 대화맥락으로 볼 때 그 자체로 충분한 문장(상황에 따른 생략)
➨ 한국어에서의 문장 요소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이고 선택적 요소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은 두 언어가 교차하는 현장(번역, 한국어교육)에서 이해의 어려움

<진달래꽃>

(김소월)

ㅁ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ㅇ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 진달래꽃
ㅇ 아름 따다 ㅁ 가실 길에 ㅇ 뿌리오리다.

ㅁ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ㅁ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ㅁ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ㅇ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이 시에 주어를 넣는다면 어떨까?**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④ 계층적 구조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야."

➨ 한국어는 일직선의 구조가 아니라 '주제+서술'의 계층적 구조

┌ 층위1(주제): 그 사람은
└ 층위2(서술): 아들이 의사야.

➨ '주어: 아들, 서술어: 의사야'로 분석하는 것과는 다르다.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④ 계층적 구조

"오늘 나 영화 볼 거야."의 의미 구조는?

1) 문법적 분석
오늘(부사어), 나(주어), 영화(목적어), 볼 거야(서술어)
2) 화법적 분석
오늘(주제), 나 영화 볼 거야(서술)

➨ 1)보다는 2)의 분석이 한국어 문장의 의미 구조 분석에 더 적합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⑤ 열린 통사 구조

▶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 어순의 도치에도 문장이 된다는 것은 통사 구조가 열려 있다는 의미, 문법적 결속력이 약함을 의미.

예: 가. ⌈필요한 것 사 오세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나. ⌈나는 아직 살 만합니다.
⌊세상은 아직 살 만합니다.

➨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문장구조이지만 내적으로는 다른 문장구조

가. 나는 청첩장을 보낸 친구에게 축의금을 보냈다.
나. 나는 청첩장을 보낸 친구에게 확인 메일도 보냈다.

☞ '청첩장을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⑥ 화법으로서의 격조사

- 한국어에서는 '격'도 문법적이라기보다는 화법적이다.
- '이/가', '을/를'은 문장구조(주격, 목적격)를 규정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 격조사로 인해 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 나ø 너ø 사랑해.

➡격조사 없이도 격을 알 수 있는 것(대화 중심의 언어)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⑥ 화법으로서의 격조사

• 영어

Here in this country, it does not snow so much as in your country.

• 한국어

이 지역은 당신의 고향(에서 X)만큼 눈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in'이 필수, 한국어에서는 '에서만큼'은 이상.(한국어 문법의 화법성)

예: ① 나ø 너ø 사랑해.

②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밤에 늦게 자는 것[은] 좋지 않다.

③ [정경화[가] 금빛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나왔다.
| = (금빛 드레스를 입은) 정경화[가] 무대 위로 나왔다.
[정경화[는] 금빛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나왔다.
[= (무대 위로 나온) 정경화[는] 금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④ [철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철수[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영수는 안다.

⑤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취미가 같기 때문이다.

⑥ [달[은]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달[이]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말이다.

⑦ [난 떡[을] 먹고 싶어.
[난 떡[이] 먹고 싶어.

⑧ [네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네가 공부를 잘해야 우리[가] 행복해진다.

⑨ 너 지금 어디야? 난(=나는) 강남역. 난(=나[는]) 담[이] 강남역이야.

⑩ 너 술[이] 세구나.(You, Alcohol is strong.)

▶ 한국어에는 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문법적 격을 넘어서는 화법적 표현들이 존재한다.

➡ 한국어 조사 교육의 중요성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⑦ 화법으로서의 어미

① 한국어에는 왜 어미가 많을까? 어미는 화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

② 문장을 문법적 장치(예: 어순 도치)가 아닌 화법적 요소(의문형/명령형/청유형 종결어미)로 구분.

③ 대화 상대의 존재에 따라 어미가 달라진다는 화법적 내용을 문법에 포함

④ 영어 접속사에 해당하는 연결어미의 다양한 느낌(-니까, -어서)

⑤ 장르에 따른 문체의 변이

- 설명문, 논설문: '해라/하라'체
- 연설문: '-습니다'체
- 동화 번역: '해요'체('옛날에 어떤 소녀가 살았어요.')(원문에 없는 표현)

⑥ 문법적 어미와 화법적 어미의 차이

▶ 문법적 언어들은 문법적 요인(주어의 인칭과 수, 문법성)에 의한 어미 변화

예: 독일어	한국어
Ich gehe.	나는 간다.
Du gehst.	너는 간다.
Er geht.	그는 간다.
Sie gehen.	그들은 간다.

▶ 한국어의 어미 변화는 문법과 무관. 의미와 상황에 따른 변화

예: 과자 먹<u>어도</u> 돼?

과자 먹<u>으면</u> 안 돼?

과자 먹<u>지</u> 마.

과자 먹<u>고</u> 싶어.

다양한 어미: 영어와 같은 언어에도 아래와 같이 의문형 표시 요소가 많을까?

예: 갑니까?	우리말글학회입니까?
갈까요?	우리말글학회일까요?
갈래요?	-
가지요?	우리말글학회이지요?
가는 거지요?	우리말글학회인 거지요?
가겠습니까?	(우리말글학회이겠습니까?)

☛ 한국어에는 왜 이렇게 어미들이 많을까?

➡ 한국어의 어미 교육의 중요성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⑧ 주관성 표현의 언어로서의 한국어

▶ 언어의 객관성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것은 '문법'

▶ '화법'은 화자의 주관성을 표현하는 데 적합

▶ "His son is a doctor."을 한국어로 옮기면?
① (그 사람 아들은 뭐해?) 그 사람 아들은 의사야.

② (그 사람은 아들/딸이 의사야?) 그 사람 아들이 의사야.

③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잘난 체해?)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야.

(2) 관계 중심 언어: 한국어의 언어적 실체

⑧ 주관성 표현의 언어로서의 한국어

☞ 다음의 문장들의 차이는 어디에 기인하는가?

❶ 가. 밥 먹었냐고?
나. 밥 먹었다면서 (왜 그래)?
다. 밥 먹었다니까!
라. 나도 그렇게 비싼 밥 먹어 봤거든.
마. 밥 먹었잖아? (왜 또 달라고 해?)

❷ 가. 떠났다.
나. 떠나 버렸다.
다. 떠나 버리고 말았다.

⑧ 주관성 표현의 언어로서의 한국어

▶ 위의 표현들은 감정 표현의 차이
▶ 모든 언어가 이러한 표현이 언어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 문법 중심의 언어는 언어의 객관성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고,
화법 중심의 언어는 화자의 주관성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언어이다.

➡ 주관적 감정이 표현 속에 묻히는 언어 (영어) **vs** 주관적 감정이 표현에 드러나는 언어 (한국어)

3. 결론

-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어학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
- 통번역- 모국어와 외국어(한국어)의 두 언어가 접촉하고 교류하는 현장에서의 작업
- 한국어교육 - 기존의 모국어에 대한 의식에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추가적으로 갖게 되는 것(한국어라는 새로운 '랑그'를 갖게 되는 것)
- 국어학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인접 학문(번역, 한국어교육)과의 상호 발전적 관계

☞ 한국어다운 새로운 '랑그'란 무엇일까?

관계 중심 언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자각 필요

감사합니다.

<기조발표>

국문학 연구의 다양성

서경석(한양대학교)

<국어학/(한)국어교육>

중국인 학습자의 중복자음 연음 오류 분석
-최적성이론을 바탕으로

왕신(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연음현상을 습득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발음 오류를 최적성이론(Optimilatiy Theory; Prince and Smolensky 1993, Machrthy and Prince 1995)을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이 연음규칙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음운 제약의 유형을 알아보는 것에 있다.[1)]

한국어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어두 음절일 때는 초성 음가 없이 모음으로 발음되지만, 종성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때는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연음(連音)이라고 한다.[2)] 연음현상은 말할이의 의도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특정한 음운론적 조건만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에서 'VC.V'와 같은 음절구조를 'VC.CV'의 형태로 발음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즉 선행 음절의 종성이 연음규칙이 적용되어서 후행 음절의 초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선행 음절의 종성을 남긴 채 후행 음절의 초성에 한 번 더 삽입하여 중복자음처럼 발음하는 것이다. 그 예로, '문을→*[문늘], 안에→*[안네], 도서관은→*[도서관는](양순임, 2007:97)', '흑이→*[흑기]/[흑끼](윤은경, 2017:95), '반응→*[반능]' 등을 들 수 있다.[3)]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중복자음 오류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한국어 종성에 위치할 수 있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의 자음 중 치조 비음 [ㄴ]만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해서 음절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최적성이론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화에서빈번하게 나타나는 중복자음 연음 오류 발음에 작용하는 제약의 유형과 그 제약들의 위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론적으로 최적성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구조제약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4)] 이어서 한국어의 연음현상에 작용하는 음절구조 제약과 충실성 제약의 유형 및 위계

---

1) 본 연구에서는 '연음현상, 연음규칙' 용어를 혼용할 것이다.

2) 양순임(2009:172~173)에 따르면 "뒤따르는 형태소 첫소리가 모음이라도 형식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아닐 경우 연음되지 않는다. /밭이랑/에서 '-이랑'이 조사일 경우 연음되고 구개음화하여 [바치랑]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음소 배열이 같아도 '이랑'아 명사일 경우 연음되지 않고, 음절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 규칙을 거쳐[반니랑]으로 된다. /값이/에서 '-이'가 조사이므로 /ㅅ/가 연음되지만, /값있다/에서 '있-'은 어간이므로 /ㅅ/가 연음되지 않고 겹자음 탈락 규칙이 적용된다. /값있다/[가빋따], /밭이랑/[반니랑]의 음절 말음이 연음되지 않는 것은 뒤 말이 실질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실질형태소 앞'이라는 형태론적 조건은 '휴지 앞'이라는 음운론적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결국 자음이나 휴지가 뒤따를 경우 연음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말이 빨라지면 음절 사이 휴지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연음이 일어나는 범위 역시 유동적이 된다. 실례로 /논이랑/에서 '이랑'이 명사이든 조사이든 [노니랑]으로 /논의/의 '의'가 조사이든 '논의(論議)'이든 [노늬] 혹은 [노늬]로 발음되는 것과 같이 음절 사이의 휴지 적용 여부에 따라 연음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반응→*[반능]'은 연구자가 실제로 학생에게 들은 발음이다.

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의 중국인 학습자의 연음현상에 대한 연구는 먼저 음절구조 차이에 의해 오류 분석한 연구로는 윤영해(2007, 2008), 백경미・김태경(2014) 등이 있다. 윤영해(2007)에서는 지배음운론적인 관점에서 중국어의 음절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국어는 음절말 빈핵을 인정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나 영어와 달리 자음으로 끝나는 언어가 아니라 반드시 모음으로 끝나야 하는 언어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자음으로 끝나 음절말 빈핵을 인정하는 한국어를 학습하게 되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단어를 중국어의 음절구조에 맞게 발음하려는 경향 때문에 받침을 발음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윤영해(2008)에 의하면 음절말이라는 환경이 같은 /o/의 경우 중국인들이 발음할 때 다른 음과 달리 발음하는 이유는 중국어에서 어말에 올 수 있는 /n/과 /ng/을 모음과 함께 인식하기 때문에 음절말에 있지만 발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구조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오류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백경미・김태경(2014)는 100명의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자발화를 수집하고, 음절구조상 위치와 인접음의 종류에 따라 어떤 자음이 주로 탈락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음 탈락의 빈도는 모음 형태소 앞에서는 비음이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작년에→*[자녀에]처럼 드물게 관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연음 오류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는 양순임(2006), 윤은경(2017) 등이 있다. 양순임(2006)은 산출 실험 연구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종성 발음을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비음 종성인 /ㄴ, ㅇ/는 선행 모음을 비음화하며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앞에 백경미・김태경(2014)의 결과와 상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은경(2017)은 지각 실험 연구로 한국어 종성에 위치할 수 있는 7개의 자음 중 연구개 폐쇄음 [ㄱ]만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화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 중 한국인 청자들이 듣기에 'V.CV'와 같은 개음절이 [VC.CV]처럼 종성이 삽입된 것으로 지각되거나, 'VC.V' 형태가 [VC.CV]와 같이 종성이 삽입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오류의 원인을 '음의 길이'로 보고, 음향 단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VC.V'나 'V.CV'의 음절구조와 형태와 상관없이 연구개 폐쇄음 [ㄱ]을 조음할 때 폐쇄음의 폐쇄구간을 길게 하면 한국인 청자들은 이러한 음들을 듣고 폐쇄음 종성 하나가 더 삽입된 것으로 지각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중복자음 오류가 일어난 이유가 폐쇄음의 폐쇄구간을 길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양순임(2007)에서는 중국인 1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연음규칙이 적용될 때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에 해당 자음을 하나 더 첨가하여 중복자음으로 발음하는 오류율이 가장 많았음을 지적하였다. 허용(2012)에서는 음운규칙 전반에 대한 오류 양상을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 오류는 학습자 모국어에 관계없이 언어보편적인 자연성의 문제와 한국어 음운규칙이 갖는 음운론적 특성에서 야기된다고 보았다.[5] 그 중 중국어권 학습자의 오류 난이도 중에 언어보편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연음규칙은 낮은 오류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민희(2012)에서는 연음현상 오류에 대해서 개별 언어의 특징에 대한 차이를 제약 설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적성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최적성이론을 적용해 본 결과, 한국어에서의 연음은 기본적인 제약 및 순서로 바로 원하는 최적형 도출이 가

4) 본 연구에서 말하는 '중국어'는 Standard Chinese(SC)를 가리킨다.

5) 연음현상이 자연성을 갖는 음운현상이라는 것은 연음현상이 자연 언어의 거의 모든 언어에 적용된다는 언어학적 '원리(principle)'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음운론의 가장 보편적인 원리 중의 하나인 최대초성원리(Maximum Onset Principle)가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tata]와 같은 말은 어느 언어에서나 두 번째 [t]를 [tat.a]와 같이 선행 음절의 말음에 두기보다는 [ta.ta]와 같이 후행 음절의 두음(onset)에 둔다. 다시 말해, 두 모음 사이에 자음이 있을 경우, 그 자음을 선행음절의 말음으로 발음하기보다는 후행 음절의 두음으로 발음하는 언어보편적 원리이다. 따라서 연음현상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모든 언어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가장 습득하기 쉬운 음운현상의 하나가 된다(허용, 2012).

능하였으나 중국어의 경우 한국어와 동일한 제약 및 순서를 적용하면 원하지 않는 최적형이 도출되었다. 이에 중국어의 음절 특징을 반영하여 앞 음절의 운미가 뒤 음절로 이동하지 않는 제약과 비음 운미와 뒤 음절 모음이 연결될 때 비음 운미가 탈락하는 제약을 추가하여 적용한 결과 원하는 최적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해진 제약 및 순위를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에 적용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연음 오류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에 적용한 제약 및 순서는 한국어: Peak 》 Max-IO, Dep-IO, Ident-IO(F) 》 Onset, Nocoda, 중국어: Peak 》 Align-L 》 Del-N(N.V) 》 Max-IO, Dep-IO, Ident-IO(F) 》 Onset, Nocoda와 같이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중국어 온음절만 다루었을 뿐, 약음절과 연결될 때 어떠한 제약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음규칙은 많은 논의에서 학습자들이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규칙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에 비해 발음 오류는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연음규칙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복자음 오류 사례에 대해 OT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는 형태소 내와 형태소 간으로,[6] 중국어는 온음절과 약음절로 나눠서 연음규칙이 적용될 때 작용하는 음운 제약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구조에 관한 논의

한국어 음절음 초성(onset), 중성(nucleus), 종성(coda)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성과 종성의 자이레는 자음이 오고, 중성의 자리에는 모음만이 올 수 있다. 자음이 없이는 음절을 이룰 수 있지만 모음이 없이는 음절을 이룰 수 없다. 한국어에서 가능한 음절구조는 V, CV, VC, CVC 네 개뿐이다(허용 외, 2005:115).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음절 끝 종성 자음에 대해 유표적인 음절말 장애음을 허용하는 CVC 체계의 폐음절 구조이고, 중국어는 음절 끝에 /n/, /ŋ/만을 허용하는 CV 체계의 개음절 구조이다. 하지만 중국어의 자음 운미 /n/과 /ŋ/는 음운변동의 측면에서는 음절말 자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두 언어의 음절 구조 제약 (syllable structure constraint)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특히 음절말 자음이 중국어에는 /n/과 /ŋ/의 두 개뿐인데 반해, 한국어에는 7개의 자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음절수가 많고 음운변동 역시 복잡다양하다(강식진2010).

한국어와 중국어는 음소의 분포, 음절의 구조, 음소 결합의 제약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음운변동에도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상의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가장 빈번한 오류 중의 하나가 음절말 자음의 발음이다.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 'ㅂ/p/', 'ㄷ/t/', 'ㄱ/k/', 'ㅁ/m/', 'ㄴ/n/', 'ㅇ/ŋ/', 'ㄹ/l/' 등 7개의 자음 중 중국어에도 있는 'ㄴ/n/', 'ㅇ/ŋ/'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발음은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중국인 학습자 이들 발음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거나, /n/이나 /ŋ/으로 교체하여 발음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배음운론적으로 중국어의 음절 구조가 음절말 빈핵을 인정하는 언어가 아닌,[7] 즉 중국어가 한국어나 영어와 같은 장애음으로 음절이 끝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이러한 음절 구조 때문에 야기되는 다른 오류는 종성 자음 다음에 모음으로 사작하는 조사나 어미, 혹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올 때의 종성 자음의 발음이다. 한국어에서는 모음 사이에 위치한 자음은 반드시 연음되어 발음하게 되지만, 강식진(2010), 양순임(2006) 등 많은 연구에서 중국어인 학습자는 한국어를 음절말 빈핵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어 음절 구조에 맞게 자음을 생략하고 모음만 발음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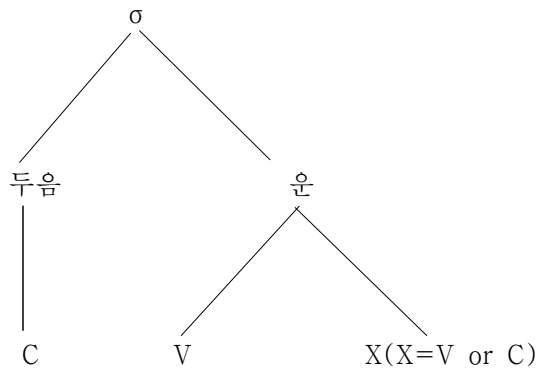
6) 본 연구에서는 형식형태소에 대해서만 다룰 것임을 밝혀 둔다.
7) 지배음운론을 통한 음절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선정(2003)을 참조할 것.

중국어 음절구조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SC 음절 구조의 전통적 분석으로 현대 중국어의 음절 구조는 (C)(V)V{(V)/(C)}로 나타낼 수 있다.[8)9)] 선택적 요소인 첫 자음을 성모(声母)라고 하고 나머지 운모라고 한다. 중국어 음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음이 한 개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모음을 주요모음이라고 한다. 모음은 최대 세 개까지 올 수 있다. 그 경우 가운데 있는 모음이 주요모음이다. 주요모음 앞에 오는 모음을 개음(介音)이라고 한다. 주요모음 뒤 즉 음절의 꼬리 부분에 오는 모음 또는 자음을 운미(韵尾)라고 한다. 개음과 주요모음을 운두(韵头)와 운복(韵腹)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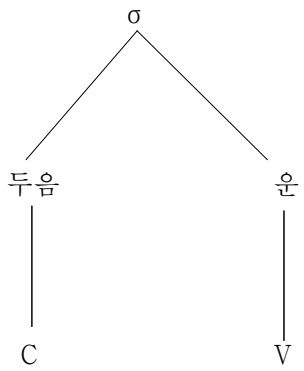
일반 언어학에서는 세계 언어의 가장 보편적인 음절 구조로 두음+운(운=핵음+말음)으로 보고 있다. 뚜안무(2003:116, Duanmu 2000:81)는 일찍이 중국어에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 뚜안무(2000)의 음절 구조 초기 이론

a. 온음절



b. 약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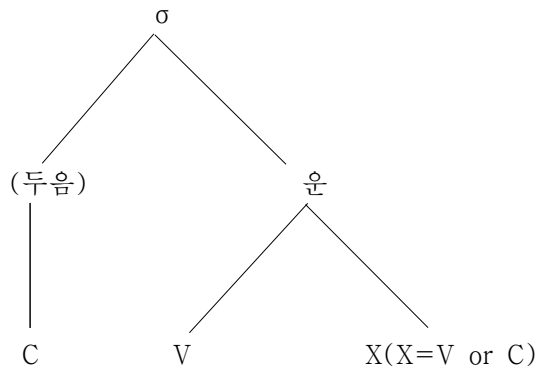
여기서 온음절(full syllable)은 강세 또는 성조가 있는 음절이고 약음절(weak syllable)은 강세와 성조가 없는 경성 음절을 말한다. 이 두 음절의 차이는 말음의 존재 여부이다. 또 SC의 모든 음절은 두음을 가진다고 보는 것도 새로운 시작이다. 뚜안무(Duanmu 2000:82)는 鹅처럼 소위 영성모를 가진 음절을 영두음이라고 부르고, 이들은 [ŋ ɣ ʔ ɦ(성문반찰음)]등의 두음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했다.

뚜안무의 초기 이론은 2007년에 약간 수정된다. 음절은 두음과 운으로 구성되는 점은 동일하나 두음을 필수 요소가 아닌 선택 요소로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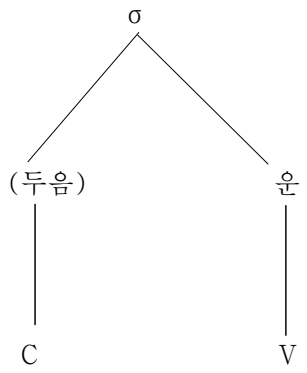
8) 표준 중국어 음절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엄익상(2012)을 재인용하였음.
9) { / }는 둘 중 하나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엄익상, 2012:64).

2) 뚜안무(2007:82-84)의 음절 구조 수정 이론

a. 온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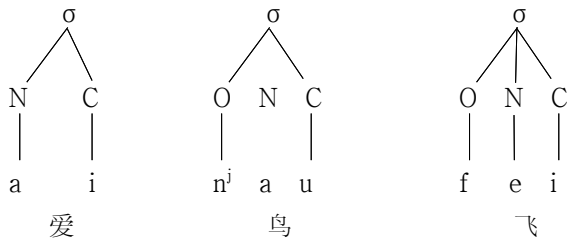


b. 약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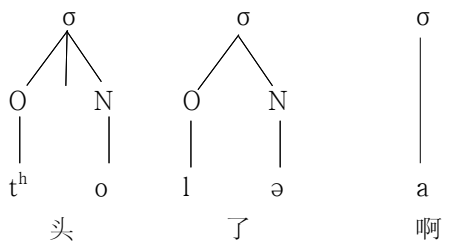


뚜안무는 활음을 두음의 일부로 보아 음절 구조에서 두음과 함께 하나의 마디만 차지하지만, 린은 두음에 두 개의 마디를 허용하고 있다. 다음은 린 앤후이(2010:169)가 제시한 표준중국어의 다양한 음절 구조이다.

3) 뚜안무의 온음절 구조 예시



4) 뚜안무의 약음절 구조 예시



뚜안무의 말음에 대한 분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他 ta는 운미가 없는 개음절이고, 谈 tan 은 자음 운미가 있는 폐음절이다. 성조가 없는 약음절의 경우만 말음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는 영말음(zero cod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음절 구조 설명에서 첫 자음이 없는 음절을 영성모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정신에서 만든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SC의 재음절화는 형태소나 단어 경계를 넘어 적용되지 않는데 그것은 영성모 음절이 선행하는 음절의 말음 자음을 자신의 두음으로 재음절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성모 음절이 실제로

이미 두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음절화가 실현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린앤후이, 2010:176).[10]

영성모 약음절인 기능어(function word)는 길이가 짧은 경성인데 이 기능어가 둘째 음절에 올 때에는 중복이 뒤 음절에 걸쳐서 적용된다.[11] 영성모 경성 음절인 a(啊)는 SC의 감탄 표지인데, 선행하는 음절의 마지막 분절음이 비음, 고모음, 성절 자음일 때 그 분절음이 a의 두음 위치에 복사된다. 5)는 이러한 예를 나타낸다(린앤후이, 2010:264).

5) 영성모 약음절 a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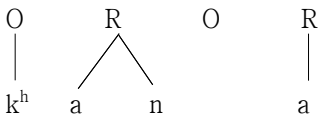
a. kàn a 看啊 봐! /kʰan/ /a/ → [kʰan] [na]

6) 중복II와 자음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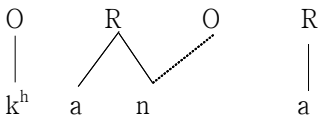
a: 제약: 음절은 반드시 두음을 가져야 한다.
규칙: 기능어에서 자음이나 고모음 뒤의 비어 있는 두음 위치에는 그 자음이나 고모음이 복사된다[12].

b: 예: [kʰan] [a]

c: 음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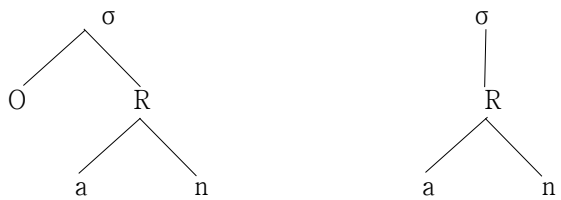
d:



(6c)는 (6b)의 음절화인데 감탄 표지 a(啊)의 두음 위치가 비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d)는

10) 영성모 음절은 음성적으로 그 자체에 두음이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b)가 아니라 (a)처럼 두음 위치를 갖는 것으로 표기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두음 위치는 비어있을 수도 있고 인접한 자음이나 고모음으로 채워질 수도 있으며 특정한 두음 변이음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SC는 영어와 달리 어말 분절음이 영성모인 것처럼 보이는 음절의 두음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 음절 구조 표현에 의하면 영성모인 것처럼 보이는 음절은 두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린앤후이, 2010:177-178).

a. b.



11) 기능어는 문법 기능을 담당하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내용어(content word)보다 구체적인 의미가 적다. 영어의 a, an, the, those와 같은 관사나 for, to, up, down과 같은 전치사, SC의 의문 표지인 ma(吗), ne(呢) 와 같은 조사가 기능어이다.

12) Chao(1968)는 이렇게 둘째 음절의 모음이 첫째 음절의 말음에 바로 이어지는 경우를 '연결(linking)'이라 불렀다. 연결의 결과로 둘째 음절의 [a]가 두음을 갖는 것 같은 청각 인상을 주게 되어, 위의 경우 [na]와 [ŋa]처럼 들린다. Duanmu(1990, 2000)에서는 연결이 중간 비음이 길어져 중복음이 되고 이는 첫째 음절의 말음과 둘째 음절의 두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보았다(San Duanmu, 2005:110)를 재인용하였음.

규칙이 적용되어 비음과 마지막 모음이 비어 있는 두음 위치로 확장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뚜안무(2000)에서 논의된 중국어 음절을 온음절과 약음절로 나누는 것으로 보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연음규칙을 적용할 때 영향을 받는 제약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최적성이론[13]

표준 생성음운론에서는 음운규칙이 중심을 이루어 이들 규칙간의 적용 순서 및 도출 과정이 중시되었다. 곧 하나의 음운규칙이 적용될 때마다 한 단계씩 변화가 일어나며 마지막 음운규칙이 적용된 후 최종 표면형이 도출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에서 그러한 도출 과정이 이루어질까 하는 지적됨에 따라 규칙이 없는 음운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적성이론이다.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 OT)은 Prince & Smolensky(1993)과 McCarthy & Prince(1993)에서 출력형에 관한 제약을 제시하면서 등장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규칙대신 표면의 적격성에 관한 제약들이 보편문법을 이루고 있으며 개별 언어의 문법은 이 제약들의 등급으로 이루어진다. 종래의 제약들은 절대로 위배될 수 없었으나 최적성이론에서의 제약들은 위배될 수 있다. 이들 제약은 언어 보편적이어서 모두 언어에 적용되며, 개별 언어의 차이는 이들 보편적인 제약들의 등급 차이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제약들은 지배 등급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적용되는 것이다.

최적성이론은 규칙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 이론들과 달리 제약과 등급으로 언어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최적성이론에서 전체적인 등급 위계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유표성 제약과 충실성 제약의 상호작용에 의해 분석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한국어 연음현상에 작용되는 제약과 이러한 제약들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연음규칙을 적용할 때 중복자음 연음 오류로 도출하는 과정 중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논하고자 한다.

4. 제약의 설정 및 분석

4.1. 제약의 설정

한국어의 경우 모든 단어들은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절핵이다. 항상 모음이 음절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14] 대부분의 언어는 모음이 음절핵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모음, 곧 음절핵은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자음이 음절핵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 타당하다. 음절핵에 관한 제약은 한국어에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언어에서도 위반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약은 단어와 음절을 형성할 때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제약을 어기게 되면 음절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서 더 이상의 논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1) Peak: 모든 음절은 음절핵을 가진다.

---

13) 최적성이론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조성문(1999, 2015)을 재인용하였음.
14) 예외적으로 영어, 러시아어 등은 자음이 음절핵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음절 구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음절초에 관한 제약이다. 음절핵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음절초이기 때문이다.[15] 이 제약은 모든 음절은 적어도 하나의 자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2) Onset: 음절은 자음으로 시작한다.

음절초에 관한 제약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음절말 제약이다. 이 제약은 음절은 자음으로 끝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제약이다. 일반 언어학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무표적인 음절의 구조가 CV이기 때문에 음절말에 자음이 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16] 한국어에서도 음절 구조의 결합 관계에서 음절초와 음절핵의 결합관계가 우선된다고 볼 때 이러한 제약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밥.이/를 발화할 때 [바.비]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이 제약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3) NoCoda: 음절은 자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또 필요한 제약은 두 개의 자음이 연속될 수 없다는 제약이다. 한국어는 어두 위치든 어말 위치든 자음이 연속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제약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4) *Complex: 음절음 가장자리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연속되어서는 안된다.[17]

다음으로는 입력형과 출력형 사이에 적용되는 충실성 제약이다.

(5) Faithfulness: 입력형에 있는 그대로 발음해라.

이 제약은 McCarthy & Prince(1995)에서 대응이론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Max-IO, Dep-IO, Ident-IO(F) 제시하고 있다.[18] 그러므로 이 충실성에 관련된 제약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6) 충실성 제약[19]

---

15) 허용・김선정(2006)에 의하면, 최대초성의 원리(Maximum Onset Principle)이란 “합법적으로 가능한 한 먼저 초성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음절꼬리를 만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모음 사이에 나타나는 자음은 첫 번째 음절의 음절꼬리보다는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된다는 범어적(universal)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16) 모든 언어는 CV 음절 구조를 갖지만 모든 언어가 V나 CVC 구조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 언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음절 유형은 CV음절이다. 조음과 지각의 측면에서 낮은 공명도와 높은 공명도로 구성된 CV 음절 연쇄 리듬은 말소리의 흐름에서 음절 경계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CV음절은 생성하기 쉽고 인지하기도 용이하다. 게다가 SC를 포함한 많은 언어에서 제한된 수의 자음만이 말음 위치에 허용되고 범언어적으로 말음 자음은 일부 조음 자질을 잃어 탈락되거나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린앤후이, 2010:174). 이진호(2014)에 따르면 언어 보편적인 경향을 보면 초성에는 자음이 오는 것이 더 무표적이고 종성에는 자음이 오지 않는 것이 더 무표적이다. 그래서 음절형 중 가장 보편적이면서 널리 나타나는 형태는 CV-형이다.

17) ‘닭이[달기]’와 같은 최적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제약이다.

18) 대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cCarthy & Prince(1995)를 참고할 것.

19) 실제 언어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기저형과 표면형 사이의 밀접성, 즉 ‘충실성(faithfulness)’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원인은 음성적, 음운-형태적(또는 통사-음운적) 이유에서 특정한 형태를 선호하고 다른 형태를 꺼리는 ‘유표성(markedness)’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화 같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유표성과 충실성에 대한 제약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유표성 제약은 입력부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출력부에만 적용되는 제약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충실성 제약은 입력부와 출력부 양쪽을 모두

ㄱ. Max-IO: 입력혀의 모든 분절음은 출력형에 대응소를 가져야 한다. (탈락 금지)
ㄴ. Dep-IO: 출력형의 모든 분절음은 입력형에 대응소가 있어야 한다. (삽입 금지)
ㄷ. Ident-IO(F): 입력형 [γF]를 가진 분절음은 출력형 대응소 역시 [γF] 있어야 한다.

4.2. 제약의 위계 설정 및 한국어 연음현상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1)에서 (6)까지의 제약들이 한국어 연음현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 예시를 통해서 제약들의 위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음절로 제약의 위계를 설정하려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Peak 제약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제약은 한국어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에서도 위반해서는 안 되는 제약이기 때문에 이 제약은 다른 어떤 제약보다도 상위에 위치시켜야 한다.

(7) Peak 》 다른 제약들

음절 구성 요소로서 음절핵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Onset과 NoCoda 제약인데 Hammond(1998)에서는 이 두 제약이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즉 이 두 제약은 어떤 것이 상위에 있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제약의 위계를 통한 음절구조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8> 세 가지 제약(Faithfulness, Onset, NoCoda)의 위계를 통한 음절구조의 유형

등급	유형
ㄱ. Faithfulness ≫ Onset, NoCoda	(C)V(C)[20]
ㄴ. Onset, NoCoda ≫ Faithfulness	CV
ㄷ. Onset ≫ Faithfulness ≫ NoCoda	CV(C)
ㄹ. NoCoda ≫ Faithfulness ≫ Onset	(C)V

한국어는 (C)V(C) 구조의 음절을 가진 언어이므로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유형 가운데 (ㄱ)에 속한다. 그에 따른 제약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8) Peak ≫ Faithfulness ≫ Onset, NoCoda

앞에서 언급한 대로 충실성 제약은 대응이론에서 제시한 제약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9) Peak ≫ Max-IO, Dep-IO, Ident-IO(F) ≫ Onset, NoCoda

그렇다면 과연 한국어 연음현상이 (9)과 같은 제약 위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실제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한 형태소 안에 연음규칙이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보아야 하므로 순수한 출력부 제약은 아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제약이 모두 출력부를 겨냥하는 기본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안상철, 2003:3).

20) 조성문(2015:52)에서는 두음(Onset)과 말음(Coda)을 구별하기 위해서 CVC 대신 OVC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CVC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표 9> '단어/tan.ʌ/' → [ta.nʌ]

/tan.ʌ/[21]	Peak	Max-IO	Dep-IO	Ident-Io	Onset	NoCoda
a. t.anʌ	*![22]				*	
b. ☞ ta.nʌ						
c. tan.ʌ					*	*
d. ta.ʌ		*!			*	
e. tan.nʌ			*!			*

앞에 제시한 제약들에 의하면, 출력형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표 9>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우선 후보a는 최상위 제약인 음절핵(Peak) 조건을 어기고 있으므로 더 이상 하위 제약의 준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후보d와 e는 입력형의 요소가 출력형에 대응소를 갖지 못하거나, 입력형에 없는 요소가 출력형에 삽입되어 있어 입력형의 충실성 제약을 위반한다. 후보c는 각각 음절두음과 음절말음 조건을 어겼다. 결과적으로 입력형에 충실하고 음절 구조제약도 안 어긴 후보b [ta.nʌ]가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표 9>의 경우는 입력형이 단일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형태소 경계는 없다. 다음으로 <표 10>처럼 형태소 간에, 즉 뒤에 형식형태소가 연결될 때 출력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음 산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0> '문+이/mun+i/' → [mu.ni] ("+"=형태소 경계, morpheme boundary)

/mun+i/	Peak	Max-IO	Dep-IO	Ident-Io	Onset	NoCoda
a. m.uni	*!				*	
b. ☞ mu.ni						
c. mun.i					*	*
d. mu.i		*!			*	
e. mun.ni			*!			*

위의 <표 2>과 <표 14>의 음 산출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형태소 경계가 음절화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한국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연음현상을 최적성 이론을 통해 제약을 적용하여 확인해 보았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 연음현상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제약들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다음 절에서 중국어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4.3. 중국어 학습자들의 중복자음 오류 분석

중국어도 (C)V(C)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논의한 기본적인 제약을 적용할 수 있

21) 본고의 관심은 종성 치조 비음인 [ㄴ]에 있고, 또 중국어 어말 위치에 [ㄴ, ㅇ]밖에 올 수 없음을 고려하여 한국어 종성에 위치할 수 있는 다른 6개의 음에 관한 예시들은 생략하도록 한다.

22) '.'=음절 경계)(syllable boundary)
'*'는 제약의 위반(violate)을 나타낸다.
'☞'는 최적형으로 선택되었음을 표시한다.
'!'는 결정적 위반을 표시한다.
'음영 표시'는 이미 그 앞의 상위제약을 어겨서 최적형 선택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제약 간의 실선은 두 제약 사이에 등급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점선을 두 제약 사이에등급의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다. 우선 ㄴ으로 끝나는 선행 음절이 뒤에 온음절이 연결될 때 음 산출 과정을 보도록 한다.

<표 15> '金额(jīn'é)'의 음 산출 과정

/tɕin.ə/	Peak	Max-IO	Dep-IO	Ident-IO	Onset	NoCoda
a. tɕ.inə	*!				*	
b. ☜ tɕi.nə						
c. tɕin.ə					*	
c. tɕi.ə		*!			*	*
d. tɕin.nə			*!			*

('☜'은 잘못된 후보형을 가리킨다)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앞에 제시한 제약들을 적용해서 도출한 결과는 실제 중국어 발음과 다르다. 그래서 중국어의 표준 발음이 도출하려면 위에 제시한 제약 외에 다른 제약이 추가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후행 음절이 온음절일 때 선행 음절의 말음이 후행 음절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제약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Align-L: 각 음절의 왼쪽 끝을 일치시켜야 한다.[23]

이 제약의 영향은 강력해야 나므로 제약의 상위에 위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제약 위계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eak 》 Align-L 》 Max-IO, Dep-IO, Ident-Io 》 Onset, NoCoda[24]

그러면 이 제약 위계를 적용하여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표 12> '金额(jīn'é)' → [tɕin.ə]

/tɕin.ə/[25]	Peak	Align-L	Max-IO	Dep-IO	Ident-IO	Onset	NoCoda
a. tɕ.inə	*!	*				*	
b. tɕi.nə		*!					
☞ c. tɕin.ə						*	*
c. tɕi.ə			*!			*	
d. tɕin.nə		*!		*			*

<표 12>에서 원하는 최적형이 선택되었다. 제약의 설정 및 위계 적용이 올바르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3) 이 제약은 McCarthy&Prince(1993)~(근거 제시할 것)
24) 본 연구에서는 심민희(2012)와 달리 제약을 적용하지 않고 최적형도 달리 선택되었다.
25) 본 연구에서는 심민희(2012), 욱아경(2018) 등 논문에서 적용한 Del-N(N.V)(앞 음절의 비음은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면 탈락되어야 한다) 제약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펙트로그램 제시)
왼쪽: 金额(jīn'é)
오른쪽: 鸡额(jī'é)'
비음이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

만약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후행 음절이 온음절이 연결될 때 적용했던 제약을 한국어 연음현상에 적용을 한다면 중복자음이 아니라 절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사례(반응*[반능])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출력형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양순임(2007)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인의 한국어의 연음현상 오류가 주로 중복자음과 관련되며 연음현상 오류 중에 해당 자음을 하나 더 첨가하여 중복자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그렇다면 중국어 중에 후행 음절이 약음절이 연결될 때 앞서 적용했던 제약들로 최적형이 도출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3> '难啊(nán'a)'→ [nan.a]

/nan.a/	Peak	Align-L	Max-IO	Dep-IO	Ident-IO	Onset	NoCoda
a. n.ana	*!					*	
b. na.na		*!					
☜ c. nan.a						*	*
d. na.a			*!			*	
e. nan.na		*!		*			*

<표 13>를 후행 음절이 온음절이 연결될 때 적용하는 제약을 적용했을 때 잘못된 후보형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보형 c가 잘못된 최적형으로 선택되므로 제약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원하는 후보형을 최적형으로 얻기 위해서는 추가할 유표성 제약은 2장에서 제시한 중국어의 음운규칙을 기반으로 비음 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약음절과 만나면 비음이 복사되는 중국어의 특징을 반영하는 제약을 추가하여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 추가할 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1) SSC-O: 선행하는 음절의 마지막 분절음이 ㄴ[n]일 때 그 분절음이 a의 두음 위치에 복사된다.(When the last segmental sound of the preceding syllable is [n], it is copied to the initial syllable(onset) after the segmental sound.)

최적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SSC-O 제약이 Align-L보다 상위에 위치시켜야 한다. 제약의 위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Peak 》 SSC-O 》 Align-L 》 Align-L, Dep-IO, Ident-Io 》 Onset, NoCoda

이 제약 위계를 반영하여 다시 확인해 보자.

<표 14> '难啊(nán'a)' → /nan.na/

/nan.a/	Peak	SSC-O	Align-L	Max-IO	Dep-IO	Ident-IO	Onset	NoCoda
a. n.ana	*!	*						
b. na.na		*!	*					
c. nan.a		*!					*	*
d. na.a		*!		*			*	
☞ e. nan.na			*		*			*

(12)의 제약 위계를 한국어 연음현상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5> '단어/tan.ʌ/' → *[tan.nʌ]

/tan.ʌ/	Peak	SSC−O	Align−L	Max−IO	Dep−IO	Ident−IO	Onset	NoCoda
a. t.anʌ	*!	*					*	
b. ta.nʌ		*!	*					
c. tan.ʌ		*!					*	*
d. ta.ʌ		*!		*!			*	
☞ e. tan.nʌ			*		*			*

<표 16> '문+이/mun+i/' → *[mun.ni] ("+"=형태소 경계, morpheme boundary)

/mun+i/	Peak	SSC−O	Align−L	Max−IO	Dep−IO	Ident−IO	Onset	NoCoda
a. m.uni	*!	*					*	
b. mu.ni		*!	*					
c. mun.i		*!					*	*
d. mu.i		*!		*!			*	
☞ e. mun.ni			*		*			*

4. 결론

…

참고문헌

1. 단행본

린 앤후이(2010), 『중국어 말소리』, 역락.
이진호(2014),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안상철(2003), 『최적성이론의 언어 분석』, 한국문화사.
양순임(2009), 『말소리』, 박이정.
엄익상(2012), 『중국어 음운론과 응용, 엄익상』, 한국문화사.
조성문(2015), 『최적성이론의 국어 음운현상 분석』, 한국문화사.
허용 외(201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허용・김선정(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박이정.
San Duanmu(2005), The Phonology of Standard Chinese(2nd ed.)(엄익상 외(2005) 옮김, 『표준 중국어 음운론 제2판』), 한국문화사.

2. 논문

김태경(2019), 「최적 이론에 의한 중간언어 고찰: 베트남이니 한국어 학습자의 /ㄹ/ 대치 현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80, 우리말글학회, 31-55쪽.
강식진(2010), 「중국어와 한국어의 분절음 음운변동 대조 연구」, 『중국학』, 36, 대한중국학회, 1-29쪽.
백경미・김태경(2014),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 나타난 자음 탈락 현상 연구」, 『국제어문』, 63, 국제어문학회, 257-281쪽.
심민희(2012), 「최적성이론에 의한 중국인 학습자의 연음 오류 분석」, 『어문학』, 115, 한국어문학회, 55-77쪽.
욱아경(2018), 「최적성이론에 의한 중국인 학습자의 음운현상과 관련된 한국어 발음 오류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은경(2013), 「한국어 종성의 습득 연구를 위한 음성음운적 접근」, 『동아어문학』, 61, 동아어문학회, 421-442쪽.
(2017),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종성 삽입과 음의 길이에 대한 음성학적 고찰」, 『이중언어학』, 68, 이중언어학회, 93-117쪽.
윤영해(2007), 「중국어, 일본어 화자들의 중간언어 음운 연구-지배 음운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받침 발음을 중심으로」, 『언어와언어학』, 39, 언어연구소, 113-130쪽.
(2008), 「중간언어 음운연구를 바탕으로 한 발음교육의 효과 연구-중국인 화자들의 받침 발음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41-258쪽.
양순임(2007), 「연음규칙 적용에 따른 오류 분석-중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18-3호, 93-117쪽.
이현숙(2014),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재고(再考)-분절음 발음과 음절 구조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용봉인문논총』, 45, 인문학연구소, 139-164쪽.
조성문(1999), 「음절 구조제약과 등급의 설정」, 『한양어문』 17, 한국언어문화학회, 53-69쪽.
허 용(2012),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32쪽.
Chao Yuen-Ren(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중국인 학습자의 중복자음 연음 오류 분석(왕신)」에 대한 토론문

박은혜(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의 연음 규칙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나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가 빈번하게 오류를 보이는 음운 현상입니다. 특히 중국인, 베트남인, 일본인이 연음 현상 습득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보이며 한국어 음운 체계와 다른 모국어의 음운 체계가 오류의 원인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최적성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중복자음 연음 오류'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어의 음절 부류에 따른 제약 설정과 형태소 범주에 따른 제약 설정을 상이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어 연음 현상의 대상이 되는 7개의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치조 비음 /ㄴ/만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중국어의 운미에는 자음의 경우 /n/, /ŋ/만이 올 수 있지만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연음 현상의 대상이 되는 7개 자음에서 모두 동일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선행연구(윤은경; 2017)에도 받침 /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경우 중복 자음 오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출하신 제약이 동일한 환경 즉 말음이 /ㄴ/일 때에만 적용되는 제약인지 아니면 다른 받침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제약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온음절과 약음절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음절의 말음 차이'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표 9>에서 운미가 모음으로 끝나는 온음절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의 온음절과 약음절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셋째. Align-Left를 Del-N(N.V)보다 등급을 낮게 설정한 이유로 비운미 /n/ 뒤에 영성모 음절이 연결될 때 /n/이 탈락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lign-Left는 Del-N(N.V)보다 더 보편적인 언어 현상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더 높은 등급에 설정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개별 언어마다 등급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Del-N(N.V)가 더 높게 설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Align-Left 등급이 더 높게 설정되면 영성모의 자질이 사라진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최적성이론은 보편적인 제약의 등급을 통해 개별 언어의 특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한데 비음 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약음절과 만나면 비음이 복사되는 중국어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제약을 설정하셨습니다. 해당 제약이 중국어나 특정 언어에 국한된 제약인지 궁금합니다. 국한된 제약이라면 이 제약이 최적성이론의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섯째. 약음절이 허사와 실사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제약을 설정했습니다. 실사의 경우 온음절과 동일한 제약 설정을 통해 음운 현상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음절과 약음절로 구분해서 제약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음절의 형태에 따라 제약을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섯째. 약음절 뒤에 허사가 올 때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위해 형태 제약을 설정하셨습니다. 이 제약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2장 OT에 의한 제약 설정'에서 한국어 음운 체계에서 가능한 음절을 설정하기 위해 세 가지 제약에 대해 등급을 설정하셨습니다. 중국어의 음운 체계도 이와 같이 모든 음절을 포괄하는 제약

위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데 후행하는 형태소가 허사일 때 나타나는 음운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Onset 제약의 등급을 충실성 제약보다 높게 설정했습니다. <표 3>에 의하면 이럴 경우 가능한 음절은 OV(C)입니다. 중국어에 가능한 음절 구조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연음 현상은 세 가지 제약의 위계를 통한 음절구조의 유형을 전제로 음운 현상에 대한 제약 설정을 진행하셨는데 중국어는 이와 같은 전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같은 현상에 두 가지 제약 위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이는 과잉생산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한국어 자음동화 환경에서 실현되는 유아 발화 연구

노채환(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며

유아는 모국어 음운 체계 습득에서 문자적 정보의 인지를 하기 이전에 청각적 입력을 통해 언어음을 인지하고 습득해 간다. 즉, 문자를 배우기 전에 주변의 언어음 입력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이 단계에서 유아는 자신의 언어음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Hebb(1949)은 유아의 언어 학습이 청각적 인지를 개념화하는 소리와 의미 간의 연합이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아의 발화를 살펴보면 유아가 분절음 연쇄를 어떻게 인지하고 발화하는지를 알 수 있다. 언어보편적으로 유아들은 CV 단위를 기본으로 음절을 인식(이혜경, 2011)하는데 McCune & Vihman(2001)에서는 유아의 발화가 일반적으로 성인의 형태에 맞추어지지만 유아가 가지고 있는 음운론적 구조 판에 맞지 않는 경우에 말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소리의 변동을 보면 자음군 감축, 종말자음의 삭제, 비강세 음절의 삭제 등 주로 단순화 절차로서 음절구조를 CV 구조로 단순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단순화 절차는 모두 종성 위치에 자음이 오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노채환, 2016). 또한 이러한 단순화 절차 중 'cookie'를 'gege'로 발화하거나 'Rogers'를 'dada'과 같이 동일 음절 반복[1]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반복도 복잡한 음절을 단순화시켜 CV의 중첩으로 실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단순화 절차는 유아가 선호하는 보편적 음절 구조가 CV 구조임을 말해 준다. 이와 더불어 자음 연쇄가 일어나는 구조에서 어떻게 발화하는지를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

(1)a. 아빠, 집에 가자
b. 아빠. 밥 머그자, 머그자
c. 아빠, 여기 아느자, 나는 여기 안드고
d. 내가 머그는 거, 이거.

(1)의 예들은 생후 30개월 이후 유아[2]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발화이다. 특히 (1)의 b~d 까지의 예를 보면 유아들이 자음 연쇄의 환경에서 'ㅡ' 모음을 삽입[3]하여 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유아의 모음 삽입이 용언 활용의 경우로 한정되어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꽃입[꼰닙/꼬닙/꼬니]', '국물[굼물/구물/구무]', '밥만[밤만, 바만, 바마]'와 같이 체언의 경우에는 성인의 발음과 동일하게 발음하거나 종성 자음을 삭제하여 단순화한 발음으로 발화하는 것이다. 노채환(2016)에서는 유아 발화의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 체언이나 부사어 같이 언어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유아가 해당 어휘를 덩어리로 인식하여 하나의 단일어로 인지하고 출력하려고 하기

1) 이 예는 김진우(2001)에서 가져온 것이다.
2) 위 예들은 필자의 첫째 딸(30~40개월 월령기에 관찰)의 발화에서 발췌하였다. 동일한 발화 실수가 동일 월령의 다른 유아들에게서도 나타나는지 또래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자문 결과 비슷한 발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후 필자의 둘째 딸(36~40개월 월령기에 관찰)에게서도 동일 발화가 확인되었다. 이후 빈도수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두 딸 모두 초등학생 1학년까지는 모음을 삽입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3) 이러한 예들은 김태경(2009)에서도 이미 보고된 바 있다.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음운 연쇄에서의 어떤 작용이 아닌 종성 구조 인지 및 출력에서 단순화 절차로 종성 자음 삭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용언의 경우 어떤 고정된 형태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용언이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를 인지하고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온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여 이를 기초로 어간과 어미 연쇄를 자음 연쇄의 구조로 인식한 것이다.

김태경(2009)에서는 이러한 유아의 모음 삽입에 대해 한국어의 '-(으)' 계열 어미에 대한 형태적 지식이 개입된 형태적 오류라 하였다. 즉, 유아가 '-(으)며', '-(으)니까', '-(으)면서'와 같이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으'가 출현하는 '-(으)' 계열 어미와 다른 어미를 동일시하여 과잉일반화를 적용시켜 산출되는 발화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채환(2016)에서 유아의 경음화 발화를 분석하여 형태적 과잉일반화의 접근은 유아의 언어 습득 순서와 유아의 언어 생활에서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으)며'와 같은 문어적 표현은 유아의 발화에서 실현되는 어미가 아니며 '-(으)면서' 또한 30~40개월 월령의 유아가생산하는 문장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오히려 '-(으)' 계열 어미가 아닌 '-고', '-는' 등의 어미가 훨씬 많이 쓰인다. 그리고 이 때 나타나는 유아의 발화를 보면 [내가 머그고], [내가 머그는]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유아의 이러한 발화는 성인의 발화와 분명 차이를 보인다. 즉, 어간과 어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자음 연쇄에서 자음동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음동화가 아닌 매개모음의 삽입으로 자음 연쇄를 막고 보편적 음절 구조인 CV로 음운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이 용언 어간과 어미 결합을 중심으로 자음동화 환경에서 실현되는 유아 발화를 형태론적 오류가 아닌 보편적 음절구조의 실현으로 보고 음운론적 해석이 가능한 현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어의 자음동화

2.1.1 자음 강도에 따른 자음동화

용언 활용형에서 자음동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어간말 자음이 장애음이고 뒤따르는 어미가 비음이 경우에 비음동화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

(2)a. 밥을 먹는[멍능] 사람
b. 침을 뱉는[밴는] 사람
c. 신을 신는[신는] 아이

(2)의 a와 b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음절 종성이 장애음이고 이어지는 어미가 비음일 경우 비음동화가 일어난다. 반면 c에서 보는 것처럼 음절 종성이 비음이고 이어지는 어미도 비음일 경우에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허용(2004)에서는 이러한 비음동화가 한국에서 음소배열제약(phonotactic constraints)을 어기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면서 한국어 자음의 강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3) 자음의 강도[4)]
유음 < 비음 < 장애음

4) 한국어 자음의 강도는 이병근(1979:18)에서는 공명도 위계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방향은 (3)과 반대인데 이는 공명도에 따른 위계로 '유음 > 비음 > 순수자음'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허용(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 자음의 강도는 지배음운론(Goverment phonology)에서 제시하는 지배 관계에 따른 것이다. Harris(2002)는 분절음 연쇄는 지배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배 관계가 충복되는 경우 지배를 하는 분절음은 지배를 받는 분절음보다 약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5] 분절음 간의 지배 관계를 주장하는 지배음운론에서는 한국어의 음절이 두음과 음절핵이 연속하는 열린 음절 구조임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의 어간 말음에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4) '먹는'의 음절 생성

O	N	O	N		O	N	O	N
|	|	|	|		|	|	|	|
x	x	x	x	+	x	x	x	x
|	|	|			|	|	|	
m	ə	k			n	i	n	

위의 구조를 보면 용언 어간 '먹-'에 어미 '-는'이 결합되는 구조이다. 위의 구조를 보면 어간말 종성인 /k/와 어미 초성인 /n/ 사이에 영역 내 빈 음절핵이 있고 어미의 종성 /n/뒤에 영역 말 빈 음절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두음 성분 뒤에 음절핵이 이어지는 연속체로 열린 음절 구조를 나타내는 구조에서는 모든 자음이 두음으로 기능한다. 즉, 표면상 자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 음절말음은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두음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두음을 승인[6]해 줄 빈 음절핵이 뒤따르는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빈 음절핵은 구성 성분 층위와 골격층은 가지고 있으나 분절음은 비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빈 음절핵은 공범주 원리에 의해 그 음성적 해석이 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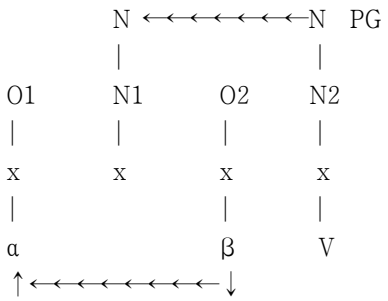
(5) 공범주 원리(Kaye 1993b:94)[7]
i. 음운론적 공범주 원리
적정 승인된 공범주는 음성적 해석을 받지 않는다.
ii. 적정 승인
(a) 영역 말 빈 음절핵은 적정 승인된다.
(언어별 매개변수에 따라 작용)
(b) 적정 지배[8](proper government; PG)받은 빈 음절핵은 적정 승인된다.
(c) 음절머리 사이의 음절핵

---

5) Complex Condition(Harris 2002: 170)
6) 두음의 승인은 간단히 말하면 모든 자음은 모음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Kaye(1990)을 참조할 수 있다.
7) Empty Category Principle(Kaye 1993 : 94)
i. The phonological EXP
A p-licensed (empty) category receives no phonetic interpretation
ii. P-licensing
(a) Domain-final (empty) categoryes are p-licensed(parameterised).
(b) Properly governed (empty) nuclei are p-licensed.
(c) A nucleus within an inter-onset domain.
8) Proper Government(Kaye, 1993 : 94)
α properly governs β if
i. α and β are adjacent on the relavant projection,
ii. α is not itself licensed, and
iii.No governing domain separate α from β.

이러한 공범주 원리에 따라 (4) '먹는'의 영역 말 빈 음절핵은 한국어의 매개변수에 의해 적정 승인되어 음성적 해석을 받지 않고 빈 음절핵으로 남는다. 그리고 영역 내 빈 음절핵이 빈 음절핵으로 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뒤따르는 음절핵에 의한 적정 지배이고 두 번째는 Harris(2002)에서 말한 복잡성 조건에 의한 두음 간의 지배이다.

(6) 두음 간 지배



위의 도식을 보면 빈 음절핵 N_1은 뒤따르는 N_2는 분절음이 채워져 있어 첫 번 째 조건인 적정 지배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O_1과 O_2는 두음 간 지배 관계가 성립되어야 빈 음절핵 N_1이 그대로 빈 음절핵으로 남게 된다.

이제 본 장에서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용언 어간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연쇄에서 만들어지는 자음동화 환경에서 실현되는 유아 발화에 대해 음운론적으로 해석해 보기로 하겠다.

3. 자음동화에 환경에서 일어나는 유아 발화에 대한 분석

3.1 용언 활용형에서의 유아 발화

어간과 어미 결합 시 만들어지는 자음동화 환경에서 유아의 발화를 다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7) 자음동화 환경에서의 유아 발화

a. [내가 잡으는데]	/내가 잡는데/
b. [우스는데 우스네]	/웃는데, 웃네/
c. [이거, 이거 다므는 거]	/이거, 이거 담는 거/
d. [내가 머그는 거 이거]	/내가 먹는 거. 이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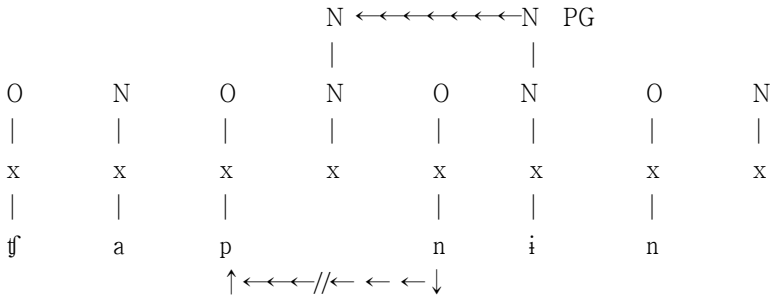
이 외에도 김태경(2010)에 보고된 예들 중 필자가 조사한 이외에의 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8)	a. 맞냐	[manɲja][9]	->	[madʑɯɲja]	4세
	b. 붙는	[punnɯn]	->	[putʰɯnɯn]	5세
	c. 뺏니	[p'ɛnɲi]	->	[p'ɛsɯɲi]	5세

9) 김태경(2010)에서 사용하는 IPA는 본고에서 사용하는 IPA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본 예에서는 원문에 사용되는 그대로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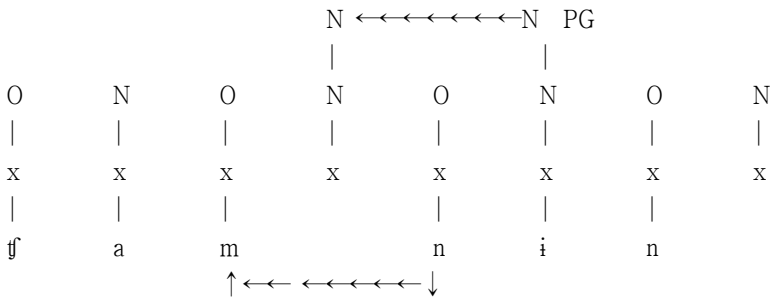
이제 (7)과 (8)의 발화를 음절구조와 자음 간 지배 관계에 기반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자. 먼저 자음동화 환경에서 '一'모음의 삽입 없이 비음동화가 일어나는 '먹는[멍는]'을 보기로 하자.

(9) '잡-' + '-는'



(9)를 보면 용언 어간 '잡-'에 어미 '-는'이 결합됨을 알 수 있다. 이 때 어간말 종성인 /p/와 어미 초성인 /n/ 사이에 영역 내 빈 음절핵이 있고 어미의 종성 /n/뒤에 영역 말 빈 음절핵이 있다. (4)에서 본 바와 같이 '잡는'의 영역 말 빈 음절핵은 한국어의 매개변수에 의해 적정 승인되어 음성적 해석을 받지 않고 빈 음절핵으로 남는다. 그리고 영역 내 빈 음절핵을 보면 자음 간 지배 관계의 구조가 생성된다. 이 때 한국어 자음 강도에 따른 지배 관계가 성립되어 자음 간 지배 관계가 충족되면 영역 내 빈 음절핵은 음성적 해석을 받지 않고 그대로 빈 음절핵으로 남는다. 그러나 (9)를 보면 영역 내 빈 음절핵에 선행하는 자음은 /p/로 장애음이며 영역 내 빈 음절핵에 후행하는 다음은 /n/으로 비음이다. 지배 관계를 충족하려면 지배를 받는 음절말 자음이 지배를 하는 두음보다 약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음의 자음 강도가 비음보다 강하므로 (9)와 같은 구조는 영역 내 빈 음절핵 사이로 자음 간 지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 한국어는 자음 강도의 조정을 통해 지배 관계를 충족시켜 영역 내 빈 음절핵을 그대로 빈 음절핵으로 남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어의 조음 방법 동화이다. 이러한 조음방법에 따라 (9)는 다음과 같이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10) '잡-' + '-는' -> [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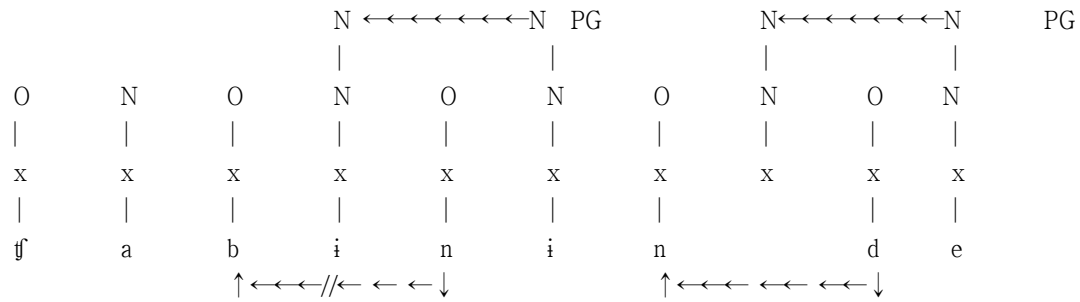


(10)을 보면 용언 어간말 자음 /p/가 [m]으로 자음의 강도를 한 단계 낮추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어간말 자음과 후행하는 어미 초 자음은 같은 비음으로 자음 강도가 동일하여 복잡성 조건을 충족하여 영역 내 빈 음절핵을 두고 자음 간 지배 관계가 충족된다. 이에 따라 '잡는'의 최종 발화는 [잠는]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지배 관계를 충족하기 위한 음운 변동이다. 한국어의 조음 방법 동화는 타언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으로 영역 내 빈 음절핵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 분절음을 조정하여 지배 관계를 충족시키시는 현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의 발화를 살펴보면 성인의 자음동화에 존재하는 음운론적 변동이 실현되

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성인의 발화에서 음운론적 제약을 충족하기 위한 책략을 아직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a)의 나타난 유아의 발화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1) '잡- + -는데' -> [ʧabiɨninde]



(11)을 보면 용언 어간 '잡-'에 어미 '-는데'가 결합됨을 알 수 있다. 먼저 어미가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역 말 빈 음절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간말 종성인 /p/와 어미 초성인 /n/ 사이에 영역 내 빈 음절핵이 있고 어미에도 영역 내 빈 음절핵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어미 '-는데'에서 어미의 첫 번째 음절 종성 /n/과 이어지는 두음 /d/ 사이에 영역 내 빈 음절핵이 있다. 이 영역 내 빈 음절핵은 투사 층위에서 인접하는 후행 음절핵에 의해 적정 승인을 받고 또한 자음 간 지배 관계에서도 영역 내 비 음절핵에 선행하는 음이 비음이고 후행하는 음은 장애음으로 한국어 자음 강도에 따른 복잡성 조건을 충족하여 지배 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그대로 빈 음절핵으로 남는다. 다음으로 어간 말 자음과 어미의 두음 사이에 형성되는 영역 내 빈 음절핵을 보도록 하자. 이 영역 내 빈 음절핵은 먼저 투사 층위에서 적정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이 영역 내 빈 음절핵이 그대로 빈 음절핵으로 남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자음과 후행하는 자음 사이에 지배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하는 자음은 장애음이고 후행하는 자음은 비음으로 자음 강도의 위계가 선행 자음이 더 커서 복잡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음 간 지배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영역 내 빈 음절핵은 음성적 해석을 받는다. (5)의 공범주 원리에 따라 적정 승인을 받지 못한 영역 내 빈 음절핵은 음성적 해석을 받아 [ɨ]로 실현된다.

이러한 [ɨ] 모음의 실현은 유아의 언어 산출에서 자음 강도의 조정에 의한 방법 동화의 음운론적 과정의 습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따라서 영역 내 음절핵에 선행하는 분절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즉, 자음동화 환경에서 유아 발화를 보면 지배 관계를 충족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음성적 영역 내 빈 음절핵의 음성적 해석 여부에 따라 [ɨ] 모음의 출현이 조건지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7)의 다른 예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유아가 CV의 구조를 기반으로 음절구조를 습득함을 보여준다. 즉, 지배 관계의 성립을 위해 분절음을 조정하여 C에 후행하는 V의 음성적 해석을 하지 않고 빈 음절핵으로 남기기보다 지배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 C에 후행하는 V의 음성적 해석을 통해 CV의 연속체로 음절을 이루는 각 분절음을 실현시키려 하는 것이다.

3.2 조음 위치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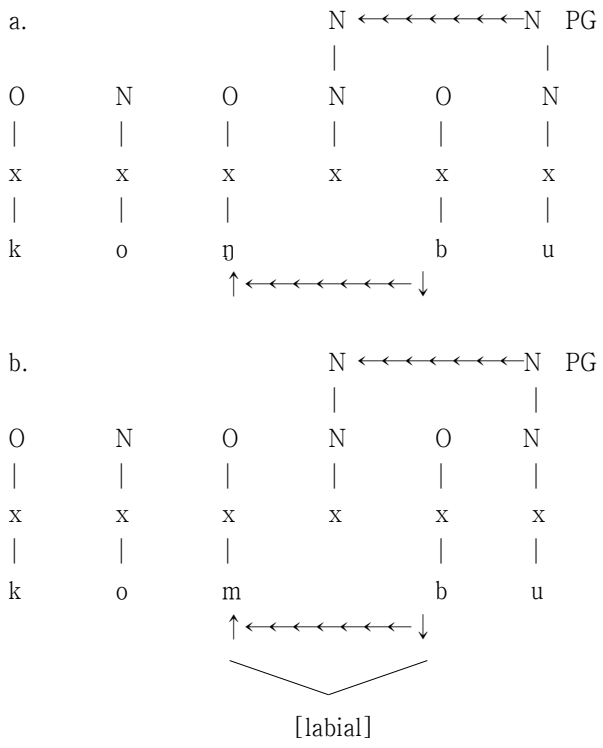
유아 발화의 특징으로 보고된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조음 위치 동화이다. 용언 활용형이 아닌 경우에는 자음 동화 환경에서 유아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꽃입[꼰닙/꼬닙/꼬니]', '국물[굼물/구물/구무]', '밥만[밤만, 바만, 바마] 등으로 최종 음성형의 입력을 그대로 출력하거나 종성 자음 삭제가 일어난 형태로 발화를 한다. 이러한 예들도 종성 자음이 실현된 경우를 보면 종성 자음과 후행

하는 음절 초 자음의 조음 위치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의 발화에서 조음 위치 동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음 방법 동화의 환경이 아닌 예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2) a. 멍멍[mʌmmʌ][10] 양말[jamma] 공부[kombu]
b. 깡총[k'antɕʰoŋ] 김치[kintɕʰi] 침대[tɕʰindɛ]

(12)의 예를 보면 영역 내 빈 음절핵이 모두 승인되어 음성적 해석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용언 활용형이 아닌 경우 방법 동화로서의 자음 동화가 일어난 최종 음성형은 이미 자음 간 지배 관계가 충족된 형태이다. (12)의 예는 영역 내 빈 음절핵을 사이에 두고 선행하는 자음과 후행하는 자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미 지배 관계가 성립되어 영역 내 빈 음절핵이 적정 승인을 받아 그대로 빈 음절핵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 때 조음위치 동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영역 내 빈 음절핵을 사이에 두고 두 자음의 조음위치를 동일하게 하여 조음을 단순하게 하려는 현상으로 이는 언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공부[kombu]'를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공부 -> [kombu]



(13a)를 보면 영역 내 존재하는 빈 음절핵은 투사 층위에서 인접하는 영역 말 음절핵에 의해 적정 승인을 받고 선행하는 비음과 후행하는 장애음이 자음 간 지배 관계를 성립하여 그대로 빈 음절핵으로 남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3b)에서는 조음 방법의 조정 없이 조음 위치를 하나로 공유함으로써 발화에서 조음 거리를 단순하게 하여 조음 위치 동화가 일어남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발화에서 종성 자음이 삽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영역 내 빈 음절핵의 승인과 더불어 조음위치 동화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삽입이 일어난다.

10) (12)의 예들은 김태경, 안미라(2004)에서 보고된 예들 중의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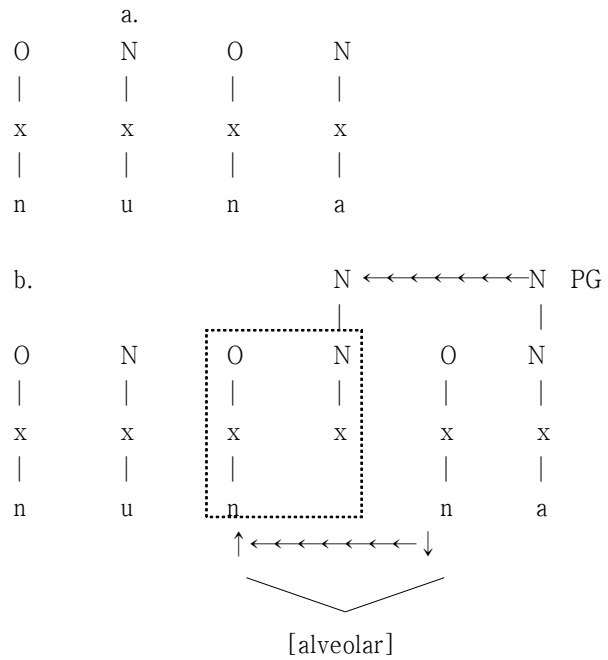
(14) 종성 자음 삽입(김태경 외 2009: p163)

a. 누나[nunna] 나무[nammu] 사슴[tʰantʰɯm]

b. 사탕[ʦ'ant'oŋ] 하니까[haniŋk'a] 아니야[annija]

(14)에서 삽입된 자음을 보면 모두 후행자음과 동일한 비음이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어 보편적이 음절구조가 CV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위의 예들은 단순히 자음만이 삽입되는 것이 아니다. 즉 분절음은 분절음 상위에 있는 골격층과 음절 성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음의 삽입이라는 것은 두음 성분과 더불어 이 두음을 승인해 줄 음절핵이 함께 삽입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삽입 가능한 자음 중 비음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음의 강도 위계로 본다면 유음이 가장 낫기 때문에 유음이 삽입되는 것이 언뜻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김태경(2009)에서는 음절 말음 위치에서 개별 자음의 빈도와 산출률을 통해 조음 방법적인 면에서 비음이 가장 빨리 습득되며 유음이 가장 늦게 습득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노채환(2017)에서는 공범주 원리와 구성원소 이론을 통해 영역 말 빈핵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운론적 조정 현상에 따라 유음이 가장 늦게 습득 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11] 이러한 논의들에 따라 유음은 유아 발화에서 습득이 가장 늦게 이루어진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비음과 순수 자음이다. 장애음에 비해 공명음이 먼저 습득된다는 사실은 제1 언어 습득의 관점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자음의 강도로 볼 때 선행 자음과 후행 자음 사이의 관계에서 비음이 선행하는 구조가 자음 간 지배 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삽입되는 자음은 비음이며 이 때 단순히 자음만이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빈 음절핵이 함께 삽입된다. '누나[nunna]의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5) 누나 -> [nunna]



(15a)는 '누나'의 기저 음절 구조이다. (15b)는 유아가 산출하는 자음 삽입이 일어난 것으로 (15a)의 구조에서 첫 번째 음절 뒤에 비음을 가진 두음과 뒤따르는 음절핵이 함께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영역 내 빈 음절핵은 투사 층위에서 인접한 분절음으로 채워진 영역 말 음절핵

11) 이러한 논의는 본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에 의해 적정 승인을 받는다. 또한 선행하는 자음과 후행하는 자음 강도가 동일하므로 복잡성 조건을 위배하지 않아 자음 간 지배 관계가 성립되고 영역 내 빈 음절핵은 승인을 받아 그대로 빈 음절핵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 때 삽입되는 비음은 (14)의 예들을 볼 때 조음 거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이 삽입됨을 알 수 있다.

4. 나가며

지금까지 유아 발화를 대상으로 용언 활용형에서 자음동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i] 모음 삽입이 일어나는 경우와 조음 방법 동화의 환경이 아닌 형태에서 일어나는 조음위치 동화, 그리고 종성 자음 삽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이 각각 다른 현상으로 보이지만 영역 내 빈 음절핵의 승인과 관련하여 모두 동일한 음운론적 기제에 따라 제어되는 현상들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용언 활용에서 일어나는 [i] 모음 삽입은 자음 간 지배 관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자음 강도의 조정이라는 책략을 습득하지 못하여 영역 내 빈 음절핵이 음성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음위치 동화가 일어나는 예들은 모두 자음 간 지배관계를 충족시켜 영역 내 빈 음절핵이 그대로 빈 음절핵으로 남는 것이다. 이는 종성 자음이 삽입되는 경우에도 영역 내 빈 음절핵을 사이에 두고 자음 간 지배관계의 충족을 준수하여 두음과 빈 음절핵의 삽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분석의 자료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본 논의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발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자음연쇄와 관련하여 하나의 음운론적 기제를 통해 설명 가능한 현상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진우 (2001). 「언어습득의 이론과 실상」, 한국문화사.

김태경·김명희·안미리 (2009). 「국어의 음운 체계 습득 과정」, 한국학술정보.

김태경, 백경미 (2010). 학령전 아동의 발음 오류에 관한 연구 -음운 변동을 중심으로- , 「국제어문」 49: 7-34.

김태경, 안미리 (2004). 언어 습득 초기의 음운 처리 과정, 「한국어학」 24: 131-164.

노채환 (2016). 유아의 분절음 단위 음운 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 - [i] 출현을 중심으로 -, 「언어와 언어학」 70: 159-178.

노채환 (2017). 유아의 음절 처리 과정에 대한 지배음운론적 접근 -, 「언어와 언어학」 74: 105-132.

이혜경 (2011). 아동의 음운습득과 음절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언어학 연구」 20: 237-256.

허용 (2004). 한국어 자음동화에 대한 지배음운론적 접근, 「언어와 언어학」 34: 199-213.

Charette, M. (1991) Conditions on Phonological Gover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ady, J. A., & Aslin, R. N. (2003) Phonological neighborhoods in the developing lecixon. Journal of Child Language 30: 441-469.

Harris, J. (1990) Segmental Complexity and Phonological Government. Phonology 7(2): 255-300.

Hebb, D. (1949)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New York: Wiley.

Kaye, J. (1993), Derivations and Interfaces. SOAS Working Paper Linguistics and Phonetics 3: 90-126.

Kaye, J., Lowenstamm, J & Vergnaud, J-R (1985) The Internal Structure of Phonological Elements : a Theory of Charm and Government. Phonology Yearbook 2: 305-328.

Kaye, J., Lowenstamm, J & Vergnaud, J-R (1990) Constituent Structure and Government in Phonology. Phonology 7(2): 193-232.

Kim, S. J. (1996). "The Representations of Korean Phonological Expressions and their Consequences". Doctoral Dissertation, SOAS, Unoversity of London.

McCune, L., & Vihman, M. M. (2001). Early phonetic and lexical development: A productive approach.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4: 670-684.

Rhee, S. J. (2002) "Empty Nuclei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Leiden University.

Vihman, M. M., & Velleman, S. L. (2000) Phonetics and the origins or phonology. In N. Burton-Roberts, P. Carr, & G. Docherty (eds.), Phonological knowledge: Conceptual and empirical issues. Oxford University Press.

「한국어 자음동화 환경에서 실현되는 유아 발화 연구(노채환)」에 대한 토론문

윤영해(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유아들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 중에서 특히 자음동화 환경에서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고 이를 지배음운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의 발화에 나타나는 모음삽입과 자음탈락, 자음삽입 등의 양상을 보편적인 음절구조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를 음운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의 발화를 보편적인 음절 구조 내에서 적정 지배와 공범주 원리를 통해 음운론적이 해석을 더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토론에서는 본 연구를 살펴보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 사항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서론에서 제시한 '유아는 자신의 언어음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유아가 가지고 있는 음운론적 구조 판에 맞지 않는 경우 말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에 대해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견하게 된 유아들의 음운론적 구조 판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음절구조가 아닌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 자음동화가 일어나는 환경 중 용언 활용형에 대한 예 (7)C는 조정현상을 통해 자음동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아닙니다. 조정현상이 없어도 되는 상황인데 왜 모음이 삽입되는 것인지, 즉, 적정 지배를 받아서 빈 핵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 모음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음위치 동화가 일어나는 예에서 용언 활용형에서도 조음위치 동화를 적용하여 발음을 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1)에서 제시한 예문을 보면 'd'를 제외하고는 자음이 연쇄되는 경우 경음화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설명은 자음동화의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나누어 설명하거나 자음 동화의 상황을 더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3.2 조음 위치 동화에서 제시한 '꽃입, 국물, 밥만'의 경우 '국물'을 제외하고는 조음 위치 동화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예를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인 필자의 쓰기 특성 분석

류마리아(전남대학교)

Ⅰ. 머리말

인간은 적절한 언어 사용을 통해 자신만의 삶을 영위한다.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떤 방향으로 '일을 꾸려 나가'(영위)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능력이 탁월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적절한 능력이기만 해도 성공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들은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느낀다. 또한 성공적인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것이다. 이렇듯 제도권 교육을 벗어난 성인에게도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교육의 필요성은 계속 중시되어왔고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지자체나 대학 또는 시민단체나 개인에 의해 여러 형태와 방법으로 실행해 오고 있다.

성인에게 필요한 언어활동 중 '쓰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인지적 노력을 가장 많이 요하는 언어 능력으로 쓰기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은 곧 사회적 실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우리 쓰기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꺼이 글을 즐겨 쓰는 평생필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면 성공적인 삶을 위한 쓰기 교육은 더욱 의미 있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쓰기 교육 공동체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쓰기 교육 외에 대학 글쓰기, 더 나아가 성인 글쓰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全)생애 필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류마리아(2019)에서는 성인들의 쓰기 유형을 '직무 글쓰기 / 자기표현 글쓰기 / 디지털 글쓰기'의 세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쓰기 유형에 맞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성인 쓰기교육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성인 쓰기교육 내용을 마련한 이후 성인 쓰기교육의 확장성을 논하기 이전에 교육 대상자가 되는 성인 필자를 다양한 국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성인 필자의 쓰기 유형을 범주화하여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성인 필자가 가지고 있는 필자로서의 쓰기 특성을 살피는 것이 성인 쓰기교육의 내용을 더욱 적확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필자의 쓰기 특성을 '쓰기 소통 방식, 쓰기 어려움, 쓰기 태도'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에 따른 해석은 추후 성인 쓰기교육 적용이라는 실천적인 부분과 성인 쓰기교육 내용 후속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성인 필자와 관련하여 전국 단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 연구라는 점, 초중등 학령기 필자와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성인 필자의 쓰기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쓰기 소통의 효과

성인 필자가 경험하는 쓰기 상황을 고려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무 글쓰기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표현 글쓰기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성인들은 보고서를 위시한 다양한 글쓰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직무 글쓰기의 결과는 상사나 팀원 등 타인에게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그 자체로 피드백이나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쓰기 수행 능력이 곧 업무 능력'이라는 공식을 확인시켜 준다.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업무 이외의 글쓰기를 포괄하는 개념을 띄고 있다(류마리아, 2016; 2019). 그런데 자기표현 글쓰기라고 해서 정서표현 글에만 국한된 글이 아니라 직무 글쓰기처럼 의무감으로 수행하는 쓰기가 아닌 본인의 자율성과 의지를 바탕으로 쓰는 글을 총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표현 글쓰기는 직무 글쓰기처럼 무조건 타인에게 보이게 되는 성격은 아니며 필자에게는 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가 생길 수 있다.

소통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소통이 원활해야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는데 이러한 소통의 특성을 쓰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회인지주의 관점에서 '글'은 더 이상 필자만의 것이 아니다. 글은 글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글만으로' 존재하기보다 누군가에게 읽혀야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즉 글은, 필자의 손에서 떠나 독자에게 가 닿아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글쓰기 관련 책자의 여러 저자들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 이며, 박영민 외(2016:371)에서도 쓰기능력 향상을 위해 '동료 작품 비평하기, 특정 독자의 반응 예상하기' 등과 같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협동작문의 활용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고립된 필자'에서 '집단 내 필자'로 그 위치를 확대할 것을 강조한다(Tomas & Tomas, 1989; 오택환, 2008 재인용). 이와 같은 예들은 필자가 글을 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쓴 글을 매개로 소통하는 것이 '쓰기'라는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완성하며 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

이러한 타자와의 상호작용 즉, 소통은 '내가 쓴 글을 타인이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듯 건강한(혹은 능숙한) 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글을 내보이고 타인의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피드백의 성격이 어떠하든 타인(독자)의 피드백은 필자의 개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자신의 글을 드러내는 일은 상당한 부담을 유발한다. 그렇지만 그 부담을 극복하고 노출한 글에 대한 타자의 반응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더욱 명료하게 해 준다. '타자의 반응과 그에 대한 자신의 재반응'이라는 상호작용이 필자 자신을 더욱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같은 글을 두고 필자와 독자가 느끼는 생각과 느낌은 일치할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오히려 그 간극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로써 자신의 글에 대한 정확한 인지뿐만 아니라 타인을 깊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신참자와 숙련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직무 필자들의 쓰기 능력을 계발하고자 했던 최숙기(2016)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타자와의 소통은 공적이고 정형화된 교육 그 이상으로 필자의 쓰기 능력을 성장시킨다.

필자와 독자 간의 소통은 개인의 성장에만 머물지 않고 쓰기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영화『기생충(봉준호, 2019)』에 대한 이동진 평론가의 한 줄 평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1)]

이 한 줄 평이 공개된 이후 '쓸데없이 어려운 단어를 쓰는 평론가의 허세' 라는 여론이 주를 이뤘

1) 이동진 블로그 <언제나 영화처럼>, https://blog.naver.com/lifeisntcool/221552129540, 2019. 6. 1. (검색일 2021.9.23.)

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한다’는 등 이에 동의하는 새로운 글들로 온라인 게시판이 뜨겁게 달궈졌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평론가의 역할이다, 모두들 이해시키는 것이 평론가의 의무는 아니다’ 등의 반대 여론도 함께 일어 이른바 ‘명징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수 일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이 사안은 몇 년 후 방송 매체를 통해 해당 평론가의 해명 아닌 해명이 소개되기도 했다. 평론가의 요지는 ‘한 줄 평은 2~30자 내외로 전달해야 되는 특성 상 한자어의 사용이 적합했으며 정확한 의미를 담은 단어, 말의 맛을 살리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했다’는 것이었다.

평론가의 한 줄 평에 대한 독자였던 여러 필자의 의견 개진과 그 의견에 이어진 또다른 독자의 피드백이 이어지며 독자가 다시 필자가 되는 자연적 순환을 겪었다. 그러면서 같은 주제를 공유하는 수많은 필자와 독자는 그들만의 쓰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 쓰기 공동체 안에서는 한 줄 평론이 갖는 태생적인 특징에 대해 다시 인식하게 됐을 것이고, 대중에게 조금 더 익숙한 방식의 친절한 평론을 원하는 독자들의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도 새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위 사례는 아주 단편적인 예시이다. 궁극적으로 성인 필자가 경험하게 되는 직무 글쓰기 공동체나 학문 공동체 등 공적이고 격식 있는 쓰기 공동체에서의 원활한 소통은 그 공동체만의 문법을 익히게 하며 해당 공동체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적합한 글을 생산해 내는 필자들로 성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쓰기 공동체도 함께 발전하며 영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인 필자에게 소통은 절대적 덕목이라 할 수 있다.

2. 쓰기 어려움의 범위 선정

쓰기 수행 시 필자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관찰은 쓰기 교육에서 필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필자의 쓰기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게 하거나 좀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은 필자가 쓰기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초, 중, 고등학생들의 쓰기 어려움에 대한 인식 연구(송정윤·김경환, 2016; 이순영, 2016; 이순영·송정윤, 2016; 송정윤·이순영, 2019; 송정윤, 2019)에서는 학생 필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조사와 ‘쓰기 막힘’에 집중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생의 쓰기 어려움에 관한 연구(윤철민·김해인, 2017; 최건아, 2018)가 더해지면서 초, 중, 고, 대학생 필자를 관통하여 쓰기 어려움에 대한 인식 연구가 이루어졌다.

위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초, 중, 고등학생들은 과제로 부여된 일기쓰기나 논설문 쓰기를 수행할 때 내용 생성하기에 대한 막막함을 토로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반면 대학생들은 리포트 혹은 보고서로 불리는 학술적 글쓰기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써야하는지 계획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독자 인식, 즉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성공적인 쓰기 수행이 곧 실력으로 인정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대학생 필자들의 특징은 성인 필자들의 그것과도 닿아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연구가 다각화되면서 학령별 필자들의 쓰기 어려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그만큼 이해의 폭도 넓혀졌다. 그러나 연구자마다 쓰기 어려움에 대한 용어 사용이 혼재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고찰도 있었다(오현진, 2019). 그만큼 쓰기 어려움을 설명하는 범주가 다양하다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오현진(2019:428)의 용어 재정리에 기준하여 쓰기가 어려워서 나타나는 현상들(쓰기 멈춤, 쓰기 막힘, 쓰기 지연, 쓰기 중단, 쓰기 회피 등)보다 쓰기를 어렵게 하는 원인에 집중하였다.

오현진(2019)에서는 쓰기 어려움의 원인을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요인, 쓰기 불안'으로 구분했다. 전술했듯 쓰기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에 집중하여 논의하였기 때문에 원인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기 어려움에서 인지적 요인은 주로 과정중심 쓰기 이론에서 다뤄지는 의미 구성 기능으로서의 쓰기 과정 궤적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글의 주제를 정하고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를 분석하는 계획하기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구성하는 단계,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글을 쓰고 이후 고쳐쓰기 단계까지 필자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지적 활동들을 세부 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

쓰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요인은 주로 '쓰기 동기, 쓰기 효능감, 쓰기 흥미'를 들 수 있다. 이들 각각이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와 더불어 쓰기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거듭될수록 인지적 요인보다 오히려 정의적 요인이 더욱 주목을 받을 만큼 쓰기 수행에서 정의적 요인은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적극적인 교육적 처치가 어려운 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다만 부정적 요인들을 줄여나가고 긍정적인 경험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방안 모색 등 부단한 노력이 교수자에게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필자가 갖는 쓰기 어려움의 다양한 범주에서 인지적 어려움과 정의적 어려움의 두 차원으로 수렴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생 필자보다 매체를 활용하여 쓰기 수행을 해야하는 상황이 잦은 성인 필자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어려움 요인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쓰기 태도의 범위 설정

좋은 글은 일반적으로 작문의 정서 요인이 긍정적일 때 이루어진다(박영민 외, 2016:147). 작문 전략의 학습과 같은 인지적 요인에 집중하던 작문 교육에서도 자연스레 쓰기 태도와 같은 정의적 요인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이미 오래다. 쓰기 태도는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명시된 만큼 정의적 영역의 대표성을 지닌 요인이다. 그런데 정의적 영역은 교수·학습이나 평가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이 활발하지 못했고 실천적 국면에서의 미진함을 이유로 쓰기 태도는 그 범주와 위상에 대한 논의가 한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예컨대 쓰기 태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생의 쓰기 태도 발달을 다룬 연구들(윤준채, 2009; 가은아, 2010; 오택환, 2009)에서는 각 연구자들마다 쓰기 태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태도 관련 선행 연구들이 축적되는 동안에도 교육과정에서 들고 남을 반복하던 쓰기 태도는 개념과 범주, 성격과 속성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연구자마다 구성 개념으로 다뤄지기도 하고 단일 개념으로 다뤄지기도 해서 학술적으로 다룰 수 있을 만큼 개념 정의가 분명한 것은 아니(박영민, 2012)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임택균(2014)에서는 그간 논의된 쓰기 태도의 본질을 쓰기와 관련하여 갖는 교육적 함의로 정리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는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태도를 구분한 것[2]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쓰기 태도를 인지 영역(쓰기 신념, 쓰기 효능감), 정의 영역(쓰기 흥미, 쓰기 동기), 행동 영역(행동 경험)으로 구분하고 동료평가라는 방법을 활용한 쓰기 태도의 교육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이렇듯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도 연구자들은 나름대로 쓰기 태도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하여 필자의 쓰기 태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와 같은 연구에서는(김미정·김정환, 2007; 양정윤·강옥려, 2014; 김민정·최건아, 2020 등) 각 연구자들이 내린 정의를 바탕으로 쓰기 태도를 평가하는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 내용은 주로 쓰기에 대한 가치, 쓰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 쓰기 효능감, 성실성, 자신감, 몰입도 등 대부분 '쓰기에 대한 심리적인 자세나 경향' 등이었다.

---

2) 2011 국어과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한 '태도'를 이루는 하위요소는 '가치와 중요성, 동기와 흥미, 쓰기의 윤리, 쓰기의 생활화'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박종임, 2011)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쓰기 수행 과정에 작용하는 쓰기 태도는 궁극적으로 필자의 쓰기 능력 향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생 필자에게 뿐만 아니라 성인 필자들에게도 쓰기 태도는 동일한 가치로 다뤄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쓰기에 대한 심리적인 자세나 경향'에 집중하여 다른 요소들은 차치하고 일차적으로 성인 필자가 글을 쓰고 잘 쓰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경향과 자주 쓰고 싶어하는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인 필자의 쓰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평생학습 실태」와 같은 국가 단위 조사 연구에서는 층화표집으로 표본을 추출하지만 본 연구는 조사 기간과 조사 비용 등 개인 연구자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비확률적 표집 중 가장 정교한 표집이라 할 수 있는 사전할당표집(quota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층화표집과 비교하였을 때 할당표집은 적용이 쉽고, 하위 집단의 정의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기초로 적절한 표본의 수를 할당했을 때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얻을 수 있다(김석우 외, 2016:103-104; 성태제 외, 2017:102-103). 또한 본 연구는 성인 '필자'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글쓰기를 수행하는' 성인의 응답이어야 연구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결과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적합한 표본 선정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사전할당표집 할당 기준은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직업'으로 하였다. 다양한 성인 필자의 쓰기 수행 특성을 살펴야 하므로 성별, 연령, 학력 외에 17개 시·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물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제시된 모든 직업군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설문을 진행하였다. 전술한대로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층화표집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당표집 방법을 사용했지만 각 할당 기준에 대해서는 적은 표본이라도 최대한 균등한 표집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추출하였다.

인구학적 배경 질문은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통계 자료인 <2017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에서 설정한 범주를 기본으로 했다.[3] 이 통계 자료가 성인 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할당 범주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령의 범주는 만 25세부터 10년 간격으로 하고, 만 65세 이상 79세까지의 성인[4]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학력 구분에 '대학원 재학 및 졸업' 범주를 추가하여 학력 구분을 세분화하였다.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2017)[5]에서 구분한 9개의 직업군에 성인 필자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부, 학생, 취업준비생, 무직'의 범주를 추가해 총 13개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구분은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6]

사전할당표집 방법으로 표집된 설문에 응답한 성인은 모두 1,655명이었고, 이 중 미종결 응답

3) 현재 <202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연구까지 발표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2017년 연구에서와 동일한 할당 기준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할당 기준과도 동일하다.

4) 최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2017년부터 고령자를 포함한 만 25~79세 성인에 대한 평생학습실태의 본조사를 실시하였다(교육부 외, 2017:10).

5) 2007년 통계청 고시 제2007-3호로 6차 개정한 바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로 개정·고시함.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음.

6) '글을 쓰는' 성인의 표본 수가 지나치게 적은 몇몇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 대표성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결과 분석 시에는 17개의 범주로 세분화하지 않고 3개(서울 및 광역시/중소도시/읍면지역)의 범주로 분석하였다.

27개, 글쓰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29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설정된 할당(Quota)에서 초과되어 제외된 응답 230개[7]와 불성실 응답지 42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27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성인들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은 <표 Ⅲ-1>과 같다.[8] 직업과 지역에 대한 세부 정보는 별도의 표로 제시하였다.

<표 Ⅲ-1> 설문 참여자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성별	남성	616	50.2
	여성	611	49.8
연령	만 25~34세	280	22.8
	만 35~44세	395	32.3
	만 45~54세	373	30.4
	만 55~64세	128	10.4
	만 65~79세	51	4.2
학력	중졸 이하	14	1.1
	고등학교 졸업	161	13.1
	대학 재학 및 졸업	922	75.1
	대학원 재학 및 졸업	130	10.6
지역[9]	서울 및 광역시	609	49.6
	중소도시	489	39.9
	읍면지역	129	10.5
전체		1227	100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만 35세~44세의 참여자가 32.3%로 가장 많다. 수치상으로는 각 연령별 비율이 균등하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만 25세부터 54세 이하 성인의 쓰기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므로 연구 분석에 무리가 없는 비율로 볼 수 있다. 학력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면 '대학 재학 및 졸업' 응답자의 비율이 75.1%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직업과 지역에 따른 설문 참여자 빈도는 아래 <표 Ⅲ-2>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Ⅲ-2> 직업과 지역에 따른 설문 참여자 빈도

직 업	사례 수(명)	비율(%)	지 역	사례 수(명)	비율(%)
관리자	127	10.4	서 울	372	30.3
전문가	185	15.	부 산	73	5.9

7) 이를테면 '만 25~34세 중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대졸 학력자'가 설정한 쿼터 값을 초과한 상태에서 '만 25~34세 중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대졸 학력자'의 응답지가 추가되더라도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8) 본 연구는 류마리아(2019)의 후속연구 성격을 띠고 있어 선정된 연구 대상은 동일하다.

9) '글을 쓰는' 성인의 표본 수가 지나치게 적은 몇몇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 대표성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결과 분석 시에는 17개의 범주로 세분화하지 않고 3개(서울 및 광역시/중소도시/읍면지역)의 범주로 분석하였다.

		1			
사무종사자	570	46.5	대 구	47	3.8
서비스종사자	62	5.1	인 천	62	5.1
판매종사자	39	3.2	광 주	23	1.9
농림어업	8	0.7	대 전	35	2.9
기능종사자	37	3.0	울 산	10	0.8
장치기계종사자	25	2.0	경 기	357	29.1
단순노무종사자	34	2.8	강 원	19	1.5
주부	70	5.7	충 북	27	2.2
학생	33	2.7	충 남	31	2.5
취업준비생	8	0.7	전 북	37	3.0
무직	29	2.4	전 남	24	2.0
			경 북	42	3.4
			경 남	52	4.2
			제 주	10	0.8
			세 종	6	0.5
전 체	1227	100	전 체	1227	100

<표 Ⅲ-2>를 통해 13개 범주의 모든 직업군[10]과 17개 모든 지역에서 참여자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순으로 응답자가 많으며 그 비율은 70%가 넘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응답자 비율이 60%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실제 지역별 인구 분포와 비슷한 수준의 비율로 표본이 추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2. 검사 도구

10) 직업별 취업자 통계표(KOSIS, 2021.09.15.갱신/단위: 천명)의 우리나라 직업별 인구 현황 비율과 본 연구 참여자의 직업 인구 비율이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지만 이 역시 실제 쓰기를 수행하는 성인에 한정하여 표집되었기 때문에 인구 비율과 정확히 비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한다.

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인구	381	5,601	4,726	3,017	3,148	1,507	2,443	2,974	4,052

11) 인구총조사(통계청, 2021.07.29.갱신) 통계표에 따르면 2020년 지역별 인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천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인구	9,586	3,349	2,410	2,945	1,477	1,488	1,135	353	670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체
인구	13,511	1,521	1,632	2,176	1,802	1,788	2,644	3,333	51,829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필자들의 쓰기 수행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성인 필자의 쓰기 수행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설문조사의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성인 필자의 쓰기 특성은 '쓰기 소통 방식, 쓰기 어려움, 쓰기 태도'이다. 먼저 '쓰기 소통 방식'은 직무 글쓰기와 자기표현 글쓰기를 각각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 질문했다. 다음으로 '쓰기 어려움'은 인지적인 요인과 정의적인 요인을 구별하여 질문하고 여기에 매체를 이용한 글쓰기에서 느끼는 어려움 요인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쓰기 태도'는 잘 쓰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자주 쓰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12)]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는 전문가 의뢰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했다. 내용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학에서 국어교육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11명, 국어교육 관련 연구원 2명, 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 수료 국어교사 2명으로 모두 쓰기 교육과 교육 연구에 전문성을 갖추었다.

전문가를 통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친 설문지는 예비검증을 거쳐 모호한 문항이나 신뢰도 및 타당도가 저하되는 문항을 다시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질문에서 일반 성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학술적 용어는 쉬운 단어로 대체하기도 했다. 예비검증에는 30명이 참여하였고 이들 역시 성별, 연령, 지역, 학력을 세분화하여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예비검증 이후 설문 문항의 cronbach's α값은 .956으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3. 연구 절차

전문가 검증과 예비검증까지 마친 설문지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직업 등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다수의 성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답안 회수의 효율성을 위해 온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웹형 설문지로 구축하여 응답자의 중복 참여를 막고 필수 항목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설문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8년 7월 23~8월 8일까지였으며 작성된 설문 응답은 웹으로 전송되어 결과를 수집, 분석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쓰기 소통 방식 분석

성인 쓰기교육 측면에서 개인의 성장과 쓰기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립된 필자가 아닌 소통하는 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므로 성인 필자들의 소통 방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성인 필자들의 쓰기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이 쓴 글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최대 3개까지 중복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직무 관련 글의 소통 방식과 자기표현 글의 소통 방식 모두를 선택한 응답자가 있을 수 있고, 중복 선택이다 보니 비율의 합계는 100%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그 결과를 직무 글쓰기와 자기표현 글쓰기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직무 글쓰기 소통 방식

12) 설문 문항은 부록으로 첨부

성인 필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글을 작성한 후에 어떻게 소통하는지 배경변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배경변인별 직무글쓰기 소통 방식

단위:명(%)

구 분		직무 관련 글 서면 보고	직무 관련 글 이메일, 인트라넷, 메신저 전송	직무 관련 글 온라인 게시판, SNS 게재
전 체		528(43.0)	**660(53.8)**[13]	170(13.9)
성별	남성	293(47.6)	**354(57.5)**	105(17.0)
	여성	235(38.5)	**306(50.1)**	65(10.6)
연령	만 25~34	122(43.6)	**158(56.4)**	36(12.9)
	만 35~44	186(47.1)	**245(62.0)**	62(15.7)
	만 45~54	162(43.4)	**186(49.9)**	52(13.9)
	만 55~65	47(36.7)	**59(46.1)**	14(10.9)
	만 64~79	11(21.6)	**12(23.5)**	6(11.8)
학력	중졸 이하	**2(14.3)**	**2(14.3)**	1(7.1)
	고졸	50(31.1)	**59(36.6)**	20(12.4)
	대졸	409(44.4)	**515(55.9)**	136(14.8)
	대학원	67(51.5)	**84(64.6)**	13(10.0)

업무와 관련한 직무 글쓰기의 서면 보고는 직장 내(內)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통 방식이고, 이메일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직장 내(內), 외(外) 구별 없이 두루 사용되는 소통 방식으로 많은 직장인들에게 이미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작업이 되어있다.[14]

직무 관련 글을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공유하는 방식은 판매나 안내 등의 기능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판매 상품에 대해 광고를 올려 판로를 마련한다거나, 공공 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알리는 안내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성인 응답자 전체의 직무 관련 글 소통 방식 결과는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메신저 서비스 등으로 전송'하여 소통한다는 응답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서면 보고'하는 방식은 그 뒤를 이었고, '온라인 게시판 또는 SNS에 올려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 세 방식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5:4:1 정도의 비율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과 연령별 비교 결과도 비슷하게 5:4:1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의 표에서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메신저 서비스 전송' 항목의 비율을 보면 남성은 57.5%, 여성은 50.1%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빈도로 이메일을 이용하고 있다. 연령별로도 직무 활동이

13) 비율이 가장 큰 영역에 음영 표시. 이후 모든 표에 동일.

14) 업무 용도로 이메일을 이용하는 직장인 중 업무용 이메일 이용자는 86.1%이며, 주 1회 이상 이용자는 68.8%('하루에 1회 이상' 35.4%, '일주일에 1회 이상' 33.4%)인 것으로 확인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142).

활발한 만 25세 이상 44세까지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에서 보고한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15)]

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대략 2:2:1, 고졸은 3:3:1로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들은 직무 글쓰기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율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졸은 5:4:1로 전체 응답자와 비슷하며 대학원 이상의 응답자는 6:5:1로 다른 학력 변인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배경 변인별로 살펴본 직무 글쓰기 소통 방식은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메신저 서비스 등과 같은 매체를 사용한 소통 방식이 우세하며 그 뒤를 이어 서면 보고 방식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매체'를 이용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Ⅳ-2>는 직업별 직무 글쓰기 소통 방식의 결과이다.

<표 Ⅳ-2> 직업별 직무 글쓰기 소통 방식

단위:명(%)

구 분	직무 관련 글 서면 보고	직무 관련 글 이메일, 인트라넷, 메신저 전송	직무 관련 글 온라인 게시판, SNS 게재
관리자	76(59.8)	**84(66.1)**	20(15.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9(48.1)	**103(55.7)**	28(15.1)
사무 종사자	283(49.6)	**361(63.3)**	73(12.8)
서비스 종사자	20(32.3)	**29(46.8)**	7(11.3)
판매 종사자	14(35.9)	**17(43.6)**	7(17.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25.0)	**3(37.5)**	**3(37.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35.1)	**16(43.2)**	6(16.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32.0)	**10(40.0)**	6(24.0)
단순 노무 종사자	**7(20.6)**	**7(20.6)**	2(5.9)
주부	4(5.7)	**12(17.1)**	7(10.0)
학생	10(30.3)	**11(33.3)**	6(18.2)
취업준비생	2(25.0)	3(37.5)	**4(50.0)**
무직	-	**4(13.8)**	1(3.4)

<표 Ⅳ-2>에서도 배경변인별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메신저 서비스로 전송'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면 보고'가 그 다음 순위이며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 게재' 비율은 가장 낮다.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등의 응답 비율 역시 60% 안팎으로 나타나 이메일을 사용하여 문서를 주고받는 주요 직업군임을 확인할 수 있다.

15) 이메일 이용률은 남자(65.0%), 여자(55.5%)로 남자가 조금 더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95.2%), 30대(89.9.%), 40대(76.4%) 순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141).

나. 자기표현 글쓰기 소통 방식

아래 <표 Ⅳ-3>에는 배경변인에 따른 자기표현 글쓰기 소통 방식의 응답 비율이 제시돼 있다. 표의 구분 항목은 세 가지이지만 크게 타인과 소통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기표현 글을 개인적인 공간에 기록하고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음'은 주로 일기 등의 글을 쓰고 독자는 오로지 자신뿐인 경우이다. 일기장과 같은 개인적 공간에 글을 남기거나 블로그와 같은 SNS 공간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비공개' 기능을 사용해 글을 작성한 이후에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유형이다. 따라서 타인과의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자기표현 글을 종이에 직접 쓰거나 인쇄하여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편지 쓰기나 대자보 작성 혹은 글쓰기 강의 현장에서 글을 쓰고 서로의 글을 공유하는 식의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글쓰기 강의는 대체로 글을 쓰거나 써온 글(출력된 상태)을 글쓰기 동료들과 나누어 읽으며 첨삭 및 퇴고의 기회를 갖는다. 이 유형은 글을 쓴 본인 이외의 독자가 반드시 존재하므로 필자와 독자 간 소통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기표현 글을 온라인 게시판 또는 SNS에 올려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말 그대로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에 글을 올리고 독자의 댓글 등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이다. 소통의 경로가 다양한 만큼 독자의 유입과 접근이 용이하며 필자가 게재할 수 있는 글의 종류도 다양하다. 독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며 불특정 다수의 독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다.

<표 Ⅳ-3> 배경변인별 자기표현 글쓰기 소통 방식

단위:명(%)

구 분		개인적 공간에 기록 타인과 소통하지 않음	종이에 쓰거나 인쇄하여 타인과 소통함	온라인 게시판, SNS 통해 타인과 소통함
전 체		**419(34.1)**	127(10.4)	376(30.6)
성별	남성	**185(30.0)**	63(10.2)	165(26.8)
	여성	**234(38.3)**	64(10.5)	211(34.5)
연령	만 25~34	**96(34.3)**	25(8.9)	92(32.9)
	만 35~44	**127(32.2)**	41(10.4)	104(26.3)
	만 45~54	**133(35.7)**	29(7.8)	114(30.6)
	만 55~64	43(33.6)	22(17.2)	**46(35.9)**
	만 65~79	**20(39.2)**	10(19.6)	**20(39.2)**
학력	중졸 이하	**6(42.9)**	4(28.6)	4(28.6)
	고졸	**67(41.6)**	19(11.8)	48(29.8)
	대졸	**310(33.6)**	88(9.5)	286(31.0)
	대학원	36(27.7)	16(12.3)	**38(29.2)**

자기표현 글 소통 방식의 응답자 전체 결과는 '개인적 공간에 기록하고 타인과 소통하지 않음'(34.1%)이 가장 높고,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올리고 타인과 소통'이 30.6%, '종이에 쓰거나 인쇄하여 타인과 소통'은 10.4%로 나타났다.

개인적 공간에 자기표현 글을 남기는 비율은 여성(38.3%)이 남성(30.0%)보다 더 크고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비율도 여성(34.5%)이 남성(26.8%)보다 더 높다. 이는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자기표현 글을 더 많이 쓰고, 매체를 이용하여 타인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모든 연령 구간에서 '개인적 공간에 글을 남기고 타인과 소통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 55~64세 구간에서만 조금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자기표현 글을 타인과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만을 놓고 봤을 때 예상하기 힘든 결과였다. 비교적 젊은 연령층보다 고령층에서 매체 활용이나 소통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쓰기 소통 방식의 양상을 더욱 치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16)]

마지막으로 학력에 따른 소통 방식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세 영역에서 '개인적 공간에 기록하고 타인과 소통하지 않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에서만 '온라인 게시판, SNS에 글을 올리고 타인과 소통'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졸과 고졸 응답자에서는 '개인적 공간에 기록하고 타인과 소통하지 않'는 비율과 '온라인 게시판, SNS 등에 글을 올려 타인과 소통'하는 비율의 차이가 10% 이상으로 다소 큰 데 비해 대졸과 대학원 이상 응답자들은 그 두 비율의 차가 1~2% 내외이다.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이 두 학력 간 '온라인 게시판, SNS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비율의 차가 크지 않고 '개인적 공간에 기록하고 소통하지 않'는 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중졸 이하, 고졸 응답자들 소통 방식에 대한 개선 방향을 고려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 글의 소통은 단순히 '하고 안하고'의 개인적 선택을 떠나 내 글을 타인에게 보이는데서 얻어지는 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본 자기표현 글쓰기 소통 방식은 성별과 연령, 학력 요인에서 거의 대부분의 응답이 '소통하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인 필자에게 소통의 효과 및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 <표 Ⅳ-4>에서는 직업별 자기표현 글쓰기 소통 방식 결과를 살필 수 있다.

<표 Ⅳ-4> 직업별 자기표현 글쓰기 소통 방식

단위:명(%)

구 분	개인적 공간에 기록 타인과 소통하지 않음	종이에 쓰거나 인쇄하여 타인과 소통함	온라인 게시판, SNS 통해 타인과 소통함
관리자	29(22.8)	13(10.2)	**33(26.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1(33.0)**	20(10.8)	59(31.9)
사무 종사자	**175(30.7)**	43(7.5)	163(28.6)
서비스 종사자	16(25.8)	11(17.7)	**23(37.1)**
판매 종사자	**18(46.2)**	6(15.4)	14(35.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62.5)**	1(12.5)	1(1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32.4)**	7(18.9)	6(16.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40.0)**	4(16.0)	6(24.0)

16) 만 6세 이상 인터넷이용자의 SNS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SNS이용)은 65.9%(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140)로 높지만 이는 친교나 교제, 정보나 사건 사고 콘텐츠 공유, 개인적 관심사 공유, 등 '쓰기' 활동 이외의 다른 이유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수치 이해에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노무 종사자	**13(38.2)**	3(8.8)	17(50.0)
주부	**39(55.7)**	11(15.7)	32(45.7)
학생	**19(57.6)**	5(15.2)	9(27.3)
취업준비생	**4(50.0)**	-	2(25.0)
무직	**18(62.1)**	3(10.3)	11(37.9)

직업별 소통 방식도 배경변인별 소통 방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관리자, 서비스 종사자'에서만 온라인 게시판 및 SNS를 활용하여 타인과 소통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나머지 모든 직업군에서는 '개인적 공간에 기록하고 타인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선택했다. 개인이 가진 직업 특성이 자기표현 글을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현상은 대부분 소통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주부, 학생, 취업준비생, 무직자들은 절반 이상이 '소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자기가 쓴 글을 공유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소통 취약 직업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배경변인과 직업별로 직무 글쓰기, 자기표현 글쓰기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결과는 직무 글쓰기만 하는 응답자와 자기표현 글쓰기만 하는 응답자, 직무 글쓰기와 자기표현 글쓰기를 모두 하는 응답자의 선택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다음 <표 Ⅳ-5>에는 직무 관련 글의 소통 방식과 자기표현 글의 소통 방식을 하나로 묶어 필자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의 결과도 직무 글쓰기와 자기표현 글쓰기 중 어느 하나만 수행하거나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필자들의 응답이 겹쳐 있다.

<표 Ⅳ-5> 필자별 소통 방식

단위:명(%)

구 분	직무글 서면보고	직무글 이메일	직무글 SNS 소통	자기표현글 소통 안함	자기표현글 종이,인쇄	자기표현글 SNS 소통
직무 글쓰기 필자	518(48.1)	**640(59.4)**	160(14.9)	338(31.4)	110(10.2)	318(29.5)
자기표현 글쓰기 필자	426(42.4)	**550(54.8)**	155(15.4)	368(36.7)	112(11.2)	327(32.6)

위의 결과는 어떤 글쓰기를 하는 필자 집단이건 상관없이 성인 필자들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직무 글쓰기 필자와 자기표현 글쓰기 필자 모두 '직무 관련 글을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통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 대부분은 직무 관련 글과 자기표현 글쓰기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대부분의 성인 필자들은 직무 글쓰기에 많이 노출돼 있고 이메일 등의 매체를 통한 소통이 활발하며, 자기표현 글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만 두고 생각한다면 SNS 등의 온라인을 통한 소통일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 따라서 이메일, 메신저 서비스 등으로 소통하여 직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성인 필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자기표현 글쓰기를 수행한 이후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유의미한 쓰기 행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2. 쓰기 어려움 분석

쓰기는 어렵다. 쓰기가 쉬운 활동이 아닌 것은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 언급된 바 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의 쓰기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장은섭, 2014)와 대학생의 쓰기 인식 조사(류보라, 2019; 박정진, 2017) 등을 보면 대부분의 학생 필자들은 쓰기를 어려워하고 귀찮아하며 싫어하기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필자의 쓰기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요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연구에 담아내고 있다. 성인 필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는 성인 필자가 쓰기를 수행할 때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에 매체를 활용하여 쓰기를 수행할 때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성인 필자가 느끼는 쓰기 어려움을 파악하고 성인들의 관점에서 더욱 효용성 있는 쓰기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7]

가. 인지적 요인

성인 필자의 쓰기 수행 시 느끼는 인지적 어려움[18]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쓰기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을 선택지로 제시하였다. 선택지는 쓰기 과정 모델인 Flower & Hayes (1980), Hayes(1996), Kellogg(1994), Hayes(2012)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제시하였다. 성인 필자가 느끼는 인지적 어려움의 결과는 <표 Ⅳ-6>에 정리하였다. 이 경우도 복수 응답 처리하였기 때문에 전체 비율의 합은 100%를 넘는다.

<표 Ⅳ-6> 배경변인별 인지적 어려움 요인(1+2순위)[19]

단위:명(%)

구 분		주제 정하기	맥락 분석	쓸거리 찾기	구성 하기	표현 하기	고쳐 쓰기	어법 및 철자
전 체		339(27.6)	195(15.9)	**479(39.0)**	440(35.9)	*469(38.2)*	249(20.3)	266(21.7)
성별	남성	178(28.9)	107(17.4)	**267(43.3)**	207(33.6)	*209(33.9)*	125(20.3)	128(20.8)
	여성	161(26.4)	88(14.4)	212(34.7)	*233(38.1)*	**260(42.6)**	124(20.3)	138(22.6)
연령	만 25~34	69(24.6)	37(13.2)	*104(37.1)*	86(30.7)	**136(48.6)**	53(18.9)	70(25.0)
	만 35~44	102(25.8)	70(17.7)	143(36.2)	**156(39.5)**	*147(37.2)*	77(19.5)	93(23.5)
	만 45~54	100(26.8)	62(16.6)	**145(38.9)**	**145(38.9)**	131(35.1)	80(21.4)	77(20.6)
	만 55~64	***47(36.7)***	17(13.3)	**62(48.4)**	41(32.0)	43(33.6)	27(21.1)	17(13.3)
	만 65~79	*21(41.2)*	9(17.6)	**25(49.0)**	12(23.5)	12(23.5)	12(23.5)	9(17.6)
학	중졸 이하	*5(35.7)*	3(21.4)	4(28.6)	**8(57.1)**	3(21.4)	2(14.3)	3(21.4)

17) 이후 논의되는 쓰기 어려움과 쓰기 태도에 관련해서는 직업별로 각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배경변인별 결과만 제시하였다.

18) 본문에는 '인지적 어려움, 정의적 어려움'으로 기술하였지만 성인 설문지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용어가 학술적으로 두루 쓰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성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인지적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정의적 어려움은 '감정적 어려움'으로 표현하여 제시하였다.

19) 표를 읽을 때 시각적 배려를 위해 하나의 변인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숫자는 음영 및 글자를 진하게 처리하였고, 두 번째 순위의 숫자에는 음영 및 글자 기울기 처리를 하였다. 이후 제시되는 표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력	고졸	50(31.1)	25(15.5)	**59(36.6)**	*54(33.5)*	52(32.3)	45(28.0)	33(20.5)
	대졸	246(26.7)	141(15.3)	**362(39.3)**	336(36.4)	*356(38.6)*	184(20.0)	207(22.5)
	대학원	38(29.2)	26(20.0)	*54(41.5)*	42(32.3)	**58(44.6)**	18(13.8)	23(17.7)

응답자 전체 결과를 보면 성인 필자가 느끼는 인지적 어려움은 '쓸거리 찾기' 요인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현' 요인이 38.2%로 2순위였다. 1, 2순위 요인의 비율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쓸거리 찾기'와 '표현' 모두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구성하기(35.9%), 주제 정하기(27.6%), 어법 및 철자(21.7%), 고쳐쓰기(20.3%), 맥락 분석(15.9%) 등의 순서로 인지적 어려움 정도가 드러났다.

남성의 경우, 전체 응답과 마찬가지로 '쓸거리 찾기'가 43.3%로 가장 큰 인지적 어려움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표현' 요인이 42.6%로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고, '구성하기'가 38.1%로 두 번째 요인이 되었다. 전체 응답자와 남성 응답자의 가장 높은 비율이었던 '쓸거리 찾기' 요인은 34.7%로 세 번째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표현'이 어렵고 '맥락 분석'의 어려움 정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 필자들이 '맥락 분석'을 어려워하는 것(윤철민 외, 2017:145)과는 다른 양상인데 이는 대학에서 학문적 글쓰기나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제를 통한 다년간의 연습으로 향상된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 1, 2순위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 25~34세는 '표현(48.6%)/쓸거리 찾기(37.1%)', 만 35~44세는 '구성하기(39.5%)/표현(37.2%)', 만 45~54세는 '쓸거리 찾기(38.9%)/구성하기(38.9%)', 만 55~64세는 '쓸거리 찾기(48.4%)/주제 정하기(36.7%)', 만 64~79세는 '쓸거리 찾기(49.0%)/주제 정하기(41.2%)'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1, 2 순위가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어렵다고 언급된 요인은 '쓸거리 찾기' 요인으로 대부분의 성인 필자들은 적절한 자료 수집을 어려워하고 있다. 한편 '맥락 분석'은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순위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학력별 인지적 어려움 요인을 살펴보자. 연령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각 변인별로 1, 2순위 요인을 제시하면, 중졸 이하는 '구성하기(57.1%)/주제 정하기(35.7%)', 고졸은 '쓸거리 찾기(36.6%)/구성하기(33.5%)', 대졸은 '쓸거리 찾기(39.3%)/표현하기(38.6%)', 대학원 이상은 '표현하기(44.6%)/쓸거리 찾기(41.5%)'로 나타났다. 대부분 1순위와 2순위 간의 비율차가 그리 크지 않고 특정 요인에 몰리는 편도 아니다.

학력별 분석 결과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난 요인은 성별, 연령별 결과와는 조금 달랐다. 중졸 이하와 대학원 이상에서 '고쳐쓰기'가 가장 어렵지 않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학원 이상 학력군은 고쳐쓰기를 어렵게 느끼는 비율이 각 학력 변인 중 가장 낮았는데 중졸 이하 변인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도 특기할만하다.

지금까지 배경변인별로 성인 필자가 느끼는 인지적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필자별로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Ⅳ-7>에 제시되었다.

<표 Ⅳ-7> 필자별 인지적 어려움 요인(1+2순위)

단위:명(%)

구 분	주제 정하기	맥락 분석	쓸거리 찾기	구성 하기	표현 하기	고쳐 쓰기	어법 및 철자
직무글쓰기 필자	298(27.7)	175(16.2)	**421(39.1)**	387(35.9)	*419(38.9)*	211(19.6)	228(21.2)
자기표현글쓰기	269(26.8)	161(16.0)	*396(39.4)*	360(35.9)	**408(40.6)**	195(19.4)	205(20.4)

필자

직무 글쓰기 필자는 쓸거리 찾기(39.1%)와 표현하기(38.9%)가 가장 어렵고 자기표현 글쓰기 필자는 직무 글쓰기 필자의 순위만 바뀌어서 표현하기(40.6%), 쓸거리 찾기(39.4%)가 어려운 것으로 정리됐다. 1, 2순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의 순위는 직무 글쓰기 필자와 자기표현 글쓰기 필자가 느끼는 정도가 동일하다. 하지만 순위 간 비율 차이가 크지 않는 점으로 보아 성인 필자들의 인지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료 수집과 표현하기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쓰기 수행 시 느끼는 인지적 어려움에 대하여 배경변인과 필자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성인 필자들은 대체로 '쓸거리 찾기, 표현하기, 구성하기' 요인의 순으로 인지적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쓸거리 찾기, 표현하기, 구성하기' 요인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생성한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조직한 내용을 적절하게 풀어내는 표현의 과정 전반이기 때문에 성인 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맥락 분석'이 가장 낮은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성인 필자 스스로 충분히 갖췄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나. 정의적 요인

정의적 요인은 쓰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적인 개입이 가능하다(송정윤 외, 2016). 성인 필자들이 쓰기 수행 시 느끼는 정의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6개의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이 선택지는 Hayes(2012), 박영민(2006), 송정윤 외(2016)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성인 필자가 느끼는 정의적 어려움의 결과는 <표 Ⅳ-8>에 정리하였다. 이 경우도 복수 응답 처리하였기 때문에 전체 비율의 합은 100%를 넘는다.

<표 Ⅳ-8> 배경변인별 정의적 어려움 요인(1+2순위)

단위:명(%)

구 분		흥미 없음	정신적 여유 없음	평가 부담감	낮은 쓰기효능감	낮은 가치 평가	강제 부과 부담
전 체		273(22.2)	446(36.3)	**641(52.2)**	***470(38.3)***	116(9.5)	451(36.8)
성별	남성	135(21.9)	235(38.1)	**302(49.0)**	233(37.8)	65(10.6)	***237(38.5)***
	여성	138(22.6)	211(34.5)	**339(55.5)**	***237(38.8)***	51(8.3)	214(35.0)
연령	만 25~34	77(27.5)	105(37.5)	**132(47.1)**	***109(38.9)***	22(7.9)	100(35.7)
	만 35~44	92(23.3)	***151(38.2)***	**213(53.9)**	134(33.9)	42(10.6)	145(36.7)
	만 45~54	79(21.2)	132(35.4)	**201(53.9)**	***144(38.6)***	34(9.1)	141(37.8)
	만 55~64	17(13.3)	40(31.3)	**70(54.7)**	***58(45.3)***	13(10.2)	49(38.3)
	만 65~79	8(15.7)	18(35.3)	**25(49.0)**	**25(49.0)**	5(9.8)	16(31.4)
학력	중졸 이하	**7(50.1)**	***5(35.7)***	***5(35.7)***	4(28.6)	1(7.1)	***5(35.7)***
	고졸	41(25.5)	49(30.4)	**83(51.6)**	***77(47.8)***	14(8.7)	49(30.4)
	대졸	202(21.9)	337(36.6)	**480(52.1)**	***355(38.5)***	89(9.7)	337(36.6)
	대학원	23(17.7)	***55(42.3)***	**73(56.2)**	34(26.2)	12(9.2)	***55(42.3)***

응답자 전체의 결과를 보면 ‘평가받는 것에서 느끼는 부담감’(52.2%)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스스로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쓰기 효능감’이 낮다는 응답은 2순위(38.3%)이다. 다음으로 ‘강제적으로 부과된 쓰기를 해야 할 경우 몰입과 동기가 약해짐’이 36.8%, 글을 쓸 ‘정신적인 여유가 없음’이 36.3%, 글쓰기에 ‘흥미가 없음’이 22.2%, 글쓰기가 그다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이 9.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평가 부담감’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제로 부과된 쓰기 수행 시 몰입과 동기가 약해진다’는 응답이 2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글쓰기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6%로 가장 낮았다. 여성 역시 ‘평가 부담감’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낮은 쓰기 효능감’ 요인은 38.8%로 2순위였다. 여성 역시 글쓰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응답은 8.3%로 가장 낮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평가 부담감’이 1순위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강제로 부과된 쓰기 과제에 몰입과 동기가 떨어진다’가 2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무 관련 글쓰기 같은 쓰기 과제가 남성 필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평가 부담감’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만 25~34세, 만 45~54세, 만 55~64세에서 ‘낮은 쓰기 효능감’ 요인이 2순위 요인으로 확인됐고 만 65~79세에서는 ‘평가 부담감’과 ‘낮은 쓰기 효능감’ 요인이 같은 수치로 나타났다.

다만 만 35~44세 연령에서는 ‘평가 부담감’에 이어 ‘정신적 여유 없음’ 요인이 2순위로 나타난 점이 다른 연령과 조금 다르다. 쓰기 효능감이 낮다고 응답한 다른 연령에 비해 이 연령은 ‘강제로 부과된 과제에 대한 부담감’에 이어 ‘낮은 쓰기 효능감’ 요인이 4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레빈슨(Levinson)은 성인기 사계절이론에서 인생을 크게 네 개의 시기로 나누었는데, 33~40세 사이를 직장, 가정, 기타 사회활동에서 열성적으로 일하는 시기로 설명하였다(권두승 외, 2016:115~118). 이렇듯 만 35~44세 성인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2순위로 선택된 ‘낮은 쓰기 효능감’을 민감하게 느끼기 보다는 사회적 요구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현재 자신의 상황이 글을 쓸 ‘정신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과 ‘강제로 부과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경우 몰입과 동기가 떨어진다’는 응답을 선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령별 분석 결과에서도 ‘글쓰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대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 쓰기신념은 모두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졸 이하에서 1순위로 ‘흥미 없음’(50.1%)인 점은 특기할만하다. 고졸과 대졸 응답자의 경우는 ‘평가 부담감’이 각 51.6%, 52.1%로 가장 높은 순위이고 ‘낮은 쓰기 효능감’은 2순위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원 이상 응답자도 ‘평가 부담감’(56.2%)이 가장 높았고 ‘정신적 여유 없음, 강제 부과 과제에 대한 부담’ 요인이 차순위로 기록되었다. 모든 학력군에서 글쓰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응답은 역시나 가장 낮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학생 필자들의 쓰기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연구한 선행 연구(장은주·박영민, 2013; 김정자, 2014; 장은섭, 2014)들의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성인 필자들 역시 글쓰기의 필요성과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글쓰기는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도 글쓰기에 흥미가 없다는 응답이 낮은 응답률로 나타난 것은 학생 필자에 비해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성인 필자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글을 쓸 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다’고 여기고, 스스로 글을 ‘잘 쓸 수 없다’고 느끼는데 쓴 글에 대해 늘 ‘평가 받는’ 입장에 있다 보니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배경변인에 따른 정의적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표 Ⅳ-9>는 필자에 따른 정의적 어려움 요인에 대한 결과이다.

<표 Ⅳ-9> 필자별 정의적 어려움 요인(1+2순위)

단위:명(%)

구 분	흥미가 없음	정신적 여유 없음	평가 부담감	낮은 쓰기효능감	낮은 가치 평가	강제 부과 부담
직무글쓰기 필자	237(22.0)	386(35.8)	**576(53.5)**	***406(37.7)***	102(9.5)	401(37.2)
자기표현글쓰기 필자	176(17.5)	368(36.7)	**546(54.4)**	***386(38.4)***	94(9.4)	***386(38.4)***

먼저 직무 글쓰기 필자는 '평가 부담감'이 단연 1순위로 2순위(낮은 효능감)와의 차이도 제법 큰 편이다. 자기표현 글쓰기 필자 역시 '평가 부담감'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었으며 '낮은 쓰기 효능감'과 '강제 부과된 과제'에 대한 부담은 같은 비율로 2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필자들이 글쓰기에 대해 가치 평가가 높다는 것은 학생 필자와는 다른 차원이다. 즉 성인 필자들은 글쓰기의 어려움과 부담은 동일하게 겪지만 글쓰기가 갖는 사회적 역할 내지 그 영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 매체 글쓰기 수행 요인

앞에서 성인 필자가 쓰기를 수행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각종 온라인 게시판과 SNS로 대표되는 매체 글쓰기를 수행할 때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 필자들은 학생 필자보다 매체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쓰기 수행 상황이 빈번하다는 점과 매체 이용을 해야 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성인 필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선정한 문항이다. 설문 문항에는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었으며[20] <표 Ⅳ-10>에 그 응답 결과를 정리하였다. 복수 응답 처리로 인해 비율의 합계는 100%를 넘는다.

<표 Ⅳ-10> 배경변인별 매체 글쓰기 어려움 요인(1+2순위)

단위:명(%)

구 분		흥미로운 소재 찾기	복합적 사용	저작권 확인	독자의 반응	적절한 게재 방식
전 체		*519(42.3)*	263(21.4)	362(29.5)	**537(43.8)**	378(30.8)
성별	남성	**266(43.2)**	148(24.0)	190(30.8)	*241(39.1)*	199(32.3)
	여성	*253(41.4)*	115(18.8)	172(28.2)	**296(48.4)**	179(29.3)
연령	만 25~34	*122(43.6)*	48(17.1)	65(23.2)	**145(51.8)**	77(27.5)
	만 35~44	*142(35.9)*	90(22.8)	128(32.4)	**177(44.8)**	131(33.2)
	만 45~54	**166(44.5)**	79(21.2)	126(33.8)	***142(38.1)***	119(31.9)
	만 55~64	*56(43.8)*	32(25.0)	33(25.8)	**57(44.5)**	35(27.3)
	만 65~79	**33(64.7)**	14(27.5)	10(19.6)	*16(31.4)*	*16(31.4)*
학	중졸	**8(57.1)**	2(14.3)	4(28.6)	4(28.6)	*6(42.9)*

20) 이 문항에서 선택지 ⑥은 매체 글쓰기를 하지 않는 응답자를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하					
력	고졸	**72(44.7)**	38(23.6)	40(24.8)	*69(42.9)*	56(34.8)
	대졸	*393(42.6)*	202(21.9)	271(29.4)	**408(44.3)**	279(30.3)
	대학원	46(35.4)	21(16.2)	*47(36.2)*	**56(43.1)**	37(28.5)

응답자 전체 결과는 ‘독자의 반응(댓글, 좋아요, 리트윗, 공유하기 등)이 신경 쓰인다’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들이 읽고 싶어 하는 흥미로운 내용을 떠올리기 어렵다’는 응답이 42.3%로 2순위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게시판,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각각 다른 SNS의 형식에 맞는 글의 길이나 화면 구성 등 적절한 게재 방식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0.8%, ‘저작자 표시 등 출처를 확인하고 쓰는 것이 까다롭고 귀찮다’는 29.5%, ‘이미지, 이모티콘, 동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21.4%로 확인되었다.

1, 2순위와 3, 4순위 간의 응답 비율이 10% 정도 차이가 나고 3, 4순위와 5순위 간의 응답비율도 10% 정도 차이가 난다. 어느 하나의 요인에 어려움 정도가 집중적으로 몰리지 않고 다발 지어진 모양새로 나타났는데, 특히 2순위 요인인 ‘남들이 읽고 싶어 하는 흥미로운 내용을 떠올리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필자는 ‘독자’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흥미로운 내용 떠올리기, 즉 내용 생성 혹은 아이디어 생성에 해당하는 인지적 요인 중 하나인데 SNS 글쓰기에 전제돼 있는 ‘보여주기’라는 특징과 맞물려 정의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1순위 요인과 큰 차이 없는 응답 비율을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직무 글쓰기의 텍스트는 예상독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또 반드시 읽히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NS상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글들이 쌓여있는데다 새로운 글이 생성되고 공유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모든 글이 꼼꼼히 읽히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필자들은 매체 글쓰기에서는 남들이 관심을 갖고 읽을 만한 흥미로운 글을 쓰는 것이 성공적인 글쓰기라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 분석 결과에서 남성은 ‘흥미로운 소재 찾기’(43.2%)와 ‘독자의 반응’(39.1%), 여성은 ‘독자의 반응’(48.4%)과 ‘흥미로운 소재 찾기’(41.4%)의 순으로 1, 2순위가 성별을 서로 교차하여 나타났다.

연령별 결과를 살펴보자. 만 25~34세, 만 35~44세, 만 55~64세의 연령에서는 ‘독자의 반응’과 ‘흥미로운 소재 찾기’가 1, 2순위로 나타난 반면 만 45~54세 연령에서는 그 반대이다. 한편 만 65~79세 연령에서는 ‘적절한 게재 방식’이 2순위인 것으로 보아 고령층 필자에게는 SNS의 다양한 플랫폼이 더욱 낯설고 어려운 쓰기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 어려움 요인을 살펴보자. 먼저 고졸 응답자는 44.7%가 응답한 ‘흥미로운 소재 찾기’ 요인이 가장 어렵고 ‘독자의 반응’이 그 다음이다. 대졸 응답자들은 그와 반대로 ‘독자의 반응’이 44.3%로 1순위, ‘흥미로운 소재 찾기’가 그 다음이었다. 한편 대학원 이상 응답자들도 가장 어려운 요인을 ‘독자의 반응’(43.1%)으로 꼽았는데 그 다음 순위가 ‘저작권 및 출처 확인’(36.2%)인 것으로 확인되어 특기할 만하다. 거의 모든 변인에서 상위 순위였던 ‘흥미로운 소재 찾기’가 3순위이다. 저작권 및 출처를 확인하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성인 필자들이 학문적 글쓰기 경험으로 내재된 의식의 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까다롭고 귀찮게 인식되지만 그만큼 쓰기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쓰기 윤리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졸 이하 응답자는 ‘흥미로운 소재 찾기’(57.1%)와 ‘적절한 게재 방식’(42.9%)이 상위 요인으로 확인되어 학력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알아본 매체 글쓰기 어려움 요인은 연령별, 학력별 변인에 따른 상이한 결과가 있기도 했지만 대체로 ‘흥미로운 소재 찾기’와 ‘독자의 반응’을 가장 많이 어려워했다. 이는 필자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표 Ⅳ-11>은 필자별 매체 글쓰기 어려움 요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Ⅳ-11> 필자별 매체 글쓰기 수행 어려움 요인(1+2순위)

단위:명(%)

구 분	흥미로운 소재 찾기	복합적 사용	저작권 확인	독자의 반응	적절한 게재 방식
직무글쓰기 필자	***438(40.7)***	241(22.4)	327(30.4)	**482(44.8)**	326(30.3)
자기표현글쓰기 필자	***424(42.2)***	221(22.0)	306(30.5)	**460(45.8)**	308(30.7)
매체글쓰기 필자	***416(44.7)***	215(23.1)	293(31.5)	**447(48.1)**	302(31.5)

<표 Ⅳ-12>에는 필자별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던 매체 글쓰기 필자 변인이 추가되었다. 그 이전의 분석 내용들은 직무 글쓰기 필자가 매체 글쓰기도 수행하고 있고 자기표현 글쓰기 필자 역시 매체 글쓰기를 수행하는 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체 글쓰기 필자를 따로 구별하여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이 부분은 매체 글쓰기를 수행할 때의 어려움 요인을 살펴보고 있어 매체 글쓰기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결과만을 따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세 필자 모두 1순위는 '독자의 반응', 2순위는 '흥미로운 소재 찾기'로 어려움 정도가 나타났다. 두 요인 모두 4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 3순위는 '적절한 게재 방식' 4순위는 '저작권 및 출처 확인'인데 이 요인들은 모두 3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동영상 등 복합적 사용'은 20%대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상으로 배경변인과 필자변인별로 매체 글쓰기 어려움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거의 모든 변인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렇게 어려움 요인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만큼 교육적 처지도 뚜렷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문지 선택지의 ⑥번에 제시된 'SNS 상에서 글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결과는 다루지 않았음을 밝힌다. 각주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직무 글쓰기와 자기표현 글쓰기와 매체 글쓰기를 단일로 혹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필자가 응답하기 때문에 매체 글쓰기를 하지 않는 응답자를 고려한 선택지였으므로 매체 글쓰기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결과만 분석하였다.[21]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러한 조사 내용에 기초하여 성인 필자가 매체 글쓰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쓰기 과정에서 성인 필자가 겪는 인지적, 정의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성인 필자의 쓰기 능력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어려운 요인이 해결됨으로써 결과물로서의 글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며, 그로 인해 쓰기 태도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쓰기 태도 분석

어떤 능력을 설명할 때 '지식', '기능과 전략'과 더불어 세 번째 요소로 꼽히는 것이 '태도'이다. 그러나 학습에 의해 습득되기 어렵고 명쾌하게 정의되기 어렵다는 특이성 때문에 '태도'를 '지식, 기능과 전략'과 동등한 범주로 제시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박영민 외, 2016:116~117)는 것을 앞

21) SNS 비이용자 10명 중 7명(78.4%)은 '필요가 없어서' SNS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불편해서'(34.8%),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어서'(20.2%), '이용할 자신이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140).

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태도'는 그 중요성과 교육적 필요성 때문에 2015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내용 범주로 다시 등장하였고 더욱 정치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작문 능력의 구성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태도에 관해서는 흥미, 윤리, 생활화, 동기 등을 주로 논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글을 잘 쓰고 싶은 성인 필자의 긍정적 태도 수준과, 글을 자주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성인 필자가 잘 쓰고 싶거나 자주 쓰고 싶은 마음은 쓰기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쓰기가 얼마나 생활화 돼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게 한다.

가. 잘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

성인 필자들의 글을 잘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이 어떠한지 배경변인별로 살펴보자. 글을 잘 쓰고 싶다는 판단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선택지에는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7단계 척도로 제시하였다.

<표 Ⅳ-12> 배경변인별 글을 잘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

단위:명(%)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조금 낮음	보통	조금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전 체		3(0.3)	15(1.2)	22(1.8)	217(17.7)	372(30.3)	**415(33.8)**	183(14.9)
성별	남성	1(0.1)	11(1.8)	18(2.9)	115(18.7)	194(31.5)	**199(32.3)**	78(12.7)
	여성	2(0.2)	4(0.7)	4(0.7)	102(16.7)	178(29.1)	**216(35.4)**	105(17.2)
연령	만 25~34	1(0.3)	1(0.3)	5(1.8)	38(13.6)	71(25.4)	**107(38.2)**	57(20.4)
	만 35~44	1(0.2)	2(0.5)	5(1.3)	77(19.5)	**130(32.9)**	120(30.4)	60(15.2)
	만 45~54	-	7(1.9)	7(1.9)	70(18.8)	**121(32.4)**	**121(32.4)**	47(12.6)
	만 55~64	-	4(3.1)	4(3.1)	21(16.5)	35(27.3)	**49(38.3)**	15(11.7)
	만 65~79	1(1.9)	1(2.0)	1(2.0)	11(21.6)	15(29.4)	**18(35.3)**	4(7.8)
학력	중졸 이하	1(7.1)	-	1(7.1)	**7(50.1)**	1(7.1)	4(28.6)	-
	고졸	-	3(1.8)	2(1.2)	33(20.5)	**55(34.2)**	51(31.7)	17(10.6)
	대졸	1(0.2)	10(1.1)	15(1.6)	158(17.1)	281(30.5)	**313(33.9)**	144(15.6)
	대학원	1(0.8)	2(1.5)	4(3.1)	19(14.6)	35(26.9)	**47(36.2)**	22(16.9)

전체 응답자 1,227명 중 33.8%에 해당하는 415명이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이 높았다. '조금 높음'은 30.3%, '매우 높음'은 14.9%로 긍정 응답 비율이 79.0% 이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17.7%이며 나머지 부정 응답 비율은 3.3%에 해당한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 응답자의 32.3%가 '높음'을 선택했고 '조금 높음'은 31.5%, '매우 높음'은 14.9%로 긍정 응답 비율은 76.5%이다. 여성 응답자의 35.4%에 해당하는 216명이 '높음'을, '조금 높음'은 29.1%, '매우 높음'은 17.2%로 응답해 긍정 응답 비율이 81.7%이다. 여기서 여성이 남성보다 잘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매우 낮음'은 1.6%

로 남성의 부정 응답 비율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모든 연령에서 '높음' 수준이 제일 높게 나왔지만 만 35~44세 연령은 '조금 높음'이 가장 많았다. 또한 유일하게 만 25~34세 연령에서 '보통' 수준보다 '매우 높음' 수준이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매우 높'아지는 수준은 낮아지고 긍정 응답 비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다음 학력별 쓰기 태도 수준을 살펴보자. 먼저 대졸과 대학원 이상 응답자들은 '높음' 수준이 가장 높다. '매우 높음'은 15.6%, 16.9%로 나타났는데 이 두 학력 구간에서는 다른 학력 구간에 비해 '보통'과 '매우 높음'의 응답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응답자는 '조금 높음' 수준이 가장 높고, 중졸 이하 응답자의 50.1%는 '보통' 수준이 가장 높았다. 대신 '매우 높음' 수준에는 응답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글을 잘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배경변인별 글을 잘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성과 여성 중에서는 여성이 긍정적 태도 수준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만 25~34세 구간 응답자의 긍정적 태도 수준이 가장 높았다. 또한 학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태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표 Ⅳ-13>은 필자별로 잘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Ⅳ-13> 필자별 글을 잘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

단위:명(%)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조금 낮음	보통	조금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직무글쓰기 필자	2(0.2)	12(1.1)	19(1.8)	185(17.2)	327(30.4)	**371(34.4)**	161(14.9)
자기표현글쓰기 필자	1(0.1)	7(0.7)	16(1.6)	169(16.8)	289(28.8)	**360(35.9)**	162(16.1)

필자별로 살펴본 결과 배경변인별 수준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성인 필자가 가지고 있는 잘 쓰고 싶은 수준 정도는 '높음 → 조금 높음 → 보통 → 매우 높음' 순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높음/조금 높음'에 응답이 몰리는 경향을 띄고 있으며 응답 비율 또한 비슷한 수준이다. '보통'과 '매우 높음'은 '높음/조금 높음' 수준과 10% 정도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 두 수준 또한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긍정 비율은 직무 글쓰기 필자가 79.9%, 자기표현 글쓰기 필자가 80.9%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 비율은 직무 글쓰기 필자가 3.1%, 자기표현 글쓰기 필자가 2.4%로 나타나 이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나. 자주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

성인 필자들의 글을 자주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이 어떠한지 배경변인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역시 주관적 판단에 의한 선택으로 글을 자주 쓰고 싶은 정도를 선택하도록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7단계 척도로 제시하였다.

<표 Ⅳ-14> 배경변인별 글을 자주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

단위:명(%)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조금 낮음	보통	조금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전 체		19(1.5)	61(5.0)	163(13.3)	**420(34.2)**	321(26.2)	172(14.0)	71(5.8)
성별	남성	11(1.8)	32(5.2)	87(14.1)	**224(36.4)**	157(25.5)	77(12.5)	28(4.5)
	여성	8(1.4)	29(4.8)	76(12.4)	**196(32.1)**	164(26.8)	95(15.5)	43(7.0)
연령	만 25~34	6(2.1)	19(6.8)	39(13.9)	**87(31.1)**	77(27.5)	36(12.9)	16(5.7)
	만 35~44	6(1.5)	16(4.1)	56(14.2)	**146(37.0)**	87(22.0)	63(15.9)	21(5.3)
	만 45~54	5(1.4)	18(4.8)	53(14.2)	**122(32.7)**	103(27.6)	49(13.1)	23(6.2)
	만 55~64	1(0.7)	7(5.5)	13(10.2)	**44(34.4)**	35(27.3)	20(15.6)	8(6.3)
	만 65~79	1(2.0)	1(2.0)	2(3.8)	**21(41.2)**	19(37.3)	4(7.8)	3(5.9)
학력	중졸 이하	1(7.2)	-	3(21.5)	**7(50.0)**	1(7.1)	1(7.1)	1(7.1)
	고졸	1(0.7)	7(4.4)	21(13.0)	**63(39.1)**	44(27.3)	18(11.2)	7(4.3)
	대졸	15(1.6)	46(5.0)	124(13.4)	**304(33.0)**	238(25.8)	140(15.2)	55(6.0)
	대학원	2(1.5)	8(6.2)	15(11.5)	**46(35.4)**	38(29.2)	13(10.0)	8(6.2)

<표 Ⅳ-14>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 중 34.2%가 자주 쓰고 싶은 마음 수준을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조금 높음'은 26.2%, '높음'은 14.0%, 매우 높음은 5.8%로 긍정 응답 비율은 46.0%로 나타났다. 나머지 부정 응답 비율은 19.8%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잘 쓰고 싶은 수준'의 긍정 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성별 분석 결과로 남성 응답자 36.4%가 '보통'을 선택했다. 긍정 응답 비율은 42.5%이며 부정 응답 비율은 21.1%이다. 여성 응답자는 32.1%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긍정 응답 비율이 4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자주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부정 응답 비율은 18.6%로 남성의 부정 응답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음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글을 자주 쓰고 싶어 하는 태도의 수준은 모든 연령 구간에서 '보통' 수준이 가장 높았다. 긍정 응답 비율은 만 35~44세 구간에서 살짝 내려가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주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택지 각각에 점수를 부과해 7점 만점으로 계산해 보면 만 25~34세부터 만 64~79세 연령까지 순서대로 4.36 → 4.43 → 4.45 →4.54 → 4.57로 그 결과값이 확인되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태도 수준도 높아지며 부정적 태도 수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 쓰기 태도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구간에서 '보통'이 가장 높았다. 중졸 이하를 제외하고 모든 학력 구간에서 '보통' 다음으로 '조금 높음' 수준의 선택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 긍정 응답 비율은 중졸 이하 21.3%, 고졸 42.8%, 대졸 47.0%, 대학원 이상 45.4%로 나타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긍정 응답 비율도 높아지다가 대학원 이상 구간에서 다소 하락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부정 응답의 비율은 중졸 이하 28.7%, 고졸 18.1%, 대졸 20.0%, 대학원 이상 19.2%로 학력의 차이에 따른 경향성을 보인다기보다 중졸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세 학력 구간에서 비슷한 비율로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이상으로 배경변인별 글을 자주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성과 여성 중에서는 여성이 긍정적 태도 수준이 조금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보통' 수준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컸다. 그렇지만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주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의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학력별 결과에서도 '보통' 수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긍정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부정 응답의 비율은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Ⅳ-15>는 필자별로 잘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Ⅳ-15> 필자별 글을 자주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

단위:명(%)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조금 낮음	보통	조금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직무글쓰기 필자	17(1.6)	52(4.8)	143(13.3)	**362(33.6)**	291(27.0)	151(14.0)	61(5.7)
자기표현글쓰기 필자	8(0.7)	36(3.6)	110(11.0)	**336(33.5)**	292(29.1)	159(15.8)	63(6.3)

필자에 따른 글을 자주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는 두 필자가 거의 같은 비율로 '보통' 수준이 가장 높았다. 직무 글쓰기 필자의 긍정 응답 비율은 46.7%, 자기표현 글쓰기 필자의 긍정 응답 비율은 51.2%로 후자의 긍정적 태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 응답 비율은 직무 글쓰기 필자 19.7%, 자기표현 글쓰기 필자 15.3%로 긍정 응답 비율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인 필자가 느끼고 있는 글을 자주 쓰고 싶은 수준 정도는 '보통 → 조금 높음 → 높음 → 조금 낮음 → 매우 높음 → 낮음 → 매우 낮음'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보통/조금 높음'에 응답이 몰리는 경향을 띄고 있으며 '높음'과 '조금 낮음'은 '보통/조금 높음' 수준의 비율과 다소간 차이를 둔 값으로 비슷한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성인 필자의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과 '자주 쓰고 싶은 마음'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성인 필자의 잘 쓰고 싶은 마음은 단연 높았다. 그러나 자주 쓰고 싶은 마음은 '조금 높음' 수준보다 더 낮은 '보통'으로 확인되었다. 즉 잘 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글을 자주 쓰고 싶은 마음은 덜하다는 것이다.

'쓰기'는 일종의 문제해결과정으로 쉽지 않은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한 바이다. 또한 '쓰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과제 중 하나로 여기는 것은 학생 필자나 성인 필자 모두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주 써봐야 잘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 필자들이 글을 자주 쓰고 싶은 쓰기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와 성취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Ⅴ. 결론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수학 공부를 하지 않으니 좋았는데 글쓰기를 해야 될 줄은 몰랐다는 성토에 가까운 우스갯소리를 듣게 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일기쓰기와 독후감, 설명문과 논설문 등 과제로 부여된 글을 억지로 써내느라 지긋지긋 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들은 졸업과 동시에 인생 과업에서 이 지긋지긋한 글쓰기가 지워질 줄 알았겠지만 더 정교하고 규모 있는 글을 써야할 줄을 매일 보고서와 전쟁을 치르며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성인 필자들은 초, 중, 고등학교 시절 (최근에는 대학에서 글쓰기 과목) 수업을 통해 배

워왔던 것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글쓰기를 힘들어하고 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생활 이전의 쓰기 교육이 현재의 쓰기 과업을 달성하는 데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큰 관련이 없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직업 작가가 아니고서야 글쓰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쓰기 능력을 갈고 닦으려는 노력을 하기는 힘들다. 우리가 주목하는 성인 필자는 직업 작가와는 상관없이 직무 관련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내기 위한 글, 자율성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글을 기꺼이 써 내는 그런 평범한 필자들이다.

본 연구는 이런 평범한 성인 필자들에게 쓰기 교육을 하기에 앞서, 성인 필자의 쓰기 특성을 파악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성인 필자들을 다양한 할당기준으로 추출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쓰기 수행 국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쓰기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성인 필자들은 주로 직무 글쓰기 상황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으며 이메일 등의 매체로 직무 관련 글을 소통하고 있었다. 또한 IT 강국에 걸맞게 인터넷 보급률이 뛰어난 우리 사회에서 자기표현 글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는 다소 의미 있는 발견도 할 수 있었다.

글을 쓰기 위한 아이디어 생성 혹은 자료 수집, 이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평가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매체를 활용할 때는 독자의 반응에 가장 신경 쓰고 있었다.

글이 갖는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고 잘 쓰고 싶은 마음은 강했지만 그런 태도에 비해 자주 쓰고 싶은 욕구는 그리 높지 않기도 했다.

이상의 결과는 어느 지점은 학생 필자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지점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성인 쓰기 교육은 이런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다. 학생 필자가아닌 성인 필자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쓰기는 유일하게 쓰기 행위로만 배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필자를 위한 쓰기 교육이 단순한 쓰기 이론이나 과정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직접 써보고 쓴 글을 서로 나누고 피드백을 받는 경험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 부담과 부끄러움에도 익숙해져야 진정한 쓰기 교육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인 필자의 쓰기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전국 단위 규모로 조사를 진행하여 최대한 대표성과 객관성을 띤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쓰기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교육적 처치를 실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 또한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의 성인 필자에 대한 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한정한 쓰기 어려움과 쓰기 태도의 범위를 넓혀 쓰기 막힘, 쓰기 멈춤, 쓰기 미룸, 쓰기 포기 등 쓰기 어려움에 의해 나타난 현상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쓰기 태도 뿐만이 아닌 쓰기 동기 및 쓰기 효능감 등의 다양한 정의적 요인들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성인 필자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가은아(2010), 쓰기 태도 및 쓰기 효능감 발달 연구 -6학년에서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159-1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통계자료 SM 2017-08.

권두승·조아미(2016), <제3판>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성인학습 및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김미정·김정환(2007), 자기평가 후 피드백 유형이 쓰기 능력과 쓰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41-163.
김민정·최건아(2020), 대학생의 읽기 및 쓰기 태도와 디지털 리터러시 태도 간 관계 분석리터러시연구 11, 한국리터러시학회, 131-160.
김석우·최태진·박상욱(2016), 교육연구방법론(2판), 서울: 학지사.
김정자(2014), 학생의 쓰기 경험에 대한 연구-학생들은 어떤 쓰기 경험을 하며 필자로 성장하는가, 한국초등국어교육 5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27-150.
류마리아(2016), 자율성과 소통 여부에 따른 성인 필자의 쓰기 동기 요인 고찰, 작문연구 31, 한국작문학회, 29-62.

류마리아(2019), 요구분석에 기반한 성인 쓰기교육 내용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류보라(2019), 예비 국어교사의 쓰기에 대한 인식과 쓰기 능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연구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97-417.
박영민(2006), 중학생의 쓰기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337-369.
박영민(2012), 초등국어교육에서 쓰기태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 한국초등국어교육 5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35-159.
박영민·이재기·이수진·박종임·박찬흥(2016), 작문교육론. 서울: 역락.
박정진(2017), 대학생 필자의 쓰기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어문교육 23,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33-55.
박종임(2011),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태도” 범주의 문제점 고찰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249-268.
성태제·시기자(2017), 연구방법론(2판), 서울: 학지사.
송정윤(2019), 중학생의 쓰기 막힘에 대한 인식과 양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송정윤·김경환(2016), 초.중.고등학생의 글쓰기 어려움에 대한 인식 연구, 청람어문교육 57, 청람어문교육학회, 97~131.
송정윤·이순영(2019), 중학생의 쓰기 막힘 경험에 대한 설문 연구(2): 쓰기 막힘의 원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27,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31~58.
양정윤·강옥려(2014), SNS를 활용한 쓰기 활동이 쓰기학습부진아의 쓰기 능력과 쓰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학습장애연구 11, 한국학습장애학회, 65-92.
오택환(2008), 협동 작문의 이론과 실제, 서울: 역락.
오택환(2009), 사범대생의 쓰기 태도 분석-서울지역 K 대학교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9, 한국작문학회, 153-178.
오현진(2019), 쓰기 어려움을 나타내는 용어들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80, 중앙어문학회, 417-442.
윤준채(2009), 초등학생 필자의 쓰기 태도 발달 연구, 작문연구 8, 한국작문학회, 277-297.
윤철민·김해인(2017), 인문계열 대학생들의 리포트 쓰기 어려움에 대한 연구: 대학 교양 강의 리포트 쓰기 활동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20, 한국리터러시학회, 127~153.
이순영(2016), 쓰기 막힘의 이해와 연구를 위한 시론: 개념, 원인, 연구 범주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52, 한국어교육학회, 285~314.
이순영·송정윤(2016), 중학생의 쓰기 막힘 경험에 대한 설문 연구(1): 쓰기 막힘의 기본 실태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28, 한국작문학회, 123-153.
임택균(2014), 동료 평가 활동이 쓰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당논집 6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81-215.
장은섭(2014), 초·중·고등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새국어교육 99, 한국국어교육학회, 173-208.
장은주·박영민(2013), 쓰기 중요도 · 선호 · 난도 · 습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15, 한국교육과정학회, 73-97.
최숙기(2016), 합법적 주변 참여에 기반한 성인의 직무 글쓰기 발달 양상 연구-4, 5급 공무원 직무 필자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29, 한국작문학회, 1-28.
최건아(2018), 보고서 쓰기에서 대학생 필자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 해결 전략에 관한 연구 - 패러다임 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국어교육학회 116, 113-142.
통계청(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통계청 보도자료.
통계청(2021), 직업별 취업자 통계표,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

통계청(2021), 지역별 인구 현황,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보도자료, 11.
Flower, L. & Hayes, J. R. (1980). A cognitive process theory of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65-387.
Hayes, J. R. (1996). A new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ognition and affect in writing , In C. Michael Levy & Sarah Ransdell(eds), The Science of Writing: Theories, Methods, Individual Differenc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Lawrence Erbaum Associates, Pub., 1-27.
Hayes, J. R. (2012). Modeling and Remodeling Writing, Written Communication, 29(3), 369-388.
Kellogg, R. T. (1994), The psychology of writing, NY : Oxford University Press.

성인 쓰기 특성 조사

이 설문은 성인 필자들의 특성을 알아 알아보는 조사입니다. 성인들이 어떤 글을 주로 쓰며 글을 쓸 때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지 알아보고, 쓰기 태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질문들은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설문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 결과는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귀하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남대학교 류마리아

* * *

◆ 아래의 설명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에서 '글'은 단순한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 짧은 글이라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주제를 갖게 되는 쓰기의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글의 유형별 분류표를 아래에 제시하였습니다. '글'은 종이에 쓰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 후 인쇄한 글, 메일이나 블로그를 포함한 인터넷 게시판과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에 올리는 글 모두를 포함합니다.

<글의 유형별 분류 예시>

직무 관련 글	자기소개서, 기안서, 품의서, (사내/외)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광고문, 보도자료, 거래 · 계약서, 기술문, 공문서, 평가서, 업무일지, 판결문, 진단서, 안내문, 설교문, 논문 등을 포함한 귀하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글**
자기표현 글	단상, 일기, 편지, 서평, 감상문, 자서전, 회고록, 여행기, 건의문, 민원서, 칼럼, 논평, 초청장, 조의문, 문학적인 글(시, 소설, 동화, 수필) 등을 포함한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 느낌을 표현한 모든 글**

※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 예시입니다. 여기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쓰시는 글이 있다면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표현 글 중 '문학적인 글(시, 소설, 동화, 수필)'은 직업작가들이 전문적으로 써서 출판하는 작품이 아닌 보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에세이 수준의 글을 말합니다.

1. 귀하께서 '직무 관련 글'을 쓰는 빈도는 어떠합니까? (최대한 가깝게 표시)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한두 번 ③ 한 달에 한두 번
④ 일 년에 서너 번 ⑤ 전혀 쓰지 않음

2. 귀하께서 '자기표현 글'을 쓰는 빈도는 어떠합니까? (최대한 가깝게 표시)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한두 번 ③ 한 달에 한두 번
④ 일 년에 서너 번 ⑤ 전혀 쓰지 않음

3. 귀하께서 '직무관련 글'이나 '자기표현 글'을 모두 포함하여 온라인 게시판(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게시판 등) **또는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에 글을 쓰는 빈도는 어떠합니까?** (최대한 가깝게 표시)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한두 번 ③ 한 달에 한두 번
④ 일 년에 서너 번 ⑤ 전혀 쓰지 않음

4.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쓰신 글을 소통합니까? (3개까지 중복선택 가능)

① 직무 관련 글을 서면으로 보고
② 직무 관련 글을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메신저 서비스 등으로 전송
③ 직무 관련 글(예-광고, 안내 등)을 온라인 게시판 또는 SNS에 올려 타인과 소통
④ 자기표현 글을 개인적인 공간에 기록하고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음
⑤ 자기표현 글을 종이에 직접 쓰거나 인쇄하여 타인과 소통
⑥ 자기표현 글을 온라인 게시판 또는 SNS에 올려 타인과 소통

5. 귀하께서 글을 쓸 때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순위대로 2개까지 선택 가능,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됨)

① 글의 주제 정하기
② 글을 쓰는 이유와 예상 독자를 분석하기
③ 주제에 적합한 정보나 자료(쓸거리)를 찾아내기
④ 수집한 정보나 자료를 글의 목적에 맞게 배열하고 구성하기
⑤ 독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표현하기
⑥ 글을 쓴 이후 주제에 맞게 삭제, 첨가, 재구성하여 고쳐쓰기
⑦ 어법, 철자, 어휘 등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6. 귀하께서 글을 쓸 때 느끼는 <u>감정적 어려움</u>은 어떤 것입니까?
(순위대로 2개까지 선택 가능,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됨)

① 글쓰기에 흥미가 없음
② 글을 쓸 정신적인 여유가 없음
③ 누군가에게 평가되는 부담감이 싫음
④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⑤ 글쓰기가 그다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⑥ 강제적으로 부과된 쓰기를 해야 할 경우 몰입과 동기가 약해짐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7. 귀하께서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쓸 때 느끼는 <u>어려움</u>은 어떤 것입니까?
(순위대로 2개까지 선택 가능,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됨)

① 남들이 읽고 싶어 하는 흥미로운 내용을 떠올리기 어려움
② 이미지, 이모티콘, 동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③ 저작자 표시 등 출처를 확인하고 쓰는 것이 까다롭고 귀찮음
④ 독자의 반응(댓글, 좋아요, 리트윗, 공유하기 등)이 신경 쓰임
⑤ 각각의 형식에 맞는 글의 길이나 화면 구성 등 적절한 게재 방식을 알지 못함
⑥ 온라인 게시판, SNS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어려움 없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8. 귀하께서 글을 <u>잘 쓰고 싶은</u>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조금 낮다 ④ 보통 ⑤ 조금 높다 ⑥ 높다 ⑦ 매우 높다

9. 귀하께서 글을 <u>자주 쓰고 싶은</u>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조금 낮다 ④ 보통 ⑤ 조금 높다 ⑥ 높다 ⑦ 매우 높다

「성인 필자의 쓰기 특성 분석(류마리아)」에 대한 토론문

박준범(경남대학교)

본 발표문은 설문 조사를 통해 성인 필자의 쓰기 특성을 ‘쓰기 소통 방식, 쓰기 어려움, 쓰기 태도’의 범주로 나누어 고찰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성별, 연령, 학력,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한 할당 표집 방법을 통해 성인 1,655명을 설문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쓰기 소통 방식’을 직무 글쓰기 소통 방식과 자기표현 글쓰기 소통 방식을 구분하고, 이를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직업별로 나누어 쓰기 특성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쓰기 어려움’은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요인에 의한 쓰기 어려움은 ‘주제정하기’, ‘맥락 분석’, ‘쓸거리 찾기’, ‘구성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어법 및 철자’에 따라, 후자의 요인에 의한 쓰기 어려움은 ‘흥미 없음’, ‘정신적 여유 없음’, ‘평가 부담감’, ‘낮은 쓰기 효능감’, ‘낮은 가치 평가’, ‘강제 부과 부담’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필자별로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매체 글쓰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도 ‘흥미로운 소재 찾기’, ‘복합적 사용’, ‘저작권 확인’, ‘독자의 반응’, ‘적절한 게재 방식’으로 구분하여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필자별로 논의했습니다. 끝으로, ‘쓰기 태도’는 잘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과 자주 쓰고 싶은 긍정적 태도 수준으로 구분하여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필자별로 논의했습니다.

성인 필자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연구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다양한 요인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하위 구분하여 성인 필자의 쓰기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발표문을 통해 갖게 된 몇 가지 궁금한 점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성인 쓰기 특성 조사’ 설문지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궁금합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성인 1,65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설문 조사를 계획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으리라고 추측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 학력, 지역, 직업 등을 가진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어떤 경로로 설문지를 배포했는지, 연구 대상자를 어떻게 특정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지에서 몇몇 설문 항목은 그 타당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설문지의 1~3번 문항의 응답 항목에서 ①과 ②~⑤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게 넓습니다. 예를 들어, ①의 ‘거의 매일’의 쓰기 빈도를 1년으로 환산한 백분위는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②의 ‘일주일에 한두 번’을 동일한 방식으로 환산한 백분위는 14.25~28.49%밖에 되지 않고, ③의 ‘한 달에 한두 번’은 3.29~6.58%, ④의 ‘일 년에 서너 번’은 0.82~1.10%로 ②보다 빈도가 낮고, ⑤의 빈도는 0%입니다. 따라서 응답 항목 ①과 ② 사이의 백분위 간극이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항 설정은 연구 대상의 다양한 쓰기 빈도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2) 4번 문항에서 직무 글쓰기와 관련한 응답 항목(①~③) 중에서 ③은 직무가 아닌 특정 보직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①, ②와 ③을 동일한 위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나 혹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표 Ⅳ-2>(11-12쪽), <표 Ⅳ-5>(15쪽)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7번 문항에서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쓸 때 느끼는 어려움'이 직무 글쓰기와 관련한 것인지, 자기표현 글쓰기와 관련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글을 쓰는 어려움이 장르-직무 글쓰기와 자기표현 글쓰기-와 무관한지 여부, 두 장르의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지 등은 매우 흥미로운 논점이 아닐까 합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전)할당표집(quota sample)한 표본을 통해 얻은 분석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 연령, 학력, 지역, 직업에서 하위 구분의 표본 수의 비율이 균등하지 못하므로 분석 결과가 특정 하위 구분 항목이 보인 특성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력 중에서 '중졸 이하'의 표본과 '대학 재학 및 졸업'의 표본이 갖는 가치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직업 중 '사무종사자'의 비율(46.5%)이 다른 직업 항목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거나 지역 중 '서울', '경기도'의 비율이 전체적인 측면(각 30.3%, 29.1%)에서나, 하위 구분의 측면(각 61.08%, 73.01%)에서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행정구역 상 규모에 따라 '서울 및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하위 구분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지리적인 조건으로서의 지역이라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였는지도 모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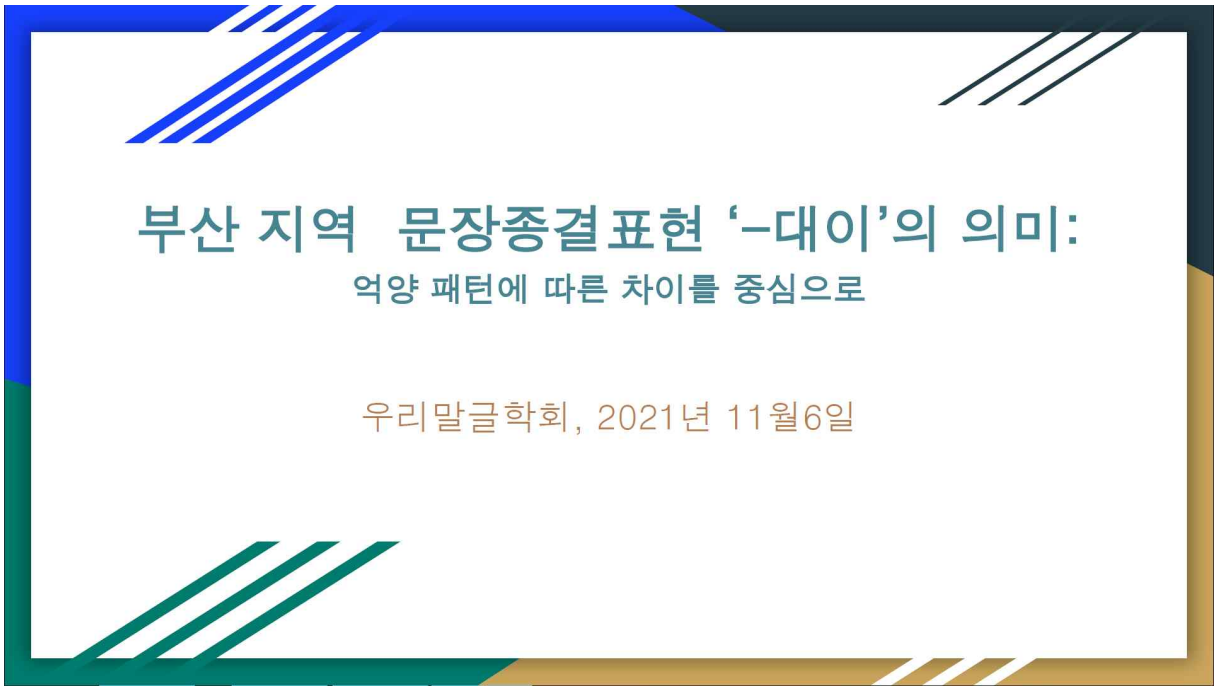
3) <표>에서 보인 통계 수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표 Ⅳ-1>(10쪽)에서 백분위의 모수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의 '직무 관련 글 서면 보고'(43.0%), '직무 관련 글 이메일, 인트라넷, 메신저 전송'(53.8%), '직무 관련 글 온라인 게시판, SNS 게재'(13.9%)이므로 백분위의 합이 110.7%가 됩니다. 그 외의 항목들도 무엇을 모수로 둔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뒤의 <표>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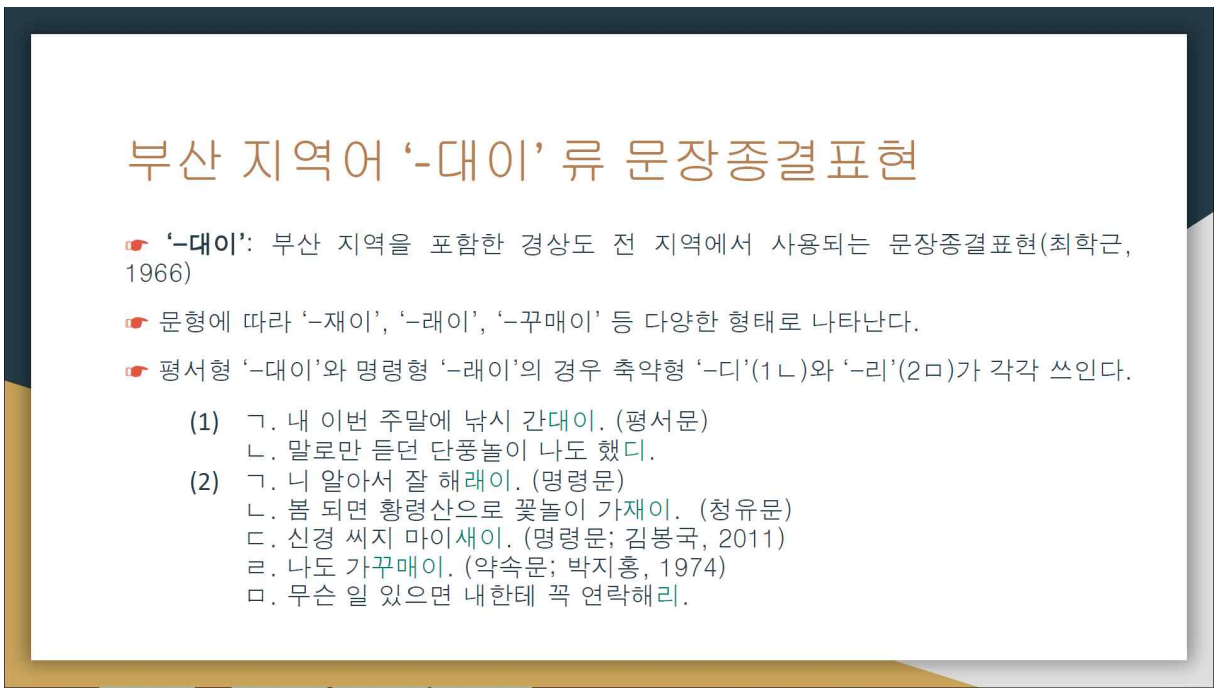
넷째, 결과 분석 중에서 필자를 직무 글쓰기 필자와 자기표현 글쓰기 필자로 구분하였는데, 그 근거나 구분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표 Ⅳ-5>(15쪽), <표 Ⅳ-7>(18쪽), <표 Ⅳ-9>(20쪽), <표 Ⅳ-11>(22쪽, 여기서는 '매체 글쓰기 필자'도 제시됨), <표 Ⅳ-13>(25쪽), <표 Ⅳ-15>(27쪽)).

다시 한번 본 연구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논문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산 지역 문장종결표현 ‘–대이’의 의미 – 억양 패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옥희(부산대학교), 박유경(서울대학교)





'-대이'류에 대한 기존 논의의 분석

✿ **형태에 대한 분석***

- ❋박지홍 (1974): 어미 '-다/니라/자/ㅂ시더/라/(어)소/꾸마' + -애이
  → -대이/니래이/재이/래이/새이/꾸매이
- ❋천시권 (1981): '-다' + '-이' (감정적 뉘앙스 더함) → '-다이' ─(움라우트)→ '-대이'
- ❋권재일 (1982): '-다' + '-이' (문장종결 특수조사) → '-다이'─(움라우트)→ '-대이'
- ❋박지홍 (1991): 어미 '-다/라/꾸마' > '-대/래/꾸매' + '-이' (특수조사) > '-대이/래이/꾸매이'
- ❋김봉국 (2011): '-이소' + '-이이' (친밀함을 드러내는 첨사) → '-이쇠이' > '-이새이'
  '-자/라' + '-이이' → '-재이/래이'
- ❋김영선 (2012): '-다' + '-(으)이' → '-대이'

*축약형 '-디'와 '-리'에 대한 언급은 없음. 축약형에 대한 최초 언급은 박유경·이옥희(2021). '-대이/래이'와 의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젊은 세대나 여성들이 '-대이/래이' 대신에 쓰는 표현으로 봄.

'-대이'류에 대한 기존 논의의 분석

✿ **의미에 대한 분석**

- ❋박지홍 (1974, 1991)
  - ▸평서형 '-대이, -재이, -꾸매이': '다짐, 확인'(1974), '확실, 확정' (1991)
  - ▸명령형 '-래이': '당부, 부탁'(1974), '당부'(1991)

┌**다짐**: 이미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틀림이 없음을**단단히 강조**하거나 확인
└**확인**: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함
┌**당부**: 말로 **단단히** 부탁함
└**부탁**: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거나 맡김
확정: 일을 확실하게 정함

'-대이'류에 대한 기존 논의의 분석

✿ 의미에 대한 분석

❊권재일 (1982)

▸특수조사 '-이'의 의미:

"화자에게 확인되어진 것(혹은 완료된 상황인 것을 인식한 것)을 전제로 하여 강조 다짐하는 방법" (권재일, 1981, p.15; 강조표시는 본 발표자가 더한 것임)

'-대이'류에 대한 기존 논의의 분석

✿ 의미에 대한 분석

❊박유경·이옥희 (2021), 박유경(2021)

▸'-대이'류 문장종결표현의 핵심적인 의미 기능은 **강조**.

☛ **강조:** 청자로 하여금 해당 발화의 명제 내용을 습득하라고**명시적으로 제안**하는 것

▸'-대이'류 문장종결표현을 적절히 발화하기 위한 전제

☛ **관련성(Relevance):** 해당 발화의 명제 내용은 청자가 (당면한/곧 당면하게 될) 행위 결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 **정보습득의 불확정성:** 청자가 해당 발화의 명제 내용을**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일본어 -yo vs. '-대이'류

✿ **일본어의 맥락갱신 표지(Context update marker), '-yo'**

- '-대이'류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진 표현으로서 기존 분석을 살펴볼 가치가 있음.
- 문장의 진리조건적 의미 해석에 관여하지 않는다. (-yo는 전제의미 유발표현)
- 발화의 명제 내용이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이거나 '청자가 잊고 있는 정보'일 때 자연스럽게 쓰인다.

(3) [Sauta는 Ayaka가 자신이 타야할 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

S:	densha	ki-ta	#(*yo*↑)
	train	come-PAST	#(*yo*↑)

'The train is here *yo*' (Northrup, 2014, p.72, ex.81)

일본어 -yo vs. '-대이'류

✿ **일본어의 맥락갱신 표지(Context update marker), '-yo'**

- **상승억양**(Raising intonation, ↑)과 함께 쓰일 때:
  청자의 행위기반 결정문제(action-based decision problem)에 '관련된(relevant)' 정보라는 전제가 유발됨.(Davis 2009, 2011)

(3') [Sauta는 Ayaka가 자신이 타야할 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

S:	densha	ki-ta	#(*yo*↑)
	train	come-PAST	#(*yo*↑)

'The train is here *yo*' (Northrup, 2014, p.72, ex.81)

일본어 -yo vs. '-대이'류

✿ **일본어의 맥락갱신 표지(Context update marker), '-yo'**

▸**하강억양**(Falling intonation, ↓)과 함께 쓰일 때: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전제를 유발함.(Davis 2009,2011)
정보수정의 맥락에서 주로 쓰임.

(4) A: souridaijin-ga nakunat-ta
prime.minister-NOM die-PAST
'The prime minister died.'
B: sin-de-nai yo↓/#yo↑
die-INF-NEG yo↓/#yo↑
'(No), he did not die.' (Davis, 2009, p.336, ex.8)

일본어 -yo vs. '-대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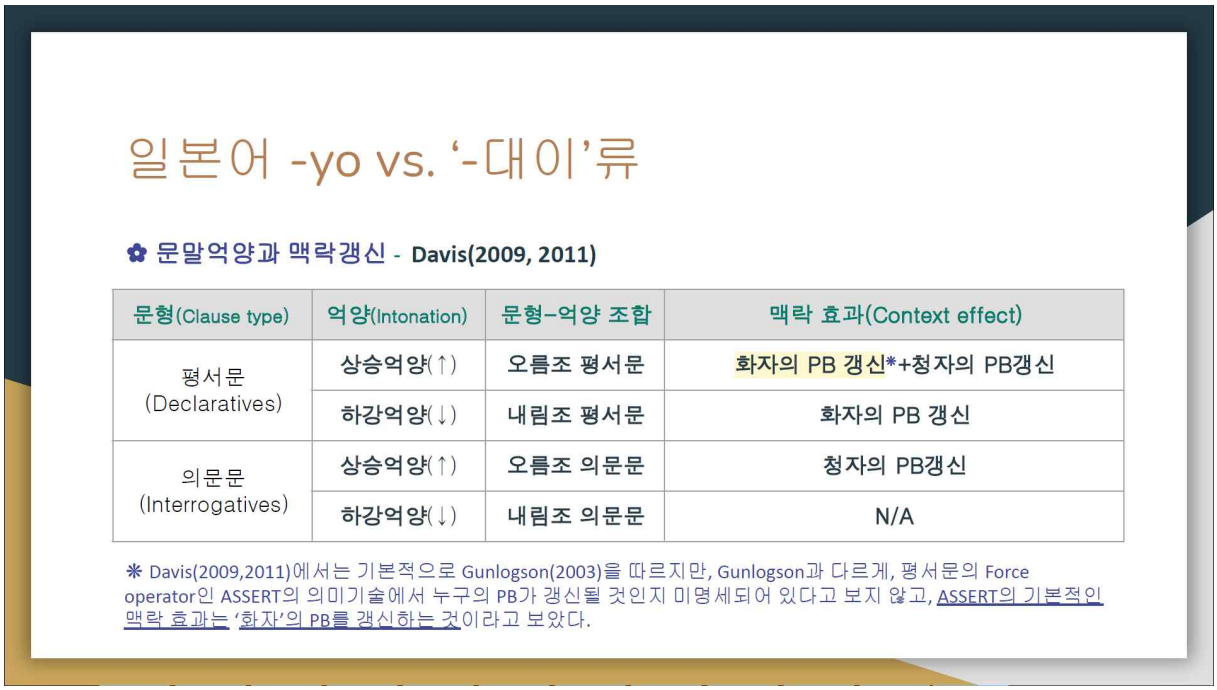
✿ **문말억양과 맥락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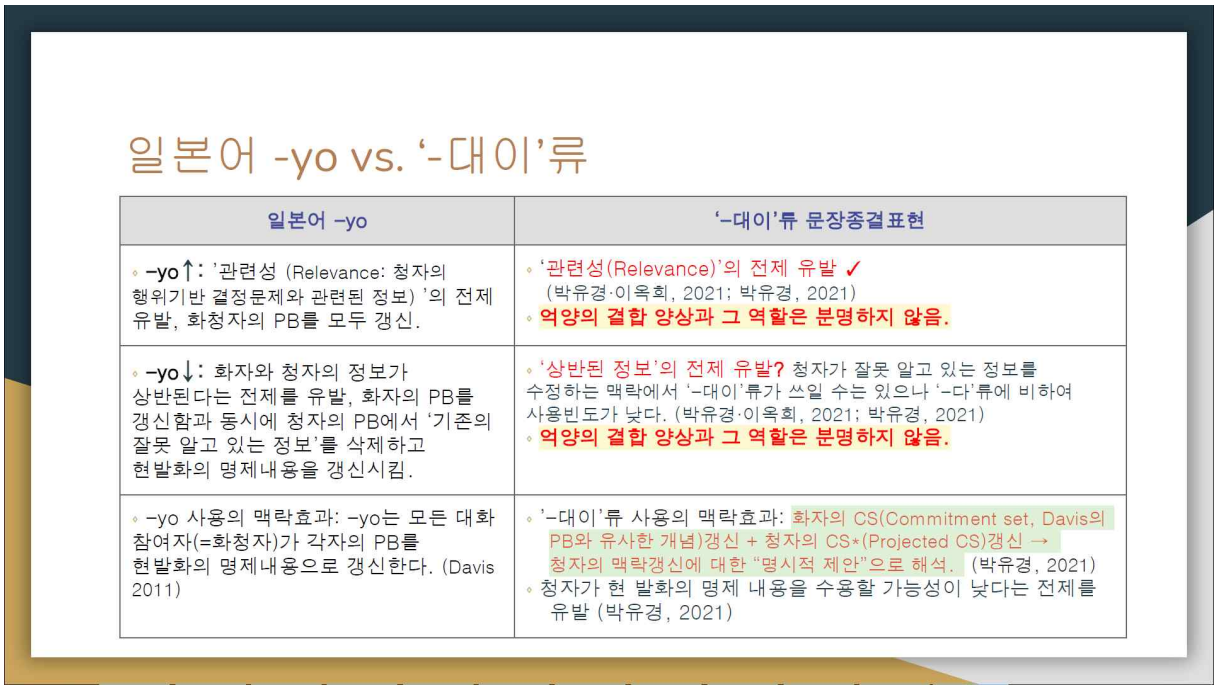
✻Gunlogson(2003)

▸공통기반(Common Ground, 대화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지식의 집합, Stalnaker 1978)은 대화 참여자들 각 개인의 공적 믿음(Public beliefs)들로부터 파생된다.
▸화자와 청자의 공적 믿음(Public beliefs)의 교집합 = 공통기반

$$CG_{\{A,B\}}(c) = PB_A(c) \cap PB_B(c)$$

▸문장의 명제 내용이 누구의 공적 믿음에 갱신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ASSERT와 같은 문형 연산자(Sentence Force)에 명세되어 있지 않고, 공적 믿음 갱신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억양을 통해 결정된다: 하강억양으로 발음되면 화자의 PB가, 상승억양으로 발음되면 청자의 PB가 갱신된다. 따라서 하강억양은 평서문에 상승억양은 의문문에 주로 쓰임.


일본어 -yo vs. '-대이'류
✿ 문말억양과 맥락갱신 - Davis(2009, 2011)
문형(Clause type)
억양(Intonation)
문형-억양 조합
맥락 효과(Context effect)
평서문 (Declaratives)
상승억양(↑)
오름조 평서문
화자의 PB 갱신*+청자의 PB갱신
하강억양(↓)
내림조 평서문
화자의 PB 갱신
의문문 (Interrogatives)
상승억양(↑)
오름조 의문문
청자의 PB갱신
하강억양(↓)
내림조 의문문
N/A
* Davis(2009,2011)에서는 기본적으로 Gunlogson(2003)을 따르지만, Gunlogson과 다르게, 평서문의 Force operator인 ASSERT의 의미기술에서 누구의 PB가 갱신될 것인지 미명세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 ASSERT의 기본적인 맥락 효과는 '화자'의 PB를 갱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일본어 -yo vs. '-대이'류
일본어 –yo
'–대이'류 문장종결표현
◦ –yo↑: '관련성 (Relevance: 청자의 행위기반 결정문제와 관련된 정보) '의 전제 유발, 화청자의 PB를 모두 갱신.
◦ '관련성(Relevance)'의 전제 유발 ✓ (박유경·이옥희, 2021; 박유경, 2021)
◦ 억양의 결합 양상과 그 역할은 분명하지 않음.
◦ –yo↓: 화자와 청자의 정보가 상반된다는 전제를 유발, 화자의 PB를 갱신함과 동시에 청자의 PB에서 '기존의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삭제하고 현발화의 명제내용을 갱신시킴.
◦ '상반된 정보'의 전제 유발? 청자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수정하는 맥락에서 '–대이'류가 쓰일 수는 있으나 '–다'류에 비하여 사용빈도가 낮다. (박유경·이옥희, 2021; 박유경, 2021)
◦ 억양의 결합 양상과 그 역할은 분명하지 않음.
◦ –yo 사용의 맥락효과: –yo는 모든 대화 참여자(=화청자)가 각자의 PB를 현발화의 명제내용으로 갱신한다. (Davis 2011)
◦ '–대이'류 사용의 맥락효과: 화자의 CS(Commitment set, Davis의 PB와 유사한 개념)갱신 + 청자의 CS*(Projected CS)갱신 → 청자의 맥락갱신에 대한 "명시적 제안"으로 해석. (박유경, 2021)
◦ 청자가 현 발화의 명제 내용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를 유발 (박유경, 2021)

'-대이'류 문장종결표현과 억양

✿ 연구 질문

☞ 경상방언의 '-대이'류 문장종결표현도 억양에 따른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

☞ 의미의 차이가 있다면 맥락갱신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부산지역의 '-대이'류 사용실태 조사

✿ 조사 방법

❊ 피실험자

거주지: 부산

연령대: 30대~40대

성별과 인원수: 남녀 각 15명 총 30명

직업: 사무직과 교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

출신지와 성장지: 부산

부모의 출신지: 두 분 모두 부산 또는 경남 73.3%, 한 분만 부산/경남 16.6%, 그 외 지역 10%

피실험자들의 성별에 따른 연령대별 분포

✿ 성별에 따른 연령대별 분포 (단위: 명)

연령 / 성별	30대			40대			합계
	초	중	후	초	중	후	
남성	3	1	2	9	0	0	15
여성	3	3	3	5	1	0	15
합계	6	4	5	14	1	0	30
	15			15			

피실험자들의 직업별 분포

✿ 직업별 분포 (단위: 명)

직업	일반 사무직	교,강사	간호사	영업직	공무원	공예작가	세무사	자영업	합계
수	15	6	3	2	1	1	1	1	30

부산지역의 '-대이'류 사용실태 조사

✿ 조사 방법

* **사전 준비:** 질문지 문항은 총 28문항(하위질문 3개 포함, 사실상 31문항임)
  질문지 내용: 문형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 또는 두 사람의 대화 형식
  완성형: 빈칸에 적절한 문말 어미를 넣어 완성하기
* **인터뷰:** 조용한 실내, 미리 질문지 제공, 상황 파악 후 자연스러운 답변 유도.
* **분석:** 음성분석프로그램 Praat 6.0, 음성 파일 수: 30명*31=930개
  (long sound : 0.20s 이상, steep slope : 45도 초과)

질문지 예시: 완성형

✿ 상황 제시 + 하나의 문장 형식

(1) 버스정류장 철수와 현주는 각자 자신이 탈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철수는 89번, 현주는 90 번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다. 철수가 타야 할 89번 버스가 멀리서 오는 것이 보이는데 철수는 핸드폰을 보느라 버스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 (89번 버스가 오는 상황을 현주가 철수에게 알려주는 상황)

현주: (친구에게) 야! 버스 온(___).

✿ 대화 형식

(27) 철수: 현호 생일파티 같이 갈래
경선: 아 바빠서 안 될 거 같은데
철수: 그러지 말고 같이 가(___).

부산 지역의 '-대이'류 사용실태

✿ 문형별 사용 실태

- ✻ 박유경·이옥희(2021)의 경북 지역 청장년층의 '-대이'류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장년층 방언 화자들이 '-새이', '-내이?', '-꾸매이'를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 ✻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새이', '-내이?', '-꾸매이'를 사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 ✻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실제 사용이 확인된 '-대이', '-래이', '-재이'를 중심으로 그 분포와 의미 특성을 살펴본다.

  다만, '-대이'의 높임법 형태인 '-습니대이'와 축약형 '-디'는 '-대이'에, '-래이'의 축약형 '-리'와 명령형의 한 형태인 '-내이(예: 들어온내이)'는 '-래이'에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부산 지역의 '-대이'류 사용실태

✿ 상황별 사용 실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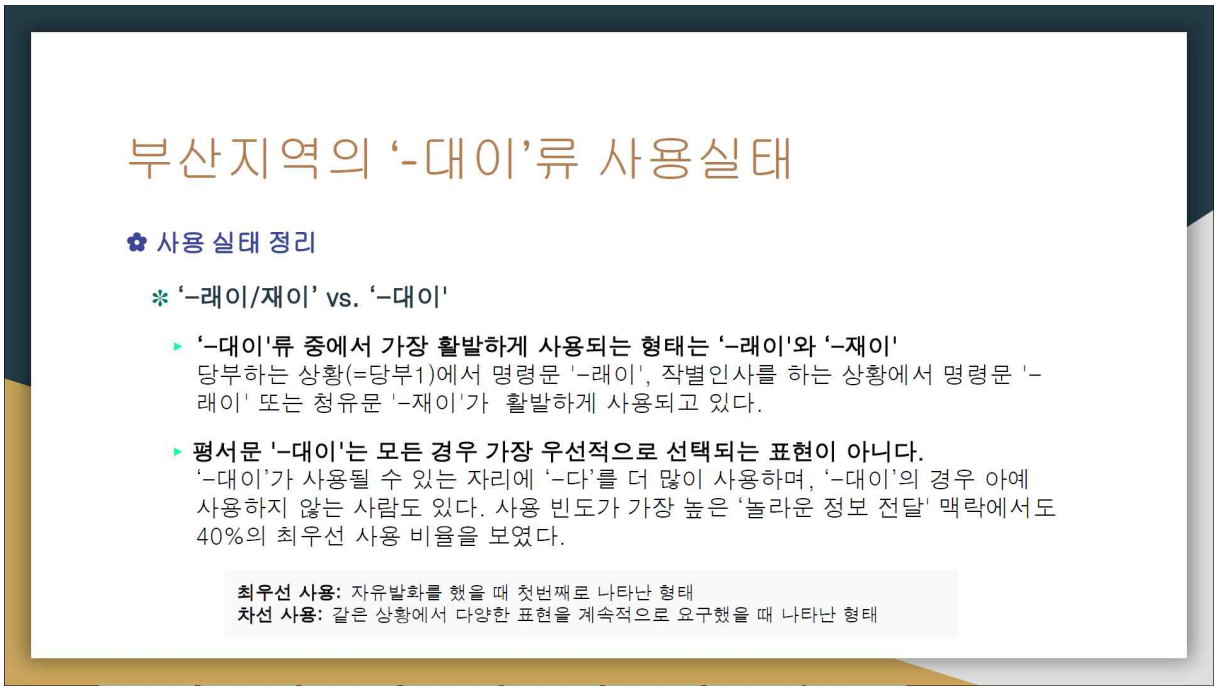
형태	맥락특성	조사내용 예시
평서문 -대이	**관련성(Relevance):** 청자의 (잠재적) 행위-기반 결정 문제에 대한 관련성을 기반으로 '확인/당부'하는 경우	(창문없는 지하연습실) 화자는 연습실로 들어오고, 얼마 후 연습실에 있던 철수가 나가려고 하자. "밖에 비온___."
	놀라운 정보의 전달: 놀랄만한 정보, 자랑거리를 전달하는 경우	"야, 놀래지 마라. 내 어제 장동건 만났___."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구정보 전달):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	지호는 민정이가 어제 한국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현수에게 전한다. 현수는 어제 공항으로 민정이를 데리러 갔었기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호: 민정이 어제 한국 들어왔다 하더라. 현수: 어 그래 들어왔___.
	정보 수정: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수정하는 맥락	현호: 철수 가는 작년에 졸업했으니까, 지금쯤 취업준비하느라 바쁘겠네? 명수: 아이다. 가 아직 졸업 못했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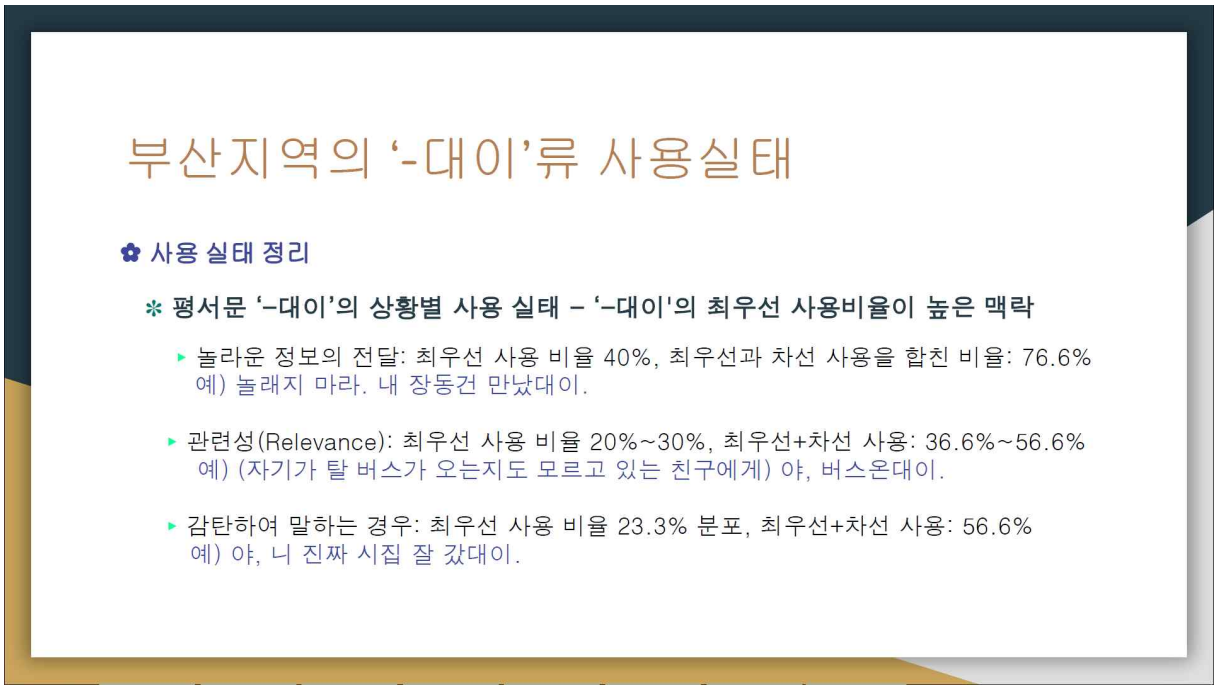
부산 지역의 '-대이'류 사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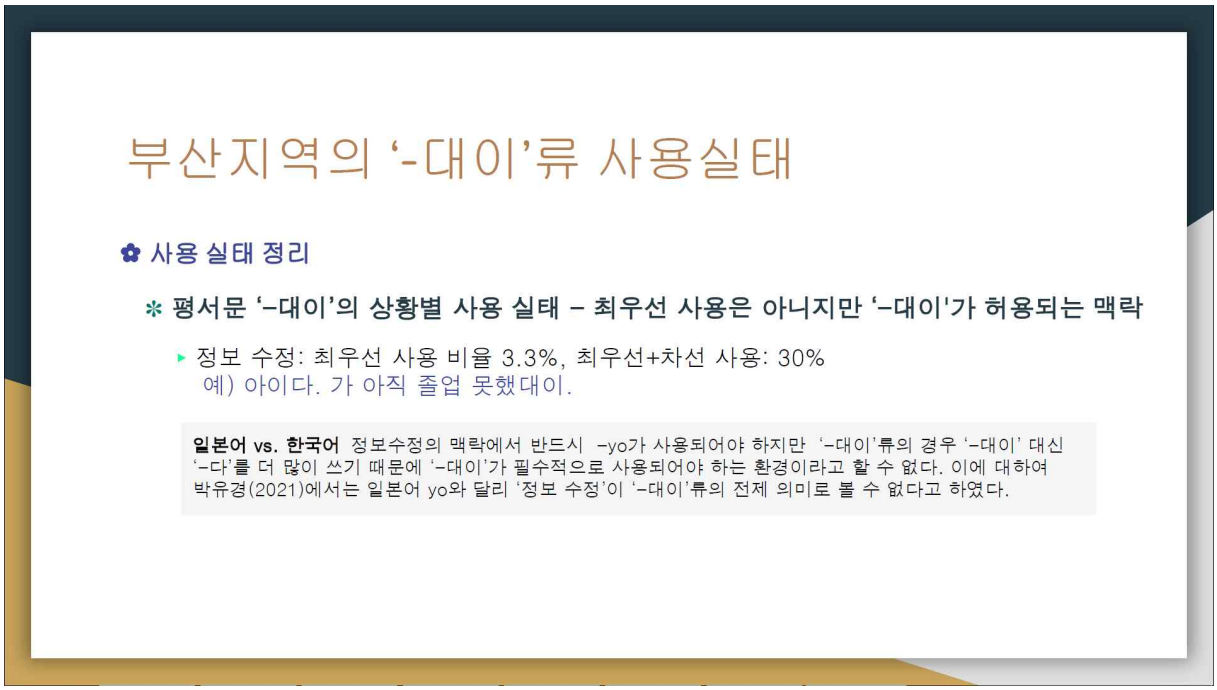
형태	맥락특성	조사내용 예시
평서문 -대이	**감탄**: 감탄하여 말하는 경우	느거 신랑은 이런 것도 다 해주나? 와~ 니 진짜 시집 잘 갔___.
	질문-응답: 상대방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	지현: 자격루는 누가 만들었노? 현호: 장영실이 만들었___.
명령문 -래이	**부탁**: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화자에게 필요한 것)	내한테 100만원만 좀 빌리___.
	당부1: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당부하는 경우 (청자에게 필요한 정보-관련성Relevance)	(숙제를 도와주다가 자리를 뜨면서) 혼자 하다가 이해 안되는 거 있으면 내한테 물어봐___.
	당부2: 상대방에게 제3자를 도와주라고 당부하는 경우 (청자에게 필요한 정보-관련성Relevance)	(엄마가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라고 시키는 상황) 엄마: 자가 오늘 숙제 어렵다고 난리다. 니가 좀 도와주___.
	명령: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시키는 경우 (청자에게 필요한 정보-관련성Relevance)	(시끄럽게 음악을 듣고 있는 동생에게) 음악 좀 꺼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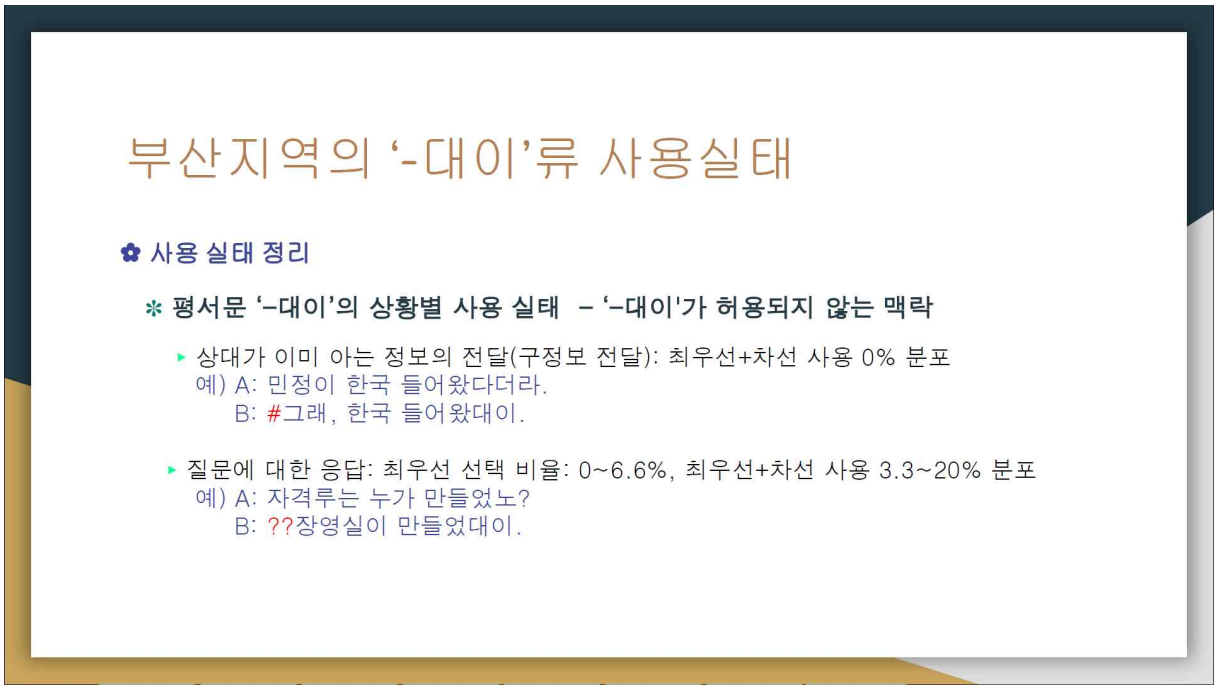
부산 지역의 '-대이'류 사용실태

형태	맥락특성	조사내용 예시
명령문 -래이	**제안1**: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 보라고 제안하는 경우	니가 볼라고 하던 영화 개봉했더라 가서 봐___.
청유문 -재이	**제안2**: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	철수: 현호 생일파티 같이 안갈래? 경선: 아 바빠서 안될 거 같은데 철수: 그러지 말고 같이 가___.
명령문 -래이 또는 청유문 -재이	**작별 인사**: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동창모임에서 헤어지며) 잘 가___.


부산지역의 '-대이'류 사용실태
✿ 사용 실태 정리
✻ '-래이/재이' vs. '-대이'
'-대이'류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형태는 '-래이'와 '-재이'
당부하는 상황(=당부1)에서 명령문 '-래이', 작별인사를 하는 상황에서 명령문 '-래이' 또는 청유문 '-재이'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평서문 '-대이'는 모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표현이 아니다.
'-대이'가 사용될 수 있는 자리에 '-다'를 더 많이 사용하며, '-대이'의 경우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놀라운 정보 전달' 맥락에서도 40%의 최우선 사용 비율을 보였다.
최우선 사용: 자유발화를 했을 때 첫번째로 나타난 형태
차선 사용: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표현을 계속적으로 요구했을 때 나타난 형태


부산지역의 '-대이'류 사용실태
✿ 사용 실태 정리
✻ 평서문 '-대이'의 상황별 사용 실태 – '-대이'의 최우선 사용비율이 높은 맥락
놀라운 정보의 전달: 최우선 사용 비율 40%, 최우선과 차선 사용을 합친 비율: 76.6%
예) 놀래지 마라. 내 장동건 만났대이.
관련성(Relevance): 최우선 사용 비율 20%~30%, 최우선+차선 사용: 36.6%~56.6%
예) (자기가 탈 버스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친구에게) 야, 버스온대이.
감탄하여 말하는 경우: 최우선 사용 비율 23.3% 분포, 최우선+차선 사용: 56.6%
예) 야, 니 진짜 시집 잘 갔대이.


부산지역의 '-대이'류 사용실태
✿ 사용 실태 정리
✻ 평서문 '-대이'의 상황별 사용 실태 – 최우선 사용은 아니지만 '-대이'가 허용되는 맥락
▸ 정보 수정: 최우선 사용 비율 3.3%, 최우선+차선 사용: 30%
예) 아이다. 가 아직 졸업 못했대이.
일본어 vs. 한국어 정보수정의 맥락에서 반드시 -yo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대이'류의 경우 '-대이' 대신 '-다'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대이'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박유경(2021)에서는 일본어 yo와 달리 '정보 수정'이 '-대이'류의 전제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부산지역의 '-대이'류 사용실태
✿ 사용 실태 정리
✻ 평서문 '-대이'의 상황별 사용 실태 – '-대이'가 허용되지 않는 맥락
▸ 상대가 이미 아는 정보의 전달(구정보 전달): 최우선+차선 사용 0% 분포
예) A: 민정이 한국 들어왔다더라.
B: #그래, 한국 들어왔대이.
▸ 질문에 대한 응답: 최우선 선택 비율: 0~6.6%, 최우선+차선 사용 3.3~20% 분포
예) A: 자격루는 누가 만들었노?
B: ??장영실이 만들었대이.

부산지역의 '-대이'류 사용실태

✿ 사용 실태 정리

✻ 명령문 '-래이', 청유문 '-재이'의 상황별 사용 실태 – 최우선 사용 비율이 높은 맥락

- 당부1: 최우선 사용 비율 56~73%, 최우선+차선 사용 비율 86~100%
  예) 모르는 거 있으면 내한테 물어봐래이.
- 작별인사: 명령문 '-래이' 또는 청유문 '-재이' 사용
  최우선 사용 66.6%, 최우선+차선 사용 비율 90~100%
  예) 잘 가래이. / 잘 가재이.

부산지역의 '-대이'류 사용실태

✿ 상황별 사용 실태

✻ 명령문 '-래이', 청유문 '-재이'의 상황별 사용 실태 – 최우선 비율이 낮지만 허용되는 맥락

- 명령: 최우선 선택 비율 13.3%~20%, 최우선+차선 사용 33.3%~40%
  예) (시끄럽게 음악을 듣고 있는 동생에게) 음악 좀 꺼래이.
- 당부2: 최우선 선택 비율 20%, 최우선+차선 사용 40%
  예) 동생 숙제 좀 도와주래이.
- 제안1: 최우선 선택 비율 10%, 최우선+차선 사용 30%
  예) 니 보고 싶어하던 영화 나왔더라. 보러 가래이.
- 제안2: 최우선 선택 비율 6.6%, 최우선+차선 사용 30%
  예)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재이.

부산지역의 '-대이'류 사용실태

✿ **상황별 사용 실태**

✻ **명령문 '-래이', 청유문 '-재이'의 상황별 사용 실태 – 허용되지 않는 맥락**

▸ 부탁: 최우선+차선 사용 0%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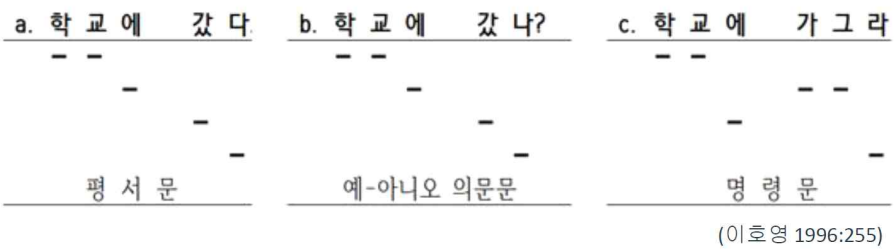
예) *내한테 100만원만 빌리주래이. / *내한테 100만원만 빌리대이.

cf. 내한테 100만원만 빌리도./빌리대./빌리주라.

경상도 방언의 문말 억양

✿ **경상도 방언의 문말 억양**

✻ 문형의 **유형에 관계 없이 하강조** 또는 경우에 따라 **수평조**로 실현된다.



(이호영 1996:255)

경상도 문말 억양의 일반적인 특징

✿ **경남 방언의 문말 억양의 특징**

<경남방언>

(이병운 1997:89)

- **서술문(평서문)**
  - 어간에 비해 **낮은 데서 시작**한다.
  - 말끝이 흐리게 들리기도 한다.
  - **하강조**이며 **경사가 완만**하고 **문말 억양의 길이가 아주 짧다.**
- **의문문: 기본적으로 하강조**이지만,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의 억양은 차이가 있다.
- **명령문과 청유문:** 문말 억양 역시 **하강조**이다.

이병운(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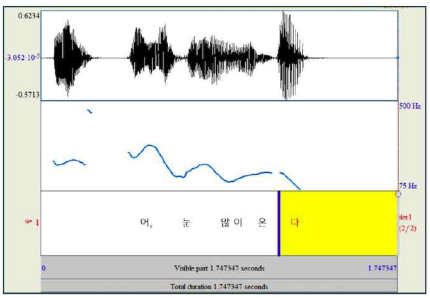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분포	-대이	-다
*-대이/ᵒᵏ다	NONE	[1] 전형적인 평서문 L% – short, 완만한 하강 – 경상방언의 평서문마지막 음절의 억양은L로 나타남 (이병운1997, 김대성2001, 이호영1993 등) – 문장 끝이 짧게 끝남.(이병운1997)
대이/다 둘다가능 관련성(Relevance)	[2] 가운데 수평조(M%) 또는 낮은 수평조(L%) 경사가 완만하거나 평평하고길게 이어짐 사람에 따라 끝부분의 상승이 관찰됨 예) (우산없이 밖으로 나가려는 친구에게) 밖에 비온대이.	[3] 주로 L% – short가 나타남 [1]과 같은 M%/L% 도 관찰됨 예) (우산없이 밖으로 나가려는 친구에게) 밖에 비온다.
대이/다 둘다가능 관련성(Relevance) 없음. 놀라운 소식전달, 정보수정	[4] L% – short 예) 놀래지 마라, 내 장동건 만났대이. 예) 아이다 가 아직 졸업 못했대이.	[5] (9) 놀래지 마라, 내 장동건 만났다.(거의사용하지 않음) (6) 졸업못했다. (L% – sh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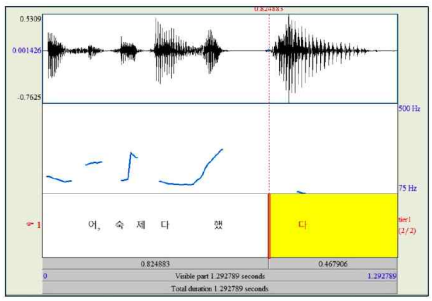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1] '-대이'가 허용되지 않는 맥락: 질문-응답, 구정보전달

'-다' 의 억양



<그림1> '-다' L%, short (남자7, 질문-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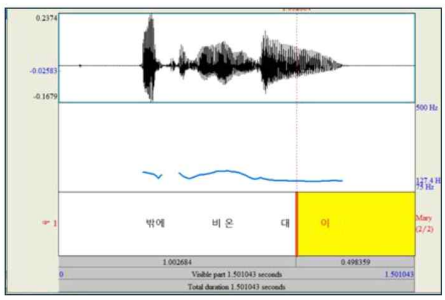


<그림2> '-다' L%, short (남자9, 질문-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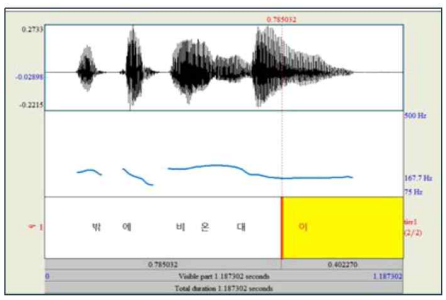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2] '-대이/다' 모두 허용: 관련성(Relevance) 맥락

'-대이' 의 억양



<그림3> '-대이' L%, long (남자5,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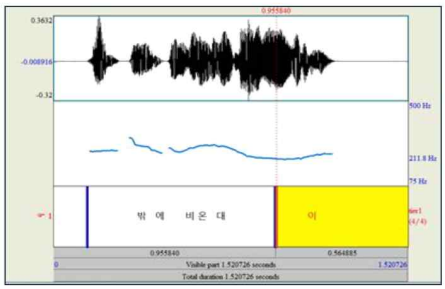


<그림4> '-대이' M%, long (여자2,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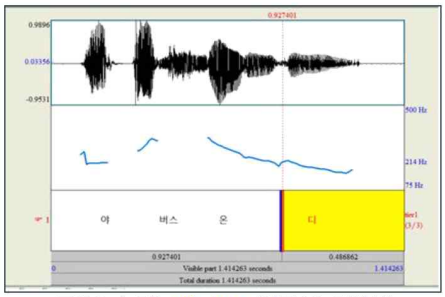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2] ‘-대이/다’ 모두 허용: 관련성(Relevance) 맥락

‘-대이’ 의 억양: 끝부분이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됨



<그림5> ‘-대이’ LM%, long (여자1,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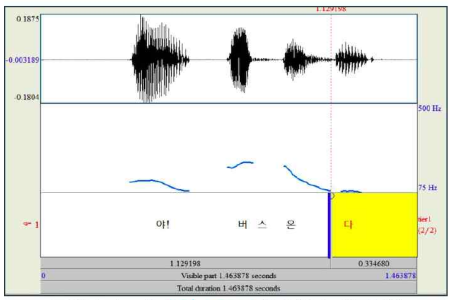


<그림6> ‘-디’ L%, long (여자12,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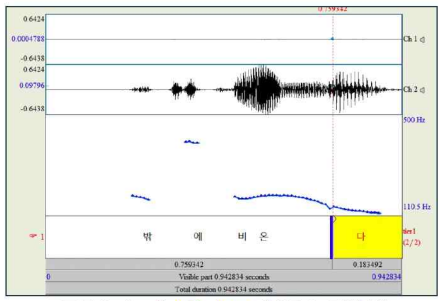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3] ‘-대이/다’ 모두 허용: 관련성(Relevance) 맥락

‘-다’ 의 억양



<그림7> ‘-다’ L%, short (남자14,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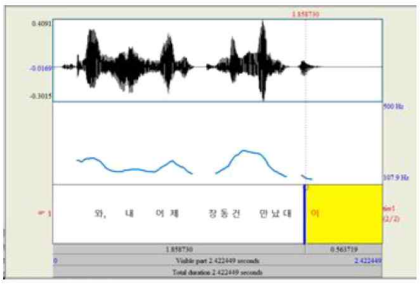


<그림8> ‘-다’ L%, long (남자8,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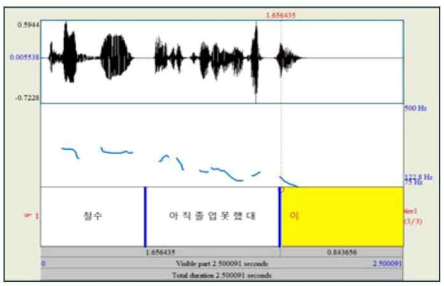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4] '-대이/다' 모두 허용: 놀라운 소식의 전달/정보 수정

'-대이' 의 억양:



<그림9> L%, short (남자3, 놀라운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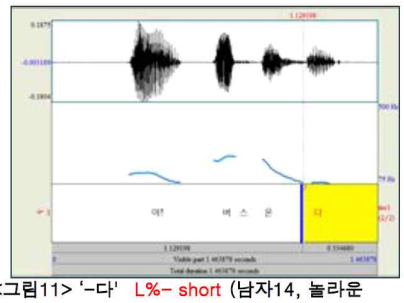


<그림10> L%, short (남자6, 정보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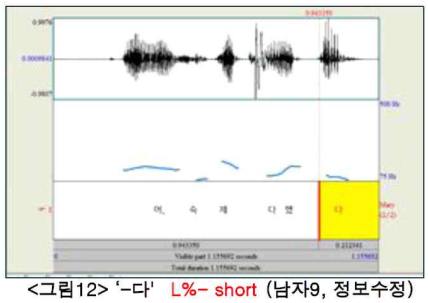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5] '-대이/다' 모두 허용: 놀라운 소식의 전달/정보 수정

'-다' 의 억양:



<그림11> '-다' L%- short (남자14, 놀라운 소식)



<그림12> '-다' L%- short (남자9, 정보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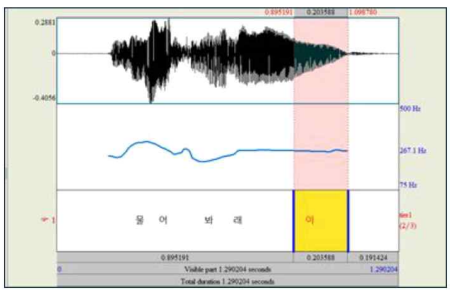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래이/-재이	-라/-자
'-래이/재이' 선호	[1] 가운데 수평조(M%), long 평평하고 길게 이어짐, (끝부분 상승 관찰됨) 예) 당부1: 궁금한 거 있으면 내한테 말해래이. 예) 작별인사: 잘 가래이. / 잘 가재이.	[2] L%,short /L,long 예) 당부1: 궁금한 거 있으면 내한테 말해라. (L%, short) → 사용빈도 매우 적음 예) 작별인사: 잘 가라. / 잘 가자. (L%, long)
'-래이/재이', '-라/자' 둘 다 가능	[3] 낮은 수평조(L%)/가운데 수평조(M%), long 예) 당부2: 동생 숙제 좀 도와주래이. 예) 명령: 음악 좀 꺼래이. 예) 제안2: 같이 가재이.	[4] L%, short 예) 당부2: 동생 숙제 좀 도와주라. 예) 명령: 음악 좀 꺼라. 예) 제안2: 같이 가자.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1] '-래이/재이' 선호: 당부1

'-래이/재이' 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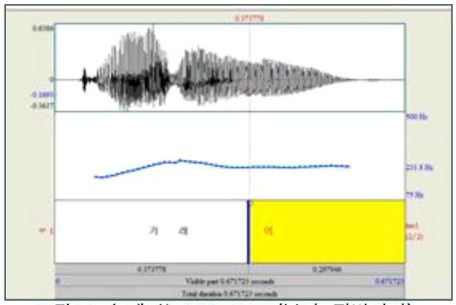


<그림13> '-래이' M%, long (여자,당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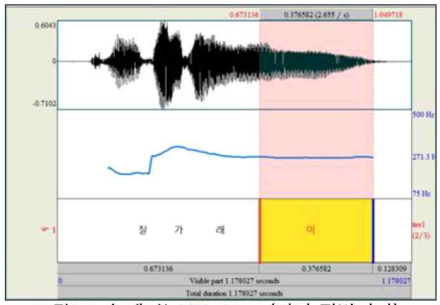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1] '-래이/재이' 선호: 작별인사

'-래이' 의 억양:



<그림14> '-래이' M%, long (남자, 작별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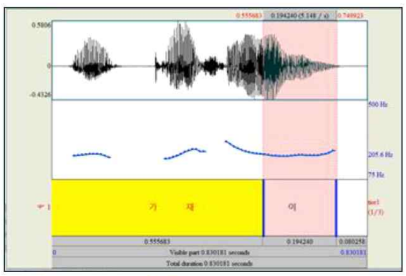


<그림15> '-래이' M%, long (여자,작별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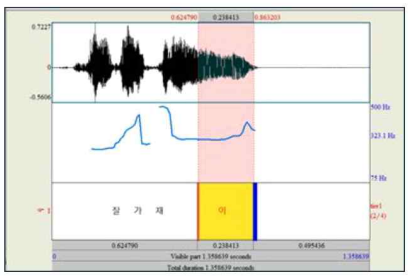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1] '-래이/재이' 선호: 작별인사

'-재이' 의 억양:



<그림16> '-재이' M%, long (남자6, 작별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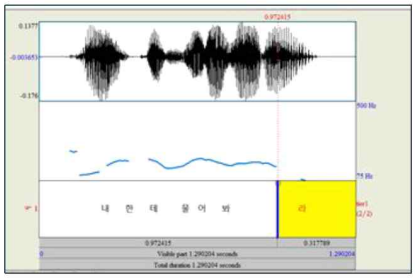


<그림17> '-재이' M%, long (여자6, 작별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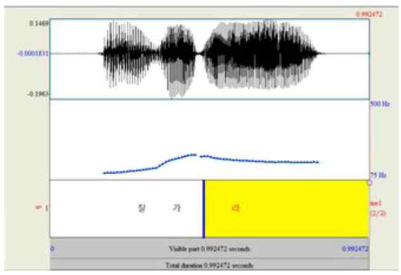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2] '-래이/재이' 선호: 당부1(거의 사용 안 함), 작별인사

'-라/자' 의 억양:



<그림18> '-라' L%, short (남자14 , 당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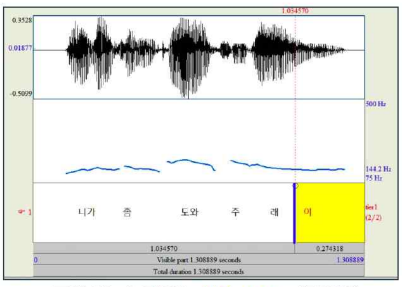


<그림19> '-라' M%, long (남자14, 작별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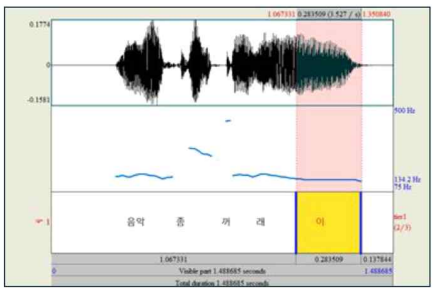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3] '-래이/재이'와 '-라/자' 모두 사용: 당부2, 명령, 제안2

'-래이'의 억양:



<그림20> '-래이' M%, long (당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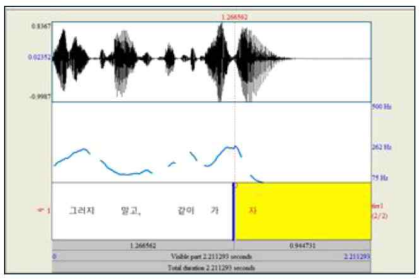


<그림21> '-래이' L%, long (남자,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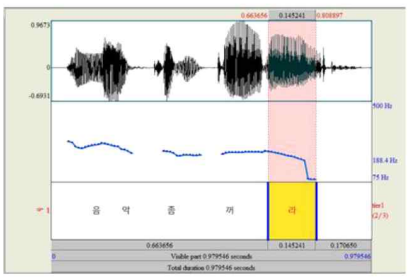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4] '-래이/재이'와 '-라/자' 모두 사용: 당부2, 명령, 제안2

'-라/자' 의 억양:



<그림22> '-자' L%, short (남자2, 제안2)



<그림23> '-라' L – short (여자12,명령)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 정리

▸ **평서형 '-대이'는 일본어 -yo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억양 패턴이 나타난다.**

i)관련성 맥락에서는 낮은 수평조(L%) 또는 가운데 수평조(M%)가 길게 이어지는 억양이 주로 나타나고, 끝부분이 살짝 상승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 관련성의 맥락에서는 청자의 수용(=청자 자신의 PB 갱신)이 중요하므로 화자 자신의 맥락 갱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반적인 평서문의 억양과 다른 억양 패턴이 나타난다. 경상도 방언의 특성상 상승조의 억양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평조의 길게 이어지는 억양이 상승조 억양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ote. Gunlogson(2003), Davis(2009): 화자의 맥락갱신은 하강조, 청자의 맥락갱신은 상승조 억양으로 표시된다.)

ii)정보수정이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맥락에서는 일반적인 평서문의 억양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짧게 지속되는 L 나타난다. → 정보수정이나 놀라운 소식의 전달 상황에서는 청자의 맥락갱신이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인 평서문의 억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에서 주장한 것처럼 기존 정보의 삭제와 새로운 정보의 수용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대이’류의 억양과 의미 - 정리

- **명령형 ‘-래이'와 청유형 ‘-재이'는 관련성 맥락에 쓰인 ‘-대이'의 억양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i)’-래이'와 ‘-재이'는 낮은 수평조(L%) 또는 가운데 수평조(M%)가 길게 이어지는 억양과 함께 쓰인다. 짧은 L억양과 주로 쓰이는 ‘-라, -자'와는 다른 특성이다.
→ ‘-래이, -재이'는 ‘-라, -자'에 비하여 청자의 수용(=청자 자신의 TODO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을 나타낸다.(박유경2021) 이는 청자의 PB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을 하는 관련성 맥락의 ‘-대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비슷한 억양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ii) ‘-라'와 ‘-자'는 전형적인 명령문과 청유문의 억양 패턴(=짧게 지속되는 L)이 그대로 나타난다. 다만, 작별인사로 쓰일 때에는 ‘-래이/재이'와 같은 억양 특성이 나타난다.

결론과 남은 문제

- ‘-대이'류 역시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억양 패턴이 나타난다.
- 다만, 일본어와 달리 상승조와 하강조로 나타나지 않고, 수평조가 길게 이어지는 패턴과 짧게 지속되는 L로 나타난다. 문말에 상승조 억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상도 방언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보인다.
- 억양의 분포가 완벽히 분리되지 않고, 일부 혼용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이는 경상도 방언에서 ‘-대이'류 표현의 사용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본 연구에서 관찰된 거의 대부분의 억양은 기존 논의의 억양 분류 체계에 따르면 L 또는 L%로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이'류의 억양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지속 시간이나 기울기 등의 정보를 반영하여 좀 더 상세하게 분류하여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김대성 (2001) 서울말과 경상도 방언 화자의 영어 억양 분석,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재일 (1982) “경북방언의 문장종결조사 이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 219-235.
김봉국 (2011) “부산의 지역어와 언어 문화”, 「石堂論叢」 50, 동아대학교출판부, 129-155.
김영선 (2012) 부산 방언 연구와 관련된 몇 문제, 「배달말」 50, 61-91
박유경 (2021) “부산 지역어 ‘-대이’류 문장종결표현의 의미·화용적 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73, 146-176
박유경·이옥희 (2021) “대구 지역 문장종결표현 ‘-대이’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연령별·성별·의미기능별 사용 빈도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92, 81-109.
박지홍 (1974) 부산 방언의 연구 -방언권의 설정과 어휘 말본에 대하여-, 7-41.
박지홍 (1991) 「방언」편, 부산시사 제4권,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341-1342.
이병운 (1997) 경남방언의 억양 연구, 「우리말글」 7, 79-83
이호영 (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천시권 (1981) **慶北方言**의 **形態論的 考察**(경북방언의 형태론적 고찰),「**淸溪 金思燁博士 頌壽紀念論叢**(청계 김사엽박사 송수기념논총)」, 147-168.
최학근. 1966. 경상남도 방언에서 사용되는 종결 어미(1). 한글(136), 62-86
Davis, C. (2009) Decisions, Dynamics and the Japanese Particle yo, *Journal of Semantics* 26(4), 329-366
Davis, C. (2011) *Constraining interpretation: Sentence final particles in Japanese.*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Gunlogson, C. (2003) *True to Form: Rising and Falling Declaratives as Questions in English*, Routledge. New York.
Northrup, O. (2014) *Grounds for Commitment*, PhD thesis, UCSC.

「부산 지역 문장종결표현 ‘-대이’의 의미: 억양 패턴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이옥희, 박유경)」에 대한 토론문

이철우(경운대학교)

본 발표문은 부산 지역어의 문장종결표현 ‘-대이’에서 나타나는 억양 패턴에 따라 어떠한 의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 결과물입니다. 대구 지역어에 대해서 ‘-대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진행하여 성과물을 낸 것에 이어서 부산 지역어에서도 동일한 대상을 다른 방법론으로 접근한 연구로 보이며, 박유경(2021)의 연구의 연장선에 있는 논의로 보입니다.

경상도 지역어에서 ‘-대이’의 의미는 주로 ‘강조’와 ‘확인’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는 사이에서 나타나는 화법의 한 형태로 보이며 20대와 30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 화자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지만 이는 화용론적으로 어느 정도 특수한 환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대이’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 기능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문장종결표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확립하는 데 좋은 연구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논의의 진전을 위해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이’를 일본어 ‘-yo’와 비교하면서 유사한 의미 기능이 있는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유경(2021)에 나타난 내용과 유사해 보입니다. 즉 일본어의 맥락갱신 표지로서 ‘-yo’를 살피면서 하강억양과 함께 쓰일 때, 상승억양과 함께 쓰일 때, 그리고 문말억양과 맥락갱신 등을 살피면서 ‘-대이’가 이러한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에서 ‘억양의 결합 양상과 그 역할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였으며, 결론에서도 ‘-대이’는 일본어와 달리 상승조와 하강조로 나타나지 않고 수평조가 길게 이어지는 패턴과 짧게 지속되는 L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다면 이 부분은 일본어 ‘-yo’와 대비하여 살펴본 것에 대한 의의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말의 표준어에 나타나는 ‘-대’와 비교하여 살피는 것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와 억양을 비교한 부분이 나옵니다만 이 경우에는 ‘-대’를 비교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지역어의 조사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언을 조사할 때는 질문지를 주고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유도하여 언중 화자들의 방언 사용 양상을 살피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고, 본 연구도 그러한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30대와 40대 연령대의 화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표준어 교육에 많이 노출된 이 연령대에 대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지역어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이 과연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셋째,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실시한 질문지 예시에서 보이는 상황 제시와 관련한 것입니다. 질문지를 읽어 보고 문맥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조사 대상자들이 괄호를 채우는 방식이 되겠는데, 이러한 방법이 본 연구의 논의에 오히려 제한점을 설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 제시는 이미 조사대상자가 답해야 할 환경을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이’의 의미를 유형별로 나눠보는 데에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보다는 경상도 화자의

‘-대이’류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즉 경상도 화자들이 무의식적인 대화 속에서 발화하는 ‘-대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새로운 방언 조사 방식을 적용해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명의 경상도 방언 화자를 섭외하여 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후에 어떤 주제에 따른 토론을 하게 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타난 대화 속의 ‘-대이’의 사용 상황과 문맥, 화용론적 용법 등을 살펴보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양적 연구도 좋지만, 지역어의 특수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이 연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표준어 교육과 대중매체의 영향에 많이 노출된 세대의 지역어 사용 양상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즉 지역어 화자들이 표준어를 쓰는 영역과 지역어를 쓰는 영역에 구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작별 인사는 지역어로 인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친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역어가 공동체의 유대감을 발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이’류도 이러한 발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즉 인지적으로 가까운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언어는 아직까지 지역어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외 사회관계에서 만난 사람들끼리의 상황에서는 의식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 혹시 나름대로의 연구 결과가 있다면 함께 나누기를 청합니다.

토론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방언 조사 과정과 연구 수행 과정에 힘든 점이 많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잘 짜여진 논의 과정과 논리적인 연구 진행으로 지역어 연구에 대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토론자의 무지로 인해 연구의 진의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지금의 이 논의가 앞으로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전문학>

신립 설화의 원귀 의미 연구 - 수용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박진아(경북대학교)

1. 서론

역사적 인물로서의 신립은 22세 때 무과에 급제했고, 당시 조선의 주적이었던 여진족과 싸우면서 무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육진(六鎭)을 지키는 것이 오직 그의 용맹에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신립은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도순변사로 파견되어 충주에서 일본군을 요격했다가 탄금대에서 패전, 물에 뛰어들어 자결하고 말았다.

그의 군사적 명성과 허무한 최후를 납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신립 설화'이다. 신립 설화는 탄금대 패전의 원인 또는 범인으로 한 처녀의 원귀를 등장시키고 있다. 신립이 과거에 한 처녀의 목숨을 구했는데, 거두어 달라는 청을 거절하자 그녀는 자살했고, 원귀가 되어서 복수를 위해 훗날 신립으로 하여금 조령 아닌 탄금대에 진을 치도록 작희(作戱)했으며, 신립은 그로 인해 패사(敗死)하였다는 것이다.

김정애에 의하면, 신립 설화는 현대의 향유자들로부터 특히 공감을 받지 못하는 이야기[1]이다. 신립 설화를 감상한 대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거나 처녀 원귀를 악녀(惡女)로 비난[2]하였다. 논리적으로는 이쪽이 온당한 반응일 것 같은데, 신립 설화는 반대로 모든 책임을 신립에게 전가하면서 지금까지 전승되어 왔다.

살 수 있었던 처녀가 신립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죽어서 원귀가 되어 작희한 것이니, 탄금대 패전의 책임은 결국 신립에게 있다는 것이다. 수용자들의 이와 같은 판단은, 설화 중에서 신립의 장인이자 후원자로 등장하는 권율[3]이, 저간의 사정을 알게 되자 '못나고 지질한 놈'이라고 신립을 질책하며 기대를 접었다는 형태로 직접 제시된다.

설화 속 권율의 질책은 신립 설화를 향유 및 전승해 온 수용자들의 시각이고 반응이며 공감대이다. 신립 설화에 대한 기존 연구 또한 대개 이러한 시각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래서 공허한 도덕적 명분에 얽매인 신립의 실패한 인간관계[4],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패전장수의 옹졸함이라는

---

1) "많은 독자들이 <신립장군과 원귀>의 내용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거부감을 보인다는 데에서 (중략) 일부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도덕적 의리를 지킨 신립이 처녀의 원한을 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립장군과 원귀>에 대한 저항적인 입장을 고수하기도 (중략) 처녀를 싫어하고 신립을 억울하게 여기는 반응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김정애, 「<신립장군과 원귀>의 서사적 이해를 통한 글쓰기 방법의 제안」, 『이화어문논집』 30, 이화어문학회, 2012, 7쪽.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자 삶의 원리라고 믿는 학생들에게 <신립장군과 원귀>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로 자리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애, 「대학생들의 감상 사례를 통해 본 <신립장군과 원귀>의 공감적 이해의 방법과 실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0,(통권 18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6, 252쪽.

2) 김정애의 연구에서 한 대학생은 다음과 같은 감상을 제시하였다.
"여자(처녀)는 아무래도 마음이 못돼 먹어서 죽어서도 귀신이 된 것 같다." 김정애(2016), 249-250쪽.

3) 역사적 사실로 권율은 신립의 장인이 아니며, 그의 장래에 기대를 걸고 지원하지도 않았다.

개인적 문제[5] 등 신립에게서 탄금대 패전의 책임을 찾으려 했다. 신립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연구[6]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간 연구자들이 신립 설화에서, 처녀의 원귀에게 속임을 당해 패사한 신립보다 신립 때문에 원사하여 귀신이 된 처녀를 피해자의 위치에 놓아 온 것[7]은 사실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대학생들의 감상처럼 처녀 원귀에게서 문제를 찾는 연구[8] 또한 진행되고 있다.

신립 설화에서, 신립은 처녀를 거두지 않았기에 무인으로서의 미래를 잃었고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전투에서 패했으며 끝내 자결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그만큼 큰 잘못이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다.

2. 탄금대 패전의 이해와 담론

선조 25년(1592) 4월 14일에 일본군이 부산진에 상륙함으로써 임진전쟁이 시작되었다. 부산진성과 동래성이 함락된 후 경상 지역의 군현들이 무너졌고, 17일에 보고가 조정에 도착했다. 이일이 순변사로 먼저 파견되고 뒤이어서 신립이 도순변사로 파견되었는데, 25일에 이일이 상주에서, 28일에 신립이 충주에서 패하며 방어선이 무너졌다.

역사적 사실로서 신립의 패전 과정이 조선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국가의 공인된 역사 기록인 실록을 통해 알 수 있다.

> 신립(申砬)이 충주(忠州)에 이르렀을 때 제장(諸將)들은 모두 새재[鳥嶺]의 험준함을 이용하여 적의 진격을 막자고 하였으나 입(砬)은 따르지 않고 들판에서 싸우려고 하였다. 27일 단월역(丹月驛) 앞에 진을 쳤는데 군졸 가운데 '적이 벌써 충주로 들어왔다.'고 하는 자가 있자, 신립은 군사들이 놀랄까 염려하여 즉시 그 군졸을 목베어서 엄한 군령을 보였다. 적이 복병(伏兵)을 설치하여 아군의 후방을 포위하였으므로 아군이 드디어 대패하였다. 입은 포위를 뚫고 달천(㺚川) 월탄(月灘)가에 이르러 부하를 불러서는 '전하를 뵈올 면목이 없다.'고 하고 빠져 죽었다. 그의 종사관 김여물(金汝岉)과 박안민(朴安民)도 함께 빠져 죽었다[9].

『선조실록』은 매우 간략하지만 탄금대 전투의 핵심이라고 할 조령의 포기와 신립의 자결을 기록하였다. 이에 더하여 일본군이 이미 충주에 들어왔다고 알린 사람의 목을 베어 군중의 동요를 막은 사건을 기록하고, 일본군이 복병을 설치하여 아군의 후방을 포위한 것이 조선군의 패인이라고

---

4) 신동흔, 「신립 장군 설화와 세계 인식」, 『연거재신동익박사정년기념논총』, 경인문화사, 1995.

5) 임철호, 「신립설화의 역사적 의미와 기능」,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6) 김정녀, 「신립 전설의 문학적 형상화와 환상적 현실 인식」, 『어문논집』 48, 민족어문학회, 2003.
이준현, 「신립전설 연구」, 한국교원대학 국어교육전공 석사, 한국교원대학, 1998, 참조.
정출헌, 「탄금대 전투에 대한 기억과 두 편의 <달천몽유록>」,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연구회, 2010, 참조.

7) 김정애는 대학생들에게 신립 설화를 감상시키고 그것을 공감적 이해와 글쓰기로 인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신립보다 처녀 원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이 설화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학생들의 글쓰기를 그쪽으로 유도하였다. (김정애, 「<신립장군과 원귀>의 서사적 이해를 통한 창조적 글쓰기 방법의 제안」, 『이화어문논집』 30, 이화어문학회, 2012, 참조)

8) 최근에는 신립 설화를 이용하여 문학치료를 수행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처녀 원귀의 행위를 피해망상이나 경계선 성격장애의 사례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주목할 만하다.
정운채 외, 『이상심리와 이상심리서사』,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10, 참조.
박재인, 「경계선 성격장애의 인간관계 특성과 경계선서사」, 『문학치료연구』 2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참조.

9)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17일 병오, <신립이 충주에서 패배하다>.

하였다.

『선조수정실록』의 내용은 더 자세하다.

적병이 충주(忠州)에 침입하였는데 신입이 패하여 전사하였다. 처음에 신입이 군사를 단월역(丹月驛)에 주둔시키고 몇 사람만 데리고 조령에 달려가서 형세를 살펴보았다. 얼마 있다가 이일(李鎰)이 이르러 꿇어앉아 부르짖으며 죽기를 청하자 신입이 손을 잡고 묻기를,

"적의 형세가 어떠하였소?"

하니, 이일이 말하기를,

"훈련도 받지 못한 백성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적을 감당하려니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신입이 쓸쓸한 표정으로 의기가 저상되자 김여물(金汝岉)이 말하기를,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그 예봉과 직접 맞부딪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의 험준한 요새를 지키면서 방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고, 또 높은 언덕을 점거하여 역습으로 공격하자고 하였으나 신입이 모두 따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 지역은 기마병(騎馬兵)을 활용할 수 없으니 들판에서 한바탕 싸우는 것이 적합하다."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장계를 올려 이일을 용서하여 종군(從軍)하게 해서 공로를 세우도록 청하고 드디어 군사를 인솔하여 도로 충주성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여물은 틀림없이 패할 것을 알고 이에 종을 보내어 아들 김류(金瑬)에게 편지를 부치기를,

"삼도(三道)의 군사를 징집하였으나 한 사람도 이르는 사람이 없다. 남아(男兒)가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나라의 수치를 씻지 못하고 웅대한 뜻이 재가 될 뿐이니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할 뿐이다."

하고, 또 가속(家屬)에게 경계하기를,

"나는 여기서 죽을 터이니 온 가족은 의당 행재(行在)로 달려가고 다른 곳으로는 피난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신입과 친한 군관이 적이 벌써 조령을 넘었다고 몰래 보고하자, 신입은 망령된 말이라고 하여 참하였다. 그리고는 장계를 올려 적이 상주를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하고, 군사를 인솔하여 탄금대(彈琴臺)에 (충주 읍내에서 5리쯤 떨어진 곳에 있다.) 나가 주둔하여 배수진을 쳤는데, 앞에 논이 많아 실제로 말을 달리기에는 불편하였다.

이달 27일에 적이 이미 조령을 넘어 단월역에 이르렀는데, 목사 이종장(李宗長)과 이일이 모두 척후로 전방에 있다가 적에게 차단당하여 정세 보고가 단절되었으므로 신입이 또 알지 못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적병이 길을 나누어 대진(大陣)은 곧바로 충주성으로 들어가고, 좌군(左軍)은 달천(達川) 강변을 따라 내려오고, 우군(右軍)은 산을 따라 동쪽으로 가서 상류를 따라 강을 건넜는데 병기가 햇빛에 번쩍이고 포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신입이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곧장 말을 채찍질하여 주성(州城)으로 향하여 나아가니 군사들은 대열을 이루지 못하고 점점 흩어지고 숨어버렸다. 성중의 적이 호각 소리를 세 번 발하자 일시에 나와서 공격하니 신입의 군사가 크게 패하였으며, 적이 벌써 사면으로 포위하므로 신입이 도로 진을 친 곳으로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다투어 물에 빠져 흘러가는 시체가 강을 덮을 정도였다.

신입이 여물과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아 적 수십 명을 죽인 뒤에 모두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신입에게는 누이의 아들로 따라다닌 자가 있었는데, 도망하여 모면하려고 하자 신입이 노하여 말하기를 '네가 어찌 살려고 하느냐.' 하며 머리를 붙잡고 함께 빠져 죽었다. 장사(壯士)로서 빠져나온 사람은 두서너 명에 불과했다. 이일은 사잇길을 따라 산으로 들어갔다가 왜적 두세 명을 만나 한 명을 쏘아 죽여 수급(首級)을 가지고 강을 건너서 치계(馳啓)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 처음으로 신입이 패하여 죽은 것을 알았는데, 병조에서는 마침내 이일의 죄를 용서하고 바친 왜적의 머리를 남쪽 성문에 매달았다[10].

수정실록에 따르면 신립은 충주에 도착한 후 조령까지 직접 가서, 지형과 적정을 관찰한 후 에 개활지에서의 기병전을 결정하였다. 반대를 무릅쓰고 배수진을 친 것 또한, 이일이 자신의 패인에 대해 군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기에 때문이었다.

10)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14일 계묘, <적병이 충주에 침입하여 신입이 전사하다>.

그러나 탄금대 전투는 처음부터 신립에게 불리하게 시작되었다. 신립이 강을 등지고 본진을 설치한 탄금대 일대에는 논이 많아 기병전에는 도리어 불리하였고, 일본군의 빠른 진격으로 척후가 차단되어 적정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지 못한 사이에, 일본군은 가운데에서 충주성을 지키며 양갈래로 신속히 기동하여 조선군을 포위하고는 정면에서 몰아붙였다. 앞서 나갔던 기병이 무너지자 조선군의 본진은 퇴로를 막고 있는 강물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었다. 신립과 부장들은 분전하다가 결국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이상훈[11]은 신립이 세운 작전이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으나, 일본군의 병력과 작전이 우세했기에 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우[12] 또한 제승방략체제의 허점이 일본군의 빠른 진격과 맞물려 지휘계통과 정보 수합에 차질을 빚었고, 신립과 이일은 북방에서 여진족을 상대로 기마병 중심의 전투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보병 중심의 일본군을 상대할 방법을 몰랐으며, 훈련이 부족한 조선 병사는 오랜 전란으로 단련된 일본 병사와 맞설 수 없었고, 일본군은 조선군의 활보다 사정거리가 긴 조총으로 무장했다는 것에서 탄금대 전투의 패인을 찾았다.

그러나 조선인으로서는, 당대의 명장이었던 신립에게 승리할 만큼 일본군의 군사적 역량이 뛰어났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때문에 적군의 강점이 아니라 아군의 약점에서 패배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 그 결과 지목된 것이 첫째로는 탄금대라는 장소 그 자체, 둘째로는 신립 자신의 능력이었다.

신립이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조령 아닌 탄금대에 진을 쳤기 때문에 패사한 것이라는 평가는 임진전쟁 당시부터 동시대인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여송의 말을 인용하여, 신립이 천혜의 험지인 조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고 규정하였다.

> 명나라 제독 이여송이 적을 쫓아 조령을 지나다가 "험난하기가 이와 같은데 지킬 줄 몰랐으니 총병(摠兵) 신립에게는 계책이 없었다 하겠다!"라고 한탄하였다. 신립은 민첩하고 날카로움으로 한때 이름을 날렸지만 계책과 전략은 그의 장점이 아니었으니, 옛사람이 "장군이 군대 쓸 줄을 모르면 나라를 적에게 내주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 경우라 하겠다[13].

유성룡이 보기에, 조령의 험준함에 의지하여 방어전을 수행했더라면 신립은 일본군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신립은 승리가 보장된 장소인 조령을 버렸고, 탄금대로 갔다가 패사하였다. 그렇다면 신립은 계책이 없는 것이고, 뛰어난 장수가 아니다. 유성룡으로서는, 이여송의 말처럼 신립이 무능했기 때문이라는 것밖에는 그 행동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다.

신립에 대한 유성룡의 평가는 그만의 것이 아니라, 임진전쟁을 겪은 후의 양반 지배층 지식인에게는 보편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윤계선의 <달천몽유록>에서, 작중화자인 '파담자(坡潭子)'는 암행어사로 호서 일대를 돌다가 충주를 지나면서, "9년 전"에 있었던 탄금대 패전을 생각하고 시를 지었다. 그 시에는 "누가 평평한 들판에 진을 치게 하였던고(誰教雲鳥陣平郊)"라고 하여, 조령 대신 탄금대를 택한 것이 신립의 잘못이고 패인이라고 적시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파담자는 꿈에서 탄금대에서 죽은 병사와 장수들의 원혼을 보게 되었다. 이때 파담자 앞에 나타난 병사들의 원혼이 하는 말은 "우리를 길러주신 임금의 은혜가 깊으니, 나라의 일이 위급할 때에 대장부 한번 죽음은 아까울 것이 없으나" 운운하는 관념적인 내용들과 함께, 신립이 잘못된 작전을 세웠고 전투 지휘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자신들이 헛되이 죽었다는 원망으로 가득하다.

---

11) 이상훈, 「신립의 작전지역 선정과 탄금대 전투」, 『군사』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12) 김성우, 「임진왜란 초기 제승방략전법의 작동 방식과 상주 북천전투」, 『한국사연구』 163, 한국사연구회, 2013.
13) 유성룡, 김시덕 역해, 『징비록』, 아카넷, 2013, 200-201쪽.

중원 충주는 지세가 뛰어나서 실로 남기(南紀)요, 초점은 천험의 으뜸이요, 죽령은 지리로 따져 믿을 만한 곳이므로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만 사람도 열지 못함은 촉도(蜀道)보다 어렵고, 백 사람이 요새를 지키면 천 사람으로도 뚫고 지나가지 못함은 위험하기 정형(井陘) 같으니, 나무를 깎아서 목책을 만들고 돌을 쪼개어 병거로 삼으면 북쪽 군사가 어찌 날아선들 건너오리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신립의 원혼이 나타나 패전을 변명했다. 신립의 원혼은 "피로한 기색을 띤 장부"로 등장하여 부끄러워하고 머뭇거리다가 변명을 늘어놓는데, 일단 탄금대 패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항우와 제갈량의 고사를 들먹이면서 신립이 자신의 패전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에서 으뜸가는 천시 곧 하늘의 운수였다.

어찌 사람의 잘못만이겠소. 역시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였소. 어려(魚麗)의 진을 치지도 못한 채 왜적이 선수를 치니 형세는 북산(北山)을 차지한 자가 이긴다 하듯이 지리적 조건도 비록 편했지만 사람들이 다투어 동해에 뛰어들어 죽었으니 대세는 이미 끝났소.

이때 원혼들의 고발에도 신립의 변명에도, 탄금대 전투의 구체적인 전황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지극히 관념적인 발화와 더불어 여기저기에서 인용한 고사(古事)만이 흘러넘친다. 이는 작자인 윤계선 자신이, 탄금대 전투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탄금대의 전몰자인 일반 병사들에게 철저히 공감하지도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천몽유록>의 분위기는 신립을 무능한 장수라고 여기는 쪽으로 더욱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달천몽유록>에서는 신립을 몰아붙이는 대신, 그의 부장이었던 김여물로 보이는 원혼이 신립의 변명을 가로막아 그치게 한다.

시루는 이미 깨어졌고, 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며, 성패는 운수가 있고, 시비는 이미 결정되었는데 다시 무슨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있겠소.

김여물로 여겨지는 원혼은 탄금대 패전의 원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를 "방외인"의 부질없는 짓으로 규정해 버린다. 탄금대 패전은 그저 신립 한 사람의 무능에 의한 결과이지만, 그를 추궁해 보았자 이미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의 문제를 우의적으로 비판할 뿐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꿈으로 마무리하는 몽유록의 특징인 동시에, 작자인 윤계선의 역사 인식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어서 그때까지의 원통하고 비장하던 분위기가 일신되어, 임진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수와 의병장 들의 혼이 모여들어 한바탕 큰 잔치를 벌인다.

신립은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나 결말에 이르러서 원균의 혼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 변명 한 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뭇 원혼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만 하는 것을 보면, 패전장이라도 신립에 대한 윤계선의 태도는 의외로 매몰차지 않았다고 할 만하다.

임진전쟁을 소재로 한 고전소설 <임진록>[14]에서는, 유형에 따라 신립이 등장하거나 등장하지 않는다[15]. 등장하는 유형에서는 그 양상이 둘로 나뉜다. 첫째는, 신립은 나오지만 탄금대 패전은 나오지 않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신립이 일본군을 요격하러 충주로 파견되었다가 일본군 장수 청정과 직접 대전하여 전사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탄금대나 조령이나 배수진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본에 따라서는 신립 대신, 또는 신립에 이어서 정출남[16]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14) 조희웅에 따르면 <임진록>의 이본은 221종에 달한다.
15) 임철호가 '관운장 계열'로 분류한 이본 유형에서는 대개 신립이 등장하지 않는다.
16) 또는 정충남.

그 또한 일본군을 요격하러 파견되었다가 청정에게 죽는다고 똑같이 서술된다.

> 선젼관 신입이 쥬월 신이 비록 ᄌᆡ조 읍ᄉᆞ오나 국운이 망극ᄒᆞ오니 ᄒᆞᆫ번 칼얼 드러 젹장의 머리얼 베히고 뎐ᄒᆞ은혜을 만분지이리나 갑삽고ᄌᆞ ᄒᆞ나이다 상이 ᄃᆡ열ᄒᆞᄉᆞ 즉시 군ᄉᆞ 팔만과 명장 ᄇᆡᆨ여원얼 쥬실ᄃᆡ (중략) 신원수로 마ᄌᆞ ᄊᆞ와 십여합의 쳥정이 우ᄅᆡ가틋튼 소ᄅᆡ얼 ᄒᆞ고 일ᄇᆡᆨ근쳘퇴얼 드러 신원슈얼 치니 마ᄒᆞ의 나려지더라[17]

> 션젼관 졍츙남이 쥬왈 신이 비록 ᄌᆡ조 업ᄉᆞ오나 군ᄉᆞ 십만을 쥬옵시면 금고일셩의 왜젹을 진멸ᄒᆞ고 국가의 큰 근심을 풀가 ᄒᆞ나이다 왕이 ᄃᆡ희ᄒᆞᄉᆞ 군살 조발ᄒᆞ실ᄉᆡ (중략) 쳥정이 졔 동싱 죽음을 보고 ᄃᆡ로ᄒᆞ야 쌍봉투고을 쓰고 삼쳔 근 쳘갑을 닙고 두ᄌᆞ닙을 버리고 이랄 갈며 달여드러 츙남의 머리ᄅᆞᆯ 버혀들고 살히ᄒᆞ며 삼십만 군얼 한칼노 죽이고 조션 ᄉᆞ람을 씨읍시 죽이고 경긔로 올나가더라[18]

둘째는 신립과 탄금대 패전이 둘다 나오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이본들은 '신립이 무능해서 조령을 지키지 않고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패사했다'라는 관점을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첫째 유형에 속하는 이본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분량이 많고 서술이 잘 정리되었으며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 잇ᄯᅥ 왜장 쳥정이 ᄃᆡ호왈 죠선국의 명ᄌᆞ이 읍도다 신입이 죠령산셩의 군ᄉᆞ를 막지 안이하고 부지럽씨 탄금ᄃᆡ의 ᄇᆡ슈진을 쳣스니 (중략) 이졔 신입이ᄂᆞᆫ 저 진을 베푸ᄂᆞᆫ 것이 저 죽기를 ᄌᆡ쵹ᄒᆞᆷ이라 가소롭지 안이ᄒᆞ리요[19]

> 쳥정이 됴령을 너머 실입진을 바라보고 ᄃᆡ히ᄒᆞ여 왈 젹진중에 명장 읍슴을 가이 알깃도다 실입이 여긔을 막지 ᄋᆞᆫ이ᄒᆞ고 강변에 진을 치니 가이 우습도다 (중략) 이졔 실입이 비수진을 치고 엇씨 나을 당ᄒᆞ리요[20]

> 平秀吉이 兵乙 거두어 急速行軍ᄒᆞ야 忠州城에 일으러 本朝大張乙 바라보고 大笑曰 朝鮮將卒은 다 草芥갓도다 우지못ᄒᆞ난 달기요 즛지못ᄒᆞᄂᆞᆫ 긔라 또 軍○乙 보니 ᄒᆞᄂᆞ토 切要함이 업스니 무언근심이 잇스리요 ᄒᆞ더라 (중략) 平秀吉이 大兵乙 ᄌᆡ촉ᄒᆞ여 漢江乙 건너 大㪚曰 朝鮮은 智勇之才 업도다 鳥嶺之險과 漢江之过에 ᄒᆞᄂᆞ토 伏兵이 업스니 엇지 가이 염네ᄒᆞ리요[21]

임진전쟁 이후 탄금대 패전은 두 가지 규정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탄금대가 반드시 패하는 장소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런 탄금대에 진을 친 신립이 무능하다는 것이다. 곧, 탄금대 패전은 '신립이 무능해서 조령을 지키지 않고 탄금대에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졌다'라고 규정되었고, 이 규정은 거의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신립 설화는 이 두 가지 규정 위에서 성립되었다.

3. 신립 설화와 원귀의 의미

3-1) 신립 설화의 수용 시각

17) 박순호 75장본 <임진록>.
18) 국중도 43장본 <임진록>.
19) 박노춘 43장본 <임진록>.
20) 김동욱 42장본 <임진록 권지○>.
21) 김광순 24장본 <임진록>.

탄금대 패전은 두 가지로 규정되었다고 앞서 밝혔다. 첫째는 필패(必敗)의 장소인 탄금대이고, 둘째는 탄금대를 택한 신립의 무능함이다. 신립 설화에서 처녀의 원귀의 작희라는 구체적인 사건은 그 중 둘째인 '신립의 무능함'이라는 추상적인 규정을 대신하여 나타난다. 신립은 원래 조령을 결전지로 선택했는데, 처녀의 원귀의 작희 때문에 탄금대로 옮겨 배수진을 쳤고 끝내 패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신립의 무능함이 탄금대 패전을 일으킨 원인으로서 부정적 대상이므로, 그 자리에 들어간 처녀의 원귀의 작희 또한 설화의 향유자들에게는 부정적인 대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에 신립 설화는 신립에게 탄금대 패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려고 만들어진 설화처럼 보인다.

신립은 처녀를 목숨의 위기에서 구했고, 이본에 따라서는 처녀의 가족의 원수를 갚거나 그들을 매장해 주는 추가적인 은혜까지 베풀었다. 거두어 달라는 처녀의 청을 거절한 것 또한, 작중에서 제시된 바로는 젊은 그녀가 이미 처자가 있는 자신의 첩이 되는 대신 좋은 곳으로 시집가서 떳떳하게 정처가 되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 신립의 배려[22]이다. 그런데 처녀는 신립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껏 구해 준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원귀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탄생한 원귀의 작희 때문에 신립이 패전했다는 것은, 앞서 <달천몽유록>에서 신립이 주장했던바 '하늘의 운수'로 패전했다는 것보다 더 신립의 책임을 가볍게 한다. 처녀의 원귀가 '진짜 범인'이고, 그녀의 작희가 '진짜 원인'인 것이다. 이를 통해 설화의 향유자들은 그들이 신립에게 부여했던 영웅성과 그가 탄금대에서 패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충돌 없이 공존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신립 설화는 '신립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거절당하자 자살하여 원귀가 된 요망한 처녀에게 속아서 패사한 불운의 영웅 신립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비극이 되기보다는 멜로드라마의 수준에서 그치고, 비장미를 발생시킬 수 없으며 카타르시스를 유도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나 탄금대 패전의 원인이 처녀의 원귀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녀가 신립을 파멸시킨 '팜므파탈'로서 수용자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바 현대의 설화 수용자들은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수용자들은 신립 설화에서 신립을 악역의 위치에 놓고 처녀를 그 피해자의 자리에 놓아 왔다. 처녀의 원귀가 신립에게 작희한 것이 정당하거나 당연하다는 것이 수용자들의 입장이다. 이는 수용자들이 신립 설화에서 탄금대 패전이라는 문제적 상황에 대해, 그것이 처녀 아닌 신립의 문제, 신립이 내재하고 있었기에 그가 영웅이 되지 못하고 실패자로 죽었으며 처녀 또한 원귀로 만들어 버린 어떤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립의 문제는 무엇인가?

3-2) 원귀의 의미 - 신립의 피치자로서

신립 설화를 이해하기 위해 그간 제기되어 온 의견들 중 대표적인 것이 신립과 사회와의 관계, 즉 신립의 치자(治者)로서의 역량에 대한 의문이다. 김정애는 신립에 대해, 그는 처녀로 대표되는 피지배계층에게 일어난 문제의 본질을 알고 정말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능력이 없었다[23]고 하였다. 대체로 이들 의견은 신립 설화의 이본들 중 이항복이 신립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여 권율의 칭

22) 임철호는 신립의 거절 이유가 다양하다는 것에 대해 "신립이 거절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거절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임철호, 「신립설화의 역사적 의미와 기능」,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374쪽) 그렇지만 신립의 거절 이유 중 이것이 가장 흔하고 널리 알려진 것을 보면, 수용자에게 이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 더 공감할 만했다고 할 수 있다.

23) "처녀에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한번의 서운함으로 그것을 곡해할 만큼 처녀가 매우 심약한 존재라는 것을 신립 자각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립은 개인이기 이전에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려야 하는 관리라는 점에서, 똑같은 잣대로 백성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놓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백성들에게 관리가 똑같은 잣대로 대우하고 평가한다면 분명 원한을 사거나 이탈하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백성일수록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심,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책임감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김정애(2016), 252-253쪽.

찬을 받았다는 내용이 끼어 있는 각편이 있다는 것과, 이순신에게도 신립과 반대로 대응한 설화가 있다는 것에 비교하며 제시되었다.

이항복의 상대는 천하의 추물이어서 남자가 상대해 주지 않는 바람에 미친 여자였다. 그녀가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항복은 받아들였다. 여한이 없다며 그녀가 죽자 이항복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장례를 부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다. 그로써 이항복은 장인인 권율[24]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다.

이순신의 상대는 주막집 딸이었다. 그녀는 이순신을 사모하다가 상사병이 들었고, 이순신은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 달라는 그녀의 청을 받아들여 주막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비가 내려 냇물이 불어나서 하루를 지체한 사이에 처녀는 죽고 말았다. 이순신이 도착해 보니 죽은 처녀는 뱀으로 변해 있었는데, 이순신은 그 뱀과 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 한을 풀어 주었다.

이항복과 이순신은 지배계층에 속하는 남성이다. 미친 여자와 주막집 딸은 그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피지배계층에 속하는 여성이다. 그녀들이 이항복과 이순신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과 윤리에서 부당한 행동이다. 그러므로 그녀들은 거부되어야 하고 나아가 처벌받아야 하며, 그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결과로 돌아와야 한다.

<역적 누명과 회초리> 설화[25]에서는, 여자에게 유혹을 당한 남자가 그것을 물리치고 윤리를 지킨 결과 훗날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선비의 원귀와 중의 원귀> 설화[26]에서, 선비의 원귀는 선비가 중을 죽이자 곧바로 중의 원귀에게 퇴치된다. 사랑을 거절당하자 자살한 원귀와 겁탈에 항거하다가 죽은 원귀는, 수용자가 보기에 그 위력과 신분[27]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미친 여자와 주막집 딸은 설화의 구조면에서 일견 선비의 원귀와 동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선비의 원귀와는 달리 수용자로부터 공감을 받는다. 그리고 그녀들을 받아들인 이항복과 이순신은 수용자에게 긍정의 대상이 된다. 이는 단순한 상사귀 여자와 유혹을 받은 남자의 관계를 넘어선 그 무엇이 있고, 그것은 상식과 윤리를 뛰어넘어서라도 충족되고 긍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수용자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제기되었던 '치자(治者)'로서의 역량 문제가, 신립 설화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설화에서 이항복과 이순신은 미친 여자와 주막집 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자신에게도 여자에게도,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었다. 즉, 올바른 치자로서 피치자를 제대로 다스리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신립은 그렇지 못했다. 일단 신립은 뛰어난 용력의 소유자였고, 그래서 상대가 인간[28]이든 도깨비이든 사물의 변괴[29]이든 간에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 처녀가 직면한 죽음으로부터 그녀를

---

24) 신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로서 권율은 이항복의 장인이 아니다.

25)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웃집 선비에게 반한 여자가 사랑을 고백하자, 선비는 그녀의 종아리를 때리고 돌려보냈다. 이후 벼슬길에 오른 선비는 역모에 휩쓸렸다.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 아들을 낳은 여자가 전날 종아리를 맞았던 일화를 아들에게 들려주고 그의 올곧음을 설득하여 선비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26)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웃집 선비에게 반한 처녀가 사랑을 고백했다. 선비가 거절하자 그녀는 자살하여 원귀가 되어서 선비의 등과를 방해했다. 선비는 팔도를 주유하다가 벼랑길에서 한 중을 만났다. 그 중은 시주를 얻으러 다니다가 한 처녀를 겁탈하려 했는데 여의치 않자 죽였고, 그 원귀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중을 벼랑 아래로 걷어차 죽였다. 그러자 허공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더니 여자의 목이 떨어졌다. 이어서 한 여자가 나타나 자신이 중의 원귀이고, 은혜를 갚으려고 그의 원귀를 죽였음을 알렸다. 그 후 선비는 무사히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다.

27) 이본에 따라서 중의 원귀는 노복과 시비를 거느리고 가마를 타고 나타나는데 선비의 원귀는 그 앞에서 '쇤네'라 자칭하며 복종한다.

28) 흉포한 중, 흉악한 종 등이다.

29) 잘못 매장된 시체, 또는 금은이 오랫동안 쓰이지 못해 변한 귀매(鬼魅) 등이다.

구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처녀의 위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신립이 해결해야 하는 처녀의 진짜 문제였다.

신립의 도움이 있기에 앞서 처녀의 가족은 이미 몰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립은 당장의 위기에서 처녀의 목숨을 구하는 한편으로 구원된 후 그녀가 의지할 곳 없는 처지라는 점도 함께 생각했어야 했다. 신립은 그것을 간과하였고, 처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음으로써 치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다.

3-3) 원귀의 의미 - 신립의 한계로서

신립은 어째서 부족한 치자(治者)일 수밖에 없었는가? 어째서 신립은 이항복과 이순신처럼 행동하여 올바른 치자가 되는 길을 걷지 못했던 것인가? 이 지점에서, 신립과 처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신립이 왜 처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았는가이다.

신립이 발견했을 때 처녀는 외부의 위협을 당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신립의 도움으로 처녀는 그 위협에서 풀려났다. 그런데 처녀는 신립에게 자신을 거두어 줄 것을 청했고, 이로써 처녀의 구원자였던 신립은 도리어 처녀로 인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30].

신립은 처녀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처가에 대한 도덕적 의리라든가 앞으로 큰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로 제시되는데, 모든 핑계는 한 가지로 귀결된다. 신립은 자신이 처녀를 거두어들일 경우, 장인의 총애를 받는 사위라든가 미래의 환란에서 나라를 구원할 영웅의 재목이라는 등의,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처녀와의 결합이 오로지 신립에게 부정적이기만 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신립은 처녀와의 결합을 통해 한 생명의 구원자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로써 육체적인 용력과 함께 정신적인 너그러움을 겸비하여 현재의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새로운 자신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항복과 이순신은 그 가능성에 도전했고, 성공하였으며, 그로써 스스로를 완성시키고 올바른 치자로서 세상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립에게는 그 도전을 위해 현실을 걸 만한 확신이 없었다. 현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신립에게 처녀는 이제 자신이 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신립은 처녀를 죽임[31]으로써 자신과 처녀의 관계를 부정하고 없

---

30) 신립 설화는 물론이며 앞서 언급한 이항복과 이순신의 설화에서도, 처녀/미친 여자/주막집 딸은 그들의 외부에 있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거울상, 곧 '그림자'라고 볼 수 있다.
신립/이항복/이순신에게는 육체적인 용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성적 관계에서의 적극적인 태도가 허용된다. 그 셋을 모두 갖지 못한 처녀/미친 여자/주막집 딸은 그들의 '그림자'가 외부로 투사된 모습이다. 그녀들은 그들과 정반대이지만 떨쳐낼 수 없는 존재이다. 그들이 그녀들을 만나고 그녀들의 욕망에 직면할 때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하는 것이다.
신립 설화를 분석심리학적으로 독해하면, 자기완성을 위한 신립의 노력이 '그림자'에 대한 거부와 부정으로 인해 실패하는 서사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의는 이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 (조정자, 이종연, 「Jung의 분석심리학에서 그림자 인식의 중요성과 그림자 통합 방법」, 『상담학연구』 10권 3호, 한국상담학회, 2009, 참조)

31) 거의 모든 이본에서 처녀는 집에 불을 지르고 지붕에서 떨어져 자살한다. 그러나 권율의 질책은 '죽게 했다'와 '죽였다'를 가리지 않는다. 드물기는 하나 신립이 처녀를 죽였다는 이본도 존재한다.
"충청도에 신립장군이 있었다. 왜군이 쳐들어오자 신립의 아버지가 문경새재를 막으라고 보냈다. 신립이 왜군을 막기 위해 가던 중에 배가 고파 어떤 집을 찾아갔다. 그 집에서 한 처녀가 나와서 말하기를, 모든 식구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오늘은 자신이 잡혀갈 차례라고 하였다. 찬바람이 불며 무언가가 들어오자 신립이 이를 물리쳤다. 그것의 정체는 금이 바람을 쏘여 변한 것이었다. 신립은 감나무 밑을 파서 금을 꺼내주었다. 아침에 그 처녀가 신립에게 함께 살자고 하자, 신립장군은 처녀를 지붕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버렸다. 이에 원망을 품은 처녀가 원귀가 되어서, 거짓된 정보를 주어서 신립을 패망하게 하였다. 신립이 집

던 것으로 되돌려, 아이덴티티 붕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그러나 신립의 선택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 처녀를 죽였다고 해서 신립이 처녀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처녀를 죽인 신립은 현재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결과를 맞았다. 장인으로부터는 "못나고 지질한 놈"이라는 질책을 당했고, 더 이상 영웅의 재목으로 기대를 받지도 못하게 되었다. 현재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려 했던 신립의 행동은 도리어 그것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신립은 처녀를 죽임으로써 자신을 죽인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신립은 파괴된 아이덴티티를 재구축할 수 없었다. 훗날 신립이 탄금대에서 패사한 것은, 처녀가 원귀가 되어서 신립을 오판으로 이끌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앞서 신립이 처녀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영웅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파괴해 버렸고, 그것에 결국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못나고 지질한 놈'이라고 권율이 질타했던 신립의 한계였다. 처녀의 원귀의 작희가 아니었어도, 탄금대 패전이 아니었어도 언젠가 신립은 스스로의 한계에 봉착하여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처녀의 원귀에게 공감하고 신립을 부정적으로 보는 설화 수용자들의 태도는 이에서 기인하였다고 하겠다.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립 설화는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탄금대 패전이 신립의 무능 때문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배경에 두고 있다. 신립 설화는 일견 신립에게 동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의 핵심인 처녀의 원귀는 신립이 치자로서 올바르게 다스려야 하는 대상으로서, 그리고 신립이 저지른 자신의 아이덴티티 파괴의 결과이자 형상화로서 수용자들의 공감 대상이다. 반면에 신립은 치자로서도, 영웅으로서도 실패한 존재이다. 이와 같이, 신립에 대한 비판적 담론은 설화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다.

4. 결론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립 설화는 역사적 사건인 탄금대 패전을 납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탄금대 패전은 역사적으로 탄금대라는 필패의 장소를 결전지로 택한 신립의 무능에 그 원인을 돌려 왔다. 신립 설화는 이 담론에 바탕을 두고, '신립의 무능'이 들어갈 자리에 '신립으로 인해 원귀가 된 처녀의 작희'를 대입하여 형성되었다. 그러나 '신립의 무능'이 수용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달리, '처녀 원귀의 작희'에서는 수용자들이 전통적으로 처녀 원귀를 피해자의 자리에 놓아 왔다. 이는 수용자들이 탄금대 패전에 대해 그것이 신립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 일어난 결과라고 보아 왔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신립의 문제가 치자(治者)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논의되어 왔다. 이는 신립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은 이항복과 이순신의 설화와 비교하며 전개되었다. 그들은 백성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올바른 치자였지만 신립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때 처녀의 원귀는 신립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피치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신립의 문제는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집착에서 발생했다. 설화에서 신립은 장인인 권율로부터 받는 총애와 장래에 대한 기대를 통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 했다.

에 돌아오자 그 부모가 여자를 죽여서 신립이 패전한 것이라며, 신립에게 죽으라고 하였다. 신립은 자살하였다." 이인경,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 민속원, 2008, 630쪽.

필자는 처녀가 자결했는지 신립에게 죽임을 당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신립의 거부가 곧 처녀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립은 처녀를 목숨의 위험에서 구한다는 표면적인 문제 해결은 할 수 있었지만, 처녀가 의지할 곳을 찾는다는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하지 못했다. 그 상태에서 신립은 처녀를 죽게 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려 했다. 그로써 오히려 신립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었고 장인의 기대와 총애도 잃고 말았다. 설화 전승자들은 그것을 신립의 한계로 여겼고, 탄금대 패전은 그 당연한 결과라고 이해해 온 것이다. 이때 처녀의 원귀는 신립의 한계 그 자체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유성룡, 김시덕 역해, 『징비록』, 아카넷, 2013.
윤계선, <달천몽유록>

김성우, 「임진왜란 초기 제승방략전법의 작동 방식과 상주 북천전투」, 『한국사연구』 163, 한국사연구회, 2013, 221-257쪽.
김영희, 「한국 구술서사와 '여성혐오' - 구술서사에 나타난 '여성혐오(misogyny)'의 논리와 서사 전략 분석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85-137쪽.
김정경, 「원혼 서사에 나타난 욕망과 이름의 문제 - 신립 설화를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59, 한국구비문학회, 2020, 37-64쪽.
김정녀, 「신립 전설의 문학적 형상화와 환상적 현실 인식」, 『어문논집』 48, 민족어문학회, 2003, 201-236쪽.
김정애, 「<신립장군과 원귀>의 서사적 이해를 통한 창조적 글쓰기 방법의 제안」, 『이화어문논집』 30, 이화어문학회, 5-28쪽.
김정애, 「대학생들의 감상 사례를 통해 본 <신립장군과 원귀>의 공감적 이해의 방법과 실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0집 1호, 통권 18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6, 242-271쪽.
김정애, 「이어쓰기 활동을 통해 본 <문둥이 처녀와 동침한 총각>의 문학치료적 활용 가능성」,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227-260쪽.
김혜미, 「구비설화를 활용한 청소년 생명지킴이의 생명존중인식 변화 사례 연구」, 『문학치료연구』 54, 한국문학치료학회, 2020, 173-216쪽.
박재인, 「경계선 성격장애의 인간관계 특성과 경계선서사」, 『문학치료연구』 2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201-231쪽.
신동흔, 「신립 장군 설화의 세계 인식」, 『연거재신동익박사정년기념논총』, 경인문화사, 1995.
오세정, 「<탄금대 신립> 설화의 여성 주인공 연구 -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 본 설화 연구의 가능성」, 『구비문학연구』 51, 한국구비문학회, 2018, 141-168쪽.
유형동, 「설화를 통해 보는 전쟁의 기억과 위안 - 임진왜란 관련 설화를 대상으로 -」, 『배달말』 66, 배달말학회, 2020, 131-161쪽.
이상훈, 「신립의 작전지역 선정과 탄금대 전투」, 『군사』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275-302쪽.
이준현, 「신립전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1998.
임철호, 「신립설화의 역사적 의미와 기능」,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363-393쪽.
장호식, 「신립장군 전설 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6.
정운채, 「남녀서사진단검사를 위한 구비설화와 남녀서사의 진단 요소」, 『문학치료연구』 12,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263-313쪽.
정운채 외, 『이상심리와 이상심리서사』,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10.
정은의, 「분석심리학의 그림자 상징과 처리태도의 변화 고찰: 전래동화, 액션, 공상과학(SF)영화를 통한 비교」, 『상담학연구』 9권 3호, 한국상담학회, 2008, 925-942쪽.
조정자, 이종연, 「Jung의 분석심리학에서 그림자 인식의 중요성과 그림자 통합 방법」, 『상담학연구』 10권 3호, 한국상담학회, 2009, 1487-1500쪽.

하은하, 「<역적 누명과 회초리>를 활용한 문학치료 활동과 그 주변서사에 대한 진단적 해석」,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261-293쪽.
홍나래, 「설화 속 시혜적 성관계에 내포된 주체의 도덕적 불안과 감정의 구조화 문제」, 『한국고전연구』 3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5-40쪽.
홍나래, 「조선후기 남녀 간 응보적 관계 맺기 설화를 통해 본 윤리적 주체 형성의 문제」, 『구비문학연구』 51, 한국구비문학회, 2018, 75-104쪽.

「신립 설화의 원귀 의미 연구 – 수용자의 이해를 중심으로(박진아)」에 대한 토론문

김기호(영남대학교)

본 연구의 대상은 '신립설화'이다. 이 설화는 난제(아포리아)를 안고 있다. 그것은 은혜를 입은 여인이 은혜를 베푼 영웅에게 복수하는 [은혜 vs. 복수]의 딜레마이다. 이 설화의 문제성은 이 딜레마에 있는 듯하다. 선행 연구자들도 그러했듯이 본 연구자도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과제로 삼은 듯하다. 연구자는 이 난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을 던진다.

첫째. 신립이 처녀를 거두지 않은 것이 국가 명운을 건 전투에 패하게 할 만큼 큰 잘못인가?
둘째. 신립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신립은 어째서 부족한 治者일 수밖에 없는가?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해 연구자는 차례차례 순서에 따라 답을 찾고 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한다. 곧 그의 무능이 문제라는 것이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은 '치자로서 역량부족'이다. 셋째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데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 난제(아포리아)의 해결을 진정한 생명의 구원자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획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재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창조적 가능성의 미래를 택하지 않고 현재의 고착인 안정된 기득권을 택한 인물 신립의 선택에서 찾는다. 주인공 신립이 '생명 살림의 창조적 미래(약자 되기, 소수자 되기)'를 포기하고 '안정된 현재(기득권 이데올로기 고수)'를 선택한 결과야 말로 실패한 영웅, 실패한 치자가 되게 만들었다고 본다. 불안정한 미래(기득권 이데올로기 해체)와 안정적인 현재(기득권 이데올로기 유지) 사이에서 신립은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실패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점들이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들과 견주어 볼 때 새롭다. 그런 면에서 본 발표는 신립설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더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이 점에서 본 연구자의 연구 의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렇다면 토론자의 몫은 무엇일까? 토론자는 토론자에게 할당된 과제를 다 하기 위해 발표자가 본문에서 18회에 걸쳐서 사용한 '수용자'라는 기호를 좀 집요하게 파고들어 보고자 한다. 그래서 발표자의 논리를 해체하는 일을 해보고자 한다. 다만 토론자가 행간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으니 헤아려 답변해주시기를 바란다.

첫째, 연구자는 '현대 수용자들의 여성(처녀)에 대한 태도'와 '전통적 수용자들의 여성(처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했다. 전자(오늘날 20대 대학생들)는 등장인물 여성(처녀)을 팜므파탈로 즉 부정적 인물로 인식한다고 했다. 반면 후자(구비전승집단)는 등장인물 여성(처녀)을 피해자로 보고 신립을 악역, 실패자로 본다고 했다. 본 연구의 제목에 제시된 '수용자의 이해'의 '수용자'는 전자가 아닌 후자이다. 연구자가 전자(오늘날 20대 수용자)를 버리고 후자(구비전승집단 수용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용자를 전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오늘날 수용자로 보면 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수용자가 전자가 될 경우 이 논문은 논리를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연구자가 제시한 두 유형의 수용자를 다 받아들인다면 이 논문의 논의가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둘째, 논문의 본문에서 '(설화)수용자'라는 말이 18회 나타난다. 제목에서부터 '수용자'이다. 그런데 연구자가 사용하는 이 '수용자'의 용어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수용자'를 '구비전승자', '설화의 청자', '민중', '설화의 화자', '설화의 구술자'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이 중 무엇을 '수용자'의 記意로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다. 이 논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수용자'임을 고려하면, 이 용어가 너무 막연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수용자' 단어를 규정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연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수용자(전승자들의 의도와 같은 의미로 볼 때)를 고집하면 오히려 발랄하고 다채로운 논의의 창의성이 고착화될 것 같은데, 이 용어를 버리고 텍스트(기호)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날 많은 문화적·문학적 해석학은 차이와 다양성을 추구하기에 이러한 정체불명의 확인 불가능한 심리주의적 의도와 낭만주의적 초월자의 생각을 찾고자 하는 태도를 일찍부터 버려왔다. 전승자의 의도라든지 집단 수용자 의도라든지 민중의식이라든지 '피와 살이 없는 사람'의 생각을 탐구하는 연구 태도는 버려야 하지 않을까? '역사적 담론을 설화 (전승자)가 계승했다.'고 하는 결론의 주장도 텍스트의 詩學的 독자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도 과감히 버려야 하지 않을까?

셋째, 본문에는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분석이 없다. 혹은 텍스트의 기호에 대한 분석이 없다. 전반적으로 논문은 텍스트의 구조에 기반하지 않고 혹은 구조의 설명 없이 '수용자'의 심리를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진행에 본 발표자도 수용자로서 한 몫을 하고 있다. 텍스트의 구조 혹은 기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지 않은 수용자의 이해는 매우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 사실 이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처럼 정체가 불분명한 가상의 수용자 심리 혹은 의식을 따라 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매우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논의(발표자가 제시하고 있는 신립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참신한 생각)마저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어 있다. 발표자가 만약 이 발표문을 보완한다면 텍스트의 구조 분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넷째, 제목에서 수용자의 '이해'라고 하는 데서 이 논문이 매우 해석학적인 의미해석의 성격을 띨 것이라는 것을 예측케 한다. 실제로 이 논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용자의 텍스트 '이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해'는 수용자의 텍스트 '이해'이며, 이는 텍스트 청자의 '이해'이기도 하다. 그런데 연구자는 이 '이해'를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해'는 해석학에서 '설명'과 함께 상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혹시 연구자는 이 '이해'를 해석학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인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 '이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논문이 관점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섯째. 연구자는 각주 30번에서 "신립 설화를 분석심리학적으로 독해하면, 자기완성을 위한 신립의 노력이 '그림자'에 대한 거부와 부정으로 인해 실패하는 서사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아이디어야 말로 신립설화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독창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을 살려서 독립적인 논문을 완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본 발표문 주요 논의에 녹여 넣으면 어떨까 한다. '여인'을 신립의 내면의 '그림자'(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자리하는 것으로 잘 통제되면 창조적 에너지가 되지만 통제되지 못하면 주체를 전복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작용함)로 설정하고 여인과 신립의 관계를 풀어나가면 논의가 더욱 풍성하고 새로움을 더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령 여인의 자살을 방치하는 것도, 꿈에 여인이 나타나는 것도 신립의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있는 ‘그림자’와 관련지어서 풀어내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자로서 과하게 논지에 개입하고 간섭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 발표가 더 좋은 논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므로 너그러이 헤아려주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끝>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수용의 계통
-김삼불(金三不) 校注本『海東歌謠』를 중심으로-

유정란(고려대학교)

1. 서론

이 글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시조 수용의 경향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삼불(金三不) 교주본(校注本)『海東歌謠』의 특성을 밝히는 데 관심을 둔다.

시조는 언제나 음악적 매개를 통해 향유되던 '가창 사설'로만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초 격변하는 역사 속에서 시조는 특권화된 가치를 부여받고 '고시조(古時調)'[1]라는 위상을 갖추게 된다. 시조가 조선 고유의 문학 정전(正典, canon)으로 인식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2] 이러한 자각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이자 연구 자료로 시조가 의미화되는 고시조 자료집 편찬이 시작된다. 애국계몽기 국시(國詩)로 승격한 시조 장르가 1920년대 이르러 국민문학으로 호명되자 시조 문헌 편찬의 역사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편찬된 고시조 자료집은 시조에 대한 해석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서이기도 하다. 그 이유로 고시조 자료집의 편찬 문화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며 지속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고시조 자료집의 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서도 1950년 정음사(正音社)에서 간행된 김삼불의『海東歌謠』는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자료집의 편찬 경향을 계승·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시조 집성집(集成集)의 이본 대교 의식을 이어받는가 하면 앤솔로지(Anthology)[3] 형태의 문헌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던 시조 문학 사전의 형태를 갖추기도 하여 해방기 시조 문헌으로서 다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시도한 김삼불은 1941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1946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2세대 국문학 연구자다. 그는 1949년 서울대를 졸업한 후 아주 짧은 시간동안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남북전쟁 과정에서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김삼불의 생애와 국문학 관련 저술 등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였고[4], 그중에서도 판소리 연구사에 남긴 굵직한 성과들이 검토되고 있다.[5] 그러나 남북 분단과 이념의 대립 과정에서 월북 학자나 문인들은 국

---

1) 여기서 고시조는 '가창되었던 시조' 텍스트들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 용어 안에는 '모범이 될 만한 문학 작품'을 뜻하는 고전(古典, classic)적 가치 개념이 함께 들어 있다.

2) 正典(canon)이란 용어는 '특정 역사적 상황에서 텍스트를 둘러싼 제도나 권력에 의하여 텍스트의 가치가 새로이 부여된 것으로, 특권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전과 정전에 대한 용어는 이형대,「1920-30년대 시조의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한국시가문화연구』21,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강상순,「고전소설의 근대적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민족문화연구』55, 민족문학사학회, 2011를 참조.

3) 여기서 앤솔로지(Anthology)란 선집(選集)의 번역어로 일반적으로는 여러 작가의 작품을 특정 기준이나 주제에 맞춰 모아놓을 것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시조 문헌은 모두 다 편찬자의 안목에 의해 시조가 선별 수록된 선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20세기 초 대두한 '고시조' 인식을 바탕으로 산출된 선집에 한정하여 '앤솔로지(Antholog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즉, 시조를 문학 텍스트로 간주하고 여기에 정전의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편찬된 선집을 '고시조 앤솔로지'라 지칭하는 것이다.

4) 유춘동,「남북이데올로기로 인한 지식인의 좌절-월북 국문학자 김삼불의 삶과 행적-」,『평화학연구』16(3), 2015; 윤광봉,「인혀진 사람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한국연희예술사』, 민속원, 2016.

5) 김영희·김시연,「김삼불의 판소리 연구와 '조선문학사' 인식」,『한국고전연구』4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김종철,「『김삼불 수집 신재효 판소리 사설 자료집』의 기초 연구」,『판소리연구』50, 판소리학회, 2020; 이해진,

문학 연구사에서 흔히 잊혀졌고 이에 따라 김삼불의 제 업적 역시 적실히 탐구되지 못한 형편이다.

특히 본고가 관심을 두는 김삼불의『해동가요』는 학계에 미처 알려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 역시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는 김삼불의『해동가요』편찬을 중점으로 하여 20세기 전반기 시조 수용의 계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자료집의 편찬 경향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삼불『해동가요』의 편찬 양상과 교주의 제 특성을 온전히 밝히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삼불의『해동가요』가 당대 여러 시조 문헌 가운데 한 사례로서가 아니라, 실제에 기반해 시조 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보여준 문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20세기 전반기 고시조집의 경향[6)]

본 장에서는 20세기 전반기 고시조집의 편찬 경향을 확인한다. 해방 이전 고시조집의 편찬 경로와 상호작용의 맥락들을 검토하면서 김삼불 교주본『해동가요』의 특성과 그 편찬의 의미가 자료의 실상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단초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전반기는 시조가 음악적 틀을 벗어나 문학 장르로 편입되면서 고시조 자료집 기획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다. 이때의 고시조 자료집은 시조 장르 인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시조를 수용, 정리, 계승하였으며 그 편찬 경향은 크게 고시조 집성집(集成集)과 고시조 앤솔로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가집의 시조 수록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편찬 작업을 이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시조 인식이라는 공통 기반에서 고시조 자료집이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성집과 앤솔로지의 시조 수용 방식은 상이하다. 이는 20세기 전반기 서로 다른 지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시조 자료집이 공존했음을 의미한다.

먼저 고시조 집성집은 고시조의 자료 수집과 정리가 긴요하다는 사명감에서, 그리고 시조의 역사는 어떠한가를 학자와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 편찬되었다. 고시조 자료를 최대한 많이 보존하고, 또 체계화하려는 목적 아래 고시조 집성집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20세기 전반기 총 4종의 고시조 집성집이 산출된다. 이용기(李用基)의『樂府』(1920-30년대),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의『時調類聚』(1928), 마에마 쿄사쿠(時調類聚)의『校註歌曲集』(1928~30년대)과 신명균(申明均, 1889~1941)의『時調集(全)』(1936)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집성집은 가능한 많은 작품을 축적하고자 했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1000수 이상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고시조 집성집은 시조를 조선의 문학 유산으로 해석하여 이를 가능한 한 많이 수록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고, 고시조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고자 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인다. 편찬자들의 고민을 정리해보면, 시조의 향유 전통인 악조·악곡, 작가 및 작품의 창작 시기, 표본, 이형태(異形態), 주제, 작품 출처, 주석, 시어 풀이 등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이 고시조 집성집들은 그 자체로 시조 문학사의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용기는『악부』편찬을 위해 가집, 문집, 금보 등을 활용하면서 고시조를 수집했다. 저본이 된 가집의 악곡 분류 체계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많은 작품을 비체계적으로 수록하는 과도기적 면모를 보인다. 그럼에도 고시조를 소중한 조선의 문화유산이라 여겨 지속적으로 작품을 수정한 흔적이 문헌 속에 남아 있었다. 또한, 텍스트를 정확하고도 다양하게 보이기 위해 이본형까지 기록하는 면모도 나타난다. 이러한 과도기 단계를 거쳐 1928년에는 최남선에 의해『시조유취』가 발간된다. 최

「『金三不本 신재효 판소리 사설』 소재 자료 연구-「신오위장극가집 별사(申五衛將劇歌集 別寫)」와 「심청가 초(沈晴歌 抄)」를 대상으로」,『어문론총』89,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6) 2장의 주요 내용은 유정란,「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자료집의 편찬 경향과 그 특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의 제3장과 제4장을 요약 및 재정리한 것이다.

남선은 고시조를 전면 내용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법론을 집성집에 적용했다. 조선조 내용별 분류 가집과는 전혀 다른 분류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시공간적 배경, 인물, 표현법 등 근대적 분류 방식을 도입하여 고시조를 변별하는 태도가 주목된다. 고시조의 다기한 내용적 성향을 알리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고심했던 모습이다.

1930년대가 되자 고전부흥운동이 기획되었으며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은 '조선학' 운동을 제도화했다. 조선사람이 조선을 알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과거 문학 유산을 환기했던 것이 이른바 고전부흥의 기획이다. 1920년대 조선 연구가 국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시기에는 조직적으로 국학 진흥의 시대가 펼쳐졌다. 이런 열기가 『교주가곡집』과 『시조집』 산출에 힘을 보태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마에마와 신명균은 고시조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가 하면, 집성집을 통해 그 역사적 전개를 보여주고자 하여 특징적이다.

우선 『교주가곡집』에서 무명씨 작품은 편찬자가 정립한 악곡 배열법에 따라 작가편 보다 앞서 수록되었고, 유명씨 작품은 작가 시대에 따랐다. 무엇보다도 마에마는 무명으로 전해지는 작품에 중점을 두었는데 유전편(流傳編)을 위해 악곡 연구도 치밀하게 진행한 정황도 살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교주가곡집』은 이용기의 『악부』에서 일부 시도되었던 이본 의식을 대폭 확장했으며, 시조 표기법도 시대 귀속에 따라 정규화했다. 아울러, 고시조만큼이나 방대한 분량의 주석 작업은 시조의 사적 체계화와 의미 전달을 모두 유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조사의 구분, 전면 대교에 따른 출처 표기와 이본 수록, 여기에 상세한 주석까지 더하여 고시조 자료의 활용도를 한껏 끌어 올린 것이다.

신명균의 『시조집』은 『교주가곡집』의 편제와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고시조를 집대성했다. 다만, 작가편을 무명의 작품보다 앞세우는 변별적 양상을 보인다. 신명균은 마에마와 달리, 작가별 배열이 시조의 역사를 보다 잘 보여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무명의 작품을 『靑丘永言』(육당본)의 악곡 배열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배속해 놓았다. 또한, 신명균은 개별 작품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시어 풀이를 최초로 시도했다. 이 시어 풀이 항목은 시조 문학 사전의 초기형태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신명균이란 한글 학자가 편찬한 고시조 집성집인 만큼, 『교주가곡집』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조사를 구조화했던 것이다. 이처럼 고시조 집성집은 자료를 수집·기록하고 중점을 둔 정보에 따라 각기 다른 경향과 특성을 보이며 체계화되었다.

다음으로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자료집의 또 다른 편찬 경향을 보이는 고시조 앤솔로지는 시조 정전화라는 이념을 주지하면서도 검증을 거쳐 작품을 계승하고자 했다. 따라서 고시조 앤솔로지는 시조사에서 어떤 작가와 내용, 유형이 집중적으로 선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고시조 집성집이 얼마나의 작품이 어떻게 축적되었는가를 보여준다면, 고시조 앤솔로지는 방대한 작품 중 '무엇'을 알리고 교육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특히 20세기 초 지식인에 의해 시조가 선별되고 출판되는 과정은 '고시조' 인식과 정전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했다. 이런 점에서 앤솔로지 편찬자는 '어떤 시조를', '무엇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20세기 전반기 산출된 고시조 앤솔로지는 그 편폭이 집성집보다 크다. 겨냥한 독자층에 따라 선별 의식을 달리하여, 다양한 유형의 앤솔로지가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불특정 대중들이 친근하게 고시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 대중 놀이형 고시조 앤솔로지 가투(歌鬪)가 있다. 가투는 일반 대중에 고시조를 보급하는 방편으로 발매되었다. 가창 향유에 무게를 둔 시조 인식의 중심이 문학 정전으로 옮겨가면서 고시조의 새로운 소통방식이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세기 전반기 가투들은 시조 정전화의 실천 속에 존재하며 조선의 고전으로서 시조를 호명했고 일반 대중의 폭넓은 호응을 얻었다.

위와 같이 불특정 대중을 겨냥하여 고시조를 재편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한편, 국학자들은 고시조를 문예, 곧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작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바로 아악부에 근무하고 있던 문화 권위자 안확(安廓, 1886~1946)의 「模範의 고시조」(1932)와, 시조 시인이면서

도 학자였던 최남선의 「고금시조선」(1918), 그리고 이병기(李秉岐, 1891~1968)의 「고시조선」(1940)과 『역대시조선』(1940)이다. 시조 장르 인식의 변화는 문화엘리트들의 고시조 선별 기획까지도 이끈 것이다. 특히 시조 학자에 의한 고시조 앤솔로지 편찬은 학식 있는 청년이나 학자를 독자층으로 상정했기에 더 강한 엄선주의가 적용되었다. 이에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고시조 앤솔로지는 다른 책에 비할 수 없는 우위를 지닌다. 문예적 가치가 있는 작품만을 그야말로 정선(精選)하여 이를 엘리트 독자들에게 보급하는 데 핵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편찬의 앤솔로지는 각각 『청춘』, 『조선』, 『문장』이라는 당대 최고의 문예 잡지에 수록되었다. 또한, 이병기의 앤솔로지는 문고본으로도 출판된다. 이는 제도적으로도 합의된 정전 구성을 의미하는바, 시조의 학술적 인식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고시조를 엄선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구성까지도 고심했다. 선택된 고시조는 역사, 수사(修辭) 기법, 장르 또는 작가 연대에 따라 재배치되는데 전대의 관습적 전통을 청산하는 한편, 고시조 앤솔로지의 체계적 형식까지 마련되었던 양상이다.

우선 최남선의 「고금시조선」은 시조 선별 후 이를 역사적으로 배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조의 작품성보다는 그 역사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시조를 선별하면서도 통시적 계열화를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안확은 시조의 언어 감각을 중시하면서 작품을 추렸고, 이를 「모범의 고시조」에서 다시 수사 방식에 따라 분류했다. 이병기는 최남선, 안확과 달리 '민족어문학'으로서의 시조를 강조하고자 했다. 따라서 「고시조선」과 『역대시조선』에는 우리말로만 창작된 고시조 작품이 대거 수록되었다. 평시조뿐 아니라 평민적 감정을 담은 사설시조를 채택하고 있는 점도 다른 고시조 앤솔로지와 변별되는 특성이다. 이병기의 고시조 앤솔로지 편찬에서 선별의 주요 기준은 민족어를 활용하여 조선의 '실감실정'을 잘 드러내는가에 있다. 무엇보다 자국어 문학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셈인데, 특히 『역대시조선』은 선별에 아울러 난해 어구 풀이, 창작 정황에 대한 설명 등 시조비평문도 개재되어 더욱 특징적이다. 이러한 이병기의 시조비평 의식은 그 제자였던 김삼불에게로 전수되기도 하는 까닭이다. 요컨대 학자들의 고시조 재편 작업은 시조를 근대적 학술장으로 편입시키고, 앤솔로지 그 자체로 시조 문학의 전범을 생성하여 후대 문학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렇듯 20세기 초 민족문화를 수립하고 전통을 창조하는 움직임 속에서 고시조의 유산적 가치가 발견되고 있었다. 시조문학 담론이 형성되고, 전대의 가집을 계승하여 활자화하고 복제하는 데서 나아가, 고시조는 조선의 고유 문학이라는 지위를 확보하면서 자료집에 수록되었다. 결국, 고시조 자료집은 시조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문학사로 정립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근거하여 기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시조 자료집은 시조 문학사 형성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으며, 후대 시조 문헌 편찬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상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자료집의 편찬 경향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제 양상을 고려하는 가운데 다음 장을 통해 김삼불 교주본 『해동가요』의 특성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3. 김삼불(金三不) 교주본 『해동가요』의 편찬 양상

김삼불은 서울대학교 졸업 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쳤다. 그 가운데서도 1950년 3월에는 당대까지 발견된 『해동가요』 이본 두 종, 곧 周氏本(육당본 혹은 대학본)과 一石本을 대교(對校)하고 여기에 주석을 덧붙여 교주본 『해동가요』를 출간한다. 곧, 김삼불의 『해동가요』는 이본 대교집이자 시조 주석본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이는 해방의 공간에 이르러서까지 시조 재편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해동가요』가 제도권 내에서도 주요 시조 문헌으로 부상했음을 뜻한다. 1948년 조선진서간행회에서 김천택 수고본을 저본으로 한 『청구영언』(진본)이 간행되었으며, 이를 이어 김삼불에 의해 『해동가요』 교주 작업이 시도되었다는 점

에서 이른바 삼대(三代) 가집의 명맥이 더욱 공고해졌음을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 관심을 두는 논의는 크게 두 방향이다. 하나는『해동가요』의 편찬 체계와 김삼불이 이를 편찬하게 된 배경이다. 여기에는『해동가요』교주 작업을 둘러싼 인적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김삼불이 시도한 교주의 특징적 양상이다. 이본 대교의 방법, 시조 어휘에 대한 주석 등이 거론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명은 김삼불 교주본『해동가요』의 특성은 물론 그 시가사적 의미를 드러내는 길이기도 하다.

3.1. 김삼불의『해동가요』편찬과 그 배경

김삼불 교주『해동가요』의 전체 편제는 다음과 같다.

校合本 海東歌謠 目次
李熙昇 序
自序
凡例
作家索引
作品索引

海東歌謠 序
歌之風度形容十四條目
各歌體容異別不同之格(海周)
各歌體容異別不同之格(海一)
作家諸氏
初中大葉 1(1수)
二中大葉 2(1수)
三中大葉 3(1수)
初北殿 4(1수)
二北殿 5(1수)
初數大葉 6(1수)
二數大葉 7~568(562수) + 3 (『靑邱歌謠』의 김수장 작품)
序 我國歌譜~/ 國有風雲之度家~
古今唱家諸氏
朴謙 海東歌謠 跋
周時經 海東歌謠 跋
(府) 靑邱歌謠 1~77(77수)
李秉岐 海東歌謠 解題
海東歌謠 釋注
語彙索引(1. 體言·故事成語, 2. 用言·修辭語·關係語, 3. 用言活用語尾)
釋注
補遺

김삼불본『해동가요』의 차례를 보면 일석본의 소장자인 이희승의 서문, 그리고 자서가 뒤따르고 범례, 작가·작품 색인이 문헌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海東歌謠 序"부터 "各歌體容~"까지는『해일』과『해주』의 기록을 대교하여 옮겨왔고 때로 이본 간의 설명이 서로 다를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전재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작가제씨"에서는 수록 작가를 연대별로 열거하고 자(字)와 관직명 등을 덧붙였다. 이 역시 양 이본의 내용에 따라 재편집한 것인데,『해주』에 표기된 해당 인물의 자

호와 경력을 따랐다.

작품 수록 양상을 보면 김삼불은 양 이본의 공통 편제를 전체적으로 따르되, 『해일』의 이삭대엽 이하는 택하지 않았다. 무명씨를 제외하고 유명씨부만을 편집한 양상이다. 말미에는 『해주』의 특징인 고금창가제씨와 그 서문격 기록을 수록해 놓았다. 마찬가지로 『해주』에만 있는 박겸과 주시경의 발문을 차례로 기재한 뒤 현재는 소실된 『靑邱歌謠』를 부록으로 개재했다. 이후에는 당대 『해동가요』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이병기의 발문이 있고, 끝으로 "해동가요 석주"라 하여 본문에 버금가는 양의 어휘색인, 주석, 보유를 차례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해동가요』의 몇 안 되는 이본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했던 김삼불의 의식이 그 편제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자료집의 편찬 맥락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한편, 일석 이희승의 서문은 자료집의 편찬 경위와 다른 시조 문헌에 비교해 김삼불의 『해동가요』가 갖는 특징적 성격을 잘 설명해준다.

> 우리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예술적으로 고도화된 것으로는 시조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관계인지 소설이나 가사 같은 것은 그 작자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에 붙인 것이 實例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날 그것이 누구의 작품인지 알 길 없는 것이 거의 전부임에 불구하고, 시조는 작가의 이름이 비교적 많이 알려진 것은, 작가의 이름을 걸어 놓아 하등 불명예를 느끼지 않을 만큼 자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무명씨의 작품도 많지 않은 배 아니나, 어느 예술면보다도 많은 작가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작자의 종류를 따져 보더라도, 위로는 王公將相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 기녀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을 망라하였고, 시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고려(말엽?)로부터 이씨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累백년 간의 세월을 통하여 창작되어 왔다.
>
> 이러한 시조인지라, 이것이 다각적 다면적으로 음미 검토되어야 할 것이요, 다만 해석면에 한하여 생각할지라도, 가장 과학적 방법으로 진중히 해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저서로서 이미 세간에 나타난 것이 二三에 그치지 않으나, 아무리 하여도 독자로 하여금 아직 隔靴搔癢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점이 적지 아니 남아 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날카로운 「메스」를 요청하여 마지않는 바다.
>
> 일찍이 문리과대학 국문과 연구회 석상에서 저자 김군이 발표한 사설시조에 대한 연구를 들어본 일이 있어서, 그 造詣가 열지 않은 것을 스스로 讚歎한 일이 있거니와 지금 다시 본 저의 원고를 구경하여 보매, 그 考異 注釋에 매우 級密을 期하여, 이 종류의 다른 저작이 미치지 못한바 새 경지를 개척한 공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 그 稿가 완성되어 간행에 옮김에 당하여 나에게 서문을 청하는지라, 내 스스로 일종의 의무를 느끼어 이에 두어 마디 덧거친 말을 적어, 이 책 머리를 더럽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 저자의 후일을 크게 기대하여 탐탐히 여기는 바이다.
>
> 檀紀四二八二年 十一月 그믐날 李熙昇 적음

이희승은 우선 시조의 고전문학으로서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서두를 꾸몄다. 그 가치 판단의 근거는 시조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작가성이 다른 문학 갈래보다 짙다는 점, 그리고 작가의 계층이 "왕공장상"으로부터 "서민 기녀"에 이른다는 점에 놓여있다. 192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시조 국민문학론의 중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다만 이희승은 시조의 해석적 측면을 강조하며 독자가 느끼는 "격화소양"을 언급하고 있다. 시조 연구, 특히 해석에 있어 과학적 방법론의 부족을 일깨우는 것이다. 또한, 그는 김삼불이 일찍이 서울대 재학 시절 사설시조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해동가요』 간행을 시도했음을 진술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이희승은 김삼불 『해동가요』의 특성이 "考異 注釋에 매우 級密을 期"한 데 있다고 하였다. 투철한 대교 의식과 상세한 어휘 풀이가 바로 다른 저작물이 미치지 못하는 『해동가요』의 "새 경지"라는 것이다. 이렇듯 김삼불의 『해동가요』 간행은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자료집의 편찬 경향을 이으면서도 전체 이본 대교, 그리고 시조 어휘 사전의 형태를 고구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면모를 보인다. 이병기 역시 "해동가요 해제"문에서 김삼불 『해동가요』의 가치를 "교주"와 "논평"에서 찾았다.[7] 1950년대 김삼불본 『해동가요』는 『역대시조선』을 이은 시조 주석서로서 역할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김삼불 자서를 통해 그 편찬 배경을 확인할 차례다. 지금껏 학계에 소개된 바 없으므로 장문이지만 그 전문을 인용해본다.

①우리 詩歌文學 중 가장 두드러진 時調 장르를 科學하는데, 海東歌謠는 빼 수 없는 중요한 자료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이저에 전하는 靑丘永言이며 歌曲源流의 金得臣 序文에 의하면 숙종 어름에 벌써 시조의 裒集이 있었는 듯하고, 장복소의 서에서도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으나, 본 歌謠는 국문학사상 유전하는 시조의 綜合編集으로는 청구영언에 버금가는 둘째 번의 가집으로서 周氏本의 노가재 서의 癸未年을 근거로 한다면 영조 39년 서리 김수장의 손으로 編選된 것으로 청구영언이나 해동가요는 대되 평시조 문학을 決算하는 가집이다. 시조의 宗은 평시조를 두고 이름인데 평시조의 융성은 이조 중엽까지로 보겠고, 벌써 英正때 들어서서는 평시조의 褪色이 현저하고, 이에 대치되는 辭說時調가 등장하였다. 즉 평시조를 양반의 문학이라 손치면 사설시조는 新興할 또는 한 庶民의 문학이다. 이것은 곧 사회사적 현상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청구영언이나 본 가요에서 사설시조의 興旺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사설시조의 성립은 곧 평시조 장르의 崩壞를 뜻하는 까닭이며, 이것은 他面 예술의 모든 면에 현상된 신구 장르의 대립에서 보는 서민 장르의 反定立의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가요에서 평시조는 두 번 이상 사적으로 결산 되었고 그뿐 아니라 古典으로서의 時調文學이 정리되었다고 하겠다.

②이러한 구실을 가진 청구영언이나 본 가요는 사적으로 매우 종요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자료적 가치는 異本이 적은 해동가요가 確實하고 어느 정도 믿어도 誤差가 적겠다. 즉 청구영언에는 吳氏本이 眞本인 듯하나, 六堂本, 嘉藍本, 一石本, 石南本 등 많은 이본이 있고 또 그 내용이 제금 다르다. 그러나 현전하는 해동가요는 이본으로는 일석본과 주씨본의 두 가진데 주씨본은 朴謙 周時經 兩氏의 발문에 비춰 傳寫本임이 분명하고, 일석본은 발무늬가 성긴 厚白紙로 된, 前後가 헤어진 상당한 年調의 寫本으로 확정된다. 뿐만 아니라 양 본은 내용이며 體裁가 서로 합치되는 데가 많고 일석본이 그 체재에 있어 완본에 가까우면 주씨본이 그 일부임은 朴氏의 발문과도 같다. 해동가요는 크게 두 部로 볼 수 있나니 곧 有名氏의 乾部와 無名氏의 坤部다. 주씨본은 원래 건곤 二部 중 건부만 전하는 것이므로 유명씨

---

7) 이병기 해제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近者 時調類聚라 하여 청구영언, 가곡원류, 해동악부, 남훈태평가, 여창유취 급지 도산십이곡, 고산유고 등을 모아 놓은 것이 있으나, 이는 다 가곡의 原詞로서 시조라는 명칭이 발생하기 전부터 있어 온 것이었다. 그러나 종래 가곡의 원사를 적은 책으로는 그중 크게 일컫는 게 세 가지가 있으니 청구영언, 해동가요, 가곡원류인바, 해동가요는 근조 肅宗 때 騎省(兵曹)書吏 김수장의 편찬이라 한다. 가곡원류는 박효관의 찬임이 틀림없거니와 청구영언은 그 撰者를 아직 質定할 수 없으되, 또한 이 해동가요의 찬자도 틀림이 없는가 한다. 요마적 조선진서간행회 간행인 청구영언에는 김수장의 작이 한 수도 들지 않고, 김수장과 김천택과의 莫逆한 사이란 말도 없으나, 이 해동가요에는 그 자상한 말이 다 적혔을뿐더러 기타 다른 것으로 상고해 보더라도 알겠다. 지금 전하는 해동가요는 경성대학 간행본과 이희승씨의 소장본이 있는바, 이희승씨의 소장본은 그 표제에는 海東風雅라고 하였으나, 그 목차는 경성대학 간행본과 대동소이하고, 혹은 그 작자의 이름이 다르기도 하며 전후 또는 간간 落章이 되었으며 무명씨작이란 것에도 그 작자를 알음 직한 것이 더러 있음을 밝히지 못하였음은 경성대학 간행본과 같으나, 이희승씨 소장본은 紙質과 墨色과 그 낡은 점으로 보면 한 백여 년 된 것이고 또 그 綴字의

사ᄅᆞᆷ을 살ᄅᆞᆷ ᄉᆞ래를 ᄉᆞᆯ래
그려도를 글려도 구롬을 굴롬
시름을 실름 다르리를 달을리
서리를 설리 거리씰줄을 걸릴씰줄

이라 하는 것이 과연 이상한바 나의 소장인 목판본 新刊增補三略解題(이 책도 백칠팔십년 전 영조때 간행인가 한다) 철자

벌을을 벌ᄅᆞᆯ 말을을 말ᄅᆞᆯ
일을을 일ᄅᆞᆯ 부린다를 불린다

라 하여 ㄹ 소리 하나를 더 내는 것이 그때 한 유행인가 하며, 이런 이상한 철자로도 이 해동가요가 영조 39년(1763) 편찬된 것임을 짐작하겠다. 이 撰者 김수장은 자는 子平, 호는 노가재, 또는 十洲라 하며 숙종 16년(1690)에 낳아 74세에 이 해동가요를 편찬하고 그 후에도 몇몇 해를 더 살었는가 한다. 그리고 이 해동가요는 그 찬자가 정확함과 그 작에 당한 서발문 등을 모집하여 놓은 것이 한 특색으로서 이를 연구함에 큰 편의를 도우며 경성대학 간행본 끝의 고금창가제씨의 이름을 列錄하였음은 또한 우리 歌樂史의 막중한 재료이었다. 이에 이 두 책을 합쳐 간행됨을 우리 시가 문학에 뜻을 둔 이로서 퍽 기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주 또는 논평과 같은 연구의 발표도 많이 나와야 하려니와 이러한 저본인 연구의 재료가 더욱 간행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있다. 四二八二, 五, 三 李秉岐

의 부분만 남었고, 일석본은 그 건곤에 해당하는 양부가 다 대되 전하는 것 같은데 중간 零落이 더러 있다. 즉 유명씨부는 李鼎輔에서 끝났으므로 南坡 노가재의 양인의 작은 漏落된 셈이다. 이 외 무명씨부에서도 중간 영락이 얼만지는 그 수를 확실히 모르는 바나, 一方 주씨본의 유명씨부도 전사할 때에 몇 수를 더 添消하였는지는 박씨 발문에서도 분명하지 못한바 여하튼 일석본에 가잘벼 주씨본이 傳寫人의 주관에 의한 덧붙임도 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주씨의 발문이 명시하는바 「그 編次가 不一ᄒᆞ고 중복이 間多ᄒᆞᆷ으로 余가 이에 檢閱較正ᄒᆞ야」는 時調의 首數에 대한 전후 중복이겠고,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질댄 現傳의 周氏本은 어학적인 誤綴이 많은 그것에서 짐작될 것도 같다. 그리고 박씨의 「採遺補缺은 以俊後人」 云云은 검열교정의 범위가 그 저본 내에서 遂行되었는 듯하고, 그 저본에 없는 것을 보충한 것은 아닌 듯하다. 즉 일석본과의 對照에서 그 편차의 일치로써 이것은 짐작되며, 주씨의 「陽春下俚」 相雜의 客談을 反駁한 「是文으로 前鑑을 삼아 往蹟으로 不泯코져 ᄒᆞᆯᄲᅮᆫ이로다」의 傳寫 意圖에서 볼진댄 넘난 添消은 없었으리라고 믿어진다.

③그러나 주씨본과 일석본의 유명씨부의 편차가 일치되고 주씨가 충실히 원 저본을 전사하였다면 일석본보다 주씨본이 이정보 이전의 작품에서도 양적으로 많으며 작가를 두고도 정비되어 있음은 어찌된 연골가. 이것은 곧 주씨의 저본에 미친 증보라는 見解의 발판이 될 수도 있기는 하나, 이렇게도 풀이할 수 없을가. 즉 주씨본은 적어도 그 서에 새겨진 계미 정월 上澣에 撰한 그 계미본의 原形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곧 노가재의 丁亥年의 各歌體容異別不同格이며, 작품 [五二六]에서 보는바 「奉下親耕親蠶二章丁亥三月九日」 條의 정해년은 五二六에 비춰 영조 43년일 것이다. 이에서 주씨본은 계미본이 아님이 분명하고, 작가제씨에서 金友奎 이하의 名列도 또한 주씨본이 계미본이 아니라는 嫌疑로운 재료의 하나다. 허고 보면 해동가요는 계미년에 일반 성립한 후에도 늘 그 부피가 積層되었음을 짐작하겠고, 靑邱歌謠에서 보면 바 「余歌譜改修正時」 「歌譜重修之際」의 歲次가 계미년을 지칭하였다 하더라도 계미본은 다른 가보(오씨본 청구영언과 편차가 거의 일치된다)를 기준으로 改撰하였을 것이니, 해동가요는 성립 전후로 통하여 적층 成長을 繼續했을 것이다. 까닭으로 주씨본이 계미본의 원형에서 덛붙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미본에서 遠位置에 있을 것이니, 예서 일석본이 곧 原則的으로는 계미본 또는 주씨본보다 계미본에 近距離에 있음을 推斷할 수 있으며, 이 적층의 시간적 차이가 곧 주씨본과 일석본의 차이의 양적 표시이며 그 원인이 아닌가 한다.

④如斯한 시조집의 적층 變遷 현상은 시조가 문자면에서 鑑賞되는 것보다 唱을 통한 문학의 享受라는 방식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벅벅이 가보에 所載된 작품과 개인 가집에 기재된 원형(廣義의)과는 音韻 語彙 等에 있어 많은 거리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가요를 오씨본 청구영언에 겨누워 보건댄, 오씨본이 丁寧한 戊申本이라 손 친다면 영조 4년에서 동 39년 어름까지의 35년 또는 40년 사이의 가보의 적층 변천 현상을, 본 가요에서 얻어볼 수 있겠다. 즉 오씨본에 漏載된 孤山 작품이 본 가요에서는 가보화하여 그 遺藁集의 漁父詞나 다른 시조와는 많은 변천을 보이니, 오씨본의 누재는 무신본 때에는 고산의 제 작품이 일반화하지 못할 만큼 시조창이 미약하였거나, 또는 남파의 가보 裒集의 主張이 時音을 避하고(陶山十二曲 等) 原音(原典)을 모을려는 것에서 원전을 얻지 못한 것에(현전의 고산유고집은 철종조의 간행인 듯한 것에 비춰) 起因되었거나, 이 두 원인에 속할 듯하다. 이것은 곧 오씨본의 송강의 제작품이 이선본의 배열과 동일하다는, 그 동일성의 연유가 되는 것으로, 오씨본이 이선본과 합치하는 것은 남파의 原音 取擇의 주장에서는 영조 4년은 성주본(영조 23년간)이 간행되기 전이니 숙종 16년 庚午에 간행된 듯한 이선본을 원전으로 택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듯도 하나, 여하간이 原音과 時音의 取捨는 오씨 청구영언과 해동가요의 성격의 차이의 하나를 규정하는 것으로, 짐작건댄 무신본이 이 성립될 영조 4년 어름에는 아직 시음이 원음을 壓倒 못할 만큼 시조창이며 다른 가창이 성숙하지 못하였음을 傍證하는 감의 하나가 아닐가. 그런 즉 송강의 단가나 고산의 시조가 완전히 時調(歌)譜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시조창을 말미암아 변모하게 된 것은 무신년 이후 계미년 사이의 사실, 이렇게 추측을 해 보기도 하였다.

⑤이상은 해동가요며 그 이본에 대한 소견의 일부거니와, 허다히 누려진 詩歌文學의 제 문제를 다루는데 차지할 본 가요의 가치며, 또한 印本인 통칭 대학본의 未備性 등을 商考한 나머지, 일석본과 서울대학본을 校合하던 것이 이렇게 印出하기에 이르고 보니, 一面 自家의 好事癖을 慙愧히 여기는 바도 不無하나, 오히려 동학 諸位의 參考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염원한 바이기도 하다. 끝으로 저본을 빌려주신 육당 선생, 그 위에 서문을 베푸신 일석 스승, 해제를 붙여 주신 가람 스승, 校註歌曲集의 고본을 빌려 주신 泰昌堂主人, 그리고 同門 崔暎海 형의 厚意와 畏友 金河明 兄의 고맙사온 수고를 紙筆로써 깊

이 謝하고자 한다.

1950年 1月 日
모래마을에서 校注者 새김

김삼불은 사설시조에 많은 관심을 두었던 만큼 자서가 시작되는 ①에서 사설시조를 통해 시조사의 전개를 설명하는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시조의 종류로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들고서는 『청구영언』과 『해동가요』를 통해 그 장르 교체 현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중에서도 평시조는 『청구영언』과 『해동가요』에서 각각 결집되었고, 이들 가집을 고전으로서 시조 문학을 정리한 문헌이라 이해하고 있다. ②에서는 『청구영언』에 비교해 『해동가요』가 지니는 자료적 가치를 설명한다. 그 이유는 『해동가요』의 이본이 『청구영언』에 비교해 현저히 적다는 데 있다. 게다가 『청구영언』은 진본(眞本)으로 여겨지는 문헌까지 발굴되었으므로 『해동가요』의 이본적 가치가 더욱 높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김삼불은 일석본이 연대가 더 오래되고 체재가 완비되어 김수장의 완본에 가까우며, 주씨본은 그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주씨본은 乾坤 두 부 중 건부만 전하는 까닭이다. 더하여 주씨본은 전사의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되었으며, 어학적 오류도 많다고 하였다. 한편으로 김삼불은 완본에 가깝다고 한 일석본 역시 유명씨부에서 김천택, 김수장의 작품을 전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미비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그는 ②의 인용문에서 양 이본이 합치되는 점, 그리고 각 결함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두 이본 간의 대교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설파한 것이다.

이어지는 ③의 글에서 김삼불은 주씨본과 일석본의 편찬 연대를 재구한다. 먼저 주씨본은 김수장 수고본으로 생각되는 계미본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지 않으며, 『해동가요』가 적층, 성장을 지속하며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수장의 『해동가요』 편찬 과정에서 주씨본은 또 다른 편자에 의해 전사되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김삼불은 주씨본보다 일석본이 "원칙적"으로 계미본에 더 가깝다고 추단하였다. 일석본과 주씨본을 저본으로 하여 『해동가요』 교주본을 편찬하되 일석본을 주요 대본으로 지정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바로 ③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④는 『해동가요』의 적층, 변천 현상을 시조와 음악의 문제로 설명하는 글이다. 시조는 창을 통해 향유되었기에 각 가집의 기록과 개인 시조 문헌의 기록 간에 음운이나 어휘 상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다. 그 가운데서도 오씨본(김천택 수고본) 『청구영언』은 대개 원음을 지향하였으며, 그 편찬 연대로부터 약 40년간 시음이 원음을 "압도"하게 되어 시조가 변모하였다는 이해의 과정이 특징적이다. 『청구영언』과 달리 『해동가요』는 시조 가보로서의 시음을 지향하였고, 김삼불은 이러한 지점이 『해동가요』가 갖는 또 다른 가치임을 읽어냈기 때문이다. 문학으로서의 시조 연구에서 그 향유 맥락까지 고려했던 면모가 드러난다. 아울러, 여기에는 언어 발전적 측면에서 시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김삼불 개인의 연구 태도가 개입되어 있기도 하다. 『해동가요』의 시음 지향이 방대한 시조 주석 작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끝으로 ⑤에서는 『해동가요』 교주본 간행에 활용된 시조 문헌이 소개되고 있다. 우선 "저본을 빌려주신 육당 선생"이란 대목에서 주씨본의 경우 1930년 경성제대에서 활자화된 육당본 『해동가요』와 최남선 소장의 원본이 함께 활용되었던 사실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일석본은 이희승이 직접 제공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삼불이 두 이본의 교합(校合)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였던 점도 진술되고 있다. 게다가 『교주가곡집』까지도 교주에 활용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 "고본"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 소장된 마에마의 수고본이라 알려져 있다.[8] 이로써 『교주가곡집』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던 시조 주석이 김삼불의 『해동가요』 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김삼불은 시조사의 전개, 향유의 맥락, 시조 문헌의 가치 등을 고민한 끝에 『해동가요』

8) 『교주가곡집』의 이본과 유통 과정에 관련해서는 유정란, 「『교주가곡집』의 편찬과 이본현황」, 『국제어문』 75, 국제어문학회, 2017을 참조.

교주본을 간행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두 이본을 교합하게 된 것은 그가 서민문학이라 일컬었던 사설시조에 일찍이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조를 학문이라는 범주 안에 놓고서 『해동가요』의 독자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는 스승이었던 이병기를 비롯하여 이희승, 최남선, 오장환 등의 도움이 있었고 마에마 쿄사쿠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특히 이희승이 언급했듯, 김삼불의 『해동가요』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대교의 방식과 문헌 말미에 수록된 주석이라 할 수 있다. 절을 달리하여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3.2. 이본 대교와 주석의 양상

앞서 살폈듯 김삼불본 『해동가요』는 일석본과 주씨본을 전체 대교하여 만들어졌다. 마에마의 『교주가곡집』은 여러 가집을 대교하여 그 대표작만을 수록하였고[9] 이병기의 『역대시조선』은 부분적으로 이본을 언급했다. 반면, 김삼불은 『해동가요』 일석본을 전재하고 주씨본과 서로 다른 경우 작품 아래 “校”를 표기하고 그 시구를 함께 기록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면 대교의 방법이 『해동가요』 간행에 적용된 셈인데 김삼불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 범례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一, 이 책은 일석본과 주씨본의 유명씨부의 교합본이다. 무명씨부는 속 해동가요의 이름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一, 大凡 일석본이 주씨본보다 표기에 있어 誤綴이 적으므로 일석본을 대본으로 하였으나, 일석본보다 주씨본의 표기가 옳을 때는, 그 부분만 주씨본으로서 교정하였으니 這間의 사정은 校合欄에서 명시되었고, 교합자의 恣意로서 교정하지 않았으니, 원칙적으로 원문이 보존되고 있으며, 원전의 오철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一, 주씨본에만 있는 것은 주씨본을 그대로 옮겨 간혹 분명한 前後不通의 誤綴 등은 원문을 그냥 둔 채 교합자의 소견을 교합란에 베풨다.
一, 교합의 용어는 「漏」는 분명한 누락이라는 간단의 근거가 있는 것, 「없음」은 간단의 근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의 기록, 「削除」는 일석본에서 칼로서 도려낸 부분, 「當作」은 교합자의 소견, 「海一」은 일석본, 「海周」는 주씨본 등이다.
一, 釋注는 箇別的이고 한 수 중심의 센스的 석주를 능력껏 피하였고, 전체적 연관 하에서 어의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생긴 석주 중 相考 參照의 數字는 곧 본 가요의 작품 번호다.
一, 釋注 중 漢文의 故事 人名은 前間恭作씨의 校註歌曲集에도 依據하여 勞力을 節用하였다.
一, 釋注 중 인명에 있어 그 출전의 명시가 없는 것은 中國人名辭典에 의거한 것이다. 응당한 일이나

9) 『교주가곡집』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문”을 수록하고 있다. 일례로
<559>
岳陽樓(악양루) 上上層(샹샹층)의 올나 洞庭湖(동뎡호) 굽어보니
七百里(칠빅리) 平湖水(평호슈)의 君山(군산)이 半(반) 남아 즘겨셰라
어듸셔 一葉(일엽) 漁船(어션)이 任去來(임거릭) ᄒᆞᄂᆞᆫ고
靑蓮集
異文
岳陽樓(악양루)의 올나 안자 洞庭湖(동뎡호) 七百里(칠빅리)를 둘너보니
落霞(락하) 與孤鶩(여고목) 齊飛(졔비)ᄒᆞ고 秋水(츄슈)ㅣ 共長天(공댱텬) 一色(일식)이로다
어즈버 滿江(만강) 秋興(츄흥)이 數聲(수셩) 漁笛(어뎍)쑨이러라
靑, 源, 類
又
獨上岳陽樓(독샹악양루)ᄒᆞ야 洞庭湖(동뎡호) 七百里(칠빅리)라
落霞(락하)ᄂᆞᆫ 與孤鶩(여고목)齊飛(졔비)ᄒᆞ고 秋水(츄슈)ᄂᆞᆫ 共長天(공댱텬)一色(일식)으로
限(ᄒᆞᆫ) 업슨 吳楚(오초)東南景(동남경)이 眼前(안젼)의 니어시니 樂無窮(락무궁)인가
南 曲調未攷
와 같은 방식으로 유형을 달리 파악한 경우에 ‘이문’을 함께 기록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문은 때로 2개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전면 이본 표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김삼불본 『해동가요』와 차이가 있다.

보유에서 한둘 시험하였을 뿐 다 하지 못함은 역시 유감된 일로 후일을 기약하는 바다.

우선 그는 일석본을 위주로 하되, 주씨본의 표기가 옳다고 판단될 때는 그에 따라 교정하고 그 사실을 교합란에 명시해 두었다. 때로 오자가 있더라도 그대로 기재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김삼불은 어디까지나 원문 보존의 의식을 주지하며 『해동가요』 간행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한쪽 이본에만 수록되어 대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원문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기술한 부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다만, 김삼불은 시조 표기면에서 원본을 따르지 않고, 3장으로 구분하였다. 그럼에도 앞서의 고시조 자료집들이 시조를 크게 3장으로 구분하되 각 장 안에서 단어의 의미와 음절을 고려하여 마디별 띄어쓰기를 시도했던 데 비교해보면 김삼불의 원문 보존 의식은 투철하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그가 수행한 작품 대교 양상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320. 閣氏네곳을보소픠는듯이우는이 얼1굴이玉ᄀᆞᆺ튼들靑春을ᄆᆡ얏실싸 늙은後門前이冷落홈연뉘웃츨싸ᄒᆞ노라 【校】海周 1 玉갓튼얼골인들

393. 물우흿沙工물알엣沙工놈들이三四月田稅大同실라갈쩨 一千石싯는大重1船을직위다햐2쑴여내3야三色實果멸4이ᄀᆞ즌것ᄀᆞᆺ초5와필이巫鼓를둥둥침여五江城隍之神과南海龍王之神께손곳초와告祀홀쩨6全羅道ㅣ라慶尙道ㅣ라蔚山밧7아羅州밧8아七山밧9아휘돌아安興목이라孫乭목江華ㅅ목10감돌아들쩨11平盤에물담듯시萬里滄波에가는듯12돌라오게고스레고스레事望일게ᄒᆞ오쇼13셔 어어라어어라저어어어라 ᄇᆡ띄여라至匊悤南無阿彌陀14拂 李鼎輔 【校】海一 1大船 12없음 14-拖 海周 2혀 3ᄂᆡ 4머리가 5갓 6제 789바다 10몸 11제 13소

280. 말ᄒᆞ1면雜類ㅣ라ᄒᆞ고말안이면얼이다ᄒᆞ니 貧寒을놈이웃ᄭᅩ富2貴를ᄉᆡ오ᄂᆞᆫ데 아마도이하놀아ᄅᆡ셔살올일이어려왜라 朱義植【校】海一 1하 2以下二八六까지海一은漏落

88. 이뫼흘헐어내야져바다흘메오면은1 蓬萊고온님을거러가도볼엿만은 이몸이精衛鳥ᄀᆞᆺᄐᆞ여바자 닐만ᄒᆞ노라 徐益 【校】 海周1 없음

100. 功名이긔무엇고헌신짝버슨이로다 田園에도라온이麋鹿이벗이로다 百年을일이지냄도亦君恩이로다1 申欽 【校】海一1「이로다」 部分 削除

238. 靑總1馬여왼後ㅣ니紫羅裙도興盡커다 나의風度야업다야홀야만은 世上에至極ᄒᆞᆫ公物을돌려볼싸ᄒᆞ노라 李貴鎭 【校】1當作 驄

시어·시구 대교의 방식은 대단히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각기 다른 표기 방식에서부터 작품이 누락된 경우, 음절이 없거나 삭제된 경우에 이르기까지 당대로서는 혁신적 이본 표기 방법이 적용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도 238번 작품의 "당작"이란 교합란이 주목된다. 범례에 따르면 이 당작은 "교합자의 소견"에 의한 것으로 『해일』과 『해주』 모두 거두다란 의미의 "總"으로 표기했지만 김삼불은 말의 뜻을 지닌 "驄"자로 교정해 두었다. 이는 김삼불이 작품 참조에 활용했던 마에마의 『교주가곡집』과 같은 표기다. 곧, 김삼불의 "당작"이라는 교정 방식은 마에마의 원문 표기법에 근거하고 있었던 것이다.[10] 이로써 김삼불이 『해주』와 『해일』을 단순 비교, 대조한 데 그치지 않고 작품 당대의 언어까지도 유념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삼불의 언어적 능력은 주석 작업에서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석주란에 대한 범례의 내

10) 마에마는 시조의 표기 형태를 300~500년 전의 말로 고쳐쓰는 작업을 진행했다. 어학자로서의 편력의 길이 시조 표기 형태를 바꾸게 한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교주가곡집』에는 저본 가집의 표기법과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유정란, 앞의 논문, 2021, 98~99면.

용에서 알 수 있듯 그는 한 수 중심의 “개별적”이고 자의적인 주석 작업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석 작업에서도 한문, 고사, 인명은 『교주가곡집』을 활용하였다고 기술했는데 그 주석 사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오ᄂᆞᆯ이오ᄂᆞᆯ이쇼셔每日에오ᄂᆞᆯ이쇼셔 졈그지도새지도마르시고 새나마晝夜長常에오ᄂᆞᆯ이쇼셔

1. ㄱ. 이쇼셔 指定詞 이다의 尊敬請誘形. 語尾 쇼셔는 動詞에 있어서는 흔히 쓰였으며(鄭瓜亭5葉, 龍歌170章etc) 또 現用하나, 指定詞의 語尾로써 使用된 例는 드물다.
ㄴ. 졈그지도 저물지도. 져물다의 ㄱ 保存形. 져물다는 178, 216, 270, 318, 484……相考.
ㄷ. 새나마 새더라도. ᄒᆞ나마는 用言의 活用이니 아래와 같은 한 品詞로서의 남다와는 區別된다.
나라의셔 쥬신거시 반남아 모ᄌᆞ라니(日東歌)
그 나마 마르재어 자녀의 혼수하세(農家月令歌)

352. 님글여어든病을藥으로곳칠쏜가 한숨이야눈물이야寐寐에밋쳣셰라 一身이죽지못ᄒᆞᆫ前은못니즐ᄉᆡᆼᄒᆞ노라

352. ㄱ. 한숨이야 눈물이야 한숨이며 눈물이며. 이야는 感歎助詞가 接續形의 구실을 한 것.
一千이여 一萬이여 無數히 연고져 ᄒᆞ샤도(月釋1之27)
뫼히여 돌히여 다 노가디여(月釋1之48)
山이여 ᄆᆡ히여 千里外에 處容아비를 어여려거저(樂章歌詞·處容歌)
ᄇᆞ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졍 된뎌이고(松江歌辭·續美人曲)
ㄴ. 밋쳣셰라 맺혔구나. ᄒᆞ여셰라 前注(35, ㄹ.)

김삼불은 원문 보존의 차원에서 표기법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품을 수록했다. 이에 주석은 고어 풀이, 시어의 활용 사례를 일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령 1번 작품에 대해서는 “이쇼셔”, “졈그지도”, “새나마”, “ᄒᆞ나마” 등의 시구 의미를 적고 그 품사도 제시했다. 이중 “ᄒᆞ나마”의 ‘~나마’는 용언의 활용이라 하여 “남다”와는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시가문학 작품 <일동가>와 <농가월령가>의 사례를 들며 “남다”의 품사가 활용되는 양상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자료적 토대까지 마련한 모습이다. 352번 작품에서는 “이야”라는 조사가 접속의 형태로 활용된 경우를 『월인석보』의 <월인천강지곡>, 『악장가사』의 <처용가>, 『송강가사』의 <속미인곡>으로 제시했다. 이렇듯 『해동가요』 주석에는 김삼불의 폭넓은 시가 연구의 시각이 집적되어 있다. 언어학자로서의 전문적인 식견이 『해동가요』 간행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고찰한 결과, 김삼불의 『해동가요』는 이본 전면 대교의 방식을 적용하여 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최초의 시조 문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김삼불은 전 작품에 주석을 달아 독자들이 시조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막대한 자양분을 제공했다. 여기에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자료집에서 시도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결합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김삼불의 『해동가요』 간행은 해방기 시조 문학사 연구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김삼불의 『해동가요』 간행이 갖는 의미는 시조 연구 방법론의 확장이란 측면에서 고려가 가능한 것이다.

참고문헌

『해동가요』 주씨본
『해동가요』 일석본
『교주가곡집』
김수장 편, 김삼불 교주, 『해동가요』, 정음사, 1950.

이형대, 「1920-30년대 시조의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 『한국시가문화연구』 21,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강상순, 「고전소설의 근대적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 『민족문화연구』 55, 민족문학사학회, 2011.
유춘동, 「남북이데올로기로 인한 지식인의 좌절-월북 국문학자 김삼불의 삶과 행적-」, 『평화학연구』 16(3), 2015.
윤광봉, 「인혀진 사람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연희예술사』, 민속원, 2016.
김영희·김시연, 「김삼불의 판소리 연구와 '조선문학사' 인식」, 『한국고전연구』 4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김종철, 「『김삼불 수집 신재효 판소리 사설 자료집』의 기초 연구」, 『판소리연구』 50, 판소리학회, 2020.
이해진, 「『金三不本 신재효 판소리 사설』 소재 자료 연구-「신오위장극가집 별사(申五衛將劇歌集 別寫)」와 「심청가 초(沈晴歌 抄)」를 대상으로」, 『어문론총』 89,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유정란,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자료집의 편찬 경향과 그 특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유정란, 「『교주가곡집』의 편찬과 이본현황」, 『국제어문』 75, 국제어문학회, 2017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수용의 계통(유정란)」에 대한 토론문

권현주(영남대학교)

유정란 선생님의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수용의 계통- 김삼불(金三不) 校注本『海東歌謠』를 중심으로->는 20세기 고시조 수용과 계통을 다루고 있는 소중한 발표문입니다. 선행연구에서도 밝히신 것처럼 김삼불은『해동가요』에 대한 관심보다 판소리 연구에서 더 주목받는 인물이기에 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다만, 본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세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구 논문의 제목을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수용의 계통'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김삼불의 교주본『해동가요』는 2장에서 말한 고시조 집성집의 계통으로 보아야 하는 지, 고시조 엔솔로지 계통으로 보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4쪽에서 '이병기의 시조비평 의식은 그 제자였던 김삼불에게로 전수되기도 하는 까닭이다.'라는 부분을 참고하면 김삼불의『해동가요』는 고시조 엔솔로지의 계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김삼불의 교주본『해동가요』를 엔솔로지의 계통 안에서 그 특성을 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2장을 바탕으로 하여 김삼불의『해동가요』까지의 수용과 계통의 특징이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현재는 '계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김삼불의 교주본『해동가요』의 편제와 관련하여 그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5쪽에 기술된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삼불의 교주본『해동가요』가 일석본과 주씨본을 대교하여 출간한 것이라면, 이를 함께 보여주면서 각각의 이본에서 어떤 부분을 수용하였는지를 보여주어야 그 특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김삼불이 '20세기 전반기 고시조 자료집의 편찬 맥락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라는 해석과 '몇 안 되는 이본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하였다'라는 것 외의 김삼불의 교주본『해동가요』의 편찬과 관련된 특징이 더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본 연구의 목적이 20세기 전반기 시조 수용의 경향을 탐색한 후, 김삼불의 교주본『해동가요』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삼불『해동가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특징을 부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본 대교와 주석의 양상 부분에서 김삼불은 자신이『해동가요』를 간행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 ①일석본보다 주씨본의 표기가 옳을 때는 그 부분만 주씨본으로 교정 ②「削除」는 일석본에서 칼로 도려낸 부분 등의 항목은 실제 작품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①의 경우 특정 작품에서 김삼불이 일석본 대신 주씨본으로 표기한 이유를 추측하여(밝히고), 김삼불이 작품의 어떤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②번 역시 김삼불이 어떤 작품에서 적용하였는지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 특정 인용문이 너무 길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자료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토론문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논문으로 완성되었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壬辰倭亂 永川地域 義兵活動 槪觀*

최재호(육군3사관학교)

Ⅰ. 서론

임진왜란이 종전한 지도 벌써 7주갑(420년)이 지났다. 임진왜란 발발 7주갑인 2012년부터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가 중심이 된 지역별 임진왜란 전쟁사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경향이 영향을 받았고,[1] 이로 인해 새로이 학계의 관심을 받게 된 지역이 등장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영천이다.[2]

영천지역에 대한 임진왜란사 연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진왜란 당시 각 지역의 미시사(微示史)에 대한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경상좌도 전체 의병활동에 있어서 영천이 하나의 소재로 인식되어 진행된 연구는 최효식[3]에 의해 이전에 있었지만 영천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여러 학자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 시발점은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가 주관한 '영천지역의 임진란사 연구'란 주제의 2015년 학술발표대회이다. 이 당시의 연구 성과로는 엄진성 '임진란기 영천지역의 유학과 학맥', 정해은 '임진란기 영천지역의 상황과 수령의 전쟁 대처', 이 욱 '임진란초기 영천지역 의병 항쟁과 영천성 복성', 김강식 '임진란기 영천읍성 수복과 이후의 전투상황', 김경태 '임진란 초기 경상좌도 주둔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허경진 '임진란과 조선통신사' 등이 있다.

이후 2018년에는 경북문화재연구원이 '임진왜란 영천성수복전'에 관해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2019년 8월에는 임란영천성수복대첩기념사업회와 영천역사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가 있었다. 이 학술발표대회에서는 한명기의 기조 강연 '2019년에 돌아보는 임진왜란의 역사적 교훈'을 시작으로, 김경록 '임진전쟁 초기 전황과 영천성 수복에 대한 군사사적 분석', 정재진 '임진왜란 영천성수복대첩의 전개과정',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영천읍성 복성전투의 역사적 의의', 김경태 '영천성수복전투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 이규화 '임란영천성수복대첩 기념사업과 콘텐츠개발의 방향' 등의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2차례의 학술발표대회와 1차례의 연구용역에서 잘 드러나듯이 영천에서의 임진왜란사는 주로 영천복성(復城)전투와 그 괘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전과이기는 하나, 임진왜란 전 기간 동안 영천복성전투를 제외하고도 영천지역의 의병들이 벌인 여러 전사들이 존재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

* 본 발표문은 2019년 12월 안동 경북도청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원고입니다. 영천지역 전황을 정리하는데 있어 자문과, 사진 자료를 제공해주신 영천역사문화박물관장 지봉스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1) 2012년 이전까지의 임진왜란 연구는 의병과 경상우도 중심이었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편향된 연구경향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

2) 영천은 경상북도 남동부에 있는 시이다. 면적은 920.29㎢ 이고 1읍 10면 5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치는 동경 128° 41′~129° 08′, 북위 35° 50′~36° 11′에 있다. 동쪽은 포항시·경주시, 서쪽은 대구·군위군·경산시, 남쪽은 경산시·청도군, 북쪽은 군위군·청송군·포항시와 접한다. :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3) 최효식은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慶州府의 임진항쟁사』의 일부분으로 영천의 의병활동을 논의하였다. 그 외 학술논문인 이재수의 「영천 읍성과 임진왜란」, 학위 논문인 이광수의 「영천지역의 壬亂 의병활동」(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이 영천의 임진왜란사를 잘 정리하였다.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 발표문이 시작되었다.

본 발표문에서는 영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한 의병실기(義兵實記/義兵實紀)를 살펴봄으로써, 임진왜란 전 기간의 영천지역 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연구목적으로 삼고 논지를 진행하겠다.

첫째, 임진왜란 초기 영천지역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즉 당시 경상좌도의 전체의 전황과 함께 영천지역의 당시 상황과 대응 양상을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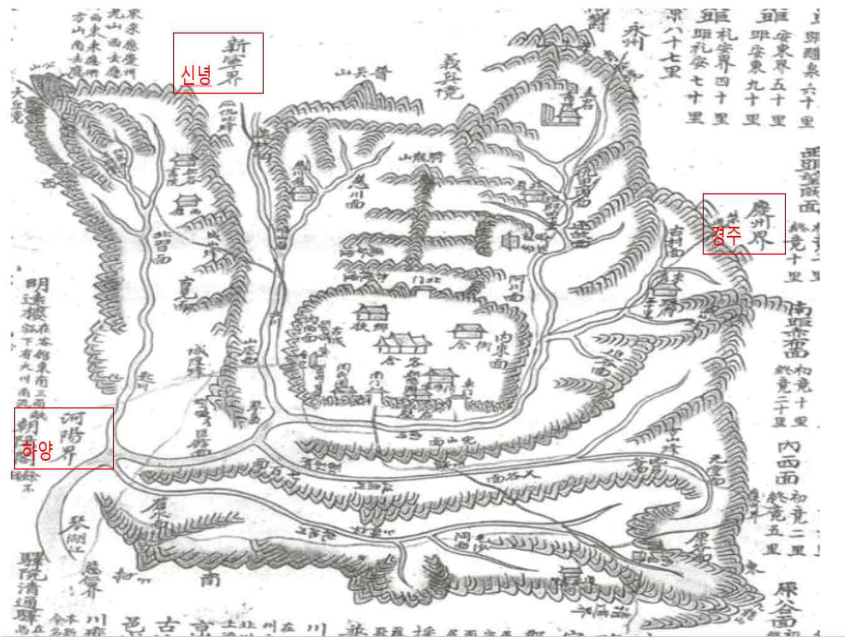
둘째, 임진왜란기 영천지역의 전황(戰況)을 전체적으로 개관(槪觀)하고자 한다. 이것은 영천복성 전투에만 치우친 연구성과에 대한 반성의 차원과 차후 연구에 대한 포석이기도 하다.

본 발표문의 참고자료는 실록을 비롯한 관찬자료와 영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병장들의 실기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4)]

본 발표문을 '개관'이라고 명명한 것은 학계에 새로운 사실을 소개하기 보다는 기존의 연구성과 중 놓치고 넘어간 사실들이 없는지를 확인하자는 의미가 더 크다. 즉 기존 연구에 대한 성찰의 차원임을 미리 밝히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Ⅱ. 壬辰倭亂 初期 永川地域의 狀況

영천은 현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경상좌도에 속해 있었다. 동쪽으로는 경주부(慶州府) 안강현(安康縣), 서쪽으로는 하양현(河陽縣), 남쪽으로는 경주부 자인현(慈仁縣), 북쪽으로는 신녕현(新寧縣)과 맞닿아 있었다. 이를 통해 남쪽으로는 청도(淸道)와 대구(大邱)로 서북쪽을 통해서는 안계(安溪), 상주(尙州), 또는 의흥(義興), 안동(安東)방면으로, 그리고 북쪽을 통해서는 청송(靑松)으로, 동쪽으로는 경주(慶州)와 포항(浦項)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였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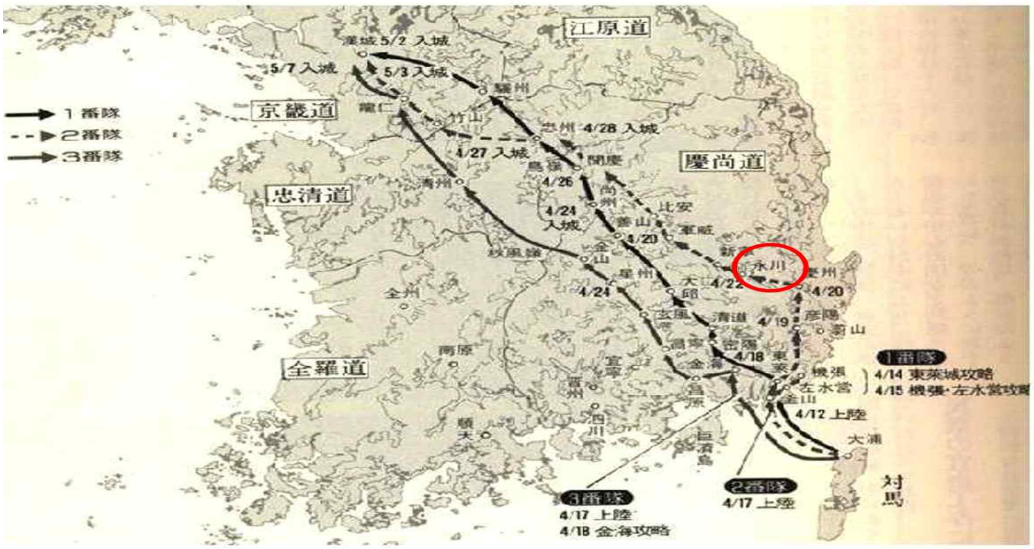


<그림 1.> 영천 고지도

4) 임진왜란 당시 영천의 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실기자료로는 鄭世雅《湖叟實紀》, 權應銖《白雲齋實紀》, 鄭大任《昌臺實紀》, 鄭湛《復齋實紀》, 曺景溫《林溪實紀》, 金見龍《水月齋實紀》, 李說《愛日堂實紀》 등이 있으며, 그 범위를 계속 넓혀가야만 한다.

5) 정해은, 「임진란기(壬辰亂期) 영천(永川) 지역의 상황(狀況)과 수령(守令)의 전쟁(戰爭) 대처(對處)」, 『慶北地域 壬辰亂史』 一卷,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8, p.71.

이러한 입지로 인해 조선군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 요충지로 분류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일본군의 입장에서도 진격로 가운데 좌로 [東路] 상 반드시 점령해야 할 중요 거점 중 하나였다.[6]



<그림 2.>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진격로

임진왜란 당시 소서행장(小西行長, 고니시 유키나가)이 이끄는 제1대(隊) 18,700명이 4월 13일에 부산에 상륙한 후 반나절에 걸친 접전 후 부산성을 점령한 후, 대마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2대 가등청정(加籐淸正, 가토 기요마사)군 22,800여명, 죽도 근처에 상륙한 제3대 흑전장전(黑田長政, 구로다 나가마사)군 25,000여명이 연이어 침공하였다.

이 중 가등청정이 이끄는 제2번대는 좌로(左路) 즉 동쪽을 이용하여 진격하였는데, 동래(東來)-장기(長鬐)-기장(機張)-좌수영(左水營)-울산(蔚山)-언양(彦陽)(4/19)-경주(慶州,4/21)-영천(永川)-신녕(新寧)-군위(軍威)-비안(比安)-용궁(龍宮)-문경(聞慶)을 거쳐 조령(鳥嶺)으로 진격하였다.

일본군 1대는 동래, 부산의 조선군과 접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고, 가등청정이 이끄는 2대 역시 경주부를 4월 21일에 쉽게 점령하고 4월 23일에 영천성 또한 저항 없이 점령하였다.[7]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였으며, 특히 일본군의 주요 진격로에 위치한 경상좌도의 피해는 더욱 막심하였다.

상륙 한 지 20일도 채 되지 않아 서울을 점령한 일본군은 조선 8도를 8명의 장수들이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경상도를 맡은 인물은 모리휘원(毛利輝元, 모리 데루모토)인데, 임진년 5월 중순 이후 현재의 경상북도(당시 경상좌도와 상당 부분 일치)방면에만 약 3만 명의 병사를 배치하였다. 즉 당시 경상좌도가 후방경비와 병참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요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

6)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 30여만 중 158,800명은 9軍으로 나누어 침입하였다. 이들의 진격로는
中路: 東萊-梁山-密陽-淸道-大邱-仁同-善山-尙州-鳥領-忠州-驪州江-楊根-龍津나루-京城 東路
左路: 東萊-長鬐-機張-左兵營-蔚山-慶州-永川-新寧-義興-軍威-比安-龍宮-聞慶-鳥嶺-忠州-竹山-龍仁-漢江
右路: 東萊-金海-出右道-星州-茂溪-知禮-金山-秋風領-永同-淸州-京畿道이다. 金弘, 「壬辰倭亂의 軍事史的 硏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2, pp.28~42.

7) 金見龍, 《水月齋實紀》, 〈亂中日記〉: 二十一日 黑齒之徒 散之四方 討索村閭 係擄婦女 禍色迫頭 / 二十三日 賊兵陷永川, 鄭世雅의 《湖叟實紀》에도 4월 23일에 영천이 함락 사실을 적고 있다.

분이다.[8]

이러다 보니 임진년 6월 명나라에서 당시까지 조선의 피해상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의해 조정에서 그 피해를 집계했더니 경주, 안동, 밀양, 대구, 동래, 울산, 양산, 청도, 예천, 영천, 흥해, 김산, 경산, 의성, 하양, 용궁, 언양, 인동, 현풍, 군위, 비안, 의흥, 신녕, 영산, 창녕, 기장 등 경상좌도 37곳 가운데 26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9]

당시 선조실록에도 “또 한떼의 적들이 좌도의 경주·영천·신녕·의흥·군위·의성·안동 등지를 경유하면서 도처마다 함락하는데 감히 적의 예봉을 감당할 수 없어 좌·우의 길이 끊어졌으니 지금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10] 라고 경상좌도의 피해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실 조선정부가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여 전혀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정부는 1591년 통신사의 보고를 통해 일본의 침입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며, 하삼도(下三道)의 국방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였다.

> 대장(大將) 신립(申砬)과 이일(李鎰)을 제도(諸道)에 보내어 병비(兵備)를 순시(巡視)하도록 하였다. 이일은 양호(兩湖)로 가고, 신립은 경기(京畿)와 해서(海西)로 갔다가 한 달 뒤에 돌아왔다. 그러나 순시하며 점검한 것은 궁시(弓矢)와 창도(鎗刀)에 불과할 뿐이었으며 군읍(郡邑)에서도 모두 형식적으로 법을 피하기만 하였다. 신립은 본래 잔포(殘暴)하다고 일컬어졌으므로 수령들이 두려워하여 주민들을 동원하여 길을 닦고 공장(供帳)하는 비용도 대신의 행차와 같이하였다. 당시 조야(朝野)에서는 모두 신립의 용력과 무예를 믿을 만하다고 하였고 신립 자신도 왜노(倭奴)들을 가볍게 여겨 근심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했는데, 조정에서는 그것을 믿었다.[11]

또한 경상도의 경우 일본군의 침입로에 해당하기에 새로이 성을 신축하거나 증수하고, 병장기를 준비하고 정비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되고, 그 중에서도 영천에 관련된 내용도 찾을 수 있다.

> 조정에서 왜의 동태를 걱정하여 국방사무에 밝은 宰臣을 뽑아서 下三道를 巡察하여 방비케 하였다. 金睟로 경상감사를 삼고 李洸으로 전라감사를 삼고 尹先覺으로 충청감사를 삼아서 兵器를 준비하고 城池를 修築케 하였는데 그중에서 慶尙道에는 성을 많이 쌓아서, 永川, 淸道, 三嘉, 大丘, 星州, 釜山, 東萊, 晋州, 安東, 尙州의 左右兵營을 新築혹은 增修케 하였다.[12]

이 당시 새로이 쌓은 영천성은 둘레가 1,902척 우물이 3개인 정사각형의 모습이었다. 성벽의 사방 중앙에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등이 단층누각 지붕으로 되어 있고 대략 6만여평 규모로 축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13]

당시 영천군수 원사용(元士容)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견고한 성을 신축함과 동시에 무기고까지 신축하였다.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노동력 착취로 인한 원성으로 임진왜란 전해인 선조 24

---

8) 『경북의병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p.194.

9) 정해은, 앞의 논문, p.74.

10) 『宣祖實錄』 二十七卷, 二十五年 六月條 : 又一起大賊 左道 慶州 永川 新寧 義興 軍威 義城 安東 到處陷沒 莫敢當鋒 而左右道路絶 今未知指向何處 ; 李光洙, 「영천지역의 壬亂 의병활동 -1592년 永川 復城戰을 중심으로-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6, pp.17~18.에서 재인용.

11) 『宣祖修正實錄』 二十六卷, 二十五年 二月條 : 遣大將申砬李鎰 巡視諸道兵備 鎰往兩湖 砬往京畿 海西 閱月而還 所點視者 弓矢鎗刀而已 郡邑皆文具避法 砬素以殘暴稱 守令畏之 發民治道 供帳之費如大臣之行 時 朝野皆以砬勇武爲可恃 砬亦意輕倭奴 以爲不足憂 朝廷信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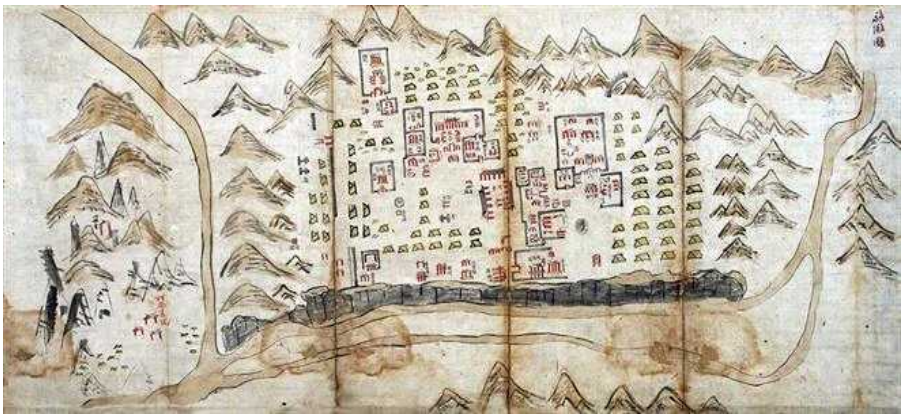
12) 柳成龍 『懲毖錄』 一卷, 辛卯條 : 朝廷憂倭 擇知邊事宰臣 巡察下三道以備之 金睟爲慶尙監司 李洸爲全羅監司 尹先覺爲忠淸監司 令備器械修城池 慶尙道築城尤多 如永川淸道三嘉大丘星州釜山 東萊晋州安東尙州左右兵營成新築或增修

13)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p.163.

년(신묘년) 12월에 보직이 교체되었다.[14] 당시 영천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의 이러한 과도한 전쟁준비는 임진왜란 초기 일부 백성들의 부왜(附倭)행위로 나타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 호남·영남의 성읍을 수축하였다. 비변사가, 왜적은 수전에 강하지만 육지에 오르면 불리하다는 것으로 오로지 육지의 방어에 힘쓰기를 청하니, 이에 호남·영남의 큰 읍성을 증축하고 수리하게 하였다. 그런데 경상 감사 김수(金睟)는 더욱 힘을 다해 봉행하여 축성을 제일 많이 하였다. 영천(永川)·청도(淸道)·삼가(三嘉)·대구(大丘)·성주(星州)·부산(釜山)·동래(東萊)·진주(晋州)·안동(安東)·상주(尙州)·좌우병영(左右兵營)에 모두 성곽을 증축하고 참호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크게 하여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에만 신경을 써서 험한 곳에 의거하지 않고 평지를 취하여 쌓았는데 높이가 겨우 2~3장에 불과했으며, 참호도 겨우 모양만 갖추었을 뿐, 백성들에게 노고만 끼쳐 원망이 일어나게 하였는데, 식자들은 결단코 방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15]

영천성을 신축할 때 규모 면에서는 충분하였으나, 수용인원에 비해 성내 우물의 수가 적었으며, 평지에 2~3장 높이로 쌓았기에 실제 방어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는다. 하지만 이는 전화위복으로 영천복성전투 당시 일본군이 고전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16]



<그림 3.> 영천읍성 고지도

임진왜란 당시 영천의 병력현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470년(성종 1년) 3도의 군정을 재정비 했을 때 영천은 경상도 군정 21,917명 중 530명을 유지하고 있었다.[17] 이 후 계속된 평화로 인해 이 보다 훨씬 적은 수가 영천을 방어하고 있지 않았을 까 추정할 수 있다.

임진년 4월 23일 영천성을 함락시킨 일본군 장수는 법화(法花)고, 당시 영천 군수는 김윤국(金閏國)이다.

정대임의 《창대실기(昌臺實紀)》를 살펴보면 김윤국은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성을 버리고, 근처 기룡산 묘각사(妙覺寺)로 피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18] 하지만 김윤국은 실기의 내용처럼 실제

14) 위의 책, p.162.

15) 『宣祖修正實錄』 二十五卷, 二十四年 七月條 : 修築湖嶺城邑 備邊司議 倭長於水戰 若登陸 則便不利 請專事陸地防守 乃命湖嶺大邑城增築修備 而慶尙監司金睟尤致力奉行 築城最多 永川淸道三嘉大丘星州釜山東萊晋州安東尙州左右兵營 皆增築設塹 然以豁大容衆爲務 不據險阻 迂就平地 所築高者不過二三丈 壕塹僅存摸樣 徒勞民興怨 而識者知其決不能守禦矣

16) 이욱, 「임진란초기 영천지역(永川地域) 의병항쟁(義兵抗爭)과 영천성(永川城) 복성(復城)」, 『慶北地域 壬辰亂史』 一卷,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8, p.105.

17) 정해은, 앞의 논문, p.76.

18) 鄭大任, 《昌臺實紀》 二卷, 〈行狀〉

군무(軍務)를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치소(治所)를 묘각사로 옮겨 군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근거로는 김윤국이 군사를 이끌고 권응수 또는 정대임과 합류했다거나 영천복성 전투를 앞두고, 별장(別將)에 추대되었다는 기록도 함께있어서이다. 하지만 김윤국의 영천복성전투 시 전공 및 그 이후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각 실기마다 조금씩 내용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각 실기의 차이로 인해 김윤국에 대한 포폄(褒貶)을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실 상 쉽지가 않다.[19)]

이것이 사실 의병실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실기에 내재된 선양(宣揚)의식과 이로 인한 실제 사실(史實)에 대한 가감(加減)이 그 것으로 이는 문학자와 사학자들이 함께 풀어 나가야할 문제이다.

다음은 실제 영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유림이 겪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겠다.

> 왜구가 졸지에 永川에 와 주둔하고 剽掠이 심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塚墓까지 도굴하였다. 公은 命家하여 深峽에 피신시키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 공은 홀로 齋舍에 남아 있으면서 여러 三齋僧과 함께 邱墓를 수호하였다. 이웃 마을도 모두 피신하였다.
>
> 공은 탄식하여 말하기를 '지금 적병이 미치지 않은 바가 없으니 내 평생 誠孝를 다하지 못하겠구나. 지금 어찌 先墓를 파괴하는 것을 차마 보겠는가? 창끝과 살촉 중에서 홀로 삼아 남기를 도모하겠는가' 하고 밤과 낮으로 계단 사이에 있었는데 왜노가 난입하였다. 공이 정색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니 모든 倭가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한 동안 서 있다가 이내 힘을 내어 병기를 휘두르니 공이 모양을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자 왜가 비로소 빙 둘러서서 혹은 노하고 혹은 웃으면서 여러 가지로 위협하였다. 공이 끝내 변색이 없자 왜가 탄복하고 무리를 이끌고 갔다. 날이 저물자 다른 倭가 또 왔다. 죽 둘러앉아서 위협하기를 전과 같이 했다. 경박한자가 칼을 휘둘러 찔렀다 .피가 계단에 흘렀다. 모든 왜들이 크게 놀라고 또 욕을 해대고 갔다. 이때 齋僧에게 '나는 寒士로서 矢石之間에 왕실을 돕지도 못하였는데 지금 다행히 선묘의 아래에서 죽게 되니 죽을 자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기절하니 이때가 임진 7월 27일 卯時로 나이 45세였다.[20)]

위 내용의 주인공인 조경온은 영천의 유림으로 조상의 묘를 지키고 있다고 참변을 당했다. 위의 실기를 보면, 4월 23일 영천이 함락된 후에 일본군에 의해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천복성전투 당시 영천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수는 학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최대 1,000명은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역시도 위에서 제기한 '史實의 加減'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다음 장에서는 영천지역의 임진왜란 당시 전황을 확인하겠다.

Ⅲ. 永川地域의 戰況과 義兵들의 活動

---

19) 창의실기의 특성 상, 관군의 활동이 소극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영천가 지근거리에 있는 대구도 부사 윤현의 임진왜란 초기 활동이 재평가되고 있다. ; 拙稿, 「임진왜란 당시 팔공산 권역의 전황 연구」, 『군사연구』 148호, 2019.참조.

20) 曺景溫, 《林溪實記》 四卷, 行狀 壬辰, 倭寇猝至留屯永川 剽掠備近 甚至於掘人塚墓 公卽 命家 累避于深峽 公則獨留齋舍 與數三齋僧 守護邱墓 隣里皆勤避 公歎曰 今賊兵所觸禍無不到 吾平生未盡誠孝 今何忍委棄先墓 於鋒鏑之中 獨自圖生耶 常日夜周旅於 階砌之間 倭奴果攔入 公正色危坐了 無惶怯之意 諸倭皆却立驚怪 俄復揮兵奮戈而前 公稟然不動 倭始投兵環坐 或怒或笑 威脅萬端 公終不變 諸倭歎陀 相率而去 日暮他倭又至露刃 環坐威脅如前 中有輕悍者 揮戈剚之 血梁砌石 諸倭大驚且罵歐之 使去時齋僧退伏林間 諸倭搜得之 共力扶入齋室 申囑救療而法 公謂齋僧曰 吾以寒士 雖不能效力 於矢石之間 以衛王室 今幸死於先墓之下 庶可謂得其死所矣 厥明氣絶 乃壬辰七月二十七日 卯時 得年僅四十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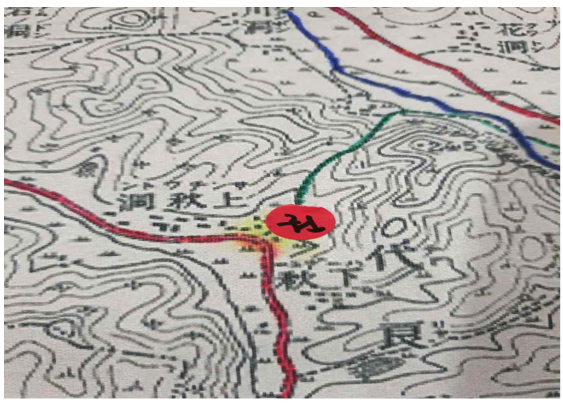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영천지역의 임진왜란 당시 전황과 의병들의 활동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영천지역을 논의할 때 단순히 영천지역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본 발표문 역시 영천과의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의 전황도 함께 논의하겠다.

영천지역의 전황 중 제일 먼저 발견한 사실(史實)은 임진년 4월 25일 와평(瓦平, 현재의 경산 와촌)에서 일어났다.[21]

하양지역의 전투를 살펴보기에 앞서 하양 지역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겠다. 하양은 대구와 영천에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일본군의 병참선 상 거점지역이 아니었던 관계로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대구, 영천, 청도 등에 주둔한 적으로부터 잦은 침입을 받게 된다. 하양 지역의 의병장들은 인근 경산현의 의병장들과 같이 지역방위를 우선시 하고, 이후 인근 대구, 영천까지 전역(戰域)을 넓혀 의병활동을 벌인다.[22]

하양지역 유림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4월 22일 신해(申海)를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이틀 뒤인 4월 24일 효양산 아래에서 병력을 확인하니 관군과 합쳐서 400백명이었고, 붉은 천을 찢어 '奮忠仗義精勇軍(분충장의정용군)'으로 칭하였다. 이들의 첫 전과는 '왜군 백여명이 와평(瓦平)으로 침입하여 인가를 약탈함에 병력을 이끌고 대적하여 영천과의 경계에서 크게 격파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23] 이 전투를 주도한 사람은 신해와 황경림(黃慶霖)으로, 이후 신해가 권응수의 막하로 들어가자 황경림이 하양의 의병대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다음의 전황은 신녕지역에서 찾을 수 있고, 이를 주도한 의병장은 권응수(權應銖)이다. 권응수는 무관 출신으로 임진왜란 개전 당시 부산에 있던 좌수사 박홍의 막하에 있었다. 개전 후 박홍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수로서는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진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임진년 4월 27일 창의하였다. 초기 병력은 동생 應銓(응전), 庶弟(서제)인 應平(응평), 같은 동네의 李蘊秀(이온수), 가동 4~5인과 향병 약간 명에 불과했다.[24] 권응수가 창의한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지역 인근으로 추정한다.



<그림 4.> 권응수 장군 창의 예상지역

21) 영천의 서북쪽인 부계지역에 4월 19일 이후에 의병장 홍천뢰가 일본군과의 교전과 승리를 기술한 자료가 있으나, 실제 영천 함락일이 4월 23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4월 19일 전후에 일어난 교전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정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군의 진격로 상 영천을 통과해야만 부계지역으로 진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拙稿, 「임진왜란 당시 팔공산 권역 전황 연구」, 『군사연구』 148호, 20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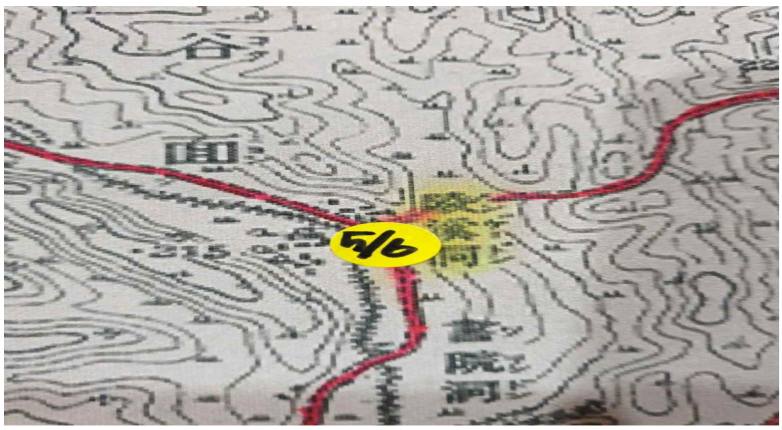
23) 黃慶霖, 《勉窩實紀》, 雜著, <壬辰倡義日錄>, (壬辰四月)二十五日 倭奴百餘人 瓦平 劫掠人家 遂率衆往 擊追至永川界 大破

24)權應銖, 《白雲齋實紀》, 〈年譜〉, (壬辰四月)二十七日倡起義兵(公聞監司兵使俱遁去公方病雪涕以起義告家廟與第應銓庶弟應平縣人李蘊秀家僮四五人收鄕兵誓心討賊)

권응수는 5월 6일에 소수의 향병으로 대동 [大同, 또는 한천(漢川), 현재 영천시 화남면 삼창 3리 큰골] 에서 일본군을 공격하여 격파하였고, 2급을 참수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 지난 5월 초 6일에는 왕래하던 왜구와 신녕현에 유둔(留屯)하던 왜적이 부지기수(不知其數)로 현의 동쪽인 한천촌(漢川村) 등지에 출현하여 분탕(焚蕩)하고 도적질을 하옵거늘 신은 손에 침을 뱉고 돌진(突進)하여 사살(射殺)하였습니다. 제법 많은 적도(賊徒)들이 여기저기에서 병기(兵器)를 질질 끌고 궤멸(潰滅)되어 달아나서 와해(瓦解)되므로 이에 단지 2급(級)만을 참수(斬首)하였습니다.[25]

위의 5월 6일의 전투를 대동 전투라고 부르는데, 권응수의 연보에서는 정확한 일자의 기술 없이 대동이라고 적고 있고, 권응수가 선조에게 올린 계에서는 한천이라고 적고 있다.



<그림 5.> 대동 전투 예상지역

당시 영천에서는 부왜(附倭)하는 무리들이 준동해서 백성들이 일본군의 이외에도 큰 위협의 대상이 되었는데, 권응수의 의진은 5월 6일에는이들을 격멸하여 백성들을 안심시킨다. 이 외에도 작은 격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영천군인(永川郡人)과 이관(吏官) 등속(等屬) 및 읍내 거주인 등 200여명이 무리를 지어 서로 모여서 도적질을 하였습니다. 낮에는 왜구(倭寇)와 교통(交通)하고 밤에는 촌가(村家)에서 도적질하면서 인물(人物)을 살략하기를 날마다 일삼으니 지극히 한심스럽게 여겼습니다. 왜구를 체포한 뒤에 위의 토적들이 우리에게 잡힐까 두려워하여 신을 죽일 계획을 먼저 도모하였습니다.
>
> 같은 달 초 6일 사시(巳時)에 당(黨)의 무리 50여 명이 찾아왔거늘 관노(官奴) 희손(希孫) 등 2명을 사살하자 그 나머지는 어디론가 흩어져서 포착하는데는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경내(境內)의 장인(匠人)인 산척(山尺)등이 소집되어 영천 땅 거림원(法林院)의 대로 옆에 복병을 설치하고 상하의 적과 싸우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26]

임진왜란 초기 부왜인(附倭人)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였다. 당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왜적에 대응하는 양상은 차이가 있었는데, 지배층의 경우 항전 또는 피란을 선택하지만 피지배층은 피란민,

---

25) 權應銖, 《白雲齊實紀》, 〈啓〉, 去五月初六日往來之倭及新寧縣留屯之賊不知其數出懸東面漢川村等處焚蕩作賊爲白去乙臣唾手突進射殺頗多賊徒這這曳去潰走瓦奔乙仍于只斬二級

26) 權應銖, 《白雲齊實紀》, 〈啓〉, 永川郡人吏官屬及邑內居人等二百餘名結黨相聚爲盜晝則與倭交通夜則村家作賊殺掠人物日以爲事極爲寒心爲白如乎捕倭後上頂土賊等亦恐爲我所獲先謀殺臣之計 同初六日巳時量黨類五十餘名來到爲白有去乙官奴希孫等二名乙射殺其餘烏散未及捕捉爲白有如乎境內丈人山尺等又爲召集永地法林院大路傍說伏上下之賊無日不戰

봉건체제에 반기를 드는 반민(叛民), 왜적의 세력에 빌붙는 부왜인이 되었다. 이는 피지배층에 비해 떨어지는 정보수집 능력으로 인해 피란민이 되는 경우, 명종 이후 계속된 실정(失政)과 지방관들의 폭정으로 인해 반민이 되는 경우, 왜적의 집요한 선무공작(宣撫工作)에 의해 부왜인이 되는 경우이다. 『書經』 蔡仲之命篇에 나오는 '民心無常'이라는 말처럼 임란 초기의 백성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27] 이러한 시기에 부왜민에 대한 처단은 당시 백성들이 가야할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지남(指南)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부왜민에 대한 처단은 피지배층의 동요를 막았을 뿐 아니라 이들을 의진에 합류시키고, 이로 인해 기민(飢民)을 줄이는 등 세 가지 효과가 있었다. 이 후 산졸(散卒) 및 인근 의병들이 권응수의 막하로 모이게 되고 7월에 권응수는 경상좌도를 통괄하는 의병대장이 된다.

당시 의흥(지금의 군위, 부계)지방에서는 홍천뢰와 족질(族姪)인 홍경승이 활약하고 있었는데, 홍천뢰의 기록에 의하면 홍천뢰는 권응수의 서찰을 받고 합류하였으며 영천 의병장인 정대임도 이때 이미 합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모인 의병의 수는 총 1,300여 명이 되었고, 대동전투는 5월 6일, 한천 전투는 5월 13일이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28] 반면에 권응수의 기록에 의하면 대동 전투 이후에 의흥의 홍천뢰 및 영천의 정대임 등이 영향을 받아 창의한 것으로 되어있다.[29] 또한 정확한 전과는 따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양지역의 의병장 황경림의 기록에 의하면 임진년 5월 14일에 홍천뢰의 의진이 한천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는 기록이 있기에 홍천뢰의 의진과 정대임의 의진은 이미 권응수의 의진과 함께 연합작전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학자에 따라 대동과 한천을 동일한 지역으로 보고 이를 하나의 전투로 보기도 하고 일자 상의 이유로 이를 서로 다른 전투로 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루어져 할 것 같다.

<그림 6.> 한천(대동) 전투 예상지역

임진년 5월 14일에 영천지역 임진왜란사에 여러 번 거론되는 창암(倉巖/倉岩/蒼巖)[30]지역에서의 전투가 벌어진다. 경주지역의 의병장인 이대임(李大任)의 《죽계실기(竹溪實紀)》 권1 「제현기술(諸

27) 졸고, 「곽재우 의령창의의 함의」, 『軍史』, 국방부전사편찬연구소, 2015, 참조.
28) 홍원식, 「임진왜란 시기 의흥 의병장 송강 홍천뢰와 혼암 홍경승」, 『東亞人文學』 제31집, 2015, p.231.
29) 權應銖, 《白雲齊實紀》, 〈年譜〉,(壬辰)五月破賊于大洞又戰漢川大破之(初六日 以鄕兵若干擊賊于大洞 破之遂移書近邑得壯士百餘人 出漢川與賊戰又破支義興人洪天賚 永川人鄭大任 鄭湛及 河陽人申海 聞公勝捷亦繼而起;
30) 현재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옛날 이 곳 병창이 있는 아래에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해서 倉巖이라는 유래가 생겼다. 현재 육군3사관학교 정문과 후문 사이로 추정한다.; 이원석, 『영천지명유래 및 마을변천사』, 영천문화원, 2010, p.291.

賢記述)」 임진 5월 14일 조에 경주의병군이 왜적이 창암에 진을 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앞서 파견된 의병과 영천지역 의병들과 협력하여 적을 무찔렀다고 기술하고 있다.[31]

> 적이 창암에 주둔하고 있다고 들었다. 병력을 나누어 최계종, 이응춘, 김현룡 등은 정예병을 이끌고 경주 서편에 있는 현곡을 거쳐 구미산(龜尾山)을 넘어 창암 남쪽으로, 이대임, 심희청, 이시립, 정희소, 장희춘 등은 효용자(梟勇者)를 이끌고 수성(壽城)으로부터 창암의 동북쪽 요지에 매복하였고, 박인국, 심희대, 김언복, 황희안, 이이립, 유백춘 등은 진중에서 용건자(勇建者)를 뽑아 안강 쪽에서 시현(柴峴)을 넘어 바위와 나무 사이에 매복하고 적정을 살핀 후 이들을 급습하여 수많은 적들을 사살하였다.[32]

이후에도 창암지역에서 전투가 여러 번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안강과 경주로 이어지는 주요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경주의병장인 이대임이 영천 경내까지 진출하여 교전이 벌어진 것이다.

5월 15일에도 일본군과의 교전이 있었다. 영천 지역 의병장인 김응택(金應澤)이 임진란이 일어나자, 42세로 창의하여 마을 청장년들과 함께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5월 15일 밤 왜군 17명이 마을 뒤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추격해서 활과 창을 탈취하였으며,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라고 《백암실기(柏岩實紀)》 에서 기술하고 있다.[33] 이후 김응택은 총 200여명을 결집하여, 6월 10일 권응수의 의진에 참여한다.

5월 15일에 영천 서쪽인 박연(朴淵)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는 기록이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34]

이후 권응수의 의진은 18일에 일본군 5급을 참살하였고[35], 20일에는 김응택에 의하여 일본군 30명이 죽었으며,[36] 다시 27일에는 권응수군이 일본군 10명 참살, 토적 20명을 잡아서 죽이는 전과를 올렸다.[37]

임진년 6월 10일에는 흥해와 경주지역의 의병장 13인이 영천 경내까지 와서 창암에 진을 쳤다는 기록이 경주 의병장인 김현룡(金見龍)의 《수월재실기(水月齋實紀)》의 〈난중일기(亂中日記)〉에 전한다.[38]

같은 날 자인(慈仁)지역 의병장인 최문병(崔文炳)의 기록인 《성재선생실기(省齋先生實紀)》에서도 영천지역이 언급되는 전황을 찾을 수 있다.

> 초 10일 수백기의 적병이 경주 아화(阿火)로부터 영천을 지나 단산(博山) 아래에까지 와서 진을 치고 민가에 들어가 노략질하므로 인민이 안정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좌대장(左隊將) 류인춘(柳仁春)을 시켜 천여 명의 군사로 공격하게 하여 3백여 명을 죽이자, 적은 기물을 버리고 달아났는데, 그들을

---

31) 이재수, 「永川 邑城과 임진왜란」, 『歷史敎育論集』 第52輯, 역사교육학회, 2014, p.17.

32) 李大任, 《竹溪實紀》, 券一, 〈諸賢記述〉, 壬辰 五月 十四日條, 聞賊將屯于倉巖 分送崔繼琮李應春金見龍 各率精銳 自峴谷踰添嶺 伏於倉巖南麓 李大任沈希淸李時立鄭希韶蔣希春 亦率梟勇 自壽城 伏於倉巖東北之要地 朴仁國沈希大金彦福黃希安李台立柳伯春等 盡起勇建之在陣者踰柴峴 隱於巖樹之間 而遠覘敵勢則果使郡醜殺掠村閭魚肉生靈

33) 金應澤, 《柏岩實紀》, 〈行狀〉, (壬辰)五月十五日夜倭兵十七隊過村後公追擊奪弓劍無遺盡殺

34) 영천의병장인 정세아(鄭世雅)의 《호수실기(湖叟實紀)》의 연보 임진년 5월 15일조에 영천 서쪽인 박연 [朴淵, 화산면 석촌리 강변 절벽] 에서 권응수군과 연합하여 봉고어사(封庫御使)를 자칭하는 일본군을 격파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 기록은 7월 14일의 박연전투에 대한 기록이 잘못 기술된 것으로 파악된다.

35) 權應銖, 《白雲齊實紀》, 〈啓〉, (壬辰五月) 同月十八日斬倭五級

36) 金應澤, 《柏岩實紀》, 〈行狀〉, (壬辰五月)二十日夜倭賊三十餘又過公擊殺無遺

37) 權應銖, 《白雲齊實紀》, 〈啓〉, (壬辰五月)同月二十七日斬倭十級後同土賊等更爲窮捕二十餘名盡斬自此無一人竊發竟無聲息

38) 金見龍, 《水月齋實紀》, 〈亂中日記〉, (壬辰)六月初十日 (中略) 與海義士 鄭三畏 鄭三戒 崔興國 崔俊民 李說 李大立 朴夢瑞 李華 陳奉扈 李大仁 鄭仁獻 安成節 扈民秀 十三人 亦參陣中 留陣于倉巖

추격하여 적장을 죽이고 버린 물건을 거두어 돌아왔다.[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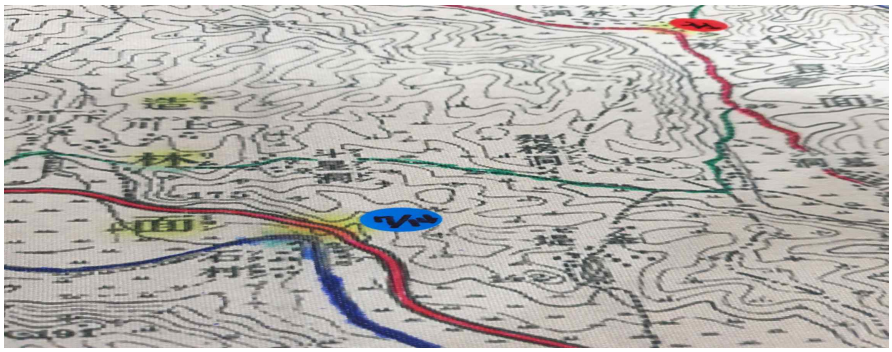
이와 같은 사실은 의병장들이 경주, 영천, 자인 등의 의병장들이 자신의 경내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일본군을 상대했듯이 일본군 역시 영천과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약탈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진년 7월의 전황은 당지산(堂旨山)전투에서 시작한다. 5월 대동전투부터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대임군의 단독 군사작전으로 영천군 북편에서 신령 의성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인 당지산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치른다.

> 본월(7월) 11일 해시(亥時)가량 정병 2천여명을 군의 북쪽 중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새로 뽑은 이번, 보인(保人) 박언국, 수군(水軍) 정천리 사노(私奴) 벽이, 박문이 등으로 적세를 관찰하게 했다. 이어서 성황당 봉우리에 매복시켜 망을 보도록 하였다. (중략) 그날 사시에 왜병 3백여 명이 신녕 요로상으로 온다는 정보를 받고, 미시에 북습, 와촌 방면으로 퇴각시켜 군으로 돌아온 후 적의 후미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당지산 아래에 매복시켰다. 왜병 70명이 지나가자, 정대임은 진격하여 20명을 사살하고, 40명을 참수하였다. 화살을 쏘자 10여명이 도망갔다. 박언국, 정천리, 奴 박문이 등이 2마장가량 추격하여 화살로 명중하고, 또한 박언국은 참수하였다. 이때 왜적의 물건을 탈취했다.[40]

이 작전은 일본군 70명을 섬멸하는 완전작전이라 하겠다.

이후 권응수는 7월 14일에 일본군과 박연 [朴淵, 화산면 석촌리 강변 절벽] 에서 싸워서 이긴다. 박연은 안계·의흥·영천·하양 등지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일본군 100여명이 封庫御使(봉고어사)를 사칭하고 군위에서 영천 방면으로 약탈을 자행하며 내려왔는데, 박응기, 류인립 등은 法林院(겁림원, 영천시 화산면 석촌에서 강변을 따라 용평으로 연결되는 중간에 설치되었던 국립여관) 근처에, 조덕기, 조성, 이설, 김호 등은 중요지점에, 정응거, 허운련 등은 餘音洞(여음동)에 매복하여 공격하였다. 이 때 37급을 참수하고 총통 25자루와 창검 40여 자루 및 그 들의 기마를 빼앗았다.[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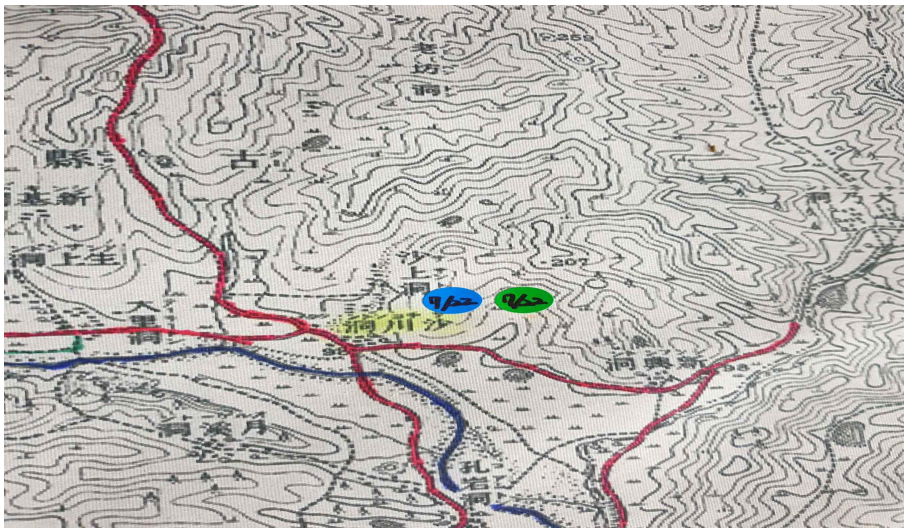
<그림 7.> 박연 전투 예상지역

39) 崔文炳, 《省齋先生實紀》, 券二, 〈年譜〉,(壬辰五月)初十日賊數百騎自阿火逾永川至博山下恣掠村落人民鼓亂使左隊將柳仁春將兵千餘人擊斬三百餘人棄械鼓走追斬賊將收棄物而還

40) 鄭大任, 《昌臺實紀》,券四, 〈慶尙左兵使朴晉 啓〉, 本月十一日亥時量精兵二千一名乙良郡北面要路處設伏是遣新選李蓄保人朴彦國水軍鄭千里私奴壁伊朴文伊等觀其賊勢次以城隍堂峰上望見爲乎矣(中略)同月巳時量倭人三百餘名新寧要路上歸後未時退屯北習瓦村回還入郡爲去乙賊兵尾擊討料唐旨山底隱伏倭人七十名亦後行爲去乙鄭大任步行追擊二十名射殺斬首四十明逢箭逃避一十名段朴彦國鄭千里奴朴文(伊)等二馬場量追逐射中朴彦國亦斬首爲旀所奪倭雜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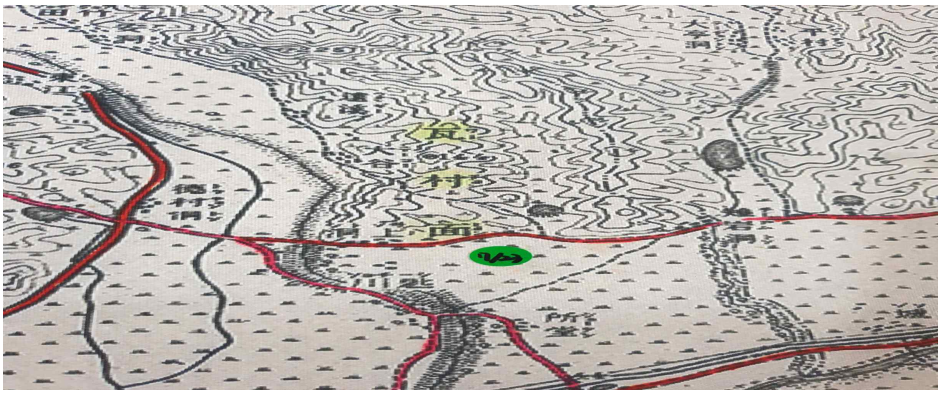
41) 權應銖, 《白雲齊實紀》, 〈年譜〉.(壬辰七月)十四日與賊戰于朴淵上破之(賊詐稱御使南馳下 公與諸將逆戰斬首三十餘級銃筒二十五柄槍劍四十餘柄並奪其騎馬

박연전투에서 크게 패한 일본군은 크게 양분되어 도주하는데, 권응수군은 북쪽 의흥 방면으로 도망간 일본군을 추격하여 22일에는 召溪 [소계, 현재 군위 효령면 장군리] 에서 격파하였다.



<그림 8.> 박연 전투 예상지역

나머지 일본군은 서쪽 하양방면으로 도주하는데, 정세아, 정대임군은 沙川 [사천, 영천 화남 사천] 에서 적을 쫓았으며, 23일에는 와촌으로 진격하였다.[42)]



<그림 9.> 사천 전투 예상지역

신녕과 영천지역은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주요 거점인데, 권응수가 5월 한천에서 승전하여, 청송으로 가는 길을 끊었고 박연 전투와 겁림원전투를 통해 의흥, 군위로 가는 길을 막았다. 또한 의병들이 사천과 와촌으로 진격함에 따라 대구를 가는 길을 끊어서 그 지역의 일본군이 제대로 활약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당시 권응수는 의흥 홍천뢰, 경주 최문병·김응택, 경산 최대기, 하양 신해 등을 수하로 두면서 경상좌도에서 가장 큰 의병단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의진들이 권응수를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이외에도 최문병의 《성재선생실기》 임진년 7월 22일의 기록에는 권응수군과 합세하여 하양(河

42) 二十二日追擊于召溪破之(斬首二十餘級奪馬四匹) 又擊逐賊沙川 二十三日進軍瓦村 ; 權應銖,『白雲齊實紀』, 年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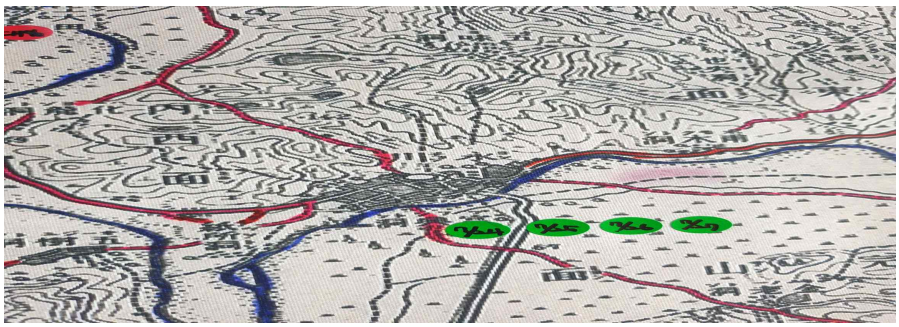
陽)의 적들을 대구(大邱)에서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다.[43]

또한 영천 의병장인 손덕침(孫德沈)은 권응수 군과 합류하러 가던 도중에 7월 23일 창암에서 적과 조우하여 이틀 동안 전투를 하게 된다. 이 때 손덕침은 왼쪽 팔에 부상을 입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 아우 덕순(德淳)과 더불어 창의할 것을 마음으로 맹서하고 가동(家僮)으로 편성하여 군오(軍伍)를 충당하고 곳간의 양식을 모두 내어 군량을 돕기 위하여 그것을 짊어지고 권장군의 추평진(楸坪陣: 추평은 현재의 朱南坪)으로 가는 도중 창암에서 적을 만나 힘을 다해서 박전(搏戰)을 벌리어 적을 살상함이 심히 많았다. 적이 또 크게 닥치므로 공은 외로운 군사로써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 한편으로 싸우고 한편으로 퇴각하여 어두워질 무렵에 마산(馬山, 현 도암 2리 말뫼부락)에 돌아와서 주둔하였다. 다음 날에 또 왜적을 만났는데 공이 용감하게 나아가 선봉에 서서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적 수십명을 베니 이로부터 왜적이 감히 여현(礪峴, 시티재)을 한 걸음도 넘지 못했다.[44]

영천 의병진의 거듭된 승리는 일본군의 거점이 된 영천성을 재탈환하자는 신념으로 바뀌게 된다. 영천 의병장들을 중심으로 경주판관 박의장(朴毅長), 신녕 의병장 권응수, 신녕현감 한척(韓倜), 하양현감 조윤신(曺胤申), 의흥 의병장 홍천뢰, 자인 의병장 최문병, 경산 의병장 최대기 등 영천과 인접한 주변 군읍의 의병진 뿐만 아니라 경주, 영일, 흥해의 의병장들까지도 영천성 주변으로 결집한다. 위에서 논의한 손덕침도 영천복성전투에 참전하고자 이동 중 일본군과 교전한 것이다.

이렇게 모여든 관군과 의병의 '창의정용군(倡義精勇軍)'라 칭하였으며, 7월 23일과 7월 24일에 나누어 추평(楸坪, 현재 영천 주남뜰)에 모여든 총 병력수는 3,560~3970명으로 추정한다.[45]



<그림 10.> 영천복성전투 예상지역

처음 대장은 영천군수 김윤국 이었으나 본인의 고사로, 권응수가 대장을 맡게 된다. 24일에 의병들은 일본군 앞에서 무력시위를 하였으며, 25일에는 화공전을 대비하여 마른나무, 건초 및 공성전을 위한 장제(長梯), 일본군의 사격에 대비하여 방패 등을 준비하였다.

26일에는 성 밖으로 일본군들을 끌어내 국지전을 벌였다. 그 결과 권응평은 일본군 수급 7과를 취했고, 왜궁수 10여명을 사살하였고, 적의 시체를 적중에 던져 일본군의 사기를 떨어뜨려 서로 밟고 밟히는 혼란에 빠뜨려 일본군 30여명을 살해하여 적을 성안으로 쫓아버렸다. 27일부터 28일까지는 하루 동안 꼬박 공성전을 치루었는데, 이 때 의병진에 의해 수급된 일본군의 머리는 총517과

43) 崔文炳, 《省齋先生實紀》, 券二, 〈年譜〉, (壬辰七月)二十二日與權義將擊斬河陽賊于大丘自是賊不敢犯

44) 孫德沈, 《慕軒實紀》, 券二, 〈行狀〉, 與第德淳誓心倡義編家僮以充軍伍傾困資以補嬴糧將赴權將軍楸坪陣下路遇賊于倉巖盡力搏戰所殺傷甚衆賊又大至公以孤軍冒進且前且却薄暮還屯馬山翼日又遇賊挺身以前軍皆殊死戰斬馘數十級自是賊不敢踰礪峴一步

45) 정담 《복재실기》 중 〈영천복성일기〉 에서는 3,560명으로 기술하고 있고, 권응평 《동암실기》 에서는 3,970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진흥원, 2003, p.208.에서 재인용.

였고, 아군의 피해는 전사 80여명, 부상자 230여명, 노획한 군마 200필, 총통 900여개, 성중에 포로로 있다가 탈출한 남녀가 1,090명이었다.[46]

영천복성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의병과 관군이 연합하여 승리한 전투 중 낙승으로 평가되고, 최초로 빼앗겼던 성을 다시 되찾은 의미 있는 전투였다. 특히 권응수를 중심으로 한 '창의정용군'은 이후 경주 복성전투 등 임진왜란 주요 국면을 전환 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였다.

최문병의 《성재선생실기》 임진년 8월 5일의 기록에는 자인에 침입한 적을 영천과 인접한 하양까지 몰아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8월 초 5일 수백 명의 적이 자인 경내에 돌입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와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천에서 자인으로 환군하였다. 즉시 적들을 하양까지 추격하여 엄살하며 가는 곳마다 모조리 섬멸하였다.'[47] 이틀 뒤인 8월 7일의 정세아의 기록에도 자인에 침입한 적을 공격하였다는 기록[48]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부대가 아닐까 생각한다.

9월의 전황은 울산(蔚山)지역 의병장인 류정(柳汀)의 작령(鵲嶺)전투에서 찾을 수 있다.

> 29일 머물러 주둔하던 적이 영천과 경주 사이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즉시 군사를 출동시켜 작령(鵲嶺)에 이르러 모든 병사가 서약하였다.(중략) 적추가 서로 진중을 돌아보며 "이것이 바로 남천(南川) 가의 용양대원수(龍驤大元帥)이다,"라고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사이에 박인국이 감추었던 쇠뇌로 뒤쫓아서 수십 명을 사살하였고, 고개 위에 잠복해 있던 4백여 명의 군사들이 달려가 동서로 포위하여 16급을 참수하였다. 즉시 관영에 첩보를 올렸다.[49]

작령은 영천의 삼산(三山)이라고 불리는 마현산, 유봉산, 작산 중 작산의 다른 명칭으로 추정된다. 영천복성전투 이후에도 영천지역에 규모가 있는 부대가 있었으리라 판단되는 대목이다.

창암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류정의 《송호유집(松壕遺集)》 임진년 10월 21일조를 확인하면 이러한 대목을 찾을 수 있다. 10월 21일조는 류정이 기장(騎將) 이원번(李元蕃)을 시켜 권응수가 10월 19일에 류정에게 보낸 격문에 대한 답을 보내는 내용이다. 그 내용 중 '지난번에 계연(溪淵)전투에서 승리하고 지금에 또 창암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라는 부분이 있다.

류정의 《송호유집》 임진년 10월 10일조를 확인하면 '권응수가 계연에서 승리하였음을 들었다' 라는 내용이 있다. 실제 권응수가 주도한 계연전투는 8월에 진행되었으므로, 10월 21일조에서 언급하는 '창암전투'는 계연 전투 이후인 8월부터 10월 21일 발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今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10월경으로 추정되나, 그 전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쟁 발발 2년차인 계사년(1593년)에는 2월이 되어서야 첫 교전이 일어난다. 그 장소는 바로 창암이고 이를 지휘한 의병장은 김응택이다. 전과로는 적을 1명 참하고, 수십명을 사살한다.[50] 창암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임진년에 이어서 3번째임이 확인된다.

이 후의 전황도 김응택에 의해 진행된다. 김응택은 4월 28일에 도천(道川, 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로 추정)에서 적의 수급 1급을 다시 찾아오고,[51] 5월 15일에 적 수급 9급을 벤다.[52]

---

46)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pp.184~195.

47) 崔文炳, 《省齋先生實紀》, 券二, 〈年譜〉, (壬辰)八月初五日聞賊數百人突入境內衆情瓦解還軍逐賊于河陽掩殺所向無不催滅

48) 鄭世雅, 《胡叟先生實紀》, 券一, 〈年譜〉, (壬辰)八月初七日又擊賊于慶州慈仁縣

49) 柳汀, 《松壕遺集》, 下, 〈日記〉, 壬辰年, (九月) 二十九日聞留屯之賊向于永慶間卽日鍊軍行至鵲嶺約誓諸軍(중략)賊酋相顧陣中曰此時南川上龍驤大元帥將爲遁逃之暇朴仁國以伏弩追後射殺數十餘峴上潛兵四百餘衆馳圍東西斬首十六級卽爲保捷判官營

50) 金應澤, 《柏岩實紀》, 〈行狀〉, (癸巳)二月十七日戰蒼巖斬一級射殺數十

51) 金應澤, 《柏岩實紀》, 〈行狀〉, (癸巳)四月二十八日至道川斬賊一級爲賊還奪

52) 金應澤, 《柏岩實紀》, 〈行狀〉, (癸巳五月)十五日至永川斬賊九級

전쟁 2년차인 계사년이 되면, 명나라와 일본의 휴전으로 인해 전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발발 3년차인 갑오년(1594년)의 영천지역 전황도 김응택의 기록에서 처음 발견된다. 김응택은 《성재선생실기》 2월 21일조에서 영천으로 돌아오면서 죽인 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였으며,[53] 5월 7일의 기록에서는 임고(臨皐)에서 적 5명을 베고, 9명을 사살했다고 기술하고 있다.[54]

최문병의 《면와실기》 7월 1일조에 '병력을 이끌고 신령으로 가서 방어사 권응수를 쫓아 창암에서 왜군을 격파했는데, 이 때 가등청정은 잔류 병력을 이끌고 도주하였다.'[55]라는 내용이 또 다시 등장한다.

또한 권응수의 《백운재실기》에도 '7월에 은진현감(恩津縣監) 이곡(李穀)과 함께 창암에서 적을 격파하였다. 적의 장수 청정이 달아났다'[56]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 당시 전과로 수십급을 참수했다고 적고 있다.

또 다른 기록인 이경연(李景淵)의 《제월당실기(霽月堂實紀)》 〈용사일록(龍蛇日錄)〉 7월 3일조 기록에는 일본군 1,000여급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57] 재미있는 점은 이경연의 실기 중 〈유사(遺事)〉에서는 계사(1594년) 2월에 창암에서 가등청정군을 무찔렀다는 기록이 전하고, 이 때 가등청정이 말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다고 기록하고 있다.[58] 이러한 기록은 최동보의 《우락재실기(憂樂齋實紀)》 〈창의사적(倡義事蹟)〉 조 김대성(金大成) 사적에도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우락재실기》 내에서도 〈창의사실목록(倡義事實目錄)〉 7월 1일조에 창암에서 적을 물리쳤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즉 이경연의 〈유사〉와 최동보의 《우락재실기》 중 김대성의 사적에서 기술한 계사년 2월의 창암전투는 갑오년 7월의 창암전투의 오기인 것으로 생각한다.

류정의 《송호유집》 갑오년 9월 24일조에도 '은진현감 이곡과 방어사 권응수가 창암에서 적을 격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59]는 내용이 있다. 이로 보아 4건은 하나의 전투를 의미하며, 정확히 전투가 벌어진 일자는 갑오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로 추정한다.

갑오년(1594년) 7월 《수월재실기》에 '화산(花山)으로 진을 옮겨 한달동안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다.[60]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화산지역이 의진의 근거지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류정의 갑오년 10월 8일조에 창암에서의 전투가 또 기록되어 있다.

> 적 3백 여명을 만나 10여 리를 돌격하니 적병들이 도망하여 창암에 이르렀다. 박인국과 백춘이 좌충우돌하였다. 박인국과 백춘이 말을 타고 창으로 공격하여 사살한 자가 30여명이었다. 그러나 다 섬멸하지 못했다. (중략)서로 7일 동안 대치하다가 창을 들고 달려간 군사가 80 여명이었고, 격의장이 좌우에서 공격하여 대파하였다.[61]

---

53) 金應澤, 《柏岩實紀》, 〈行狀〉, (甲午)二月二十日還到永川其間斬殺之數不知幾計
54) 金應澤, 《柏岩實紀》, 〈行狀〉, (甲午)五月七日戰于臨皐斬賊五級射殺九
55) 黃慶霖, 《勉窩實紀》, 雜著, <壬辰倡義日錄>, (甲午)七月一日率兵往新寧從防禦使權應銖破賊于蒼巖賊將淸正率餘衆遠遁
56) 權應銖, 《白雲齊實紀》, 〈年譜〉, (甲午七月)與恩津縣監李穀破賊于倉巖賊帥淸正走
57) 李景淵, 《霽月堂實紀》, 〈龍蛇日錄〉, 甲午 七月 三日條, 鍊軍馳赴新寧防禦使權應銖陣 大丘崔東輔 慶州李訥 永川鄭世雅 及恩津縣監 李穀來會 連戰破賊于蒼巖 殺賊數千級 淸正敗走
58) 李景淵, 《霽月堂實紀》, 〈遺事〉, 癸巳 初 巡察使韓孝純 合七郡兵軍 于聞慶唐橋 公領兵往赴防禦使權應銖 恩津縣監 李穀 大丘崔東輔 永川鄭世雅 楸坪蒼巖之戰 公 又往赴時 淸正墜馬折臂走 是歲大飢公出穀賑恤軍民
59) 柳汀, 《松壕遺集》, 下, 〈日記〉, 甲午年, (九月)二十四日聞恩津縣監李穀防禦使權應銖破賊于蒼巖
60) 金見龍, 《水月齋實紀》, 〈亂中日記〉, 七月 移陣于花山 留一月
61) 柳汀, 《松壕遺集》, 下, 〈日記〉, 甲午年, 十月初八日遇賊三百餘醜突擊十餘里賊兵遁至蒼巖與朴仁國伯春左衝右突朴仁國伯春善騎矟擊射殺者三十餘醜然不得拔(中略)倭兵相距七日引槩直趍者八十餘兵激義將挾擊大破之

임진왜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창암지역이 꾸준히 격전지로 거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류정은 아들인 류영춘(柳榮春)을 일본군에게 잃었다는 내용을 10월 13일조에 밝히고 있다.[62]

같은 해 12월 10일 일본군이 영천과 경주 사이에 침입하자 이언춘은 정병 800명을 이끌고 달려갔다는 기록이 있는데,[63] 이 역시 학자들은 창암지역에서 일어났던 교전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64]

을미년(1595년) 7월 《성재선생실기》의 기록을 보면 '7월에 적병들이 영천에서 하양을 지나 자인으로 들어왔는데, 정예병 20여기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모조리 죽였다. 이로부터 노략질이 없어졌다'[65]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병신년(1596년) 9월 《수월재실기》에 '영천에 와서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다.[66]

1597년 7월 1일 가등청정이 팔공산을 침공하고 영천으로 들어왔다. 이곳에서 권응수 군대에게 크게 패해 본거지인 서생포로 돌아갔다는 연구성과도 찾을 수 있느나 전거는 찾을 수 없었다.[67]

정유년(1597년) 신흘(申屹)의 《난적휘찬(亂蹟彙撰)》 9월의 내용을 보면, '권응수, 성윤문(成允文), 경주부윤(慶州府尹) 박의장(朴毅長), 영천군수(永川郡守) 최한(崔漢)이 합세하여 창암(蒼巖)에서 왜적을 맞아 사살하였다.'[68]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당시 경주부윤이던 박의장이 기술한 《관감록(觀感錄)》의 〈정순상걸체장(呈巡相乞遞狀)〉 정유 9월의 내용 중 '같은 달 29일에 여러장수와 함께 영천에서 큰 전투를 치렀다.'[69]라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창암전투와 같은 내용으로 추정한다. 이로 인해 임진왜란 전 기간 동안 창암전투로 추정되는 전투는 총8건 정도 확인되었는데, 이 발표문의 큰 성과라 하겠다.

영천지역은 임진왜란 내내 경상좌로 상 중요지점으로 인식되어 일본군의 입장에서 차지해야 할 곳으로, 반대로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곳으로 인식되었다. 이러다보니 임진왜란 초기인 임진년 에 많은 전투들이 벌어졌다. 교통의 요지인 영천을 위시한 인근지역의 유림은 지위고하와 학통 내에서의 선후를 불문하고 지역의 안보와 국가수호라는 하나의 뜻으로 '倡義精勇軍'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영천복성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활동범위를 넓혀 경주복성전투, 팔공산 회맹들을 주도하는 등 임진왜란의 전기(轉機)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는 전란의 대응양상에 대해 경상우도 유림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상좌도 유림들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영천지역에 대한 전황에 대한 사료검토는 영천복성 전투 이외에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영천복성 전투에 대한 사료 역시 집안 간의 시각 차이로 학계에서 논의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이 번 발표로 기점으로 하여 영천지역의 임진왜란사에 대한 재정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고, 문학과 사학을 아우르는 한적(漢籍)에 대한 공동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Ⅳ. 結論(생략)

62) 柳汀,《松壕遺集》, 下, 〈日記〉, 甲午年, 十三日運粮將榮春爲賊所害訃至
63) 李彦春,《東溪實紀》,〈日記〉,(甲午)十二月初十日賊兵復會永慶間彦春率精騎八百倍日馳到
64) 최효식,『慶州府의 壬辰倭亂史』, 慶州市文化院, 1993, p.150.
65) 崔文炳,《省齋先生實紀》, 券二, 〈年譜〉, 七月賊自永川逾河陽入境率精騎二十餘人追擊斬之自是無竊發之患
66) 金見龍, 《水月齋實紀》, 〈亂中日記〉, 九月 留陣于永川
67) 정해은, 앞의 논문, p.91.
68) 申屹, 《亂蹟彙撰》, 下卷, 丁酉條, 與權應銖成允文慶州府尹朴毅長永川郡守崔漢合勢擊賊於蒼巖射殺頗多
69) 朴毅長,《觀感錄》,〈呈巡相乞遞狀〉,(丁酉九月)是月二十九日與諸將大戰于永川

「壬辰倭亂 永川地域 義兵活動 槪觀(최재호)」에 대한 토론문

김진수(육군군사연구소)

본 발표문은 임진왜란 당시 영천지역의 전황에 대해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영천지역은 예로부터 사통팔달의 지역으로서, 과거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이나 일본군에게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주목을 끌었다. 비록 전쟁발발 단기간에 일본군에게 영천을 실함하였지만, 이후 의병이 복성전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일본군은 경주-영천-안동을 잇는 보급로가 차단되어 상주로 철수하면서 그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좌도의 수십 읍이 보존하게 되었고 이 지역 백성들 또한 생기를 되찾았으며, 이 일대가 다시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의 전황은 조선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는데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발표문에 제시된 사료에 있어 《白雲齋實紀》, 《湖叟實紀》, 《昌臺實紀》, 《復齋實紀》, 《林溪實紀》, 《松壕遺集》 등 영천지역에서 활약했던 의병장들의 문집과 《조선왕조실록》, 《징비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전쟁 초기 영천 의병부대의 활동을 상세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정리를 하였다. 그럼에도 보다 완성도 높은 글이 되기 위해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서론을 보면, 영천지역의 전황과 관련한 연구성과를 제시하긴 하였지만, 이 글에서 제시한 의병부대의 활동뿐 만 아니라 지방수령 및 관군의 활동과 일본군의 상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진 여러 성과들이 등장하였다. 왜 이러한 성과들이 발표문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은 다소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전황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정리한다면, 이 글의 차별성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2. 발표문에서 활용된 사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료 비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비교적 사실에 가까운 당대의 기록으로 평가받는 "일기"류와 발표문에서 활용된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실기"류나 "문집"의 자료가 아무런 검증과 비판없이 대부분 인용되고, 동등하게 다루어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들은 선조를 추숭하고자 후대에 의해 각색되었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장 편성에 있어서 문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의 취지에 맞게 서론 다음에 발표문에 제시된 문집 및 일기 등 사료들에 대한 소개 및 집대성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아울러 경상좌도 의병장들의 학문적 배경과 성향에 대한 소개도 병행하고, 경상우도 의병장들의 학문적 배경 및 성향과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글에서 제시된 사료들에 대해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싶다. 또한 발표자는 경상우도 의병장의 실기에 대한 권위자로서 이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경상좌도 의병장의 실기에 대한 연구동향과 전망에 대해 고견을 구한다.

4. 9페이지의 영천 군수 김윤국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내용이 상이하다. 우선 김윤국의 전쟁발발 직후의 행적에서,『昌臺實紀』에는 기룡산에 있는 묘각사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고(정대임,『창대실기』 권2, 행장), 신흘의『亂蹟彙撰』에는 충청도로 도망쳤다는 기록이 나온다(申屹,『譯註 亂蹟彙撰』, 역락, 2010, 55쪽). 경상도안집사 김륵의 장계에 의하면 김윤국이 충주로 도망쳤다는 내용이 나타난다(金玏,『栢巖集』 권5,「條陣慶尙道軍情賊勢狀啓」). 다음으로 영천성 수복전투

당시 『백운재실기』에서는 영천 군수 김윤국이 창의정용군의 별장으로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하지만 신흘의 『난적휘찬』에서는 충청도에 도망갔다가 영천 전투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임지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실제 참전하지 않았는데 공신의 반열에 들었다는 내용이 보인다(申忔, 『譯註 亂蹟彙撰』, 역락, 55쪽). 따라서 그 진위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료 비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영천성 함락 당시 일본군의 동향에 대해서는 김경태의 연구가 상세하니, 확인해서 보완하기를 바란다(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경상좌도 일본군의 동향과 영천성 전투」, 『軍史』 95, 2015).

6. 영천 지역의 전황을 임진왜란 전체의 상황과 관련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표문은 글 전반에 걸쳐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의병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전쟁의 진행과정 속에서 의병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에는 소홀하였다. 이 글에서 의병부대의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였지만, 당시 전쟁 전체 국면을 정리하고 이 속에서 경상좌도의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의 의병부대 뿐만 아니라, 관군의 역할 또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 및 관계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임진왜란과 관련한 지역사 연구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이 생략되어 있는데, Ⅲ장 26쪽 하단에서 27쪽은 발표자의 영천전투 규명에 대한 연구사적 의의와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을 언급하였으므로 결론에 포함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

<옥루몽(玉樓夢)> 군담에 나타난 징악(懲惡)의 특수성과 그 의미

서정현(경북대학교)

1. 머리말

본고는 19세기 문인 남영로(南永魯; 1810~1857)의 저작인 고전장편소설 <옥루몽(玉樓夢)>의 군담에 나타나는 징악(懲惡)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 양상과 의미를 구명하고자 한다. '징악'은 우리의 고전소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김경애는 고전소설에 보이는 권선징악의 문제에 대해 '주제적 측면에서는 해석 그대로 선(善)을 권하고 악(惡)을 징계한다는 관념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서사의 구성적 측면에서는 '선인의 수난→행복', '악인의 득세→패망'을 그리는 스토리(story) 혹은 스토리 모델(story model)[1]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작중에서 '선인'에 해당하는 주인공은 중간에 고난을 겪을지언정 마지막에는 행복을, 반대로 '악인'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중간에 득세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패망하고 자신들의 죄업에 걸맞는 징치를 받는 것이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전개 양식이다.

권선징악은 지극히 보편타당한 가치라는 점에서 '인간 역사와 문학이 존속하는 한 더할 데 없는 최선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으나,[2] 동시에 고전소설을 천편일률적이라고 오해하고 폄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20세기 초 근대문학이 부각되던 초기 유교 이념 중심의 효용론적 문학관을 극복하는 한편 '구소설'과 '근대소설'을 구분지으려는 노력 하에서 나타난 편견으로 보인다.[3] 물론 고전소설의 주제와 구조를 '권선징악'의 문제에 국한하여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음은 그간의 누적된 연구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진 바 있다. 오히려 '고소설은 권선징악적이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작품 수용과 해석의 다양한 층위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4] 단 표면적인 주제의식과 더불어 서사 구조의 기본적 틀을 분석할 경우에는 이 권선징악의 문제가 여전히 유효한 지표가 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고전소설 속 서사담 중에서 이러한 권선징악의 주제적 측면과 구도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경우로 군담(軍談)을 꼽을 수 있다.[5] 고전소설의 군담은 영웅성을 지닌 주인공과 그에 대립하는 적대자 사이의 군사적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된다.[6] 이들 사이의 대결은 대체로 지배

---

1) 김경애, 「'권선징악'에 대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416~421쪽. 여기서 김경애는 고전소설 내 영웅담이나 남녀이합담과 같은 구체적인 스토리보다 상위에 존재한다는 개념으로서 구성적 측면의 권선징악을 스토리 모델이라고 칭하였다.

2) 강재철, 「고전소설의 주제 「권선징악」의 의의」,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1988, 147쪽.

3) 김경애, 위 논문, 421~426쪽.

4) 이정원은 고전소설 상당수가 실제로는 권선징악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갖춘 점, 권선징악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 독자의 수용 체험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논리라는 점 등을 들어 '고소설 권선징악론'을 비판한 바 있다(이정원, 「고소설 권선징악론 비판-수용미학의 관점에서」, 『한국고전연구』 3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5) 본고에서는 군담을 '영웅의 군사적 활약을 서술하는, 작중 서사의 구성 단위'(서정현, 『조선 후기 장편소설 속 군담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9)로 정의한다. 여기서 '영웅의 군사적 활약'에 대해서는 본고의 2장에서 재론할 것이다.

6) 본고에서는 '주인공'과 '적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기실 이는 주인공과 악인,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 주동인물(프로타고니스트; protagonist)과 반동인물(안타고니스트; antagonist) 등의 다른 용어로도 지칭될 수 있을 것이다. 단 군담이라는 서사의 성격상 전쟁이라는 목숨을 건 대결을 통한 적대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하므로, 본고에서는 주인공-적대자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 해당 용어를 사용한다.

이념의 작용에 의거하여 선악과 적아(敵我)를 분명하게 가르고 있으며, 대결의 마지막에는 주인공의 승리와 적대자의 패배 및 징치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필 바이지만, 고전소설의 군담은 주인공의 영웅성을 통해 전쟁의 잔혹성을 덮고 흥겨운 오락거리로 만드는 경우가 태반인 만큼, 이러한 권선징악적 구도가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그러나 얼핏 단순한 선악대립의 반복으로 보이는 고전소설의 주제와 구성이 실제로는 다양한 해석의 층위를 가짐을 고려하면, 그 일부인 군담 또한 마찬가지로 보다 복잡한 해석을 요한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소설사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기존에 성립된 군담이라는 이야기의 틀을 반복하면서도 한편으로 흥미로운 변모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옥루몽>의 군담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옥루몽>에서는 적대자를 단순한 징악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일정한 명분을 부여하거나, 혹은 징악의 과정 자체가 생략되는 변형이 드러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작품과는 구분되는 <옥루몽>의 개성적인 양상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작용해야 할 '권선징악'과 그 기준이 되는 당대의 지배이념에 대한 다른 측면에서의 인식과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선행 연구에서 이 문제는 주로 <옥루몽> 속 주인공과 대립 구도를 이루는 '악인'형 인물들, 혹은 그들이 등장하는 군담의 양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졌다. 심치열은 <옥루몽> 속 양창곡과 노균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양자는 충신-간신과 선인-악인의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노균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잠재되어 있지만 또한 절제해야 할 욕구의 문제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았다.[7] 유광수는 <옥루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을 분석하면서 그 가운데 양창곡과 대립을 이루는 인물들인 노균, 나탁, 축융왕의 구체적 형상에 주목하고, 이들이 '선인'과 '악인'의 평면적 구도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고민과 욕망, 이율배반적 행동과 갈등, 명분과 실제의 괴리 등을 보여주는 입체성을 띠고 있으며, 그를 통해 <옥루몽>의 작중 인물과 상황의 현실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8] 이상의 논의들은 <옥루몽>의 등장인물들이 지니는 현실성과 입체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정리하고 그에 농축된 19세기 소설사의 발전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다 하겠다.

단 이상의 논의들은 군담의 대결 양상과 구조, 그리고 서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징악'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접근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의 군담은 권선징악 구도에 따라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는 주인공과 대립 구도를 이루던 인물이 패배하고, 해당 인물에 대한 교화 혹은 징벌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징벌과 교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정현은 19세기 장편소설의 군담 전반을 다루면서 <옥루몽>의 악인형 인물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해당 인물들의 형상을 통해 19세기 장편소설의 군담에서는 개인의 욕망을 긍정하면서 선악의 단순한 구분과 그에 내재된 지배이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단초가 제기된 것으로 보았다.[9] 단 이는 여러 작품에 초점을 맞춘 논의였기에 인물의 형상과 대립 구도를 보다 정치하게 살피는 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소 표면적이고 상투적인 분석에 그친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옥루몽>의 군담에 나타난 인물 간 대결 구도와 적대자에게 주어지는 징악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고전장편소설 <옥루몽(玉樓夢)>의 군담에 나타나는 징악(懲惡)의 양상에 주목하여 그 특수성을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 문학사적 의미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비단 <옥루몽>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더할 뿐만 아니라, <옥루몽>을 산출한 19세기 소설사의 특성을 심도 있게 파헤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고전소설 군담에 나타나는 징

7) 심치열, 「옥루몽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1994, 197~205쪽.
8) 유광수, 「<옥루몽>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6, 138~155쪽 및 166~175쪽.
9) 서정현, 앞의 논문, 198~204쪽.

악의 전반적 성격을, '권선징악'과 관련한 선악 대립의 구도와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다음 3장에서는 2장의 예비적 고찰을 바탕으로 <옥루몽> 속 군담의 선악대립과 징악의 양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엿보이는 특수한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옥루몽> 군담 속 징악이 소설사적으로 갖는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2. 고전소설 군담 속 징악의 전반적 성격

선학들의 논의에서 고전소설 군담은 '전쟁을 통한 영웅적 활약의 전개'[10], '주인공의 영웅성을 보여주는 군사적 대결'[11], '영웅의 전쟁 수행담'[12]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다양한 정의들에서 공통적으로 '영웅'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결국 고전소설 속 군담은 주인공 영웅과 그에 반(反)하는 적대자 사이의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이며, 또 주인공을 '영웅'으로 규정하면서 그 활약과 승리를 다루게 된다.

주인공이 긍정적인 영웅으로 그려지는 만큼, 군담에 등장하는 전쟁 또한 자연스럽게 선악 대결의 형태로 도식화된다. 현실의 전쟁은 살육과 파괴가 일어나는 끔찍한 참상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영웅을 중심으로 하는 소설 속 전쟁은 그러한 참상과는 거리가 먼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에 가깝다.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하는 주인공을 정당화하고 영웅시하기 위해서는, 그와 적대하는 상대측에 대해 도덕성의 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쟁을 일으킨 죄과는 모두 적대자에게 있으므로 주인공은 오직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기만 하면 되"도록 그려지며, 이러한 대결 구도 하에서 "독자들은 선으로 규정된 주인공이 악으로 규정된 적대자를 어떻게 물리치는가, 즉 순수하게 승리의 과정에 몰두"[13]한다. 즉 영웅의 확고한 승리를 위해서는 그가 물리쳐야 할 적대자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며, 나아가 양자 사이의 대결은 반드시 선악의 경계가 뚜렷한 형태로 단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인의 패배와 징치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군담에서 선악을 구분하고 주인공의 행위를 영웅적 승리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기준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는 주로 당대 지배이념의 문제와 연결된 형태로 소설 작중에서 제시되곤 한다. 여기서는 관련 예시로 장편소설 <완월회맹연>과 영웅군담소설 <조웅전>의 군담 장면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 이제 남왕의 머리를 벼혀 그 죄를 정히 ᄒᆞ리니 너가튼 산금 야슈를 ᄃᆡ의로 칙ᄒᆞᆯ ᄇᆡ리오 쵸의 우리 ᄃᆡ원슈 글을 너의게 보ᄂᆡ신 바ᄂᆞᆫ ᄒᆞᆫ갓 너를 위ᄒᆞ시미 아니라 솔토지빈이 막비왕신이오 보쳔지하가 막비왕토어ᄂᆞᆯ 남왕 불인 흉젹을 인ᄒᆞ여 원억ᄒᆞᆫ 창싱이 잔인이 도륙ᄒᆞ믈 ᄎᆞ마 못ᄒᆞᄉᆞ 일즉이 귀항ᄒᆞ야 산쳔을 각각 보젼코ᄌᆞ ᄒᆞ시미오 진실노 쳘두셩을 ᄒᆞᆫ 북의 파치 못ᄒᆞᆯ가 근심ᄒᆞ미 아니러니 네 집미 흉픽ᄒᆞ여 악을 ᄊᆞ하 하ᄂᆞᆯ을 범ᄒᆞ고 죄를 쳔됴의 무거이 시라니 구족을 셤멸ᄒᆞ나 가히 쇽지 못ᄒᆞ리로다[14]

위의 인용문은 18세기 장편소설 <완월회맹연>의 한 장면이다. <완월회맹연>의 주인공 정잠·정인성 부자는 교지·남월 등과 동맹을 맺고 중국을 침범하는 해외세력인 안남국과 전쟁을 벌인다. 여기서 주인공 부자가 속한 중국 측은 안남국에 대해 위 인용문에도 보이는 '보천지하 막비왕토(普天之下 莫非王土), 솔토지빈 막비왕신(率土之濱 莫非王臣)'의 논리를 내세운다.[15] 즉 중국 황제는 하

10)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재간행판), 제이앤씨, 2008, 11쪽.
11) 김현양, 「'영웅군담소설'의 연구사적 조망」, 『민족문학사연구』 46, 2011, 172쪽.
12) 김도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 방식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0, 17쪽.
13) 김도환, 앞의 논문, 22쪽.
14) <완월회맹연> 64권, 독해본 5권 76쪽.

늘 아래와 땅 끝의 모든 영토와 사람들의 지배자이며, 안남왕을 비롯한 해외 세력 또한 중국의 지배 하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름아닌 화이론(華夷論), 즉 “중화와 이적의 변별을 토대로 중화를 존숭하고(尊中華) 이적을 배척하는(攘夷狄)”[16] 존화양이론(尊華攘夷論)의 논리이다.

조선 후기 사회를 관통했던 화이론은 두 차례의 큰 전란과 명(明)·청(淸)의 교체라는 국제정서의 격변을 거치면서, 당대 한반도가 처했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강조된 이념적 가치관이다. 고전소설 속 군담의 형성이 임(壬)·병(丙) 양란(洋亂)의 역사적 체험에 기인하는 바를 고려하면,[17] 비슷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촉발된 화이론이 군담에서 강조되는 점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겠다. <완월회맹연>에 나타나는 안남국의 중국 침입과 그에 대한 토벌은, ‘소중화(小中華)’라 하여 스스로를 중국과 동일시했던 당대 조선이 일본과 청 등의 외세 침입에 대해 반응하고 적개심을 가졌던 바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전소설의 군담에서는 위 <완월회맹연>의 경우처럼 국경 밖 이민족 출신의 적대자만이 아니라, 국경 내부에서 반역을 일으키며 주인공과 대립하는 형태의 적대자 또한 종종 등장한다. 이러한 인물들을 상대로는 이적을 배척하고 그와 반대급부로 중화를 존숭하는 화이론의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19세기 전후의 창작으로 추정되는 영웅군담소설 <조웅전>에서, 주인공 조웅과 대립하는 간신 이두병의 경우가 그 예시이다.

> 너는 숑실지쥐목이요 셰ᄃᆡ식녹지신니라 쇽젹여ᄉᆞᆫᄒᆞ고 직겨ᄂᆞᆯ픔ᄒᆞ야 니목지쇼호와 심지지쇼락ᄅᆞᆯ 네 혼자 즐거ᄒᆞ니 너 부족다 ᄒᆞ고 억ᄒᆞ심장으로 역젹니 되단 말가 ᄐᆡᄌᆞᄂᆞᆫ 무ᄉᆞᆷ 죄로 말리 외예 젹거ᄒᆞ야시며 쳔고 지후 몰로신들 ᄉᆞ약은 무삼 닐고 광ᄃᆡᄒᆞᆫ 쳔지간의 용남업슨 너 죄목ᄅᆞᆯ 죠죠리 ᄉᆡᆼ각ᄒᆞ니 살지무셕니라 무지ᄒᆞᆫ ᄇᆡᆨ셩들도 네 고기를 구ᄒᆞ돈지라[18]

위에 인용한 <조웅전>의 대목은 주인공 조웅이 이두병의 행위를 조목조목 꾸짖으며 처벌의 이유를 밝히는 장면이다. 간신 이두병의 행위를 ‘송나라 황실을 떠받치는 재목(材木)이자 대대로 나라의 녹을 먹는 은혜를 받았으며, 창고에 쌓인 곡식은 산과 같고 지위는 일품(一品)에 이르러 이목(耳目)과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반역을 일으켰다고 공박한다. 이는 봉건국가에서 군신(君臣)관계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충(忠)’의 논리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교의 충효사상(忠孝思想)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였으며, 다소의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위 장면에서 이두병의 행위가 국가에 혼란을 일으켜 아래의 백성들조차도 그의 고기를 원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언급은, ‘충’을 저버린 이두병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를 징치하는 것에 확고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결국 고전소설 군담에서는 선악 구분의 이념적 기준으로 화이론과 ‘충’의 두 가지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겠다.[19] 이에 따라 군담 속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을 정의한다면, “전도 혹은 균열을 일으

---

15) 단 본고에 인용한 장면에서는 문장 배열의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다.

16) 우경섭, 「송시열의 화이론과 조선중화주의의 성립」,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260쪽.

17) 연구사 초기에 김태준이 군담소설 형성의 연원을 양란의 시대사조와 연결지은 이래로 여러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71~72쪽 및 92~100쪽). 특히 군담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민족의 침입과 그 격퇴의 양상은, 비단 실제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이 아닐지라도 양란 당시의 경험을 반영했을 개연성이 높다(서대석, 앞의 책, 183~207쪽).

18) <조웅전> 완판 104장본 3권, 20쪽.

19) 그런데 화이론의 경우 넓게는 <조웅전>과 같은 작품에서 드러나는 ‘충’의 문제에 일정하게 포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완월회맹연>에서 보였던 ‘보천지하 막비왕토, 솔토지빈 막비왕신’의 언급은 결국 국경 밖의 이민족 또한 중국의 황제와 군신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夷)’에 대해서도 충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별개로, 화이론은 ‘화이(華夷)’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데 집중하는 만큼 양자를 동일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킨 유교적·중국중심적 지배이념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 대결"[20]외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립의 끝에 적대자들에게는 어떤 결말, 즉 '징악'이 주어지게 되는가? 위에서 인용한 <완월회맹연>과 <조웅전>의 경우를 통해 확인해 보자.

> 듸원슈 졍공이 남왕의 항복을 바들식 친히 장듸의 나려 그 믄 거술 그라며 곤의 보불을 나와 그 예복을 가쵼 후 듸상의 오라믈 쳥ᄒᆞ믹 왕이 고집지 못ᄒᆞ여 오건 빅의로 동듸로 말믹암아 오라고 원슈ᄂᆞᆫ 셰계로 인ᄒᆞ여 셔로 츄양ᄒᆞ며 올나 빈쥬 좌졍ᄒᆞ믹 남왕이 항표를 쳔문의 올녀 ᄉᆞ죄ᄒᆞ믈 일카라니 원슈 흔연이 그 뜻을 죠ᄎᆞ 밧비 황셩의 쳡셔를 올니며 인ᄒᆞ여 항표와 ᄌᆞ긔 쇼장을 올녀 남왕의 슈히 복위ᄒᆞ시ᄂᆞᆫ 은지 나리오시믈 알외고 <중략> 남왕이 쳬찰노 더브러 반일의 문답ᄒᆞᆯᄉᆡ 쳬찰이 남왕의 외월ᄒᆞ던 바를 젼혀 업시과져 ᄒᆞ므로 즁국 녜졀과 도리를 붉혀 당당ᄒᆞᆫ 의리와 지극ᄒᆞᆫ 덕화로 만방을 교유ᄒᆞ여 후셰의 유젼케 ᄒᆞ니 남왕 부ᄌᆡ 일노 드듸여 어진 님군이 되여 쳬찰을 기리 뫼셔 훈회를 밧들 길히 업셔 결연억울ᄒᆞ여 몸이 타방 왕실의 나믈 도로혀 ᄒᆞᆫᄒᆞ니 젼국의 왕양ᄒᆞ미 변ᄒᆞ여 의연이 ᄐᆡ고지풍이 희희호호ᄒᆞ믈 어덧더라 어시의 졍원슈 신무 덕화로 안남을 평졍ᄒᆞ믹 셩언 현어와 셩덕 듸도로 남왕 부ᄌᆞ를 교화ᄒᆞ여 남왕이 쾌히 회심ᄒᆞ여 ᄀᆡ과 ᄌᆞ칙ᄒᆞ믹 어진 국군이 되여[21]

> 니 날 환국ᄒᆞ야 직위ᄒᆞ신 후의 니두병과 니관 등 오형제를 나입ᄒᆞ야 친문ᄒᆞ신 후의 진밧긔 쳐참ᄒᆞ야 ᄉᆞ지를 갈나 져ᄌᆞ의 회시ᄒᆞᆫ 후의 이 연고를 졔국의 반포ᄒᆞ니라 ᄯᅩᄒᆞᆫ 두병의 가솔을 젹믈ᄒᆞ여 각국의 졍속ᄒᆞᆫ지라[22]

첫 번째 인용문은 <완월회맹연>에서 주인공과 적대하였던 안남국 측 인물들의 결말을 다룬다. 여기서 안남왕이 스스로 자신을 묶어 항복하는 예를 보이자,[23] 정잠은 직접 그의 결박을 풀고 정중히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주청(奏請)하여 안남왕이 본래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며 안남국과 가솔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든다. 더불어 아들인 정인성으로 하여금 안남왕과 그의 측근들에게 강론(講論)을 베풀어, 중국을 침범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진 임금이 되도록 만든다. 단순히 적대자를 항복시키고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덕화(德化)로 교유하여 누대에 전하게 함으로써, 훗날 이민족이 다시 중국을 침범하는 후환을 없애는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조웅전>의 이두병과 그 일당들에 대한 처우이다. 이두병을 비롯한 반란을 일으킨 본인은 능지처참(陵遲處斬)의 방식으로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처형하며, 그 가솔들 또한 모두 잡아들여 유배보낸다. 이두병에 동조했던 여러 신하들도 같은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 이러한 능지처참과 가솔 유배 등은 모두 동아시아 왕조 사회에서 반역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내려지던 전형적인 처벌이기도 하다.

그런데 <완월회맹연>의 안남왕과 <조웅전>의 이두병은 둘 모두 적대자형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양상이 판이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과의 과정을 거칠지언정 비단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완월회맹연>의 안남왕과 달리, <조웅전>의 이두병은 그 자신은 물론이고 측근과 가족들 또한 심각한 화를 입는다. 이러한 징악 양상의 차이는 두 적대자의 출신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완월회맹연>의 안남왕은 중국 국경 바깥의 이민족 출신인 외적(外敵)이지만, <조웅전>의 이두병은 중국 조정의 녹(祿)을 먹는 신하로서 명백한 반역을 저질렀기에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은 것이다. 앞서 살핀 '보천지하 막비왕토'의 논리에 따른다면 안남왕 또한 중국에 '반역'한 것이므로 이두병과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아야 하겠으나, 실제로는 이민족으로서 국경 안의 인물들과는 다른 처우를 받는 셈이다.

실제로 많은 고전소설 군담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민족 출신의 적대자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

---

20) 서정현, 앞의 논문, 54쪽.
21) <완월회맹연> 67권, 독해본 5권 202~204쪽.
22) <조웅전> 완판 104장본 3권, 72쪽.
23) 반고(班固)의 『한서(漢書)』에 나오는 자박(自縛)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러운 처우가 이루어지는 반면 조정의 신하였다가 반란을 일으킨 적대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살해하는 것으로 징악이 이루어진다.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이 충효의 가치였음을 감안하면, 그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관용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작품에 따라서는 이민족 출신의 적대자들 또한 용서 없이 살해하는 경우도 여럿 보이곤 한다. 실제 역사 속 외적의 침입을 다룬 <임진록>, <박씨전>, <임경업전> 등의 역사군담소설의 경우라든가, 이민족 적대자가 호적(胡狄), 북적(北狄) 등으로 호칭되면서 병자호란(丙子胡亂)을 일으킨 청나라에 대한 복수설치의식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우[24] 등이 그것이다. 단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거의 예외 없이 죽음으로 처벌받는 중국 내부 출신의 적대자들에 비하면 이민족 적대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당장 위에서 예시를 든 <조웅전>의 경우에도 이민족 출신의 적대자인 서번왕(西藩王)에 대해서는 이두병과 달리 용서하여 살려보내는 대목이 있다.[25]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전소설의 군담 속 주인공 영웅과 적대자의 대결은 '전도 혹은 균열을 일으킨 유교적·중국중심적 지배이념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 대결'로 정의할 수 있다. 군담은 전쟁의 잔혹한 실상을 덮고 주인공의 행위를 영웅적 행위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 주인공과 적대자 양자의 대립을 대체로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선악의 대립으로 치환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요소가 존화양이론과 '충'의 두 가지 논리이다. 전자의 경우 이민족 출신 적대자들과의 대결에서, 후자의 경우 국가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같은 중국 출신 적대자들과의 대결에서 중심 논리로 작용한다.

(2) 대결의 막바지에 이르러 주인공이 승리한 후 적대자에 대한 징치, 즉 '징악'이 작중에서 실현된다. 이 징악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이념에 따른 교화의 과정을 거쳐 적대자를 감화시키고 포섭·복속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적대자를 용서하지 않고 살해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이민족 출신의 적대자를 징치할 경우 용서하고 교화를 거쳐 복속시키는 결말이 많은 반면, 국경 안의 중국 출신 반란자를 징치할 경우는 거의 어김없이 반역죄에 준하는 처벌, 즉 살해하거나 처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다수의 고전소설 속 군담이 보여주는 주인공-적대자 대립의 기본 구도와 서사 전개는 위에 정리한 공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종종 적대자가 탈중세적이고 파격적인 명분론을 내세우거나, 단순한 선악 구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입체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 (2)의 '징악' 단계에 이르러서는 다른 고전소설과 대동소이한 결말로 군담을 매듭짓곤 한다. 이는 '악인'인 적대자에 대한 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대자들의 명분론 혹은 입체성이 단순한 '일탈'로 마무리되지 않고 '선'으로 규정된 지배이념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인공-적대자의 대결 구도나, 그에 대한 마지막 징치의 양상에서 다른 작품과 궤를 일정하게 달리하는 경우가 확인되는 데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옥루몽>의 경우가 그 한 예시이다. <옥루몽>에서는 단순히 '악'으로 치부되어야 할 군담의 적대자들이 그 이상의 입체성을 드러내거나, 혹은 (2)와 같은 징악의 단계에서도 그 일반 기제가 불분명하게 작동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 문제를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24) 서대석은 <옥루몽>과 <유충렬전>에 나타나는 북방 이민족의 침입 서사를 통해 이 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타개 불가능한 국난을 수습"하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병자국치의 사무친 민족감정이 허구의 세계인 소설을 통하여 표현되었다"고 하였다(서대석, 앞의 책, 185~206쪽, 인용문은 199쪽).

25) "위왕과 원슈 번왕의 거동을 보이 일리 글려홀 듯ᄒᆞ야 특별이 관셔ᄒᆞ야 황셔을 밧고 분부 왈 너을 응당 쥭길 거시로ᄃᆡ 십분 참작ᄒᆞ야 특방ᄒᆞ난 거시이 네 도라가 위국을 져ᄇᆞ리지 말나 ᄒᆞ고 방츌ᄒᆞ이 번왕이 고듀빅비 치사ᄒᆞ고 가이라." <조웅전> 완판 104장본 2권, 13쪽.

3. <옥루몽> 군담 속 징악의 양상과 특수성

3-1. <옥루몽> 군담의 전반적 양상과 인물 간 대립 구도

우선 <옥루몽> 군담과 그를 이루는 인물 대립 구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피고 정리해 본다. <옥루몽>의 군담은 작중에서 총 5회에 걸쳐 나타난다. 작중 군담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적대자형 인물과, 적대자의 출신, 적대자에 대한 징악의 양상을 도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6]

군담	주인공	적대자	적대자의 출신	징악의 양상
옥루몽-①	·양창곡 ·강남홍	·남만왕 나탁 ·축융왕	·이민족(남방) ·이민족(남방)	·항복·귀순 ·항복·귀순
옥루몽-②	·양창곡 ·강남홍	·홍도왕 탈해 ·소보살	·이민족(남방) ·초월계	·처형 ·항복
옥루몽-③	·양창곡 ·강남홍	·흉노왕 야율선우 ·노균 ·청운	·이민족(북방) ·중국 ·초월계	·전사 ·전사 ·항복
옥루몽-④	·양장성	·야선 ·청운[27]	·이민족(남방) ·초월계	·자결 ·항복
옥루몽-⑤	·양장성	·흉노왕 ·삼릉발도	·이민족(북방) ·이민족(북방)	·전사 ·전사

위에 정리한 옥루몽-①, 옥루몽-②, 옥루몽-③ 군담에서는 양창곡과 강남홍이 군사를 이끌고 각각 남만왕 나탁, 홍도왕 탈해와 그 부인인 소보살, 흉노왕 야율선우 및 그와 결탁한 참지정사 노균과 대결하는 내용을 서술한다. 이어서 옥루몽-④, 옥루몽-⑤ 군담에서는 양장성이 초나라를 침범한 남방 이민족의 야선, 북방 이민족인 흉노왕과 각각 대결하는 내용을 서술한다. 즉 작중 1세대에 해당하는 양창곡과 강남홍의 활약을 옥루몽-①, 옥루몽-②, 옥루몽-③에서, 2세대에 해당하는 양장성의 활약을 옥루몽-④, 옥루몽-⑤에서 그려내고 있다. 이 다섯 군담 중에서는 1세대의 이야기인 ①, ②, ③ 군담이 훨씬 긴 분량과 구체적인 서술을 보인다. <옥루몽>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양창곡과 강남홍 두 인물이며, 양장성을 비롯한 그 아들들의 활동은 후일담의 형식에 가깝기 때문이다.[28]

여기서 군담별로 나타나는 적대자의 출신과 징악의 양상을 서로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다. 작중에서는 나탁, 축융왕, 탈해, 야선 등 남방 출신의 이민족들이 적극적인 항복 권유를 받으며, 이를 받아들인 나탁과 축융왕은 무사히 살아남아 귀순한다. 반면 끝까지 저항한 탈해의 경우는 처형당하며, 야선의 경우에는 항복 권유를 받았음에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자결을 택한다. 중요한 것은 남방 출신의 이민족 적대자들은 모두 그들 자신이 원할 경우 명나라에 항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반면 중국 내부 출신의 반역자인 노균, 그리고 두 명의 흉노왕과 삼릉발도 등의 북방 출신의 이민족 적대자들은 이러한 항복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정상적인 처형 절차도 없이 전장에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다. 앞서 2장에서 살핀 바를 토대로 하면, 노균의 경우는 반역자로

---

26)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한다면 주인공과 적대자에 각각 협력하는 조력자형 인물들까지 포괄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옥루몽> 군담에서 중대한 비중을 가진 인물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루기로 한다.

27) 원래 청운은 옥루몽-③ 군담에서 강남홍의 설득으로 다시 천계로 돌아갔으나, 옥루몽-④ 군담에서 다시 등장하고 이전에 강남홍과 전장에서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래 이는 전작인 <옥련몽>의 내용으로, <옥련몽>에서 <옥루몽>으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작자가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28) 전체 62장회인 규장각본을 기준으로 양창곡의 아들 세대의 활약은 제57회부터이며, 그나마도 마지막 장회가 다시 양창곡 세대의 이야기인 점을 고려하면 더 짧다.

서 ‘충’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인물이기에 이러한 처벌이 당연할 것이다. 북방 출신의 이민족 적대자들의 경우, 병자호란의 체험으로 촉발된 이른바 ‘북적’에 대한 적개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29] 작중에서도 ‘북방의 오랑캐는 남만(南蠻)과 달라서 그 본성이 금수(禽獸)와 같으며 인간으로 취급하기 어렵다’고 하여, 북쪽과 남쪽의 이민족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분명히 구분하는 진술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위의 세 부류와 구분되는 초월계 출신의 적대자들인 소보살과 청운의 경우, 남방 이민족 출신의 적대자들처럼 마지막에는 주인공 측에 항복하면서도 귀순하여 협력하는 위치에 서지는 않는다. 3장 4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되, 대신 이들은 다시금 초월계로 돌아가서 지상계에 관여하지 않는 형태의 결말을 맞는다.

이상으로 살핀 <옥루몽> 군담 속 적대자들의 출신과 징악의 양상은, 초월계 출신의 적대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앞서 2장에서 정리한 고전소설 군담 속 적대자들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인물들의 구체적인 형상에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개별 형상과 작중 행적에서 기존 군담과는 차별화되는 면모가 돋보이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①, ②, ③ 군담에 등장하는 축융왕과 탈해, 노균, 소보살과 청운의 세 경우로 나누어 세밀하게 살피기로 한다.

3.2. 축융왕과 탈해 – 이민족 교화의 한계 표출

본절에서는 옥루몽-①, 옥루몽-② 군담의 적대자형 인물인 축융왕과 탈해의 형상 및 그들에게 주어지는 징악의 양상에 주목해 본다.

우선 축융왕의 경우를 보자. 축융왕은 옥루몽-① 군담에서 나탁의 맹우(盟友)로 처음 등장한다.[30] 천하에 짝이 없는 영웅이라 칭송받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직한 성격이면서도 사사로운 욕심이 많다고 묘사된다.[31] 나탁으로부터 비단과 명주(明珠) 등의 여러 보물을 받고 전쟁에 참여한다. 그러나 전투 중에 딸 일지련이 강남홍에게 사로잡힌 것을 계기로 귀순하게 되고, 이후의 나탁과의 싸움과 옥루몽-② 군담에서의 탈해와의 전쟁에서 명나라의 우군(友軍)으로 참여한다. 훗날에는 일지련이 양창곡과 결연을 이루면서 양창곡과 옹서(翁壻)관계가 되기도 한다.

축융왕이 명나라 군대와 적대하는 것은 중원을 침공하려는 원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나탁과 달리, 평소 욕심이 많아서 재물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가 명나라에 귀순하고 양창곡의 은의에 감복하여 개과한 후에도 이러한 욕심 많은 성격을 유지하는 데 있다.

앞서 2장에서 살폈듯이 ‘징악’의 과정에서 군담의 이민족 출신 적대자들은 단순히 주인공에게 항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덕적 가르침을 받아 교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이는 중국을 침입하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이민족 적대자들이 다시는 중국을 침범하지 않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축융왕 또한 양창곡에게 항복한 뒤 중국에 반역했던 지난날을 뉘우치고 양창곡의 은덕을 뼈에 새겨 자자손손토록 잊지 않겠다고 말한다.[32]

이후 축융왕은 옥루몽-② 군담에서 양창곡과 강남홍이 한창 홍도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대

29) 서대석, 앞의 책, 183~207쪽.

30) 축융(祝融)이라는 명칭은 불의 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할 당시 만왕(南蠻王) 맹획(孟獲)의 부인이자 대단한 용맹을 가진 장수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옥루몽>-① 군담에서 만왕 나탁을 비롯한 남만의 이민족들을 정벌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삼국지연의>의 축융부인을 모티브로 삼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31) “운남국 츙늉동의 일긔 대왕이 잇스니 쳔하의 무빵ᄒᆞᆫ 영웅이오 대왕이 일긔 소괴 잇셔 뺭챵을 쓰미 만부 부당ᄒᆞᆯ 용밍이라 다만 츙늉대왕이 탐이 만하 녜믈이 젹은즉 즐겨 오지 아닐가 ᄒᆞᄂᆞ이다.” / “츙늉은 본ᄃᆡ 우직ᄒᆞ고 교ᄉᆞᄒᆞ미 젹은지라.” <옥루몽> 규장각본 5권 122~123쪽 / 6권 15쪽.

32) “원슈와 홍ᄉᆞ마의 이갓치 관곡ᄒᆞ믈 보고 감ᄉᆞᄒᆞᆫ 눈물이 비 오듯 ᄒᆞ여 손가락을 ᄭᅵ무러 뉴혈이 님니ᄒᆞ여 왈 과인이 비록 만믹지종이나 칠졍을 품슈ᄒᆞ여 목셕과 다르오니 엇지 원슈의 은덕을 ᄲᅢ의 삭여 ᄌᆞᄌᆞ손손이 감송치 아니리잇고.” <옥루몽> 규장각본 6권, 14~15쪽.

규모의 수군을 이끌고 등장한다. 그는 홍도국이 광활하여 후환을 남기기 쉬우므로 양창곡을 걱정하는 마음에 군사를 이끌고 왔다고 둘러대지만, 양창곡과 강남홍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 실상은 다르다.

> 원쉬 도독 장듕의 와 종용 고왈 상공이 츙늉의 먼니 와 슈고ᄒᆞᄂᆞᆫ 쯧슬 짐작ᄒᆞ시ᄂᆞ니잇가 도독 왈 ᄂᆡ 또ᄒᆞᆫ 의심ᄒᆞ미 잇ᄂᆞ니 랑은 몬져 말ᄒᆞ라 원쉬 소왈 츙늉은 욕심이 만흔 ᄌᆡ라 홍도지방이 광활ᄒᆞ여 남방 듕 소국이 아니니 츙늉이 반다시 이를 희긔ᄒᆞ여 쯧 두ᄂᆞᆫ 듯ᄒᆞ여이다 도독이 소왈 ᄂᆡ 또ᄒᆞᆫ 이를 의심ᄒᆞ노라 탈히의 무도ᄒᆞ미 셩명을 요ᄃᆡ치 못ᄒᆞᆯ진ᄃᆡ 홍도국을 진압ᄒᆞᆯ ᄌᆡ 업슬가 ᄒᆞ엿더니 인ᄒᆞ여 츙늉의 소원을 일워주미 무방ᄒᆞᆯ가 ᄒᆞ노라[33]

위 인용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축융은 딱히 양창곡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탈해가 다스리는 홍도국의 영토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욕심에 전쟁에 참여한 것이다. 중화에 의한 교화를 거쳤음에도 그의 욕심 많은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한 바가 없다. 양창곡은 이러한 축융의 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형당한 탈해의 뒤를 이어 그가 홍도국을 다스리게 한다.

즉 작중에서 축융이 명나라 군대를 돕는 것은 그가 항복과 교화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덕적 감화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함이다.[34] 중국 황제를 섬기는 번왕(藩王)으로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오히려 그를 명분삼아 사욕(私慾)과 실리를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양창곡과 강남홍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축융의 행위를 눈감아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껍게 여기는데, 이는 탈해의 사망 이후로 무주공산이 될 홍도국을 수습할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계산은 다른 고전소설 군담에 나타나곤 하는 중화의 가치와 도덕관으로 이민족을 감화·복속시키는 양상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 오히려 철저한 힘의 논리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국제관계의 본질이 허구의 소설 서사 속에서 엿보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홍도국왕 탈해의 인물 형상을 살펴보자. 탈해는 옥루몽-② 군담의 주요 적대자로 등장하며, 부인 소보살과 더불어 양창곡·강남홍의 군대에 대적한다. 나탁이나 축융왕과 마찬가지로 탈해 또한 대단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며, 지리의 이점과 매복계 등을 이용해 양창곡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를 종종 위기에 빠트리기도 한다.

하지만 탈해의 형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의 뛰어난 전쟁 수행 능력보다는 기본적인 성정(性情)에 있다. 탈해는 부친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패륜을 저지른 인물이며, 결국 전쟁에서 패하여 사로잡혔을 때도 충효의 도리로 자신을 꾸짖는 양창곡에게 항거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는다. 특히 여기서 그가 내세우는 논리는 상당히 흥미롭다.

> 도독이 소왈 쥰쥰ᄒᆞᆫ 오랑키 하ᄂᆞᆯ 놉흐문 모르니 비록 ᄎᆡᆨ망ᄒᆞᆯ ᄇᆡ 아니나 네 또ᄒᆞᆫ 쳔지간 오힝지긔를 타 오쟝 칠졍이 잇스니 네 죄를 네 엇지 모르리오 사ᄅᆞᆷ 되문 츙효가 읏듬이라 네 아비를 찬탈ᄒᆞ고 부ᄌᆞ지의를 모르니 강샹을 범ᄒᆞ미오 샹국을 침범ᄒᆞ니 군신지의를 모ᄅᆞ미라 ᄂᆡ 셩지를 밧ᄌᆞ와 비록 호싱지덕을 베풀고져 ᄒᆞ나 너갓치 무도ᄒᆞᆫ 유ᄂᆞᆫ 요ᄃᆡ치 못ᄒᆞ리로다 탈히 눈을 브릅쓰고 슈염을 거스려 왈 부귀지심은 사람마다 잇ᄂᆞᆫ ᄇᆡ라 무어시 이른 츙효뇨 과인이 만인을 ᄃᆡ젹ᄒᆞᆯ 용밍이 잇고 쳔하를 흔들 긔운을 가져시나 시운이 불힝ᄒᆞ여 이 지경의 일으니 네 엇지 간ᄉᆞᄒᆞᆫ 소ᄅᆡ로 츙효로 말ᄒᆞᄂᆞ뇨 네 져 닷ᄂᆞᆫ 즘싱을 보라 약ᄒᆞᆫ ᄌᆞ의 고기를 강ᄒᆞᆫ ᄌᆡ 먹ᄂᆞ니 예졀과 츙효ᄂᆞᆫ 교식ᄒᆞᆫ 말이라 과인의 압히 다시 발셜치 말나 ᄒᆞ거ᄂᆞᆯ 도독이 졔쟝을 도라보아 왈 이ᄂᆞᆫ 이른바 화외지밍이라 죽이지 아닌즉 엇지 이역 ᄇᆡᆨ셩을 징계ᄒᆞ리오 ᄒᆞ고 무ᄉᆞ를 명ᄒᆞ여 ᄲᅥᆯ니 ᄂᆡ여 버히라 ᄒᆞ니라[35]

---

33) <옥루몽> 규장각본 7권, 156~157쪽.
34) 유광수, 앞의 논문, 166~170쪽.
35) <옥루몽> 규장각본 7권, 158~160쪽.

위의 인용문에서 탈해는 부귀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며, 또한 충효와 같은 예의는 자연적인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이치를 교묘하게 가리는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36] 심지어 항복하면 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스스로 포기하고, 죽음조차 무릅쓰면서 본인의 신념을 관철하고 있다. 물론 작중에서 이는 양창곡에 의해 '화외지맹(化外之氓)', 즉 중원의 교화를 받지 못한 오랑캐의 어리석음과 탈해의 처형으로 일축된다. 하지만 유교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논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점은 흥미롭다.

이상으로 살핀 축융왕과 탈해의 경우는 결국 화이론의 이치에 따라 '화'가 '이'를 교화하고 복속시키는 이치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소설 밖 현실에서는 당연히 중국과 주변국들의 국제관계가 화이론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지만, 적어도 고전소설의 군담 내부에서는 그러한 이상적 세계가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립 및 마지막 징악의 과정을 통해 구현되곤 하였다. <옥루몽> 또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화이론의 이상적 흐름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축융왕과 탈해와 같은 인물들을 내세워 현실적인 국제관계의 면모를 보여주거나 혹은 유교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립하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3. 노균 - 간신(奸臣)의 내면 심리의 진솔한 묘사

본절에서는 옥루몽-③ 군담의 적대자형 인물인 노균의 형상에 주목해 본다. 참지정사(參知政事)라는 높은 지위의 권신(權臣)인 노균은 양창곡을 비롯한 충신들을 참소하여 조정에서 쫓아내거나, 미소년 동홍과 도사 청운을 끌여들여 황제를 미혹케 함으로써 정치를 어지럽게 만드는 등 간신(奸臣)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명나라가 혼란에 빠진 틈을 노리고 흉노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를 정벌하러 나섰던 노균은 오히려 변절하여 흉노와 결탁하고 반역자가 된다. 이후 양창곡이 나서서 흉노를 격파하는 와중에, 노균은 그와 은원(恩怨)이 있었던 명나라의 장수 뇌천풍에게 참살(斬殺)당하는 결말을 맞는다. 즉 노균은 지배이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적(叛賊)으로서, 용서와 교화의 여지가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인물이다. 시체조차 온전하게 남기지 못하고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는 묘사[37]에서 그의 행위에 대한 냉엄한 비판의 시선을 읽을 만하다.

그런데 작중에서는 노균의 행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어 흥미롭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 션위 오히려 노균의 가솔이 잇스믈 다힝ᄒᆞ야 즉시 셩샹에 세우고 크게 외여 왈 노도독은 셜이 항복ᄒᆞ라 도독의 가권이 여긔 잇스니 항복ᄒᆞᆫ즉 살 것시오 안인즉 쥭이니라 ᄒᆞᆫᄃᆡ 노균이 셩샹을 우어셔 보ᄆᆡ 과연 ᄌᆞ긔의 쳐쳡 가인이 완연이 나서 부르지져 울거ᄂᆞᆯ 노균이 춤아 보지 못ᄒᆞ야 긔운이 져샹ᄒᆞ야 징을 쳐 군ᄉᆞ을 물이고 진즁의 도라와 가만이 ᄉᆡᆼ각ᄒᆞ되 옛젹의 오긔ᄂᆞᆫ 안히를 쥭여 장슈 되믈 요구ᄒᆞ엿스니 내 이제 쳐ᄌᆞ을 고련ᄒᆞ야 엇지 뜻ᄃᆡ로 못ᄒᆞ리요 맛당이 션우을 쳐 ᄃᆡ공을 일운즉 족히 연왕의 권셰을 아슬 것시오 졍졍 부귀 극ᄒᆞᆯ 것시니 쳔ᄒᆞ의 무슈ᄒᆞᆫ 미인이 무비가속이 될지라 내 엇지 공명을

---

36) 해당 구절은 한유(韓愈)의 「송부도문창사서(送浮屠文暢師序)」(『고문진보후집(古文眞寶後集)』 2)에서 나온 이야기를 뒤집어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본디 금수와 같았다. 성인이 나온 다음에야 집을 짓고 살며 곡식을 먹고, 어버이를 받들고 윗사람을 존중하며, 산 사람을 부양하고 죽은 자를 장사지낼 줄 알게 되었다. <중략> 새들이 수그려 모이를 쪼다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고 짐승들이 깊은 곳에 숨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른 것들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함에 있다. 그럼에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다(之初生 固若禽獸然 聖人者立然後 知宮居而粒食 親親而尊尊 生者養而死者藏 <중략> 夫鳥俛以啄 仰而四顧 夫獸深居而簡出 懼物之爲己害也 猶且不脫焉 弱之肉 强之食)."

37) "쳔풍이 눈을 부릅쓰고 도치를 들어 ᄒᆞᆫ번 찍으ᄆᆡ 뇌균의 머리븟터 젼신을 ᄉᆞ못ᄎᆞ ᄊᆞ기여 일긔 뇌균이 삽시간에 두 죠각 뇌균이 되여 마ᄒᆞ에 ᄂᆡ려지니 슬푸다 소인의 만복잡념이 놀난 혼을 ᄯᆞᆯ아 경각의 도치 ᄭᅳᆺ히 ᄒᆞᆺ터지니 유유ᄒᆞᆫ 구원야의 ᄯᅩᄒᆞᆫ ᄒᆞ소할 곳지 업슬지라 엇지 ᄒᆞ날이 무심ᄒᆞ리오." <옥루몽> 규장각본 10권, 26~27쪽.

벼려 가속을 구ᄒᆞ리오 ᄒᆞ더니 홀연 다시 탄왈 내 비록 대공을 셰우나 황상의 발그시므로 왕ᄉᆞ을 ᄒᆞᆫ변 츄회ᄒᆞ면 그 공을 가져 죄을 쇽ᄒᆞ지 못ᄒᆞ리니 이ᄂᆞᆫ 다만 무죄ᄒᆞᆫ 쳐ᄌᆞ를 죽일 다름이로다 ᄒᆞ야 의ᄉᆡ 측급ᄒᆞ야 좌불안셕ᄒᆞ더니 졍신이 취ᄒᆞ야 잠간 잠들ᄆᆡ ᄉᆞ몽비몽 즁 일위 션관이 머리에 통텬관을 쓰고 몸의 강사포을 입고 한 손으로 하ᄂᆞᆯ을 밧들고 ᄒᆞᆫ 손으로 칠셩검을 들어 ᄌᆞ긔을 치거ᄂᆞᆯ 놀나 ᄭᆡ치니 남가일몽이라 <중략> 노균이 보기을 맛치ᄆᆡ 머리을 슉이고 반힝을 침음ᄒᆞ더니 다시 글월을 펴보고 촉불을 바라보며 셔안을 의지ᄒᆞ야 눈을 감고 즘든 듯 ᄒᆞ다가 손을 들어 셔안을 치며 전연이 일어안져 탄왈 ᄂᆡ 앗가 몽죄 또한 불길ᄒᆞ니 죽어 욕되미 살아 영화홈만 ᄒᆞ리요[38]

황제의 명을 받고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선 노균은, 전장에서 그의 가족들을 볼모로 삼은 흉노왕에게 변절을 강요당한다. 잠시 군대를 물리고 장막에 틀어박힌 노균은 하룻밤을 새면서 흉노에게 항복하여 가족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인지 고민한다. 그러나 설혹 자신이 흉노군을 물리친다고 해도 이미 국정(國政)을 어지럽힌 만큼 훗날 죄를 추궁당할 것임을 깨닫고, 여기에 불길한 꿈[39]까지 꾸자 끝내 변절을 택한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더라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고 죄인으로 역사에 남을 바에는, 차라리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균의 방황과 고민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선악대립 이전의 우리 내면에 잠재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부각시키는'[40] 인물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노균은 많은 고전소설 군담의 적대자들과는 달리, 확고한 신념과 야망을 바탕으로 황제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반역의 길을 택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의 반역은 여타의 고전소설 군담에 등장하는 반역자들처럼 치밀하고 의도적인 사전 계획으로부터 촉발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주변 상황에 몰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가깝다. 비록 간신으로서 나라를 어지럽힌 인물이지만 딱히 반역자의 길을 걷고자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반역을 고민하는 와중에도 '황상(皇上)의 밝으심으로'와 같은 존칭을 사용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노균은 최소한의 황제에 대한 충심과 신하로서의 본분을 지키려는 마음 또한 아주 없는 인물이 아니다. 더불어 오기(吳起)의 고사를 따라 처자들을 버리고 훗날 새로이 미인들을 얻어 즐기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처자들의 비참한 몰골에 심적으로 고통받으면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작중에서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노균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이상과 그에 반대되는 인간 본연의 욕망 사이의 심각한 충돌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상으로 살핀 바와 같이, <옥루몽>에서는 긴 분량을 할애하여 노균이 변절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한 심경을 구구절절하게 묘사한다. 그리하여 반역죄와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한 분명한 징치를 시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순한 악인으로 치부할 수 없는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인물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생존과 부귀 등의 욕망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휘둘리는 존재이며, 더불어 마냥 단순한 선악의 구분으로 나눌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었다고 하겠다.

3-4. 소보살과 청운 - 지상 질서와 유리된 초월존재의 형상화

본절에서는 옥루몽-②, 옥루몽-③ 군담의 적대자형 인물인 소보살과 청운의 경우에 주목해 본

38) <옥루몽> 규장각본 9권, 49~56쪽.

39) <옥루몽>의 양창곡은 문창성군(文昌星君)의 화신으로 묘사되며, 노균의 꿈은 양창곡의 군대가 노균을 단죄하는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이다.

40) "특히 두 사람의 관계는 표면상에 노정되어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의 대결이자 충신과 간신의 대결, 효와 불효의 대결로 집약되는 반면, 이면적으로는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노균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이 작품에서 악의 대표격인 노균은 우리의 내면 속에 늘 잠재되어 있는 형상일 수도 있다." 심치열, 앞의 논문, 197쪽.

다. 두 인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함께 서술하기로 한다.

소보살은 옥루몽-② 군담에서 탈해의 부인으로 등장하며, 지략이 뛰어나고 요술에 능통한 것으로 서술된다. 자신의 능력으로 남편 탈해를 보좌하면서 함께 명나라 군대에 맞서 여러 차례의 접전을 벌인다. 도사 청운은 세상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도술을 발휘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다가 노균의 주선으로 황제와 만난다. 청운의 능력에 감탄한 황제는 정사(政事)에 뜻을 잃고 청운의 가르침을 좇아 신선술에 탐닉하게 되며, 이로 인해 명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이후 청운은 노균과 함께 흉노를 정벌하러 갔다가, 노균이 변절하자 그를 좇아 흉노군에 가담한다.

그런데 소보살과 청운은 소보살의 실체는 둔갑한 여우 요괴로,[41] 강남홍의 스승인 백운도사(白雲道士)가 강남홍에게 기문둔갑(奇門遁甲)의 술수를 전수할 때 근처에 몰래 숨어서 같이 강론을 듣고 도술을 깨우쳐 그 힘으로 탈해의 변란에 가담한다. 한편 청운은 백운도사가 데리고 다니던 도동(道童)이자 강남홍과 함께 도술을 수련한 사제(師弟)이다. 본질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세상에 나왔을 때는 도술을 부려 원숙한 도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다닌다. 사형인 강남홍이 하산하고 백운도사 또한 서천(西天)으로 돌아가서 혼자 산중에 남아 있다가, 외로움과 자기 재주를 세상에 펼치고 싶은 마음에 은거를 깨고 속세에 나와 노균과 결탁하고 야율선우를 돕는 등 명나라를 혼란에 빠트린다. 즉 소보살과 청운은 본질적으로 지상계가 아닌 초월계(천상계) 출신의 인물이며,[42] 강남홍과 더불어 백운도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이이기도 하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소보살과 청운에 대한 징악의 양상이다. 작중에서는 강남홍이 직접 나서서 이들의 도술을 깨트리고 질책하여 지상계를 떠나게 만드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우선 소보살의 경우를 보자.

> 홍원쉬 소보살의 ᄋᆡ걸ᄒᆞᄂᆞᆫ 말을 듯고 침음양구의 보졔쥬를 거두고 크게 소ᄅᆡᄒᆞ여 왈 <u>요물은 ᄉᆞᆯ리 가라 만일 다시 작난ᄒᆞᆫ즉 ᄂᆡ 오히려 부용검이 잇ᄂᆞ니라</u> ᄒᆞ니 소보살이 머리 조와 ᄇᆡᆨᄇᆡ 사례ᄒᆞ고 몸을 근두쳐 변ᄒᆞ여 일ᄀᆡ 여회 되여 간ᄃᆡ 업거ᄂᆞᆯ 졔장 이히 막블ᄃᆡ경ᄒᆞ여 원슈게 고왈 이갓치 요ᄉᆞᄒᆞᆫ 거술 노하보내시니 엇지 타일 근심이 되지 아니리잇고 원쉬 미쇼ᄒᆞ고 이에 ᄇᆡᆨ운동의셔 여ᄎᆞ여ᄎᆞᄒᆞ믈 말ᄒᆞ고 <u>녜부터 호졍의 작난ᄒᆞ믈 그 사ᄅᆞᆷ을 안연ᄒᆞ미니 국가 ᄐᆡ평ᄒᆞ고 사ᄅᆞᆷ이 덕을 닥근즉 졔 엇지 작난ᄒᆞ며 시졀이 불힝ᄒᆞ고 사ᄅᆞᆷ이 착지 못ᄒᆞᆫ즉 심산궁곡의 호졍이 무슈ᄒᆞ니 엇지 다 죽이리오</u> ᄒᆞ더라[43]

위 인용문에서 강남홍은 소보살을 크게 꾸짖기는 하지만, 특별한 처벌이나 제약을 걸지는 않고 다시는 지상계에서 난리를 피우지 말라며 돌려보낸다. 주변의 부하 장수들이 이 처분에 놀라고 걱정하지만, 강남홍은 '여우 요괴의 작란(作亂)은 사람들이 덕을 닦지 않고 시대가 수상하여 그런 것이지 요괴의 탓이 아니다'라며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한다. 무사히 풀려난 소보살은 강남홍의 말대로 이후에는 다시 작중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대신 후일 옥루몽-③ 군담에 다시 등장하여 강남홍이 다른 여우 요괴들을 진압할 때 도움을 준다. 물론 이 때도 위 장면과 같이 심각한 무력 충돌이나 살상 장면이 없이 여우 요괴들을 꾸짖고 쫓아내는 데 그친다.

여기서 드러나는 강남홍의 소보살에 대한 태도는 대단히 관용적이다. 소보살은 탈해의 부인이 되어 중국을 침범하고 명나라 군대에 맞서 인명을 살상하는 등 주인공 측의 입장에서는 좌시하기 어려운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다. 강남홍의 질책을 받고 다시는 지상계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는

41) 비단 <옥루몽> 외에도 고전소설에서는 여우 요괴가 종종 등장한다. 이후남의 분석에 따르면 탕자(蕩子), 음녀(淫女), 요승(妖僧)을 대체하는 역할을 주로 맡으며, 동물 태생의 요괴 중에서도 여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이후남,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요괴 연구 -여우 신묘랑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8, 한국고소설학회, 2019, 190~193쪽).

42) 작중에서 주인공 양창곡과 강남홍을 비롯한 여러 주요 인물들은 천상의 선관·선녀의 적강(謫降)이므로 이들 또한 근본적으로는 초월계 출신이다. 하지만 양창곡 등이 전생의 기억을 잃고 지상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반면, 소보살과 청운은 적강의 과정 없이 처음부터 초월계의 인물로서 등장한다는 점이 다르다.

43) <옥루몽> 규장각본 7권, 156~157쪽.

약속을 남기기는 하였으나, 인용문에 나타난 장수들의 우려처럼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4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홍은 불과 몇 마디 말로 그에 대한 '징악'을 마무리짓는다.

한편 도사 청운의 경우에도, 소보살과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 홍낭이 졍식 왈 ᄉᆞ뷔 셔쳔으로 가실 제 너을 경계ᄒᆞ시며 인간의 망영도이 츌각지 말나 ᄒᆞ시믄 다름 아니라 너 쳔셩이 경솔ᄒᆞ야 잡슐을 조화ᄒᆞ믈 념여 ᄒᆞ시미라 네 이제 요망한 슐법으로 쳔지신명게 ᄃᆡ죄을 짓고 청졍ᄒᆞ신 우리 ᄉᆞ뷔의 공덕을 희졋시니 내 엇지 셕일 형제지졍을 도라보와 용셔ᄒᆞ리요 내 슈즁의 일빵 부용금이 잇스니 맛당이 네 머리을 벼혀 ᄉᆞ부게 ᄉᆞ례ᄒᆞ리라 <중략> 홍낭이 본ᄃᆡ 다졍인ᄌᆞ한 ᄌᆡ라 바야흐로 청운의 손을 잡고 합누 왈 내 졍셩의 부모형졔지졍를 모르고 표박종적이 산중의 의탁ᄒᆞ야 사부를 부모로 알고 너를 동긔갓치 졍을 붓쳐 비록 풍진남북의 회합홀 긔약이 업스나 셔쳔 타일의 인연을 다시 이어 즐길가 ᄒᆞ엿더니 네 엇지 ᄉᆞ부의 훈계를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이갓치 세상를 요란케 ᄒᆞᄂᆞ요 내 어제밤 쑴의 ᄉᆞ부를 뵈오ᄆᆡ 흔 마대 말ᄉᆞᆷ이 업고 다만 비창흔 빗치 계시ᄉᆞ 십연 산즁의 고졍을 ᄉᆡᆼ각ᄒᆞ라 ᄒᆞ시더니 너을 부탁ᄒᆞ시미라 내 엇지 너을 부탁ᄒᆞ신 것을 져바리리요 쌀리 도라가 산중의 도을 닥가 망심이 업슨 후 공부을 일우리라[45]

작중에서 청운은 흉노군의 편이 되어 명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밤중에 몰래 명나라 진영으로 잠입했을 때 자신이 싸우던 상대가 함께 백운도사 밑에서 수학한 강남홍임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항복한다. 강남홍은 청운이 조용히 은거하여 도를 닦으라는 스승의 당부를 저버리고 요사스러운 술법을 펼쳐 지상계를 어지럽혔으니 마땅히 자신의 칼에 죽어야 한다고 크게 꾸짖는다. 그러면서도 이내 태도를 바꾸어 고아 출신인 자신이 부모형제처럼 여기는 백운도사와 청운에 대한 애정을 고백하면서, 청운을 용서하여 돌려보낸다. 즉 청운의 악행에 대한 징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던 사형제 사이의 회포를 풀고 개인의 애틋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

앞서 살핀 소보살의 경우처럼, 청운에 대한 강남홍의 처우 또한 '징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애매할 만큼 관용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작중에서 청운의 죄악은 결코 작지 않다. 간신 노균의 주선이었다고는 하지만 황제가 정사를 잊고 신선술에 탐닉하게 만들었으며, 그 틈을 타서 흉노군이 중국으로 쳐들어와 수도까지 함락시킬 정도로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다. 나아가 흉노의 편으로 돌아선 노균을 따라 흉노군에 가담하여 명나라 군대와 싸우기도 하였다. 악행의 비중으로 따진다면 노균과 더불어 작중에서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이러한 청운의 '악행'이 어떤 악한 심성이나 의도로부터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어린아이의 경망스러움과 치기로부터 촉발되었다는 데 있다. 청운은 백운도사의 당부를 저버리고 세상에 나와 혼란을 일으킨 것은 홀로 산중에 있는 무료함과 쓸쓸함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며, 자신의 재주로 세상 사람들을 한 차례 놀래킨 다음 다시 산중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고백한다.[46] 그가 처음에는 명나라 진영에 있었다가 노균을 따라 변절한 것도 세상에 이름이 높은 양창

---

44) 실제로 후일 강남홍이 소보살과 재회했을 때, 강남홍은 다른 여우 요괴들의 작란을 소보살의 행위로 착각하고 전일 약속을 어겼다며 꾸짖기도 한다.

45) <옥루몽> 규장각본 9권, 154~157쪽.

46) "ᄉᆞ형은 만왕을 ᄯᆞ라 ᄒᆞ산ᄒᆞ고 사부ᄂᆞᆫ 셔쳔으로 가시니 젹막흔 빅운동의 누가 와 마음을 붓치리요 청산의 ᄭᅩᆺ치 더져지고 향노의 불이 ᄉᆞ라지니 인ᄉᆡᆼ 빅연의 무뢰ᄒᆞ믈 견ᄃᆡ지 못ᄒᆞ야 잠간 쳔하을 구경코져 동으로 부상을 보고 셔흐로 양목을 ᄎᆞ져 북방을 현답ᄒᆞ고 즁귝의 일으니 도모지 취몽세계오 가소인셩이라 츌즁흔 인물과 탁월흔 ᄌᆡ국이 우리 ᄉᆞ형 갓흔 ᄌᆞ 업스니 청운이 과연 어린 속연으로 한 변 도슐을 빗내여 인간을 놀내이고 갈가 ᄒᆞ엿더니 듯박게 ᄉᆞ형을 이곳의 만나믄 이 ᄯᅩ한 인연과 운슈라 무비 ᄒᆞᄂᆞᆯ이 지도ᄒᆞ신 ᄇᆡ니 ᄉᆞ형은 용셔ᄒᆞ소셔." <옥루몽> 규장각본 9권, 155~156쪽.

곡과 재주를 겨루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47] 청운의 본질을 염두에 둘 때, 결국 어린아이의 치기에 지상계의 중심인 중국 전체가 휘둘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작중에서 연출된 셈이다. 더불어 청운의 성격은 일반적인 권선징악의 구도에서 나타나는 악인의 형상과도 거리가 멀다.

심지어 강남홍의 질책을 받은 뒤에도 청운의 장난기와 성급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서로 회포를 푼 직후에, 청운은 양창곡이 강남홍의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는 강남홍이 미처 말리기도 전에 호기심에 차서 파리로 변신하여 양창곡을 훔쳐보고는 돌아온다. 그런가 하면 바로 직전까지 자신이 가담하고 있었던 흉노군의 진영에 가서 흉노왕 야율선우의 목을 베어 돌아오겠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강남홍이 청운을 꾸짖은 것은 청운이 생각 없이 도술을 부려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이었는데, 크게 질책을 받은 후에도 철없이 본인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청운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소보살과 청운에 대한 '징악'의 양상은, 작중의 다른 적대자형 인물들에게 주어지는 징악의 과정과 비교할 때 대단히 간략할 뿐만 아니라 강남홍이라는 개인의 차원에서 임의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나탁이나 축융왕과 같이 비교적 무난히 용서받고 왕작을 비롯한 종래의 지위와 세력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그렇다. 나탁과 축융왕은 대단히 길고 복잡한 항복의 의례를 거친 끝에 중국 황제에게 용서받고 상호 군신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을 대가로 풀려난다. 반면 소보살과 청운은 위의 두 인용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강남홍 개인의 판단으로 용서를 받는다. 그 의도와 개인의 선악을 떠나서 소보살과 청운은 중국에 심각한 폐단을 끼친 인물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그에 마땅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중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악'이 매우 간편하게 처리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살핀 소보살과 청운에 대한 징악의 약화 혹은 부재는 그들의 출신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초자연적 능력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소보살과 청운 같은 초월계 출신 존재들의 지상 개입은 사실상 천재지변에 가까운 재앙이다. 이들에 대적하기 위해 <옥루몽>에서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초월계의 직접적인 개입을 얻은 강남홍을 내세운다. 하지만 강남홍은 지상계를 어지럽히는 그들을 꾸짖고 내쫓아 다시금 초월계로 돌아가게 할 뿐이며, 지상의 법과 질서에 기반하여 징치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작중 초월계가 지상의 지배질서를 긍정하고 선도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온전히 지상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서로 유리된 지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상계의 지배질서 혹은 선악의 구도가, 그보다 상위에 있는 천상 존재에 대해서는 구속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많은 고전소설에서는 소보살과 청운을 연상시키는 요괴 혹은 사악한 도사 출신의 인물이 등장하여 주인공과 대립하다가, 끝내는 사로잡혀 국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거나 살해당하는 장면이 흔하게 등장한다. 앞서 2장에서 살핀 바 있는 <완월회맹연>이나 <조웅전>의 경우가 그러하다. 작중 적대자인 안남왕과 이두병과 결탁하여 중국에 대적하던 요괴와 도사가 등장하며, 마지막에는 주인공에게 살해당하거나 사로잡혀 항복과 교화의 과정을 거치곤 한다. 하지만 <옥루몽>에서는 선악의 구분조차 모호한 동물이나 어린아이를 내세우고 제대로 된 징악의 과정조차 생략한다. 이를 통해 지상계의 권선징악적 가치관에 동조하면서도, 다른 한켠에서는 그에 구애받지 않는 불가해(不可解)한 성격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다.

4. 군담 속 징악의 소설사적 의미

47) "ᄂᆡ 십연 산즁의 잇셔 도를 닥가 공부을 일워시니 장찻 쳔ᄒᆞ을 주류ᄒᆞ야 한변 높푼 ᄌᆡ조을 만나 우열을 질졍코져 ᄒᆞ엿더니 연왕의 ᄌᆡ국이 니갓흘진ᄃᆡ 흔변 ᄌᆡ조을 결워 보리라." <옥루몽> 규장각본 9권, 59쪽.

소설사적으로 볼 때, <옥루몽>이 창작되었던 19세기는 한문장편소설의 출현, 방각본 출판을 중심으로 한 소설의 상품화,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상호 번역과 각계각층의 교섭을 통한 소설 독자 저변의 확대 등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움직임들을 포착할 수 있는 시기이다.[48] 특히 이 시기에 <옥루몽>과 같은 당대의 사대부 지식인들이 창작한 여러 편의 장편소설[49]이 등장한 점은 흥미롭다. 물론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든가 김만중의 <구운몽>처럼, 이름이 알려진 지식인의 소설 창작과 그를 통한 소설의 문학 갈래적 성숙과 지위 향상은 이미 이전 시기에도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19세기에는 그 사례가 부쩍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의 소설 창작에서 전문성이나 작가주의적 태도가 엿보인다는 점[50]에서 괄목할 만하다.

19세기 조선 사회는 조선의 중흥기를 이룩했던 정조(正祖) 시대의 끄트머리로부터 외세의 침탈이 본격화되는 구한말 시기에 닿는 중간 지점의 위치를 점한다. 즉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19세기 지식인의 소설 창작 또한 당대의 이행기적 시대사조를 적잖이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문을 중심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51] 중세의 창작 관습을 따르면서도 그 안에서 기존 이념을 근저에서부터 해체해 나가려는 시도였다는 견해,[52] 당대 지식인들의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불만을 소설 속 새로운 구성 방식으로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벌였으나 종종 그 과정에서 부족함을 드러내었다는 견해,[53] 소설의 문예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작가적 기량을 뽐내는 한편 현실 비판의식을 담아내고자 하면서도, 보수적 관념과 제도 하에 머무르면서 19세기의 역동적인 시대상에 부합하는 인식적 성취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다는 견해[54] 등이 그것이다. 단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소설 작가들이 기존의 이념과 세계관이 지닌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옥루몽> 속 군담의 기본 대립 구도와 그에 나타난 징악의 문제 또한 넓게는 이러한 이행기적 사조의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만하다. 기본 구성의 측면에서는 전대의 고전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권선징악'의 주제와 전개 방식을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징악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적대자형 인물들의 입체적 형상을 통해 선악 대립의 구도를 넘어서는 특수성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앞서 3장에서 살핀 바를 다시 되짚어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자.

3장 2절에서 축융왕과 탈해의 경우를 통해 이민족에 대한 교화의 한계점이 드러남을 언급하였다. 이 문제는 군담의 선악을 구분하는 중요한 두 기준 중의 하나인 화이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래는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관으로서 작용했던 화이분별의 문제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주자학적 세계관과 소중화주의의 결합을 통해 양란의 위기에 맞서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특히 명나라의 멸망과 함께 중화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라는 자부심과, 중화를 위협하고 명나라를 멸망시키기까지 한 외세에 대한 적개심 및 복수의식은, 각각 '존중화(尊中華)'와 '양이적(攘夷狄)'이라는 화이론을 이루는 두 가지 주요한 논리의 바탕이었다.

---

48)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쟁점과 전망」,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31쪽.

49) 보통 이 작품들은 '한문장편소설'로 호칭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옥루몽>과 같은 국문·한문의 선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장편소설'로 호칭하고 필요할 경우 한문장편소설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50) 김경미,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과 의미」, 『한국문학연구』 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0, 205쪽.

51) 본고에서 다룬 <옥루몽> 또한 국문원작설·한문원작설과는 별개로 내용과 문체, 그리고 한문본과 국문본이 모두 여럿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문과 한문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작품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52) 김경미,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과 의미」, 앞의 논문, 232쪽.

53) 전성운, 『조선 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사, 2002, 363~381쪽.

54) 이지하,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여성형상화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375~376쪽.

고전소설 군담에 이를 적용시켜 본다면, 국경 밖 이민족들을 비단 무력으로 제압할 뿐만 아니라 유교이념에 기반한 덕화로써 교유하고 복속시키는 장면들은 존중화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북적'으로 묘사되는 북방 출신의 이민족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살려두지 않고 잔인하게 징치하는 것은 복수설치의식이 반영된 양이적의 관점이 드러났다고 하겠다.[55] <옥루몽>-①과 <옥루몽>-② 군담에서 양창곡이 나탁과 축융왕, 탈해 등 남방 출신의 적대자들을 사로잡고 이들을 회유 및 교화시키려 하는 것은, 존중화의 논리 하에 '중화의 선진적인 문명과 도덕관으로 국경 밖 오랑캐들을 교화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화이론-존중화의 논리, 특히 중화 문명이 그 바깥의 문명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그로써 이민족의 침입을 막고 군신관계로 복속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조선 후기의 화이론은 병자호란으로 촉발된 굴종과 치욕의 역사를 극복하고자 했던 자기위안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그리고 화이론의 원류인 중국 또한 명·청의 교체와 청나라의 흥성으로 화이론 자체가 허구에 가까움을 이미 증명하는 상황이었다. 하물며 냉엄한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관계에서 덕화로 상대방을 복속시킬 수 있다는 것은 허상에 가까웠다.

단 현실 속 상황과는 별개로, 고전소설 속 허구의 서사에서는 화이론의 낭만적 이상에 바탕하여 이민족을 복속시키는 서사를 끊임없이 등장시켜 왔다. 하지만 <옥루몽>에서는 그러한 낭만적 이상에 온전히 동조하지 않는다. 중국에 항복하고도 그 자신의 본성을 바꾸지 않고 정복욕을 여실히 드러내는 축융왕과 그의 행위를 기꺼이 용인하는 양창곡·강남홍의 선택은 매우 현실적이다. 더불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화의 바탕이 되는 유교이념에 반발하고 도전하는 탈해와 같은 인물을 형상화하는 점은 한층 더 흥미롭다. 탈해를 용서 없이 처단하고 그의 신념 또한 어리석은 오랑캐의 행위라고 하여 논란을 최소화하고는 있으나, 이상적으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약간의 반론도 용납하지 않아야 할 중화의 가치와 반대되는 측의 입장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옥루몽>의 등장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문학 속 상상의 영역에서조차 화이론의 절대성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3장 3절에서 살핀 노균의 경우를 보자. 작중 노균과 그에게 주어지는 징악의 형상은, 고전소설 군담에서 화이론과 함께 선악 구분의 주요한 두 기준 중 하나였던 '충'의 문제이다. 유교이념에 큰 영향을 받았던 동아시아 전근대 사회에서 군신 사이의 의리를 강조하는 '충'은 부자(父子) 사이의 의리를 강조하는 '효(孝)'와 결합하여 한 치도 훼손될 수 없는 덕목이자 가치로서 존재하였다. 그 절대성이 전제되는 만큼, <옥루몽> 군담에서도 이 충의 관념 자체에 대한 의문 혹은 균열의 양상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화이론과 그에 관련된 적대자들의 형상과는 분명히 경우가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도 <옥루몽>에서 흥미롭게 주목할 것은, '충'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자연히 촉발될 수밖에 없는 갈등의 양상을 배반의 주체인 노균의 심리 묘사를 통해 세심하게 그려내는 데 있다.

전근대 사회에서의 충은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헌신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강제할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강제적이고 비합리적인 억압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전에 나서기 전 처자를 모두 죽였다는 백제 장군 계백(階伯)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비단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선'의 영역에 속하는 가치와의 충돌이 초래되기도 했던 것이다. <옥루몽>의 노균 또한 서로 상충하는 가치의 딜레마 속에서 결국 변절을 택한 인물이다. 가족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가? 과연 가족애와 처자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국가에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가? 나아가 누구에게나 목숨은 소중한 것인데, 그를 거리낌없이 버리는 일이 과연 쉬운가?

---

55) 주로 사대부가에서 향유된 장편소설에서는 전자의 경향이 드러나는 반면, 단편의 영웅군담소설에서는 후자의 경향이 두드러진다(서정현, 앞의 논문, 30~32쪽).

심지어 작중에서 노균은 어떤 확고한 신념과 악의로 가득 차서 반역의 길을 선택하는 인물도 아니다. 자기 자신의 지나친 탐욕이 근본 원인이었기는 하지만, 스스로도 의도치 않았던 선택의 기로에 내몰린 끝에 반역자가 된 것이다. 이처럼 주변 상황과 사건에 흔들린다는 점에서 그는 여느 고전소설의 적대자들과는 다른 소시민적이고 유약한 면모를 뚜렷이 보여준다.

물론 <옥루몽>은 자칫 반역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서술을 의식한 것인지, 작중에서 일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노균이 흉노왕의 협박을 받기 전에도 이미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간신이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토로하는 과정에서도 처첩을 죽이고 새로이 미녀들을 얻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충동적인 생각을 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56]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균의 방황과 고민은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작중에서 여전히 충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인공 양창곡과 같은 고난을 참고 견딜 인내심과 능력, 그리고 하늘의 도움까지 얻은 영웅이 아니라면, 과연 충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 4절에서 살핀 소보살과 청운, 그리고 그에 얽힌 초월계-지상계의 구분 문제에 주목해 보자. 고전소설의 초월계, 혹은 천상계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인간사(人間事)가 전개되는 지상계와 대별적으로 존재하면서 이원론적 세계관을 작중에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초월적 갈등해결 방식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심리적으로 극복하게 하는'[57] 역할을 맡는다. 지상에서는 극심한 갈등이 반복되고 무질서와 악업(惡業)이 횡행하는 반면, 초월계는 그러한 지상계가 따라야 할 모범적이고 조화로운 세계로서 지상계를 계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초월계의 행사는 절대적인 천리(天理)로서 정당화되며, 현실의 반영인 지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이적(異蹟)을 빈번하게 일으켜 주인공들의 여정을 돕는다.

그런데 이 초월계는 기실은 당대 소설 담당층의 이념적 가치와 소망을 고스란히 투영한 이상향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작중 묘사되는 지상과의 분명한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초월계가 표상하는 천리는 지상적 관념 혹은 가치와 대단히 가깝다. 담당층의 이상이 투영된 만큼 역으로 그들의 사상관과 도덕윤리로부터 유리되기는 힘든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초월계는 소설을 창출한 당대의 규범과 질서를 '하늘(초월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여 정당화하고 절대화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옥루몽>을 포함한 고전소설 군담 속 권선징악의 구도 또한 이러한 초월계의 작용과 개입을 통해 정당화된다. 예를 들어 <옥루몽>에서 단연 주목되는 것은 여성영웅 강남홍이다. 그녀는 문수보살(文殊菩薩)의 화신(化身)인 백운도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초월적 능력을 얻고,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양창곡과 함께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다. 특히 강남홍은 남편인 양창곡보다도 군사적 능력에서 우위에 있으며, 그 바탕은 그가 백운도사로부터 받은 초월계의 능력에 있다. 초월계 출신이며 강남홍과 같이 백운도사의 가르침을 받은 소보살과 청운 또한 작중에서 거의 적수가 없는 활약을 보이는데, 이들 또한 강남홍과 대면했을 때는 변변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쉽게 제압당한다. 이 점에서는 <옥루몽>의 초월계가 주인공의 편을 들어 선악대립의 일반적 구도를 올바르게 실현한다고 하겠다.

문제는 앞의 3장 4절에서 이미 확인하였듯이, 강남홍이 제압한 소보살과 청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청운의 경우가 눈에 띄는데, 그는 근본적으로 선악의 구분이 모호한 인물이다. 다른 적대자형 인물들인 축융왕과 탈해, 노균 등은 그 입체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악인'으로서의 심성을 드러내거나(탈해, 노균), 혹은 적어도 제압당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성격을 보여준 인물이다(축융왕). 하지만 청운은 별다른 선악의 인식 없이 그저 치기와 호승심에 따라 행동하는 소년일 뿐이며, 작중에서는 그러한 성격을 교정하는 과정조차 거의 생략되어 있다.

---

56) 물론 이 발언과는 별개로 노균

57) 조재현, 『고전소설의 환상세계』, 월인, 2009, 328쪽.

<옥루몽>에서 이러한 초월계 인물들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은 지상계를 선도해야 할 초월계가 정작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불가해한 형상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고전소설에서 초월계와 지상계를 구분하고 '이원적 세계관'으로 호칭하는 것은, 악업이 성행하면서 조화롭지 못한 지상계와, 반대로 절대적인 '선'이며 조화로운 세계로서 지상계를 계도하는 초월계(천상계)의 대비에 기인한다. 하지만 <옥루몽>에서는 초월계 출신 존재들에 대한 징악의 불완전함과 선악 구분의 모호함을 통해, 초월계와 지상계 양자의 거리감을 다른 방면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즉 <옥루몽>에서는 선악 구분의 절대적 지표였던 초월계-지상계의 이원화된 세계관에 대한 의문과 균열을 제기함으로써, 다른 고전소설의 구성과는 대비되는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하려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옥루몽> 군담은 '권선징악'에 기반하는 선악 대립의 구도,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 기준인 화이론과 '충'의 관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로부터 촉발되는 균열과 일탈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문제는 그것이 반중세적·반봉건적 사상을 여실하게 드러내거나, 기존의 지배이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근대적 이념과 질서의 모순 및 한계를 인식하고 지적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다시 그를 고수하는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이율배반적이고 과도기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단 <옥루몽> 속 군담만이 아닌 작품 전반, 나아가서는 다른 19세기 지식인들의 소설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성과이자 한계라고 하겠다.

그런데 <옥루몽> 군담과 관련지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러한 이행기적 성향이 비단 이 작품만이 아닌 이 시기에 성행한 여러 고전소설 군담에서도 종종 찾을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같은 사대부 지식인의 장편소설 작품인 <삼한습유(三韓拾遺)>에서 천군(天君)과 마군(魔軍)이라는 두 거대한 선악의 싸움을 그리면서도 그 세부적인 전개 양상과 인물의 형상화, 그리고 징치의 과정은 단순한 권선징악적 구도를 넘어서는 점, <유충렬전>의 주인공 유충렬이 비록 적대자이자 원수인 정한담만이 아니라 황제에 대해서도 정한담을 신용한 어리석음을 정면에서 지적하는 점,[58] <조웅전>에서 조웅과 이두병의 대결이 황제를 속이면서 보위하는 이두병의 위치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주인공이 마치 중국과 황실에 대적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유충렬전>과 <조웅전> 군담의 전개 양상은 흥미로운데, 비단 <옥루몽>의 저자 남영로와 같은 나름대로 저명한 지식인 계층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상품화를 통해 대중성을 추구하기에 기존의 지배이념과 영합해야만 했던 작품에서조차도[59] 이행기적 시대의 변화가 숨길 수 없이 드러났던 것이다.

결국 <옥루몽> 군담 속 악인형 인물들과 그들에 대한 징악의 문제는, 전근대적인 화이론이나 '충'의 논리, 그리고 그에 기반한 선악의 구분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은 비단 <옥루몽>만이 아닌 19세기 고전소설사 전반의 과도기적 흐름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맺음말

58) "소장은 동선문ᄂᆡ 거ᄒᆞ던 정언주부 유심의 아달 츙열이옵더니 주류기걸ᄒᆞ야 말리 밧씨 잇삽다가 아부 원수 갑푸랴고 여긔 잠간 왓삽거니와 폐하 정한됨의게 곤핍ᄒᆞ심은 몽즁이로소이다 전일의 정흔담을 츙신이라 ᄒᆞ시더니 츙신도 역적이 되난잇가 그놈의 말을 듯고 츙신을 원찬ᄒᆞ야 죽이고 이런 환을 만나시니 천지 아득ᄒᆞ고 일월이 무광ᄒᆞ옵ᄂᆡ다 실피 통곡ᄒᆞ며 머리를 짜의 두달리니 산천초목도 시러ᄒᆞ며 민준 즁이 낙누 안이ᄒᆞ리 업더라 천자 이 말을 드르시고 후회막급 홀말 업셔 우두건이 안자더니…." <유충렬전> 완판본 권지하, 2~3쪽.

59) <유충렬전>, <조웅전> 등 당대에 널리 인기를 끌며 방각본으로 여러 차례 출판되기도 했던 영웅군담소설들은 대중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도식적인 구조를 갖고 당대 지배이념을 구현하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보고사, 2008, 204~253쪽.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고는 19세기 장편소설 <옥루몽> 속 군담에 나타나는 징악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수한 양상을 정리한 다음 그것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더하는 것을 넘어서서, <옥루몽>을 산출한 19세기 소설사의 특성을 심도 있게 파헤치고 정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2) 2장에서는 고전소설 군담 속 징악의 전반적 성격에 대해 정리하였다. 군담에 등장하는 주인공 영웅과 적대자의 대결은 전쟁의 잔혹한 실상을 덮고 주인공의 행위를 영웅적 행위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 주인공과 적대자 양자의 대립을 대체로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선악의 대립으로 치환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요소가 존화양이론과 '충'의 두 가지 논리이다. 전자의 경우 이민족 출신 적대자들과의 대결에서, 후자의 경우 국가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같은 중국 출신 적대자들과의 대결에서 중심 논리로 작용한다. 군담 속 대결의 막바지에는 적대자에 대한 징치, 즉 '징악'이 작중에서 실현되는데, 이는 크게 이념에 따른 교화의 과정을 거쳐 적대자를 감화시키고 포섭·복속시키는 경우와, 적대자를 용서하지 않고 살해하는 경우의 둘로 나타난다.

(3) 3장에서는 <옥루몽> 군담의 인물 간 대립 구도와 징악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특수성을 가진 경우에 대해 차례로 논의하였다.

3장 2절에서는 남방 이민족 출신의 적대자인 축융왕과 탈해의 경우를 살폈다. 먼저 축융왕은 주인공 양창곡과 강남홍에게 패해 항복하고 교화의 과정을 거치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후의 행적을 보면 원래 욕심이 많았다고 서술되는 그의 성품은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중국과의 군신관계를 명분삼아 사욕과 실리를 꼼꼼히 챙기고 있으며, 주인공 또한 이러한 축융왕의 행위를 거부감 없이 용인한다. 한편 탈해는 축융왕과 달리 마지막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처형당하는 인물이다. 특히 그는 독특한 약육강식의 논리를 신봉하면서 중국의 교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축융왕과 탈해는 화이론의 이치에 따라 '화'가 '이'를 교화하고 복속시키는 이치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화이론의 이상으로는 닿을 수 없는 현실적인 국제관계의 면모를 보여주거나 혹은 유교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립하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장 3절에서는 중국 내부 출신의 적대자인 노균의 경우를 살폈다. 전형적인 간신의 표상인 노균은 중국으로 쳐들어온 흉노군에게 항복하여 함께 중국을 침범하였다가, 전장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한다. 하지만 그는 확고한 신념과 야망을 바탕으로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처자를 볼모로 잡힌 상황에서 고민과 방황 끝에 어쩔 수 없이 반역자의 길을 택하는 인물이다. <옥루몽>에서는 노균의 이율배반적이고 복잡미묘한 심리를 긴 분량을 할애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이상과 그에 반대되는 인간 본연의 욕망 사이의 심각한 충돌을 드러낸다.

3장 4절에서는 천상계 출신의 적대자인 소보살과 청운의 경우를 살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지상계가 아닌 초월계(천상계) 출신의 인물이며, 강남홍과의 대결 끝에 질책을 받고 지상계로부터 물러나 다시 초월계로 돌아가는 결말을 맞는다. 문제는 작중에서 이들이 지상계에 끼친 해악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징치는 그저 돌려보내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나아가 청운의 경우 국가를 어지럽힌 그의 죄악이 실제로는 어린아이의 경망스러움과 치기로부터 촉발된 것으로 서술된다. 즉 일반적인 권선징악의 구도와 악인의 형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인 것이다. 이는 그들의 출신성분인 초월계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상계의 지배질서 혹은 선악의 구도가, 그보다 상위에 있는 천상 존재에 대해서는 구속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4)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19세기 소설사 안에서 <옥루몽> 군담 속 징악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19세기에는 <옥루몽>을 포함한 사대부 지식인들의 장편소설 창작이 성행하였는데, 이 작품들에서는 전근대의 보수적인 이념과 관습을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인지하고 넘어서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이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적 성격을 갖는 19세기의 시대

사조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옥루몽> 군담의 징악 양상 또한 화이론과 '충'의 관념, 나아가서는 권선징악에 기반한 선악대립 구도의 균열과 일탈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이는 비단 <옥루몽>만이 아닌 다른 장편소설의 군담, 혹은 당대에 널리 성행하였던 단편 영웅군담소설의 경우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단 이러한 전근대 이념과 질서의 모순 및 한계를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들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를 고수하려는 지점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옥루몽> 속 징악의 양상을 다룰 때 군담의 문제에만 주목하면서, 중요하게 다룰 가치가 있는 두 인물인 황부인과 그녀의 모친 위씨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황부인과 위씨 모녀는 투기(妬忌)로 인해 가문 내 심각한 처첩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가부장제적 질서의 질곡을 주요하게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첩'이 아닌 '정처'의 입장에 서 있다는 점에서 <사씨남정기> 이래 고전소설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처첩갈등과는 궤를 달리하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이 문제는 추후의 논의를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옥루몽> 규장각본.

김진세 외, 『고전작품 역주·연구 및 한국근대화과정 연구(I-2)-고전소설(『옥루몽』)』,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4.

<옥루몽> 세창서관본(1952년).

<原本諺吐 玉樓夢>(적문서관본),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6, 아세아문화사, 1976.

김진세 독해, 『완월회맹연』 1~12, 서울대 출판부, 1993.

<유충렬전> 완판 86장본.

<조웅전> 완판 104장본.

강재철, 「고전소설의 주제 「권선징악」의 의의」,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1988, 133~147쪽.

김경미,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모색과 의미」, 『한국문학연구』 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0, 203~234쪽.

_____, 「19세기 소설사의 쟁점과 전망」,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29~357쪽.

김경애, 「'권선징악'에 대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405~430쪽.

김도환, 「 〈옥루몽〉 의 악녀 서사」, 『우리문학연구』 47, 우리문학회, 2015, 33~75쪽.

_____,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 방식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0.

김종철, 「옥루몽의 대중성과 진지성」, 『한국학보』 16 4, 일지사, 1990, 22~46쪽.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김풍기, 「담초 남영로의 생애와 『옥루몽』에 반영된 사유」, 『한국인물사연구』 8, 한국인물사연구소, 2007, 283~300쪽.

김현양, 「'영웅군담소설'의 연구사적 조망」, 『민족문학사연구』 46, 2011, 168~195쪽.

우경섭, 「송시열의 화이론과 조선중화주의의 성립」,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257~289쪽.

유광수, 「<옥루몽>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6.

엄태웅,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서사 지향 -기존 연구 고찰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 587~624쪽.

이병직, 「<옥루몽>의 작품 구조와 대중성」, 『문창어문논집』 31, 문창어문학회, 1994, 47~67쪽.

이정원, 「고소설 권선징악론 비판-수용미학의 관점에서」, 『한국고전연구』 3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113~131쪽.

이지하,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여성형상화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353~379쪽.

이후남,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요괴 연구 -여우 신묘랑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8, 한국고소설학회, 2019, 171~201쪽.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보고사, 2008.

전성운, 『조선 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사, 2002.

조남기, 「<옥루몽>의 대중적 성취와 그 주제의식 연구」, 『어문학보』 29, 강원대 국어교육과, 2008, 139~161쪽.
조재현, 『고전소설의 환상세계』, 월인, 2009.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재간행판), 제이앤씨, 2008.
서정현, 『조선 후기 장편소설 속 군담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9.
심치열, 「옥루몽 연구」, 성신여대 박사논문, 1994.
한길연, 「고전소설의 "별자리" 화소 연구」, 『고전문학연구』 46, 한국고전문학회, 2014, 213~241쪽.

「<옥루몽(玉樓夢)> 군담에 나타난 징악(懲惡)의 특수성과 그 의미(서정현)」에 대한 토론문

황형식(대구대학교)

<옥루몽>은 64회의 회장체로 방대한 구성과 더불어 표현력 또한 뛰어난 장편소설입니다. 주인공인 양창곡과 강남홍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영웅의 행적과 현실의 부귀영화와 같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와 도교 사상도 수용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규모로 비춰봤을 때 쉽지 않은 연구를 하신 발표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토론자의 관견을 밝힙니다.

이 논문은 군담 소설의 징악적 양상을 바탕으로 <옥루몽>의 징악적 특수성을 규명하여 문학사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인물 간의 대립구도와 징악의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발표문 p.17에서

발표자는 북적과 남만의 악에 대한 징치가 다른 이유를 남방 출신에 대해서는 회유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북적을 잔인하게 징치하는 것은 복수설치의식이 반영된 양이학적 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 작품의 주동 인물은 신분이나 성별, 놓여있는 상황이 달라도 주체적 사고를 보이는 등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동 인물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부를 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옥루몽>의 주인공 양창곡, 강남홍을 중심으로 한 주동 인물들과 적대적인 간신들의 죄악을 드러냄으로써 당대 위정자들의 부조리와 불합리하고 모순된 사회 현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기의 위정자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작품의 배경을 중국으로 택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 간신의 횡포와 부조리한 사회를 막고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담은 선정치민의 왕도정치의 실현, 19세기 중엽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공리주의의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 p.3에서 “영웅을 중심으로 하는 소설 속 전쟁은 그러한 참상과는 거리가 먼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p.6의 <조웅전>에서 이두병의 능지처참은 참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지요. 악인을 능지처참하는 것은 독자에게 쾌감을 준다는 의미에서 참상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3. 주인공의 행위를 영웅적 승리로 그려내기 위해서 그에 부합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완월회맹연>과 <조웅전>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주인공의 영웅적 승리로 그려내기 위한 행위가 두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뚜렷한 경계가 무엇인지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소주자사 황공이 겁박하여 취하려고 하자 강남홍이 지조를 지키기 위해 강물에 뛰어든 것에서

황각로, 황공 같은 인물도 감남홍의 정치적 적대자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을 드린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교수님께서 하시는 연구에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문학>

오장환 시에 나타난 죄의식 연구

차성환(명지전문대학교)

"스스로 죄 있는 사람과 같이/무엇에 내닫지 안는가,/시인이어! 꿈꾸는 사람이어/너의 젊음은, 너의 바램은 어디로 갔느냐."
-오장환(1945.12), 「種소리」, 『象牙塔』 중에서

1. '식민지의 청년'의 불안

오장환[1]은 한국시사에서 미학적 전위와 정치적 전위를 선취하고자 했던 아방가르드 시인으로 분류된다.[2] 오장환은 1930년대 중반, 카프가 해산하고 역사적 전망이 암울한 시기에 등장한 시인이다. 첫 시집 『성벽』(1937)에 기존 시단에서 볼 수 없었던 반전통적인 메시지와 장시 「수부」, 「전쟁」, 「황무지」에 타락한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면서 모더니즘 성향의 강한 개성을 보였다. 두 번째 시집 『헌사』(1939)와, 출간은 『병든 서울』(1946)보다 늦지만 시인이 광복 이전의 시를 모아서 펴냈다고 밝힌 『나 사는 곳』(1947)에는 이러한 시적 개성이 약해지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는 서정주의 계열의 시들이 주로 담겨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현실비판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뚜렷하게 나타난 『병든 서울』(1946)과 『붉은 기』(1950)로 오장환의 "시적 편력"[3]은 종결된다. 한 시인이 이처럼 극단적이라고 할 만한 서로 다른 성향의 시세계를 펼쳐 보인 경우가 드물다할 것이다.

1930년 한국 현대시에서 고향상실감은 기본 정조이다.[4] 식민지 근대의 현실 속에서 유토피아의 위상을 가진 '고향'으로의 회귀를 노래할 때 그것은 일견,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전략이자 일제에 대한 민족적 저항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

1) 오장환은 1918년 5월 15일 충북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에서 출생하였다. 1931년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정지용에게 시를 배우다 자퇴하고 1934년 일본 지산중학교에 전입, 1936년 수료 후 1937년 명치대학 문예과에 입학했다가 1938년 중퇴하여 귀국한다. 1933년 『조선문학』에 시 「목욕간」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고 1936년 '시인부락'과 '낭만', 1937년 '자오선' 동인으로 참여하던 중 첫 시집 『성벽』(풍림사, 1937.8)과 제2시집 『헌사』(남만서방, 1939.7)를 발간한다. 해방 후 조선문학가동맹에 참여해 활동하다가 번역시집 『에세-닌 시집』(동향사, 1946.5), 제4시집 『병든 서울』(정음사, 1946.7), 제3시집 『나 사는 곳』(헌문사, 1947.6)을 간행한다. 1947년 12월경 월북, 1948~1949년 병 치료차 모스크바 요양생활을 하고 귀국하여 1950년 제5시집 『붉은 기』(문화전선사, 1950.5)를 출판한다. 1950년 6.25 한국전쟁 때 종군작가단으로 서울에 파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51년 신장병으로 사망하였다.

2) 아방가르드가 서구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근대 문물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산물로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 운동이라고 할 때, 아방가르드는 현실에 대한 변혁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실천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물론 사조적으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아방가르드 경향에 대척되는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 오장환의 경우처럼 정치적 자유가 불가능한 식민지 근대의 압력 속에서 분출된 시의 미학적 전위가 해방 이후 정치적 전위로 연결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차성환(2018.9), 「8·15 해방과 '새 나라'의 가능성-오장환과 김수영의 시」,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51쪽.

3) 최두석(1992), 「오장환의 시적 편력과 진보주의」, 『리얼리즘의 시정신』, 실천문학사, 1992.

4) 김종철(1978), 「30년대의 시인들」, 『시와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1쪽.

‘고향’이라는 근원적인 동일성의 세계에 함몰되어 현실과 유리遊離된 채 상상적인 퇴행에 빠질 위험 또한 동시에 가진다. 오장환의 첫 시집 『성벽』은 그러한 ‘고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당대의 시인들에게 있어서 ‘고향’이 상실감을 주는 대상이자 그 상실감을 상상적인 형태로나마 극복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기능했다면, 오장환의 시는 ‘고향’에 대한 철저한 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 世世傳代萬年盛하리라는 城壁은 偏狹한 野心처럼 검고 빽빽하거니 그러나 保守는 進步를 許諾치 않어 뜨거운 물 끼언ㅅ고 고춧가루 뿌리든 城壁은 오래인 休息에 인제는 이끼와 등넝쿨이 서로 엉키어 面刀 않은 턱어리처럼 지저분하도다.
>
> —「城壁」(『詩人部落』, 1936.11) 전문.[5)]

> 돌담으로 튼튼이 가려 노은 집안엔 거믄 기와집 宗家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믜알 터지듯 허터저나가는 이 집의 支孫들. 모도다 싸우고 찢고 헤여저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光榮을 직히여 주는 神主들은 대머리에 곰팽이가 나도록 알리워지지는 않어도 宗家에서는 武器처름 앳기며 祭祀날이면 갑작이 높아 祭床 우에 날름히 올라안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食口만 살고 있어도 祭祀날이면 祭祀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할머니와 아들 며누리 손자 손주며누리 칠춘도 팔춘도 한테 얼리여 닝닝거린다. 시집갓다 쪼껴온 작은 딸 과부가 되어 온 큰 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언니 이종옵바. 한참 쩡쩡 울리든 옛날에는 오조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왓다고 오조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곳—잘 잡어드려다 모말굴림도 식히고 주릿대를 앵기엿다고. 지금도 宗家 뒤란에는 중복사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빤들빤들한 달갈구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宗家에 사는 사람들은 아모 일을 안해도 지내왔었고 代代孫孫이아 아—모런 재조도 물리여 밧지는 못하야 宗家집 영감님은 近視眼鏡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며 먹을 궁니를 한다고 作人들에게 高利貸金을 하여 살어나간다.
>
> —「宗家」(『風林』, 1937.2) 전문.

“城壁”은 보통, 전쟁 시 외부의 침입을 막고 성 안의 사람과 재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된다. “城壁”은 기존의 세계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를 막고 있는 그대로를 답습하는 등의 폐쇄적인 속성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保守”가 “進步”를 허락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가치와 전통을 옹호하는 태도를 지나치게 고수한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세대를 거쳐 영원히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함은 “偏狹한 野心”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과 전통을 보호하자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지배계층의 안위를 위해 변혁을 용납하지 않았던 역사 속의 “城壁”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낡고 구태의연한 가치만을 옹호할 때 역사와 사회, 예술은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만다. 여기서 “城壁”은 “進步”를 막기 위해 물을 끼얹고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희화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城壁”은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이끼와 등넝쿨이 서로 엉키어 面刀 않은 턱어리처럼 지저분”할 뿐이다.

이 시에서 지칭하는 “城壁”은 「宗家」에서의 “돌담”과 같은 기능을 한다. “돌담”은 “이 집의 光榮을 직히여주는 神主들”을 무기처럼 아끼는 “거믄 기와집 宗家”를 “튼튼이” 가리고 둘러싸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두 다 싸우고 거미 알 터지듯이 흩어져 나간 “이 집의 支孫들”은 제삿날이면 “宗家”로 다시 모인다.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宗家”는 유교적 전통을 지탱하는 강력한 중심이 된다. 이 “宗家”가 지난 시대에 했던 일은 제삿날을 지키는 것과 동네 백성을 곧잘 잡아들여 형벌을 주는 것이다. “宗家”에 사는 사람들은 대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재주도 물려받지 못한 탓에 지금의 “宗家집 영감님”은 먹고 살 궁리로 소작농에게 “高利貸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城壁」과 「宗家」에는 유교적 전통의 낡은 폐습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반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5) 오장환의 시, 산문 인용은 김학동(『오장환 전집』, 국학자료원, 2003)을 따른다.

있다.

「城壁」과 「宗家」은 첫 시집 『城壁』의 제목 선정 시에도 거론되었던 만큼 오장환의 초기 시세계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작품들이다. 『시인부락』 창간호의 말미에는 출간 예정인 오장환의 첫 시집 광고가 실려 있는데 제목이 '宗家'로 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시집의 제목은 '城壁'으로 바뀌어 1937년 풍림사에서 초판본이 나왔으며 당시에는 「宗家」, 「城壁」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후 1947년 아문각에서 간행한 재판본에는 「城壁」을 수록하게 된다.[6] 최초 표제시로 고려되었던 「宗家」와, 결국 첫 시집의 표제시가 된 「城壁」은 오장환이 전시대의 가치인 유교적 전통에 대한 강한 부정을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오래인 관습—그것은 傳統을 말함이다."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다른 시 「姓氏譜」에서 "나는 歷史를, 내 姓을 믿지 않어도 좋다.(중략) 나는 姓氏譜가 必要치 않다. 姓氏譜와 같은 慣習이 必要치 않다."라고 말하며 오장환은 유교적 전통 속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오래된 관습의 폐해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또한 시 「旌門」은 열녀를 기리기 위해 세운 "旌門"이 사실은 양반이 상놈을 속이고 자랑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다. 나이 열아홉에 여섯 살 어린 신랑에게 시집온 새 색시는 평생을 "三綱五倫 朱宋之訓"이라는 유교적 전통의 가르침에 억눌려온 욕망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한다. 하지만 양반집은 새 색시가 신랑을 구하기 위해 대신 독사에 물려 죽었다는 거짓된 이야기를 퍼트려 열녀를 기리기 위한 "旌門"을 세우기에 이른다.

이처럼 오장환의 초기 시에 나타난, 유교적 전통의 억압에 대한 뚜렷한 반감과 거부가 실제 오장환이 첩실의 자식으로 태어난 출생 신분에 기인하지 않았을까하는 추측도 있다. 분명한 것은 오장환이 보여준 유교적 전통에 대한 철저한 거부는 전시대에서 볼 수 없는 그만의 특이한 지점이라는 사실이다. 오장환은 '고향'이라는 중심이 사라진 식민지 근대의 풍경과 그 속에서 방황하는 시적 주체인 "植民地의 靑年"(「船夫의 노래·2」)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유교적 전통이 윤리적 실체로 작동했던 전근대적인 봉건적 악습이 지배하는 고향과 철저히 결별한 후에 어떠한 전망도 확보할 수 없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처할 수밖에 없는, 세계와 불화하는 시적 주체의 내면 풍경에 다름 아니다.

오장환이 "찾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향배(向背)를 잃어버린 나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이념이여! 조금만 조금만 맑아지거라. 나의 생존의 의의란 어디에 있느냐."(산문 「팔등잡문(八等雜文)」)라고 말했을 때, 이는 당대 식민지의 억압적 현실 속에서 나아가야할 길을 암중모색하는 시인의 고투가 담긴 육성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당대 문단의 신인으로서 기성 시인과 차별되고자하는 열여덟, 열아홉 살 시인의 조급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향'과 전통에 대한 균형 있는 조망이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조급성이 오장환만의 강력한 개성을 낳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봉건적 전통과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는 거리를 둔 채 새로운 윤리적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만 1930년대의 식민제국주의가 지배하는 현실 앞에서는 모든 시도가 무화될 수밖에 없다. 오장환은 과감하게 봉건적 악습이 잔존하는 '고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후 아무런 윤리적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성벽」, 「종가」, 「성씨보」, 「정문」에서 보듯이 오장환의 시세계는 봉건적 세계(고향)에 대한 강한 비판을 통해 전근대의 조국(조선)에 대한 부정을 명시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는 전근대 세계/고향과의 단절이라는 출발점은 당대 시인들과는 다른 특이점이며 그러한 단절 이후에 어떤 주체가 가능한 지에 대한 일종의 시적 모험이자 실천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식민지의 청년'은 '신'(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유교적 전통)이라는 구심점/누빔점이 사라진 근대의 빈 공간("전통의 공백 지대"[7])를 응시하게 된다. 전근대의

---

6) 『성벽』 재판본(아문각)에 추가로 수록된 작품은 「성벽」, 「온천지」, 「경」, 「어육」, 「어포」, 「역」 등 6편이다. (김학동(2004), 『오장환 평전』, 새문사, 84쪽 참조)

7) 김종훈은 『헌사』가 첫 시집 『성벽』에서 부정했던 역사나 전통의 공백 지대에 신화와 접속하여 인간의 숙

주인 기표(이데올로기의 기준점, 유교적 전통)가 사라진 근대의 '공백'은, 곧 기표 없이는 자신을 대리할 수 없는 주체 자신이 가진 '공백'이자 결여이기도 하다. 전근대적 세계 안에서는 태생적으로 지켜야할 유교적 질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개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맡은 기표(아버지, 양반, 열녀)에 따른 역할을 의심 없이 수행해야하지만 이러한 질서가 무의미해진 식민지 근대의 세계에 던져진 '식민지의 청년'은 일차적으로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8] 시적 주체는 외부에서 강제한 윤리적 기준/법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지만 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유에 수반하는 주체의 불안을 감당해야한다.

2. 무의식적 죄의식과 퇴폐의 발현

오장환은 전근대적인 유교적 전통이 지배하는 '고향'과 과감히 단절하고 식민지 근대의 타락한 항구와 도시를 방황하는 시적 주체의 형상을 그려낸다. 어느 곳에도 뿌리내릴 수 없는 "植民地의 靑年"(「船夫의 노래·2」, 子午線, 1937.11)의 눈을 통해 바라본 풍경은 당대 한국 현대시의 문학적 풍토에서는 보기 드문 위악적이고 퇴폐적인 모습을 가진다. 오장환의 "식민지의 청년"(「船夫의 노래·2」)이 경험한 전근대적 전통에 대한 거부와 근대 세계에서의 불안은 "윤락된 보헤미안의 절망적인 심화. — 퇴폐한 향연"(「매음부」)으로 표현되며, 해방 이후에 "나라 없는 우리들 청춘의 반항"과 "춤추는 바보와 술취한 망종"(「병든 서울」)으로 회고된다.

> 푸른 입술. 어리운 한숨. 陰濕한 房 안엔 술ㅅ잔만 훤—하였다. 질척척한 풀섶과 같은 房안이다. 顯花植物과 같은 게집은 알 수 없는 우슴으로 제 마음도 소겨온다. 港口, 港口, 들리며 술과 게집을 찾어 다니는 시ㅅ거믄 얼굴. 淪落된 보헤미안의 絶望的인 心火. — 頹廢한 饗宴[9] 속. 모두다 오줌싸개 모양 비척어리며 얄께 떨었다. 괴로운 憤怒를 숨기어가며… 젓가슴이 이미 싸느란 賣淫女는 爬蟲類처럼 匍匐[10] 한다.
>
> —「賣淫婦」 (詩人部落, 1936.12) 전문.

> 야윈 靑年들은 淡水魚처럼/힘없이 힘없이 狂亂된 ZAZZ에 헤엄처 가고/빪—안 손톱을 날카로히 숨겨

명에 대한 비애를 드러내었고, 세 번째 시집 『나 사는 곳』은 이웃을 발견하고 감정의 범위를 확장하여 앞으로 나올 시집인 『병든 서울』의 성격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본다.(김종훈(2018.10), 「오장환 시집 『헌사』와 『나 사는 곳』에 나타난 감정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Vol.19 No.2, 한국근대문학회, 255쪽) 이기성은 계몽의 담론에 내장된 피로와 환멸이 누수되기 시작한 1930년대 후반, 오장환의 탕아-서사는 상실된 고향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거부하고 근대의 폐허와 직접 대면하는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본다.(이기성(2007), 「탕아의 위장술과 멜랑콜리의 시학」,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학회, 337~366쪽)

8) 본 글의 근대의 '공백'과는 다른 지점이기는 하지만 임화가 말한 1930년대 후반 시단의 "에어포켓"에 새로운 시인으로 출현하고자 하는 신인 오장환의 조급성과 불안은 언급해볼 만하다. 임화는 문단에서 신인의 본질을 "문학의 새로움"이라 규정하고 신인이라면, "기존의 문학 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조선문학의 분석과 이해와 함께 그 도달점과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자여야 한다고 말한다.(임화(1939.1~2), 「신인론」, 『비판』, 임화문학예술전집편찬위원회 엮음(2009), 『임화문학예술전집3 :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372~373쪽) 그는 1930년대 후반의 시단을 "에어포켓"으로 비유하면서 이 "에어포켓"을 채울 수 있는, 기성세대의 시인과는 다른 새로운 시인의 출현을 요청한 것이다.(임화(1939.1~2), 같은 책, 388쪽) 오장환은 1937년 1월 「문단의 파괴와 참다운 신문학」이라는 산문에서 당시 신문학이라 평가받는 정지용, 김기림, 이상의 시를 부정하고, 또 백석의 시를 '앞날을 노래하지 않는다'며 비판하면서 새로운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상이 죽기 몇 개월 전, 오장환은 병석에 누워있는 이상의 집에 동료 문인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오장환은 힘겨워하는 이상 앞에서 자신의 시를 읽고 시가 어떠하냐고 물었다 한다. 이를 두고 병문안을 끝내고 나오는 길에 오장환을 힐난했다는 서정주의 증언이 있다.

9) 1947년에 재판한 아문각본에는 '饗宴'으로 표기되어 있음.

10) '匍匐'의 오기로 보임.

두는 손,/코카인과 한숨을 즐기어 常習하는 썩은 살덩이//(중략)// 港口야,/幻覺의 都市, 不潔한 下水口에 病든 거리어!/얼마간의 돈푼을 넣을 수 있는 죄그만 지갑,/有毒植物과 같은 賣淫女는/나의 소매에 달리어 있다.// 그년은, 마음까지 나의 마음까지 할터노아서/理由없이 웃는다. 나는/賭博과/싸움,/흐르는 코피!/나의 등ㅅ가죽으로는 배ㅅ가죽으로는/自爆한 보헤미안의 固執이 시루죽은 빈대와 같이 쓸 쓸 쓸 기어단인다.

—「海獸」(『城壁』, 1937.7) 부분.

安定할 줄 모르는 動物들의 애달품이여!/뛰도라 단이는 四肢의 고달븜이여!/온—밤/燈 한송이를 밝히지 않고 衰殘한 마음이 나무뿌리처름 어두운 孤寂 속으로 벋어나도다// 울커니 나도 배 안의ㅅ 사람/花草盆과 같은 憂愁 속에 너는 뿌리를/돗궈보느냐?// 野心의 巨大한 아궁지에 石炭을 욱여너흐며/사나운 물결과 싸워오기에/너의 피와 너의 땀은 찝질한 너의 털어귀를/거세게 키워났느니/본시 너는 바다를 찾어왔드냐,/본시 너는 바다로 쫏겨왓느냐!// 다음 港口의 殘忍한 快樂을 찾어/疲困한 몸을 起重機로 달어올리고/한밤!/침침한 船倉에서 너는 賭博을 하야봣느냐?// 二等船室에서는 病든 鶴과 같이 목이 가는 貴公子가/甲板으로 걸어나오며/비린내나는 달빛 아래에 울고 있었다/너는 울어봣느냐!// 암말도 않고 타구를 내여 밀으면/貴公子는 吐하여 보고/또 그는 바다로 뛰여들엇다// 港口가 가차히 밤이 무더워지면/沙漠으로 通하는 子午線의 힌 그림자/사공이여! 쫏겨온 사람/印度와 아라비아人의 頭巾이 더워에 느러붓는다// 욱여 타오르는 火口와 體溫 속에서/너는 어떠한 情熱을 익혀(習) 왓드뇨?// 얼골이 검은 植民地의 靑年이 있어/여러 나라 水兵이 오르나리는 저녁 埠頭에 피리 부으네/낼룽대는 毒蛇의 가는 셧바닥을 달래보네// 잠재울 수 없는 歡樂이여!/病든 官能이여!/가러귀처름 검은 피를 吐하며/不吉한 입가에 술을 적시고/아하 나는 엇지 歲月의 港口 港口를 그대로 지내왓드뇨?

—「船夫의 노래·2」(子午線, 1937.11) 전문.

오장환은 초기시에서 바다와 항구를 배경으로 절망과 윤락, 위악으로 점철된 채 방황하는 시적 주체의 모습을 그려낸다. “술과 게집을 찾어 다니는 시ㅅ거믄 얼굴. 淪落된 보헤미안”, “自爆한 보헤미안”, “얼골이 검은 植民地의 靑年”은 절망적인 심화와 퇴폐한 향연에 빠져 항구를 배회한다. 항구는 “幻覺의 都市, 不潔한 下水口에 病든 거리”이다. 항구에는 코카인 마약과 한숨에 절어 썩은 살덩이가 된 청년들이 있고 “有毒植物과 같은 賣淫女”가 항시 유혹한다. 도박과 싸움을 일삼는 항구에는 잔인한 쾌락과 잠재울 수 없는 환락, 병든 관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시적 주체는 퇴락한 항구에서 귀신(“가러귀”[11])처럼 검은 피를 토하며 술을 마시고 이미 관성적인 쾌락에 젖은 채 수렁에 빠져있다.

일찍이 서인식은 오장환 시의 ‘퇴폐’에 주목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낡은 전통이나 그 어떠한 정신의 세계로 지향하는 애수가 특정한 대상을 가진 것이라면 그 외에 그 어떠한 특정한 대상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대—말하자면 정신적 표박자(漂迫者)의 애수라는 것도 없을 상싶지 않다. 이것은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의 정신이 눈뜨기 비롯한 것은 그들을 맞이할 그 어떠한 정신의 세계도 무너진 뒤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이 새삼스러이 전통의 세계로 쏠리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매력없는 형해(形骸)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정신적으로는 원래 이 땅의 향토적 전통의 지반 위에서 성장한 자식들이 아니다. 이리하여 이 시대의 어느 구석에든 심신을 투탁할 곳을 갖지 못한 그들의 정신은 방황하지 않을 수 없다. 방황하는 정신이란 피로하기 쉬운 법이다. 특정한 고향이 없는 만큼 정신의 안식을 요구하는 염원은 남달리 간절할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염원이 크면 클수록 가져보지 못한 그 어떠한 향토를 그리는 부질없는 비애가 간절할는지 알 수 없다. 이 의미에 있어서 정신적 표박자의 특수한 애수라는 것도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중략)

11) 김학동본(『오장환 전집』, 국학자료원, 2003)은 ‘가러귀’를 ‘기러귀’(기러기)로 보고 있지만 박수연·노지영·손택수본(『오장환 전집 1』, 솔, 2018)은 귀신의 일종으로 풀이하고 있다.

> 현대에 투탁할 곳을 갖지 못한 그들에게 갈 곳이 있다면 그 하나는 퇴폐의 길이다. 그들은 카인의 말예(末裔)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무너져간 전통이나 잃어버린 정신의 세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회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내면적 생활의 지주가 될 수 있는 한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의 자랑이고 보물이다. 그것은 의연히 우리의 행로에 있어서 십자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회상하는 애수의 정이란 고치(苦齒)한 듯하면서도 기실은 감미(甘美)한 것이다. 애수란 정의의 바다의 표면에 일어나는 연파(連波)나 미풍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을 그 근저로부터 번복하고 교란하는 것이 아니다.
>
> 그러나 그러한 특정한 대상 즉 자랑과 보물을 갖지 못한 인간, 얻을 것은 고사하고 잃어버릴 것조차 없는 인간,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에도 투탁할 곳을 갖지 못한 인간은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권태와 멸렬(滅裂) 더 나아가서는 허무와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허무와 불안의 앙진(昻進)은 퇴폐적 정신의 길을 열게 된다. 애수가 정의의 표면을 스치는 감미한 연파라면 가책 통한 등 퇴폐에 수반하는 일련의 감정은 정의의 심부를 탕란(蕩亂)하는 고치한 광란(狂瀾)이다. 현대의 퇴폐를 노래한 시인으로서는 우리는 오장환씨를 들 수 있다. <폐역>(廢驛)과 같은 현대에 붙일 곳을 갖지 못한 그가 표박과 독향, 죽음과 카인을 노래함은 자연스러운 일이다.[12](밑줄은 인용자)

서인식은 '퇴폐'란 "그 어떠한 특정한 대상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대", 즉 "정신적 표박자(漂迫者)의 애수"에서 비롯된다고 적시한다. "향토적 전통의 지반 위에서 성장한 자식들"이 아닌 "이 시대의 어느 구석에든 심신을 투탁할 곳을 갖지 못한" 자들,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야할 곳이 있다면 "퇴폐의 길"이다. 과거의 전통이나 현대에 투탁할 곳을 갖지 못한 인간은 "권태와 멸렬(滅裂) 더 나아가서는 허무와 공포를 느끼"고 곧 "허무와 불안의 앙진(昻進)은 퇴폐적 정신의 길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 서인식은 이러한 "현대의 퇴폐를 노래한 시인"으로 오장환을 언급하고 있다. '고향'을 거부하고 떠나온 자가 아무런 윤리적 기준점이 없는 근대의 공백 속에 던져졌을 때 "허무와 불안의 앙진(昻進)"을 경험하고 결국은 "퇴폐적 정신의 길"을 간다는, 서인식의 진단은 오장환의 시에 나타난 '퇴폐'의 성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전시대인 봉건사회의 윤리적 기준인 고향과 전통을 부정한 시적 주체는 그가 스스로 열어놓은 근대의 공백을 견디면서 자유를 체현하지만 이 자유는 아무런 토대 없는 상태, 뿌리 뽑힌 상태로 경험되기에 "허무와 불안"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주체의 자유에 한해서 "허무와 불안"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정념이다. 여기서 오장환 시의 "퇴폐"는 1920년대 초 『폐허』와 『백조』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3·1운동의 좌절과 서구의 세기말적 사조 유입에 따른 퇴폐적 낭만주의 경향의 시들과는 다른 특이점을 가진다.

> 氏는 새 '타입'의 서정시를 세웠다. 거기 담겨있는 감정은 틀림없이 현대의 지식인의 그것이다. 현실에 대한 극단의 불신임, 행동에 대한 열렬한 지향, 그러면서도 이지와 본능의 모순 때문에 지리멸렬했던 심리의 변이, 악과 퇴폐에 대한 깊은 통찰, 혼란 속에서도 어떠한 질서를 추구해 마지않는 비극적인 노력, 무릇 그러한 煉獄을 통과하는 현대의 지식인의 특이한 감정에 표현을 주었다.
>
> —김기림, 「『성벽』을 읽고」(『김기림전집』 2, 심설당, 1988, 377쪽).

> 우리가 퇴폐에 대하여 공감하는 이유가 그것이 퇴폐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왕성한 현실에 대한 의욕과 인생에 대한 부절不絶한 호기심의 불가피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오장환 군의 시를 이야기할 때도 피력한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 부정否定 가운데서 강한 긍정의 의식이, 또한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강고한 보장을 발견하기 때문에 퇴폐란 것은 비로소 하나의 심판일 수 있다. 그것은 육체적인 비대肥大에 대한 모욕일 수 있고 동시에 정신의 승리에 대한 예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더 말하면 자포와 자기가 아니라 인간 생활의 조화와 통일에 대한 깊은 신앙의 명료한 표현이기 때

12) 서인식(1939.1), 「哀愁와 頹廢의 美」, 『인문평론』, 김윤식 편저(1989), 『哀愁의 美, 頹廢의 美』, 나남, 227-229쪽.

> 문이다. 이러한 요소가 현대적 퇴폐 가운데 과연 담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문제나 여하간 그것이 퇴폐의 정신에 대한 위선爲先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퇴폐가 하나의 정신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13]

김기림은 오장환의 첫 시집 『성벽』이 기존에는 없었던 "새 '타입'의 서정시"라고 언급한다. 외부의 윤리적 가치와 기준을 거부하는 태도는 "현실에 대한 극단의 불신임"이며 그러한 상태는 "煉獄"에 준한 것이 된다. 그 속에는 "혼란 속에서도 어떠한 질서를 추구해 마지않는 비극적인 노력"이 담겨있는 것이다. 임화 또한 오장환 시의 '퇴폐'에 공감하는 이유가 퇴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정否定 가운데서 강한 긍정의 의식"과 "인간 생활의 조화와 통일에 대한 깊은 신앙의 명료한 표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퇴폐'는 "하나의 정신"인 것이다.

'퇴폐'는 반항과 망종을 동시에 품은, 새로운 세계와 윤리에 대한 일종의 가능성이다.[14] 전근대의 고향/세계를 지탱했던 윤리적 기준이 사라지고 스스로 윤리적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주체는 무의식적인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고향', 즉 전근대적인 유교적 전통(전근대 세계의 주인 기표, 신)의 지배에서 벗어난 주체는 '고향'이 주는 민족적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히스테리적 불안"을 겪게 되며 또한, 그 '고향'이 부과한 윤리/운명/법의 부재 상태로 인해 "절대적인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15] 이는 오장환의 시에서 전근대적 고향과의 단절(전통 거부, 탈향) 이후에 근대 세계를 바라보는 '식민지의 청년'이 무의식적인/절대적인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적 구조를 설명해주고 있다.

오장환 시의 시적 주체에게 이와 같은 무의식적인/절대적인 죄의식이 선행된다고 볼 때 그의 초기시에 나타난 '퇴폐'는 전혀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자기 실존을 증명해주는 실정적 지탱물(전근대의 고향)을 상실한 시적 주체는 자신의 공백/결여를 마주하게 되며 불안을 경험한다. '자신이 텅 비어있다'는 주체의 공백을 위장하고 메울 수 있는 대리 기표를 요청하는 과정은 실제 텍스트에서 「해수」의 "자폭한 보헤미안", 「황혼」의 "병든 나", "병든 사나이", 「선부의 노래·2」의 "식민지의 청년", 「The Last Train」의 "카인", 「불길한 노래」의 "오장환", "병든 시인", "카인의 말예", 「소야의 노래」의 "도형수" 등과 같은 자기 호명/지칭을 통해서 드러난다. 오장환의 시에는 자기 호명/지칭의 양상이 특징적으로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의 결여를 은폐하기 위한 '불안'[16]

---

13) 임화(1940.12.9~12.16), 「시단詩壇은 이동한다」, 『매일신보』, 임화문학예술전집편찬위원회 엮음(2009), 『임화문학예술전집5 : 평론2』, 소명출판, 264-265쪽.

14) 오장환 시에 나타난 퇴폐적 애수의 세계에 주목한 연구자로는 신범순(『한국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1998)이 있다. 이후 남기혁은 오장환의 초기시에 나타난 '퇴폐'가 낡은 인륜적 질서를 부정하고 도시문명이나 세계정세의 허위성에 저항하는 윤리의 거점으로 내적 모럴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남기혁(2012.3), 「오장환 시의 육체와 퇴폐, 그리고 모럴의 문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5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55~190쪽) 박종성은 식민지의 퇴폐 문학이 도드라졌던 까닭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학은 단지 '사라졌거나 무너진 과거'에 연연하기만 하는 나약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 펼쳐야 할 세상과 다가올 시대 정신의 진솔한 시그널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퇴폐의 이중적 모멘트를 키운다. '무너짐'은 분명 '한탄'과 '암울'의 단서였지만 동시에 '건설'과 '창업'의 까닭이기도 했던 것이다."(박종성(2013), 『퇴폐에 대하여』, 인간사랑, 117쪽) 박정석은 오장환 시에 나타난 퇴폐와 방탕 행위의 이면에는 '절망'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타락한 세계에 대한 자기 응전의 한 방편으로 발현이자 부정적 상황에 대한 치열한 형상화를 보여준 시적 윤리의 중요한 측면을 가진다고 본다.(박정석(2012.10), 「오장환 초기 시의 감정과 비극성」, 『어문논집』 66, 민족어문학회, 346~347쪽 참조)

15) 지젝은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명제에 대한 라캉의 전도('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금지될 것이다')를 예로 들면서, 주체의 죄의식을 미리 규정해 놓은 운명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결코 외부적으로 부과된 표준적인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난 자율적 주체의 결백함을 향유하도록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주체는 이러한 운명의 부재 때문에 절대적인 죄의식을 느낀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단된 법-금지는 죄의식으로 주체를 채우는 냉혹한 초자아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Slavoj Zizek, 이재환 옮김(2010), 『나눌 수 없는 잔여』, 도서출판b, 201~202쪽 참조)

16) '불안'을 일반적으로 주체가 두려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할

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주체의 공백/결여를 다른 기표로 대리하는 구조[17]는 주체의 '죄의식'과 '퇴폐'(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시적 주체는 무의식적인/절대적인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제로 죄를 짓는 행위, 즉 '퇴폐'를 위악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죄의식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죄'(퇴폐) 자체를 떠맡는 것이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18] '죄의식'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가 된다. 오장환의 초기시에 나타난 과잉된 위악과 '퇴폐'는, 곧 주체가 가진 불안의 증상과 상응한다. 증상(퇴폐)이 주체의 공백을 메우고 증상 자체가 주체가 된다.[19] "오장환이 찾고자 하는 '정신의 향배'는 주체의 바깥에 형성된 공동체의 규범과 이데올로기에의 투신이 아니라 삶의 지향점을 스스로 찾으려는 주체적 모색"[20]이라고 할 때, '퇴폐'는 이를 강력하게 추동하는 증상이 된다. 따라서 오장환의 시에서 '퇴폐'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강화되고 지속되어야할 어떤 것이다.

3. 의식적 죄의식과 촉박한 동일화

기존의 연구들은 오장환의 시를 전통에 대한 반항에 전근대적인 봉건적 세계('성벽')를 부정하면서 탈향을 한 후 타락한 근대의 폐허('항구')를 방황하다가 환멸을 느끼고 결국 '고향'으로 귀향한다는 일종의 '탕아 서사'[21]로 보고 있다. 1940년대 이후 「고향 앞에서」(『人文評論』, 1940.4)와 같이 귀향 모티프를 가진 시편들이 제출되었고 「病든 서울」(『象牙塔』, 1945.12.), 「어머니 서울에 오시다」(1946.3.12.), 「다시 美堂里」(1946.7)와 같은 해방기 시에서 '탕아'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후속 연구들도 이러한 '탕아 서사'의 독법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초기시의 시적 주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볼 때, 여기서의 '불안'은 주체가 자신이 공백/결여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는 무의식적인 죄의식에 기인하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를 특정하고 실제 현실에서 의미화가 가능한 의식적인 죄의식을 떠맡으면서 기표로서 출현하게 된다.

17) "기표의 주체란 바로 이러한 상징적 구조의 본원적 공백, 가시 말해 결여인 것이다. 따라서 주체는 엄격히 주체화의 효과와 상반된 것이다. 주체화가 은폐하고 있는 것은 글쓰기의 전주체적 혹은 초주체적 과정이 아니라 구조 내의 결여인 것이다. 그리고 그 결여가 바로 주체이다. (…) 기표의 주체는 정확히 이러한 결여, 즉 '자기 자신의 것'이 될 기표를 찾을 수 없는 불가능함이다. 그것에 대한 표상의 실패는 그것의 실정적 조건이다."(Slavoj Zizek, 이수련 옮김(2013),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77~278쪽)

18) 프로이트는 이 글이 주장하는 '죄의식'과 '죄'의 역전된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 '죄의식으로 인해 죄인이 되는 사람들'은 기원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다가 죄를 저지른 다음에 죄의식의 압력을 훨씬 덜 느끼곤 하는데, 이는 죄에서 죄의식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의식으로부터 죄가 비롯되는 '죄의식의 선재성'을 입증하고 있다. 죄 이전에 죄의식이 존재하며 그러한 죄의식을 고정시키기 위해 저질러지는 범죄들은 죄의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안도감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Sigmund Freud, 정장진 옮김(2003), 「정신분석에 의해서 드러난 몇 가지 인물 유형」,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380~382쪽 참조)

19) 지젝은 "증상은 말하자면 자신의 해석을 향해 '자신을 추월한' 기표적인 형성물"이라고 말한다. "증상은 우리(주체들)가 '광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무無(근본적인 정신병적 자폐증, 상징적 세계의 와해) 대신 유(증상-형성물)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증상은 향유를 어떤 상징적 기표 형성물과 하나의 매듭으로 묶어줌으로써 우리 세계-내-존재에 최소한의 일관성을 보장해주는 방법인 것이다."(Slavoj Zizek(2013), 앞의 책, 130~132쪽)

20) 김지선(2013.10), 「오장환의 '윤리의식' 연구」, 『인문논총』 32, 인문과학연구소, 116쪽.

21) 최두석은 「오장환의 시적 편력과 진보주의」에서 오장환의 시는 시인의 진보주의가 '과거로부터의 전승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데서' 출발하며 그 결과 시인이 '전례적 전통에 대한 반작용으로 서구적 신화에 몸을 내맡긴' 후 다시 고향을 발견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오세영은 최두석의 논의에 동의하면서 "그의 전체시는 깨져버린 고향의 성으로부터 가출한 탕아가 되어 항구의 거리에서 방랑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 즉 "가출->방랑자->탕아"로의 변신으로 보고 탕자의 항구(도시) 체험을 모더니즘으로, 탕자의 귀향은 순수 서정시의 세계로, 고향 재건운동은 프롤레타리아 문예운동으로 파악하고 있다.(오세영(1989), 「탕자의 고향발견」, 권영민 편, 『월북문인 연구』, 문학사상사, 289~311 ; 최두석(1992), 「오장환의 시적 편력과 진보주의」, 『리얼리즘의 시정신』, 실천문학사)

체를 ‘탕아’로 파악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탕아’라는 기표가 해방조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주체가 되기 위해 식민지 시기의 타락한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자기 고백의 형식에서 적극적으로 호명된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한다. ‘탕아’라는 자기 호명은 해방기의 시인이 대타자(민족, 인민, 사회주의 이념)의 응시를 통해 식민지를 통과해온 자신의 시적 여정을 타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 서울에 오시다./蕩兒 도라가는게/아니라/늙으신 어머니 病든 子息을 찾어오시다.// —아 네 病은 언제나 낫는 것이냐./날마다 이처럼 쏘다니기만 하니..../어머니 눈에 눈물이 어릴 때/나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 —내 부치, 내가 위해 받드는 어른/내가 사랑하는 자식/한평생을 나는 이들이 죽어갈 때마다/옆에서 마음을 끄리고, 약을 다린 게 나의 일이었다./자, 너마저 시중을 받어라.// 오로지 이 아들 위하야/서울에 왔건만/메칠 만에 한번씩 상을 대하면/밥수깔이 오르기 전에 눈물은 앞서 흐른다.

—「어머니 서울에 오시다」(『病든 서울』, 1946.3.12.) 부분.

도라온 蕩兒라 할까/여기에 比하긴/늙으신 홀어머니 너무나 가난하시어// 도라온 子息의 상머리에는/지나치게 큰 냄비에/닭이 한 마리// 아즉도 어머니 가슴에/또 내 가슴에/남은 것은 무엇이냐.// 서슴없이 고기쩜을 베어물다가/여기에 다만 헛되이 울렁이는 내 가슴/여기 그냥 뉘우침에 앞을 서는 내 눈물// 조용한 슬품은 아련만/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은/당신에게 받히었음을……// 크나큰 사랑이어/어머니 같으신/받히옴이어!// 그러나 당신은/언제든 괴로움에 못이기는 내 말을 막고/이냥 넓이 없는 눈물로 싸주시어라.

–「다시 美當里」(『大潮』, 1946.7) 전문.

八月 十五日 밤에 나는 病院에서 울었다./너희들은, 다 같은 기쁨에/내가 운 줄 알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일본 天皇의 放送도,/기쁨에 넘치는 소문도,/내게는 고지가 들리지 않었다./나는 그저 病든 蕩兒로/홀어머니 앞에서 죽는 것이 부끄럽고 원통하였다.// 그러나 하로아츰 자고깨니/이것은 너머나 가슴을 터치는 사실이었다./기쁘다는 말,/에이 소용도 없는 말이다./그저 울면서 두 주먹을 부루쥐고/나는 병원病院에서 뛰쳐나갔다./그리고, 어째서 날마다 뛰쳐나간 것이냐./큰 거리에는,/네 거리에는, 누가 있느냐./싱싱한 사람, 굳건한 靑年, 씩씩한 우슴이 있는 줄 알었다.// 아, 저마다 손에 손에 깃빨을 날리며/노래조차 없는 군중이 “萬歲”로 노래 부르며/이것도 하로 아츰의 가벼운 흥분이라면……/病든 서울아, 나는 보았다./언제나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너의 거리마다/오늘은 더욱 김승보다 더러운 심사에/눈깔에 불을 켜들고 날뛰는 장사치와/나다니는 사람에게/호기 있어 몬지를 씨워주는 무슨 本部, 무슨 本部,/무슨 당, 무슨 당의 自動車.// 그렇다, 病든 서울아,/지난날에 네가, 이 잡놈 저 잡놈/모도다 술취한 놈들과 밤늦도록 어깨동무를 하다싶이/아 다정한 서울아/나도 미천을 털고 보면 그런 놈 중의 하나이다./나라 없는 원통함에/에이, 나라 없는 우리들 靑春의 反抗은 이러한 것이었다./反抗이어! 反抗이어! 이 얼마나 눈물나게 신명나는 일이냐// 아름다운 서울, 사랑하는 그리고 정들은 나의 서울아/나는 조급히 病院門에서 뛰어나온다./포장 친 음식점, 다 썩은 구르마에 차려놓은 술장수/사뭇 돼지구융같이 늘어슨/끝끝내 더러운 거릴지라도/아, 나의 뼈와 살은 이곳에서 굵어졌다.// 病든 서울, 아름다운, 그리고 미칠 것 같은 나의 서울아/네 품에 아모리 춤추는 바보와 술취한 망종이 다시 끓어도/나는 또 보았다./우리들 人民의 이름으로 씩씩한 새 나라를 세우랴 힘쓰는 이들을……/그리고 나는 웨친다./우리 모든 人民의 이름으로/우리네 人民의 共通된 幸福을 위하야/우리들은 얼마나 이것을 바라는 것이냐./아, 人民의 힘으로 되는 새 나라// 八月十五日, 九月十五日,/아니, 삼백예순 날/나는 죽기가 싫다고 몸부림치면서 울겠다./너희들은 모도다 내가/시골 구석에서 자식땜에 아주 상해버린 홀어머니만을 위하야 우는 줄 아느냐./아니다, 아니다, 나는 보고 싶으다./큰물이 지나간 서울의 하눌이……/그때는 맑게 개인 하늘에/젊은이의 그리는 씩씩한 꿈들이 흰 구름처럼 떠도는 것을……// 아름다운 서울, 사모치는, 그리고, 자랑스런 나의 서울아,/나라 없이 자라난 서른 해,/나는 고향까지 없었다./그리고, 내가 길거리에 자빠져 죽는 날,/“그곳은 넓은 하늘과 푸른 솔밭이나 잔듸 한뼘도 없는”/너의 가장 번화한 거리/종로의 뒷골목 썩은 냄새나는 선술집 문턱으로 알었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살었다./그리고 나의 反抗은 잠시 끝났다./아 그동안 슬픔에 울기만 하여 이냥 질척어리는 내 눈/아 그동안 독한 술과 끝없는 비굴과 절망에 문드러진 내 씰개/내 눈깔을

뽑아버리랴, 내 씰개를 잡어떼어 길거리에 팽개치랴.

(1945.9.27, 『象牙塔』, 1945.12)
-오장환, 「병(病)든 서울」 전문.

"이놈아 이놈아/썩어빠진 詩줄이나 쓴다고/내 고향 순량한 동무는/너를 덮어놓고 동무로 역이지 않느냐/그리하야 이 나는 우는 것이다."

-「봄에서」(『新天地』, 1947.8) 부분.

초기작에서 항구를 배회하던 시적 주체의 위악과 퇴폐는 찾아볼 수 없다. 첫 시집 『성벽』에 실려 있는 「鄕愁」에서 "어머니는 무슨 必要가 있기에 나를 맨든 것이냐!"라며 반항과 원망에 가까운 목소리는 자취를 감추고,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과 헌신을 뒤늦게 깨달은 자식의 뉘우침과 슬픔이 전면에 등장한다. "늙으신 홀어머니"를 돌보지 못한 지난 시절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도라온 蕩兒"로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숭고한 모성적 존재이자 식민지 민중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해방 이후 시적 주체의 포지션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대상으로 기능한다. '어머니' 앞에 "도라온 蕩兒"로 서는 것은 지난 식민지 시절, 자신의 '퇴폐'를 뉘우치고 죄를 씻어냄으로써 스스로 사회주의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해방공간의 새 시대를 열고 새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내 고향 순량한 동무" 앞에서 식민지 시기 '퇴폐'에 빠져서 "썩어빠진 詩줄"을 썼던 자신의 죄를 고해야 하는 것이다. "人民의 共通된 幸福을 위하야" 그리고 "人民의 힘으로 되는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라 없이 자라난 서른 해"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시적 주체는 "그동안 독한 술과 끝없는 비굴과 절망에 문드러진 내 씰개/내 눈깔을 뽑아버리랴"고 하면서 혹독한 자기 갱신의 의지를 내비친다.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해방기 오장환의 '탕아'라는 자기 호명을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성벽』의 초기 시세계에 대해 고향을 부정한 시적 주체가 보이는 위악과 타락으로 규정하고 이에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해온 경향이 있다. 즉 오장환의 초기 시세계를 리얼리즘과 순수시의 입장에서 '탕아의 퇴폐'로 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식민지 근대에 반대하는 미학적 저항의 몸부림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장환은 "모더니즘이나 리얼리즘이라는 이념적·방법적 프리즘으로 규정되기에는 그 육체 안에 너무도 많은 이질적인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시인"[22]이기에 그의 시를 단순히 탕아 서사만으로 읽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부면들을 놓치게 되는 함정이 될 수 있다. 오장환 연구의 상당수는 이 '퇴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빚으며 그 차이에 의해 해방기 시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23] 문제는 이러한 오장환의 초기 시에 나타난 "전통의 거부반응과 퇴폐적 경향"[24]에 대한 연구의 기본적 전제가 공통적으로 '퇴폐'가 있고 뒤이어 '죄의식'이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선후 관계로 전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신'(유교적 전통)이 지배하는 전시대에서 벗어난 근대적 주체가 세계와 자신의 공백/결여를 마주할 때 경험하는 무의식적인 죄의식에 대한 이해는 오장환의 시에 나타난 '죄의식'이 바로 '탕아 서사' 이면에 감춰진 주체화의 욕망을 추동하는 정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장환 시에 나타난 탕아 서사는 텅 비어있는 근대라는 공백을 메우려는 상상적인 시나리오로 기능한다. 오장환 시의 시적 주체는 전통과 고향을 부정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민족 앞에서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겠다는 상상적 시나리오를 상연하는 것이다. 전통과의 결별을 통해 외부의 어떠한 타자에도 기대지 않은 주체를 꿈꾸지만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민족이라는 대타자 앞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주체의 자리를 공고히 한다. 이때 발생하는 정념이 죄의식이다. 자신을 민족이라는 대타

22) 유성호(2002.여름호), 「한국의 아방가르드 시인 오장환」,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517~518쪽.
23) 최희진(2015.8), 『오장환 문학의 전위적 시인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2~14쪽 참조.
24) 김학동(1990), 『오장환 연구』, 시문학사, 40쪽.

자가 욕망하는 대상의 자리에 놓아 아무런 기준점이 없는 시대(공백)의 불안을 피하려는 절박한 시도인 것이다. 오장환 시의 시적 주체에 나타난 무의식적인 '죄의식'은 '죄'의 형태를 결정지으면서 결국 민족('어머니')이라는 대타자 앞에 죄의식이 부과한 의무와 책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공동체의 윤리로 나아간다.

오장환 시에 나타난 '죄의식'은 상징계의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치/기표를 특정 지으려는 '주체화'[25]의 욕망을 추동하는 기본 동력으로 드러난다. '퇴폐' 이후에 '죄의식'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이라는 정념이 발생하고 이후 '퇴폐'가 나타난다는 역전된 관점은 서둘러 죄의 형식을 부여해 자신의 알 수 없는 죄의식에서 벗어나려는 주체의 절박한 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26]

다른 한편으로는 시적 주체가 보이는 자기 모멸/비하, 환멸에 가까운 위악적 제스처와 '퇴폐'는 무의식적인 죄의식에 따른 '자기 처벌의 욕구'[27]로 설명될 수 있다. '자기 처벌의 욕구'는 주체가 자신의 무의식적인 죄의식을 의식적인 죄의식으로 위장하고 전환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된다.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기 존재의 중핵인 공백과 대면하는 것을 피하려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죄의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과거의 자신에게서 '죄'를 찾아내고 구성하려는 것이다. 무의식적 죄의식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죄의식의 경우에도 '선(先) 죄의식 - 후(後) 죄'의 매커니즘이 작동한다. 의식적인 죄의식은 상징계의 현실에서 주체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욕망과 연관된다. 해방기에서 시적 주체의 의식적인 죄의식은 '탕아'라는 자기 고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구성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하는 중요한 정념으로 작동한다. "죄 없이는 책임도 없고, 책임 없이는 주체의 자리도 확보되지 않"[28]기 때문이다. '탕아'라는 자기 호명을 통해 적극적/의식적으로 구성한 '탕아 서사'의 이면에는 (주체 자신의)기원의 공백/결여를 메우는 주체의 서사화가 숨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장환 시의 시적 주체는 전근대의 봉건적 유교사회와는 다르게 윤리적 기준을 찾을 수 없는 식민지 근대의 현실에서 '무의식적인 죄의식'을 느낀다. 이는 주체가 자기 자신의 공백을 메울 상징계

---

25) "주체가 시니피앙을 통해 대리되면서 구성되고 환상과 연동된 무의식적 욕망을 통해 다양한 삶의 변주곡을 만들어 내는 모든 과정을 주체화(subjectivation)라 부를 수 있다."(김석(2017.1), 「주체화와 정신분석의 윤리」, 『문학치료연구』 제4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79쪽)

26)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죄의식'과 '근대적 주체 형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서영채(『죄의식과 부끄러움』, 나무플러스나무, 2017)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서영채는 칸트의 논의를 빌려 윤리적 주체가 자신의 자유를 확인하는 것은 그가 죄의식을 느낄 때이며 죄와 책임을 떠맡는 행위를 통해서만이 윤리적 주체가 가능하다는 논의를 보여준다. 서영채의 글은, 본고에서 죄의식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른다면 '의식적인 죄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본고의 주요한 참조점이 되었다. 아직까지 현대문학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근대적 주체의 출현을 주체화(상징적 거세)의 과정과 연결시켜 '무의식적인 죄의식'이 발생하는 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제출되지 않았다.

27) 프로이트는 '의식적 죄의식'과 '무의식적 죄의식'을 구별하면서 '무의식적 죄의식'은 자기 '처벌에 대한 욕구'로 '도덕적 마조히즘'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마조히즘은 <죄가 되는>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을 만들어" 낸 후, "그러한 행위는 다음에" "사디즘적 양심의 가책이나 운명이라는 위대한 부모의 힘 있는 질책을 통해 속죄받아야 한다. 이 마지막 부모의 대변자에게서 형벌을 자초하기 위해서 마조히즘 환자는 적절하지 못한 일을 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에 반해서 행동해야 하고, 현실 세계에서 자신에게 열려 있는 좋은 전망을 망쳐 놓아야 하며, 급기야는 자기 자신의 현실적 존재 자체를 파괴해야 한다."(Sigmund Freud, 박찬부 옮김(2003), 「마조히즘의 경제적 문제」, 『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417~432쪽 참조) 프로이트는 다른 글에서 의식적인 죄의식(양심)은 "자아와 자아 이상 사이의 긴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아의 비판 세력에 의해서 자아에 내려진 유죄 판결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의식적인 죄의식이 강박 신경증과 우울증의 경우에 나타난다면, 무의식적 죄의식은 히스테리나 히스테리성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이어서 그는 "양심의 기원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콤플렉스는 무의식에 속하므로, 죄의식의 대부분이 무의식적 상태로 남아 있다는 가설"을 세우는데 이는 본고에서 '무의식적 죄의식'이 주체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잔여물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Sigmund Freud, 「자아와 이드」, 『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같은 책, 394~398쪽 참조)

28) 서영채, 앞의 책, 64쪽.

의 기표 없이는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주체의 불안과 유사하다. 시적 주체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죄의식을 설명 가능하도록 의미화 하는 작업, 즉 실제 있지 않은 죄를 구성하고 죄의식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이 '무의식적인 죄의식'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이러한 '죄'의 구성에는 시인으로서 자의식이 개입하게 된다. 식민지와 해방기의 현실에서 시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거 식민지의 '나'를 '퇴폐'로 규정하고 스스로 '탕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인 죄의식'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죄'를 구성해 자신의 죄의식에 실체감을 마련해주고 상징계적 현실에서 주체의 자리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이며 그것은 주체가 자신의 공백을 대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상징계의 기표를 찾는 과정과 동일하다. 죄의식이 없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오장환 시의 시적 주체가 '무의식적인 죄의식'을 은폐하면서 떠맡는 '의식적인 죄의식'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선도자적 시인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절망과 비애에 빠져 자신에게 부여된 시인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29]으로 드러난다. '나'는 민족(「병든 서울」에서의 "어머니")이라는 대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주체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30] 오장환의 산문과 시에서 주지하다시피, "'시인'은 지양해야 할 세계와 지향해야 할 최대치의 '생활' 사이에서 다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묻는"[31] 존재로 나타난다. "해방 전이나 후나 시인의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던 원죄의식은 자신이 어느 사이 외면하고 있는 삶과 죽음들에 대한 혹은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무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이미-항상 '시인'인 자신은 '어떻게' '시'를 '해야'할 것인가를 강박적으로 질문해야"[32]하는 것이다. 오장환이 스스로에게 행하는, 시인의 의무에 대한 강박적인 질문은 증상적인데 그것은 "질문-주체화 과정은 바로 동일시를 통해 이러한 트라우마적 중핵(주체의 공백/결여-인용자 주)을 회피하려는 시도"[33]이기 때문이다. 오장환의 시에는 '질문-주체화 과정'을 통해 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기표의 연쇄, 즉 자기 호명/지칭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자기 호명은, 호명되는 기표에 주체 자신을 동일시해서 식민지 조선이나 해방기에 자신의 상징적 정체성, 곧 주체의 위치를 특정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주체가 자신의 공백/결여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려는 절박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오장환의 해방기 시에서 '고향'이 '어머니'로 등치되고 그 '어머니'가 사회주의 이념 하에서 보편적인 '인민'의 표상으로 호명된다는 것을 본다면, '어머니'(타자) 또한 주체와 마찬가지로 기의 없는 공백, 텅 빈 기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인민' 앞에서 '탕아'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 서둘러 주체의 자리를

29) 최희진, 앞의 논문, ii쪽.

30)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 근대문학에 등장한 '고백'에 대해, 그것은 <주체> 확립의 변증법과 동력dy-namism으로서 근대적 <주체>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도에 의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는 '고백'을 결코 참회가 아니라 왜곡된 또 하나의 권력 의지이며 고백은 나약해 보이는 몸짓 속에서 <주체>로서 존재할 것, 즉 지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본다.(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2010), 「고백이라는 제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개정 정본판, 도서출판b, 122쪽 참조) 또한, 푸코는 그리스로마 시대 이래로 서구의 글쓰기 전통이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자기 체험으로서의 글쓰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글쓰기 행위의 대상이 곧 자기라는 주체가 된다고 말한다. 즉, 고대로부터 내려온 글쓰기 방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에의 배려'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글쓰기 전통은 서구 사유의 중요한 부분이며 종교적 행위인 참회와 결합하면서 자신을 인식하고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화의 수행이자 자기 포기의 형식을 갖게 된다.(Michel Foucault 외, 이희원 옮김(1997), 「자기의 테크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 동문선, 33~86쪽) 고백을 통해 고백해야할 자아의 내면이 발견되고 구성되면서 근대적 주체로 탄생한다는 고진의 논의는 푸코의 글을 참고하고 있다. 여기서 자아의 내면이 있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통해 자아의 내면이 발견된다는 역설은 본고에서 죄의식을 통해 죄가 구성된다는 구조와 흡사하다. 근대적 주체와 죄의식, 고백은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다.

31) 홍성희(2017.5), 「'이념'과 '시'의 이율배반과 월북 시인 오장환」, 『한국학연구』 제45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93쪽.

32) 홍성희, 위의 논문, 99쪽.

33) Slavoj Zizek(2013), 앞의 책, 286쪽.

확보하려는 '촉박한 동일화'[34]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오장환의 시적 편력은 '퇴폐'를 둘러싼 죄의식의 작용에 의한 주체화 과정으로 나타난다. 『성벽』의 '퇴폐'에서 『헌사』, 『나 사는 곳』에 나타나는 상실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방황의 모티프로의 이행은 '무의식적인 죄의식'을 '의식적인 죄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곧 시적 주체가 자신의 '무의식적인 죄의식'(공백/결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면서 동시에 식민지 현실에서 상징계적 자리(정체성)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4. 퇴폐의 부정성과 시인의 자리

오장환의 해방기 시는 대타자(민족, 인민, 사회주의 이념)에게 받을 긍정적인 시선을 욕망하는 상태에서 나르시시즘적인 죄의식의 무대화가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진다. 오장환 시의 시적 주체는 오장환 자신이 개인 주체(식민지인, 시인)와 현실 사회(식민지 조선, 해방기)의 교착상태를 드러내면서 그 갈등과 모순의 풍경을 그려내는 가운데에 나타난다. 낭만적 화해나 섣부른 봉합으로 나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세계와 불화한다. 이러한 교착상태가 시적 주체의 의식적인 죄의식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시인(자아 이상)이라는 목표를 상정하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식적인 죄의식은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35] '식민지의 청년'은 전근대적 전통과의 단절을 통해 전시대와는 다른 윤리적 삶의 방식을 모색한다. 오장환은 식민지 근대의 조선에서 유교적 전통이 지배하는 '고향'은 더 이상 윤리적 실체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새로운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근대적 고향의 유교적 전통이라는 윤리적 실체를 상실했을 때, 그 윤리적 실체를 상실하는 작업을 통해서만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36]

오장환 시의 시적 주체가 상정한 자아 이상('시인')은 실현불가능한 초월적 대상이다. '나'를 '시인'으로 호명한 순간, 그 상징적 동일시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호명의 결과로 "나에게 호명된 상징적 동일성을 온전히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런 자각이 초자아적 죄의식"[37]으로 출현하는 것이다. 시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했다는 내용의 산문을 비추어볼 때 오장환에게 자신의 현실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시인'이라는 자아 이상의 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시인'(자아 이상)은 실제로 실현불가능한 욕망의 대상이자 그 자체로 결여된 것으로 윤리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고정점이다. 주체의 실정적 정념인 '죄의식'을 작동시키기 위해 주체 스스로 상징적 동일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초월적 가치를 지닌 '시인'이라는 자기 호명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진정한 '시인'을 상정하는 순간, 시인-되기는 도달불

34) 지젝은 '촉박한 동일화'를 설명하면서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하는, '이데올로기적 호명'이라는 알튀세르적 공식을 라캉식으로 역전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체로서, 주체로into subject 호명되는 것은 결코 개인이 아니다. 오히려 주체 그 자신이 x(어떤 특정한 주체-위치, 상징적 정체성이나 위임)로서 호명되며, 그로써 $의 심연을 피해 가는 것이다."(Slavoj Zizek, 이성민 옮김(2007),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도서출판b, 144~145쪽)

35) 여기서 윤리적 주체가 수행하는 삶의 '성실'(「延安서 오는 동무 沈에게」, 「나의 길」)은 사회주의 체제와 인민을 위한다는 대의에 온전히 헌신했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교착상태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아이러니를 낳는다. 즉 오장환에게 있어서 '성실'은 오로지 '성실'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의 진정한 '성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36) "'상실'(윤리적 실체의 상실)의 운동 자체가 윤리적 매개 작업을 위한 공간을 열며, 이것만이 해답을 생성할 수 있다."(Slavoj Zizek(2011), 김서영 옮김, 『시차적 관점』, 마티, 257쪽)

37) Slavoj Zizek, 박정수 옮김(2004),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91쪽. 지젝은 자아-이상과의 상징적 동일시로서의 호명은 그 자체로 일종의 타협, 즉 '자기 욕망을 포기하는' 방식이며 자기 욕망을 양보한 '보다 깊은' 수준의 죄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가능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죄’가 출현한다.

오장환은 해방 이후의 산문(「자아의 형벌」)에서 소월의 시세계를 평하면서 “저도 모르게 소시민을 고집하려는 나와 또 하나 바른 역사의 궤도에서 자아를 지양하려는 나와의 거리”라는 자신의 문제의식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퇴폐’와 ‘죄의식’의 관계와 유사하다. ‘퇴폐’라는 부정성이 시인(주체)의 내부에 있을 때만이 자기 갱신의 동력으로서의 ‘죄의식’이 작동하는 것이다. 주체의 진정한 실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퇴폐’는 실상 주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초기 시에 나타난 ‘퇴폐’의 위치에 해방 이후 ‘소시민성’이 놓이면서 ‘퇴폐’의 위상位相과 시적 주체의 죄의식은 그대로 유지된다.[38]

오장환이 북한의 체제에 안착한 후 출간한 『붉은 기』(1950)에는 ‘퇴폐’라는 부정성이 탈각된 채 어떠한 죄의식도 검출되지 않는다. “자유를 위한 오래인 싸움에서/피로 물든 이 깃발” 아래에서 “찬란히/꽃 피어오르는/공산주의 행복의 동산”(「붉은 기」)을 찬양하고 선동하는 시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타자가 말하는 자유를 따르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오장환은 전시대의 전통과 외부의 윤리적 기준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열어젖힌 공백의 가능성을 서둘러 파기한 채 이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라는 타자에게 이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장환이 1930년대에 던져준 낯선 미학적 충격은 한국시사에 강렬하게 살아남아 있다. ‘퇴폐’와 함께 ‘죄의식’을 끌어안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시인’이고 ‘주체’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증거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기초 자료

김학동 편(2003), 『오장환 전집』, 국학자료원.

김학동(2004), 『오장환 평전』, 새문사.

이기성 편(2015), 『성벽/헌사』, 소명출판.

도종환(2012), 『오장환 시 깊이 읽기』, 실천문학.

박수연·노지영·손택수 편(2018), 『오장환 전집 1』, 솔.

2. 논문 및 단행본

김석(2017.1), 「주체화와 정신분석의 윤리」, 『문학치료연구』 제4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

38) 한국시문학사에서 자신의 ‘퇴폐’-‘소시민성’에 대해 치열하게 불화했던 또 다른 시인인 김수영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병든 서울」에는 오장환 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한 반성과 새 나라 건설을 위한 열정이 날것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 오장환의 시는 월북을 거치면서 체제 이데올로기의 압력에 의해 경직성을 띠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병든 서울」은 어떤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정치적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소시민성을 반성하며 토로하는, 가학적일 정도의 자기 고백은 바로 김수영을 떠올리게 한다. 오장환에게 8·15가 있다면, 김수영에게는 4·19가 있다. 김수영의 시가 “나는 너무나 많은 첨단의 노래만을 불러왔다”(「서시」)는 고백처럼 소위 모던한 것에 집중된 초기 시편들에서 4·19를 전후해 정치적 전위를 전면에 드러내는 시편들로 변모해 가는 모습은 오장환과 비교했을 때 매우 흥미롭다. 다만 오장환의 시가 미학적 전위를 포기하고 정치적 전위에 함몰되면서 실패한 지점으로 나아갔다면 김수영의 시는 미학적 전위와 정치적 전위를 동시에 성취한다. 오장환이 새 나라를 외치던 병든 서울에서 김수영은 “도야지우리의 밥찌끼/같은 서울의 등불”을 바라보며 “4·19에서 배운 기술”인 “사랑”(「사랑의 변주곡」)을 노래한다. “왕궁의 음탕 대신에/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며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는 ‘나’의 “비겁한 것”(「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을 토로하는 김수영의 시는 분명, 소시민성에 대한 자기비판과 새로운 나라 세우기의 의지를 드러내는 「병든 서울」의 연장선상에서 읽어낼 수 있다.(차성환(2018.9), 「8·15 해방과 ‘새 나라’의 가능성-오장환과 김수영의 시」,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51~252쪽) 오장환과 김수영의 계보적 학적인 일치는 일찍이 김재용과 유성호에 의해서 제기되었으며 이후 이현승에 이르러 이들 시에 나타난 부정성과 전위성을 준거로 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재용(2002), 「식민지 자본주의와 근대문명의 내파」, 『오장환 전집』, 실천문학사, 663쪽 ; 유성호, 앞의 글, 517~518쪽 ; 이현승(2012.2), 「오장환과 김수영 시 비교 연구」, 『우리문학연구』 35, 우리문학회, 381~409쪽)

김재용(2002), 「식민지 자본주의와 근대문명의 내파」, 『오장환 전집』, 실천문학사.
김종철(1978), 「30년대의 시인들」, 『시와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김종훈(2018.10), 「오장환 시집 『헌사』와 『나 사는 곳』에 나타난 감정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Vol.19 No.2, 한국근대문학회, 237~261쪽.
김지선(2013.10), 「오장환의 '윤리의식' 연구」, 『인문논총』 32, 인문과학연구소, 109~132쪽.
김학동(1990), 『오장환 연구』, 시문학사.
남기혁(2012.3), 「오장환 시의 육체와 퇴폐, 그리고 모럴의 문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5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박정석(2012.10), 「오장환 초기 시의 감정과 비극성」, 『어문논집』 66, 민족어문학회, 335~361쪽.
박종성(2013), 『퇴폐에 대하여』, 인간사랑.
서영채(2017), 『죄의식과 부끄러움』, 나무플러스나무.
서인식(1939.1), 「哀愁와 頹廢의 美」, 『인문평론』, 김윤식 편저(1989), 『哀愁의 美, 頹廢의 美』, 나남, 227-229쪽.
신범순(1998), 『한국현대시의 퇴폐와 작은 주체』, 신구문화사.
오세영(1989), 「탕자의 고향발견」, 권영민 편, 『월북문인 연구』, 문학사상사.
유성호(2002.여름호), 「한국의 아방가르드 시인 오장환」,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이기성(2007), 「탕아의 위장술과 멜랑콜리의 시학」,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학회, 337~366쪽.
이현승(2012.2), 「오장환과 김수영 시 비교 연구」, 『우리문학연구』 35, 우리문학회, 381~409쪽.
임화(1939.1~2), 「신인론」, 『비판』, 「신인론」, 임화문학예술전집편찬위원회 엮음(2009), 『임화문학예술전집3 :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임화(1940.12.9~12.16), 「시단詩壇은 이동한다」, 『매일신보』, 임화문학예술전집편찬위원회 엮음(2009), 『임화문학예술전집5 : 평론2』, 소명출판.
차성환(2018.9), 「8·15 해방과 '새 나라'의 가능성-오장환과 김수영의 시」,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47~256쪽.
최두석(1992), 「오장환의 시적 편력과 진보주의」, 『리얼리즘의 시정신』, 실천문학사.
최희진(2015.8), 『오장환 문학의 전위적 시인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홍성희(2017.5), 「'이념'과 '시'의 이율배반과 월북 시인 오장환」, 『한국학연구』 제45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2010), 「고백이라는 제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개정 정본판, 도서출판b.
Zizek, Slavoj, 이성민 옮김(2007),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도서출판b.
————————, 이재환 옮김(2010), 『나눌 수 없는 잔여』, 도서출판b.
————————, 이수련 옮김(2013),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 김서영 옮김(2011), 『시차적 관점』, 마티.
Foucault, Michel 외, 이희원 옮김(1997), 「자기의 테크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 동문선, 33~86쪽.
Freud, Sigmund, 정장진 옮김(2003),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 윤희기·박찬부 옮김(2003), 『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참고표

	자아 서사	주체화	정념	시적 양상
성벽	전근대적 고향에 대한 부정/탈향 및 식민지 근대에 진입	식민지 근대의 공백(주체 자신의 공백)과 대면	무의식적 죄의식	자기 비하와 환멸, 퇴폐
헌사, 나 사는 곳	고백의 형식을 통한 자기 내면의 발견	대리 기표를 통해 자신의 공백/결여를 외면	의식적 죄의식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채감, 방황
병든 서울	'탕아'라는 자기 호명을 통한 자아서사 구축	사회주의 이념/선도적 시인에 대한 '촉급한 동일화'	대타자(인민/민족)의 개입으로 의식적 죄의식 강화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 사회주의 이념/인민 공동체에 헌신하는 윤리적 주체의 추구

「오장환 시에 나타난 죄의식 연구(차성환)」에 대한 토론문

이은실(수원대학교)

최승자 초기 시에 드러난 죽음과 사랑
『이 시대의 사랑』을 중심으로

문혜연(한양대학교)

1. 서론

1979년 『문학과지성』 가을호에 「이 시대의 사랑」 외 4편을 발표하며 시단에 등단한 최승자는 1981년 첫 시집 『이 시대의 사랑』을 시작으로 2016년 8번째 시집 『빈 배처럼 텅 비어』까지 긴 시간 동안 끝없는 사랑의 아픔과 죽음을 노래한 시인이다.[1)]

최승자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시로서의 연구로, 엄경희는 최승자가 기존의 여성시와 다른 시적 문법으로 욕설이나 비속어, 단호한 어조와 강렬한 시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정립되었던 여성성/여성시에 대한 시각을 동요시킴과 동시에 대상과 자아의 치열하고도 적극적인 관계를 드러내고자 했다고 말했다.[2)] 김승희는 최승자의 시를 여성주의적 고백시로 보고, 일인칭 화자가 드러내는 자전적 맥락의 시가 가부장적 사회와 문명에 대한 분노와 광기를 표출해낸다고 말했다.[3)] 이경수는 최승자가 자기모멸과 혐오를 보여주면서도 죽음의 시간을 지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시를 쓸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4)]

두 번째로는, 부정성에 대한 연구로, 이광호는 최승자가 현실에 대한 합리화와 순응주의와 같은 외부적 억압이 자신을 왜곡시킴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언어적 금기에 대한 위반과 신체적 사유를 통해 병든 세계에 대한 부정을 밀고나갔다고 말했다.[5)] 장석주는 최승자가 시에서 삶에 억압적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로 군림하던 아버지들과의 싸움을 통해 그들을 비판하고 부정한다고 말했다.[6)] 김정신은 최승자의 시에 드러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실은 시대로부터 오는 외부적 억압과 내면적 억압 구조로 인한 것이라며, 이 부정의 정신이 불안, 절망, 죽음의식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다.[7)]

마지막으로 죽음과 사랑에 대한 연구가 있다. 김현은 최승자가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마음을 토로하며 삶을 죽음의 삶으로 인식하며, 세계를 죽음이라 말하며 죽음을 반성하는 죽음으로 나아가 슬픔, 기억, 추억을 시로 게워낸다고 말했다.[8)] 김설해는 최승자가 사랑이라는 에로스적 요소를 통해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랑을 갈구하지만, 이 사랑이 일시적임을 알고 자학적 고통을 겪은 뒤 시를 통해 이 괴로움을 정화시킨다고 말했다.[9)] 이혜원은 최승자가 사랑의

---

1) 최승자의 시집으로는 『이 시대의 사랑』(문학과지성사, 1981), 『즐거운 일기』(문학과지성사, 1984), 『기억의 집』(문학과지성사, 1989), 『내 무덤, 푸르고』(문학과지성사, 1993), 『연인들』(문학동네, 1999), 『쓸쓸해서 머나먼』(문학과지성사, 2010), 『물위에 씌어진』(천년의 시작, 2011), 『빈 배처럼 텅 비어』(문학과지성사, 2016)가 있다.
2) 엄경희, 「여성시에 대한 기대지평의 전환」, 『이화어문논집』 13, 1994.
3) 김승희, 「한국 현대 여성시의 고백시적 경향과 언술 특성」, 『여성문학연구』 18, 2007.
4) 이경수, 「1980년대 여성시의 주체와 정동」, 『여성문학연구』 43호, 2017.
5) 이광호, 「위반의 시학, 혹은 신체적 사유」, 『위반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93.
6) 장석주, 「죽음, 아버지, 자궁, 그리고 시쓰기-최승자론」, 『문학, 인공정원』, 프리미엄북스, 1995.
7) 김정신, 「최승자 시에 나타난 부정의 정신」, 『현대문학이론연구』 30, 2014.
8) 김현, 「게워냄과 피워냄」,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말들의 풍경』, 문학과지성사, 1992.

실패로 절망에 빠진 여성주체가 죽음 충동을 드러내며, 이 죽음 충동을 넘어 예술적 승화에 이르는 숭고미를 구현해내고 있다고 말했다.[10]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최승자의 시는 죽음과 사랑의 노래를 통해 세계와 시대에 대한 부정의 정신을 드러내며 여성시의 지평을 넓혔다고 볼 수 있겠다. 본고는 이 중 최승자의 시 세계에 끝없이 변주되는 죽음과 사랑에 집중하고자 한다. 첫 시집인 『이 시대의 사랑』에는 시대와 사회보다 주체의 내면에 자리한 죽음과 사랑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더 잘 드러나 있다고 보고, 최승자의 죽음과 사랑의 근원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대의 사랑』은 시인의 말에서도 밝히고 있듯이[11] 시간의 역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에서 3부까지의 부 제목으로 시가 창작된 시기를 다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구성이 시인이 의도한 구성이며 시간의 역순으로 읽을 때 의미가 생겨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 역순적 구성을 통해 1부에 드러나는 죽음과 사랑의 이미지가 보다 과거인 2부와 3부의 결과로 제시된 것이라 보고, 1부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시 「일찌기 나는」과, 사랑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시 「청파동을 기억하는가」를 중심으로 현재의 죽음과 사랑에 대한 시적 주체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렇게 탐색한 최승자의 죽음과 사랑의 근원은 뒤이은 최승자의 시집에 드러나는 죽음과 사랑을 읽어내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삶과 죽음 사이, 「일찌기 나는」

일찌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
나는너를모른다 나는너를모른다.
너당신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일찌기 나는」① 전문[12]

9) 김설해, 「최승자 시에 나타난 에로스와 타나토스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0) 이혜원, 「최승자 시에 나타나는 사랑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비평문학』 59, 2016.
11) "제1부는 올해 1981년에 쓴 시들을 나의 생각대로, 제2부는 1977년부터 1980년까지의 시들을 씌어진 순서대로, 그리고 제3부는 대학 3학년때부터 대학을 그만둔 해까지의 시들을 역시 씌어진 순서대로 묶은 것이다." (최승자, 『이 시대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81, 시인의 말.)
12) 최승자, 『이 시대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81, 9-10쪽.(이하 최승자의 시는 모두 여기서 인용하며, 시집

시집의 포문을 열며 시적 주체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칭한다.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는 고백에서 주체의 아무것도 아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자신에게 삶을 준 존재인 부모로부터의 버림받음을 암시하는 이 구절을 통해 주체의 삶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졌다는 충격적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험은 이 시에서 처음 드러나는 게 아니다. 시집의 구성상 2부와 3부는 1부의 과거가 되는데, 3부의 「자화상」과 2부의 「부질없는 물음」에서 이 아무것도 아님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일찌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고백은 「자화상」의 시작을 여는 '나는 아무의 제자도 아니며/누구의 친구도 못 된다.'는 문장과 맥락적으로 맞닿는다. 이는 주체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 결과가 아닐까?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제자'와 '친구'라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신에 대한 부정은 1부에 와서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자신의 삶마저 부인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어머니 나는 어둠이에요./그 옛날 아담과 이브가/풀섶에서 일어난 어느 아침부터/긴 몸뚱어리의 슬픔이에요.'에서 주체는 스스로가 슬픔의 몸을 가졌다 말했고, 이 슬픔은 '아담과 이브'라는 태초의 한 쌍에게 불행을 던져준다. 「자화상」의 주체는 완벽한 하나이거나, 자신과 함께할 대상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세상의 바깥에서 태어난 '어둠'과 같다. '꿈에서도 그리운 아버지 태양이여,/어머니이신 세상이여,/어째서 내 존재를 알리는 데에는/이 울음의 기호밖에 없을까요?'(「부질없는 물음」)라는 물음은 '어둠' 속에서 '슬픔의 毒'(「자화상」)을 길러낸 주체가 슬픔과 울음만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보여준다.

1연에서 주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 끝에 스스로를 '시체'라고 칭한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여 '하염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에 주목해보면, 죽음은 이미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오형엽은 「일찌기 나는」의 주체를 '유령 화자'로 보고, 시의 마지막 연을 화자가 "자신의 현재 모습인 '죽음'"을 재확인 하는 것으로 봤다.[13] 그렇지만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인 주체는 이미 죽어 '유령'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고 있는, 죽음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닐까?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영원한 루머'라고 말할 때, 주체는 죽음을 운명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삶에서의 버림받음을 통해 체득한 이 '어둠' 때문에 자신의 삶이 계속 유지될 것임을 믿을 수 없으므로, 최승자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머지않아 다가올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트라우마적인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 나는 내가 일찍 죽을 것이며 아마도 자살을 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내가 머잖아 죽을 것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유혹적이기도 했던 임박한 파멸의 느낌 앞에서는 아무런 진지한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게 당연하리라. 사실 그 동안의 내 삶이 정처없고 뿌리없고, 정처없음의 뿌리밖에 없었던 것은 나로서는 시간, 특히 미래의 시간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에게 시간은 미래, 앞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뒤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영원히 멈춰있거나였다. 나는 일 년 뒤 혹은 일 년 뒤의 나라는 것을 내 몸과 정신으로 감지할 수가 없었다.
>
> 「죽음에 대하여」(산문) 부분[14]

의 부 구성에 따라 시의 제목 뒤에 번호를 표기함.)

13) 오형엽은 최승자가 전기 시에서 "시체"라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령 화자"를 통해 '죽음'과 그 후의 '사랑'과 '고독'을 '예언적으로 표현'한다고 말했다. "유령 화자는 4연에서 자신의 현재 모습인 '죽음'을 직시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재확인한다."(오형엽, 「최승자 시의 구조화 원리 연구 - 반추와 예언의 순환적 나선 운동」,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제80집, 2020, 22~23쪽.)

14) 최승자,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책세상, 1989, 63-64쪽.(「죽음에 대하여」는 1983년에 발표된 것으로 수록되어 있음)

산문 「죽음에 대하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최승자는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며 그 끝은 자살일 것이라는 운명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최승자는 '정처없고, 뿌리없'음을 느껴 '미래의 시간'을 감지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시간은 미래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가거나 혹은 지금 이 자리(현재)에 영원히 멈춰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최승자는 죽음에 대한 강렬한 인식 속에서 투쟁처럼 자신의 삶을 최대한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체념적 인식 속에서 살아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운명적 인식은 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 죽을 걸 알면서도 죽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적 주체를 끌고 간다. '요즈음 꿈은 예감으로 젖어 있다./무서운 원색의 화면,/그 배경에 내리는 비/그 배후에 내리는 피'(「외로움의 폭력」②)에서 볼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강렬한 예감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감지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은 이 죽음의 도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시적 주체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된다. 그렇기에 주체는 삶의 영역에도, 죽음의 영역에도 완전히 포함되지 못한다.

대낮에 서른세 알 수면제를 먹는다.
희망도 무덤도 없이 위 속에 내리는
무색투명의 시간.
온몸에서 슬픔이란 슬픔,
꿈이란 꿈은 모조리 새어 나와
흐린 하늘에 가라앉는다.
보이지 않는 적막이 문을 열고
세상의 모든 방을 넘나드는 소리의 귀신.
(나는 살아 있어요 살 아 있 어 요)
소리쳐 들리지 않는 밖에서
후렴처럼 머무는 빗줄기.

죽음 근처의 깊은 그늘로 가라앉는다.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바다에 눕는다.

「수면제」③

3부의 수록된 「수면제」에는 죽음에 대한 예감이 '서른세 알 수면제를 먹는' 행위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자살할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운명적 인식을 시로 구현해본 것이 아닐까 싶은 이 시의 핵심은 괄호 안에 들어가 '밖'에 들리지 않는 '나는 살아 있어요 살 아 있 어 요'일 것이다.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것 같던 죽음(에 대한 예감)은 '희망도 무덤도 없이 위속에 내리는' 시간에 의해 지연되었다.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던 '슬픔'과 '꿈'이 빠져나가 '흐린 하늘에 가라앉'으며 세상의 배경이 된다. 살아있다는 외침을 가리는 빗줄기 속에서 주체는 죽음이 아닌 '죽음 근처의 깊은 그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15] 예정된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주체는 죽지 못하고 '죽음 근처'에서 기다려야만 한다. 이 뜻하지 않은 기다림이 죽음을 위한 단계임을 주체는 깨닫는다. '하늘의 망루 위에/내 기다림을 세워놓고/시간이여 나를 눕혀라/바람 부는 허공의 침상 위에/머리는 이승의 꿈속에 처박은 채/두 발은 저승으로 뻗은 채'(「허공의 여자」②)라는 구절을 보면 주체는 스스로를 허공, 즉

15) 그리고 이 '그늘'은 「자화상」의 화자가 스스로를 '어둠의 자손'이라고 칭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을 '밝은 거리의 아이들'과 스스로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그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어둠(그늘)'은 주체의 근본적 본질이며 스스로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하늘의 망루’ 위에 눕히고 죽음이 찾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시간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기에 기다림은 계속되겠지만, 그 기다림이란 결국 전체로서의 삶도 끝으로서의 죽음도 아닌 그 가운데, 삶의 과정이자 죽음의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그 확연히 정해지지 않은 기한을 스스로에게 선고한 시한부의 삶은 당장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눈앞의 나날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어쩌면 「일찌기 나는」의 ‘하염없이 죽어’간다는 삶에 대한 인식은 이 난처함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나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었다.
아니 떨어지고 있었다.
한없이
한없이
한없이
.....
.....
...
아 쌍! (왜 안 떨어지지?)

「꿈꿀 수 없는 날의 답답함」① 전문

이 시에서 주체는 ‘떨어지고 싶’었고, 분명 스스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떨어진다는 건 바닥에 닿아야 끝나는 행위이기에 추락이 ‘한없이’ 계속된다는 건 결국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죽음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했으나 죽음이 계속 지연되는 난처함이 “아 쌍! (왜 안 떨어지지?)”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제목의 ‘꿈’이란 추락이 지연되는 시 속 상황에 따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즉 죽음에 대한 꿈일 것이다. 그런데 이 꿈을 ‘꿈꿀 수 없’어서 겪게 되는 ‘답답함’은 「삼십 세」의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라는 곤란과 닮아있다. 아무것도 아닌 삶에도 착실히 시간을 흘러 ‘서른 살은 온다.’ 죽음을 꿈꾸는 사람에게 새로운 해는 언제나 껄끄러운 일이겠지만, 서른이라는 새로운 해는 주변에서도 스스로도 보다 남다르게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주체는 ‘흰 손수건을’ 던지고 ‘행복행복행복한 항복’을 외친다. ‘한없이’ 떨어지고, ‘하염없이 죽어가’는 난처한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기다림뿐이라는 걸 알게 된 주체는 이 시간 앞에‘항복’하고, ‘행복’과 ‘사랑’을 포기한다.

「일찌기 나는」에서 ‘행복’과 ‘사랑’은 ‘너당신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에서 볼 수 있듯 사랑의 대상인 ‘너’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 ‘단발마의 비명 같은 사랑’(「버림받은 자들의 노래」②)은 ‘떨어지는 유성처럼’ ‘잠시 스쳐’가는 것일 뿐, 지속되지 못한다. 이런 인식 또한 앞에서 살펴봤듯이 버림받았던 기억(‘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16] 버림받았던 기억이 주체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자 삶의 태도에 대한 선언을 하게끔 만들었다면, 이 선언은 다시 스스로를 버림받게 만든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에서 ‘그러므로’라는 부사의 사용에 집중해보자. 이 ‘그러므로’를 2연의 마지막 행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

16) 김신정은 최승자가 “‘버려진 여성’의 사적인 체험을 시화”함으로써 “한 개인의 고통스럽고 불행한 체험을 고백하면서, 개인을 불행에 빠트리고 개인의 진정성에 상처를 입히는 세계의 비정함과 폭력성을 폭로한다”고 말했다.(김신정, 「강은교와 최승자 시에 나타난 유기(遺棄) 모티프」, 『비평문학』 46호, 2012.) 다만 최승자의 ‘버림받음’을 설명함에 있어 김신정이“‘애인’에게 버림받은 여성의 형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찌기 나는」 등에 드러난 부모로부터의 버림받음을 설명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 『이 시대의 사랑』에는 「일찌기 나는」을 비롯해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와 「슬픈 기쁜 생일」 등에 드러나는 부모의 이미지가 주체에게 근원적 불안을 주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버림받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애인’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버림받음’의 원형도 함께 논해야 할 것이다.

는 ‘일찌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에 뒤이어 나오는 접속사라고 보고 시의 행들을 다시 배열해 본다면, ‘일찌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맥상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주체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와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다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악순환의 굴레로 접어들게 된다. 이 악순환의 굴레는 정말 계속되었던 것인지, 두 번째 시집 『즐거운 일기』에서 보다 명확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었다.

근본적으로 세계는 나에겐 공포였다.
나는 독 안에 든 쥐였고,
독 안에 든 쥐라고 생각하는 쥐였고,
그래서 그 공포가 나를 잡아먹기 전에
지레 질려 먼저 앙앙대고 위협하는 쥐였다.
어쩌면 그 때문에 세계가 나를
잡아먹지 않을는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

오 한 쥐의 꼬리를 문 쥐의 꼬리를 문 쥐의 꼬리를 문 쥐의 꼬리를 문 쥐의 꼬리를 문 쥐의 꼬리를……

「악순환」 전문[17]

‘공포가 나를 잡아먹기 전에’ ‘먼저 앙앙대고 위협하는’ 모습을 「일찌기 나는」에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겹쳐볼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은 어떤 것도 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이전에 스스로 그 자리를 선점하는 ‘항복’(「삼십 세」)의 자세다. 죽음의 불가능성으로의 삶은 끝없이 ‘꼬리를 문’ 악순환이므로 주체에게 ‘영원한 루머’는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하염없이 죽어’간다는 것이다. 그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은 뜬 소문일 뿐이라는 것을 주체는 ‘일찌기’ 알고 있었다. 시집의 맨 앞에서 밝히는 부 구성에 대한 시인의 말을 참고할 때, 역순행적 구성 속에서 「일찌기 나는」은 『이 시대의 사랑』에 드러난 삶과 죽음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모두 담긴 시라고 볼 수 있다. 극단적인 자기 비하로까지 읽히는[18] 이 시는 실은 미래의 파국 앞에서 비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자 했지만 그게 불가능해짐으로써 미리 ‘아무것도 아님’을 수행하는 ‘항복’의 시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죽음이 다가온다는 불안 속에서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는 삶이라는 곤란을 견뎌야 했던 최승자의 시적 주체는, 이 ‘아무것도 아님’의 자리를 선점함으로써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삼십 세」)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수행하려 애쓰는 비극적 주체[19]로 볼 수 있을 것이다.[20]

---

17) 최승자, 『즐거운 일기』, 문학과지성사, 1984, 86쪽.

18) 『이 시대의 사랑』의 시적 주체를 자기 비하적이라고 읽어낸 글로는 김혜경과 김건형의 글이 있다. 김혜경은 최승자가 상징적 질서를 전복시키고 자아를 정립하기 위해 더럽고 부적절한 것들을 자기 정체성으로 연기한다고 말했다.(김혜경, 「최승자 초기시 연구 – 『이 시대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37, 2013.) 김건형은 최승자가 세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천한 이미지를 통해 자기비하를 방법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건형, 「최승자 시에 나타난 비천한 주체의 변모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5집, 2014.)

19) 그리고 이 비극은 두 번째 시집 『즐거운 일기』에도 똑같이 구현되어 있다. “죽고 싶음의 절정에서/죽지 못한다, 혹은/죽지 않는다./드라마가 되지 않고/비극이 되지 않고/클라이막스가 되지 않는다./되지 않는다,/그것이 내가 견뎌내야 할 비극이다./시시하고 미미하고 지지하고 데데한 비극이다./하지만 어쨌든 이 물을 건너갈 수밖에 없다./맞은편에서 병신 같은 죽음이 날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비극」 전문, 『즐거운 일기』, 문학과지성사, 1984, 85쪽.)

20) 최승자 시에 드러난 비극성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정과리, 「방법적 비극, 그리고–최승자의 시세계」, 최승자, 『즐거운 일기』, 문학과 지성사, 1984.; 김용희, 「죽음에 대한 시적 승리에 관하여」,

3. 사랑의 기억,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따뜻한 땅속을 떠돌 동안엔

봄은 오고 너는 갔다.
라일락꽃이 귀신처럼 피어나고
먼 곳에서도 너는 웃지 않았다.
자주 너의 눈빛이 셀로판지 구겨지는 소리를 냈고
너의 목소리가 쇠꼬챙이처럼 나를 찔렀고
그래, 나는 소리 없이 오래 찔렸다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오래 기어서라도,
가고 싶다 네가 있는 곳으로.
너의 따스한 불빛 안으로 숨어 들어가
다시 한 번 최후로 찔리면서
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

그리고 지금, 주인 없는 헤진 신발마냥
내가 빈 벌판을 헤맬 때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눈 덮인 꿈속을 떠돌던
몇 세기 전의 겨울을.

「청파동을 기억하는가」① 전문

1부의 「청파동을 기억하는가」는 상실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정했'던 '너'와 함께했던 '청파동'은 상실하기 전 사랑의 한순간을 보여준다. 최승자의 시적 주체는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버림받는다. 하지만 「청파동을 기억하는가」에는 대상에게 기억을 묻는 주체의 물음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시는 다른 시편들과 달리 상실한 대상인 '너'를 직접 호출하며 사랑의 순간을 기억하는지 묻는다. 이 물음은 주체는 그 순간을 기억함을 전제로 한다. 1연에서 제시되는 사랑의 순간은 '너'가 '다정했었'던 순간으로, '겨울'이지만 '따뜻'했었던 과거의 일이다. 시적 주체는 '너'와 '꽃잎처럼 포개져' 봄을 기다리며 겨울을 보냈지만, 2연의 첫 문장 '봄은 오고 너는 갔다'에서 볼 수 있듯, 기대는 어긋나고 만다. '나'는 '너'가 떠나간 후 '따뜻'했던 순간들을 다시 돌아본다. 그 시간 동안'너는 웃지 않았'고, '셀로판지 구겨지는 소리를' 내는 눈빛으로 '나'를 봤고, '쇠꼬챙이'같은 '목소리'로 '나를 찔렀'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그래, 나는 소리 없이 오래 찔렸다'라며 1연에서 제시되었던 사랑의 순간이 실은 사랑이 사라져가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주체는 인정한다. 2연이 사랑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과정이었다면, 3연은 그런 회상 끝에 사랑의 완전한 순간은 사실 없었다는 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주체의 소망이 드러난다.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오래 기어서라도,/가고 싶다 네가 있는 곳으로'라고 말하는 주체는 사랑의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고, 다시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랑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주체는 왜 이런 자기 파괴적인 사랑의 태도를 보일까?

평택대학교 논문집 13집, 1999.; 박송이, 「최승자 시의 비극의식」, 『한남어문학』 31집, 2007.

1부가 아닌 2, 3부의 시들로 돌아가보자. 최승자의 사랑은 언제나 버림받음으로 끝난다. 주체는 사랑의 대상이 자신을 떠나갈 것이라는 예감에 휩싸여 불안해하면서도, 그 불안에 맞서거나 대상을 먼저 떠나지 않는다. 다만 도망치고 두려워할 뿐이다. 이런 수동적인 사랑의 태도를 영원한 사랑을 바란다는 고백('나는 네 심장 속으로 들어가/영원히 죽지 않는 태풍의 눈이 되고 싶다'(「너에게」)과 불안을 함께 느끼는('사랑한다고 너의 손을 잡을 때/열 손가락에 걸리는 존재의 쓸쓸함'(「사랑하는 손」) 3부에서 먼저 찾아보자. 3부의 사랑의 시편들에는 아직 버림받을 것이라는 구체적 예감은 없지만, '그대와 내가 온밤 내 뒹굴어도'(「부끄러움」) 그들 사이에는 '어둠 속 잇몸들의 덧없는 입맞춤'(「봄밤」)만 있을 뿐, 충만한 사랑이 결코 오지 않으리라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불러도 삼월에는 주인이 없다.
동대문 발치에서 풀잎이 비밀에 젖는다.

늘 그대로의 길목에서 집으로
우리는 익숙하게 빠져들어
세상 밖의 잠 속으로 내려가고
꿈의 깊은 늪 안에서 너희는 부르지만
애인아 사천 년 하늘빛이 무거워
'이 강산 낙화유수 흐르는 물에'
우리는 발이 묶인 구름이다.

밤마다 복면한 바람이
우리를 불러내는
이 무렵의 뜨거운 암호를
죽음이 죽음을 따르는
이 시대의 무서운 사랑을
우리는 풀지 못한다

「이 시대의 사랑」 ③ 전문

시의 표제작인 「이 시대의 사랑」에서 그 불안의 기원을 탐색해보자. '불러도 삼월에는 주인이 없다'는 첫 행에서의 '주인'은 혹시 「청파동을 기억하는가」에서 버림받은 주체가 스스로를 '주인 없는 헤진 신발'이라고 칭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랑의 대상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삼월'은 '너'를 잃은 봄과 같은 계절로 보인다. '너'를 잃은 세상은 '늘 그대로'여서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시적 주체인 '우리'는 죽음과 가까운 '세상 밖의 잠 속으로 내려'간다. '너희'는 '꿈의 깊은 늪 안에서' '우리'를 부르는데, '꿈'이 사랑의 대상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깊게 가라앉는 이미지의 '늪'과 연결되면서 주체는 사랑의 순간을 기억하며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하늘빛이 무거워' 흘러갈 수 없는 '발이 묶인 구름'처럼 주체는 '흐르는 물'과 달리 과거의 순간에 사로잡혀 있다. 3연에서 '복면한 바람'은 '밤마다' '우리를 불러'낸다는 점에서 2연의 '꿈의 깊은 늪'에서 '우리'를 부르는 '너희'와 겹쳐진다. 여기서 이 시의 시적 주체와 대상이 '나'와 '너'가 아닌 '우리'와 '너희'인 점에 주목해보자. 제목인 「이 시대의 사랑」에서 알 수 있듯, 주체를 복수형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 사랑의 방식이 '이 시대'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죽음이 죽음을 따르는' '무서운 사랑'을 요구하므로 이 사랑을 벗어나면 '죽음'이 상황에 놓인다. 하지만 실은 이 사랑의 방식을 따라가도 '죽음'과 같은 '세상 밖의 잠' 속에 놓인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상실은 이야기의 정해진 결말이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풀지 못한다.' 앞에 나온 '뜨거운 암호'와 '풀지 못한다'를 함께 본다면, '풀다'는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 시대의

사랑」에서 '복면'을 써서 알아볼 수 없던 사랑의 대상은, 「일찌기 나는」에서는 '나는너를모른다'며 주체가 알기를 거부하는 대상으로 바뀐다. 얼핏 수동적 태도에서 능동적 태도로의 전환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전환은 앞장에서 살펴봤듯 「일찌기 나는」이 항복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집 전반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주체가 보이는 수동성이 극단까지 간 결과다.

종기처럼 나의 사랑은 곪아
이제는 터지려 하네.
메스를 든 당신들.
그 칼 그림자를 피해 내 사랑은
뒷전으로만 맴돌다가
이제는 어둠 속으로 숨어
종기처럼 문둥병처럼
짓물러 터지려 하네.

「이제 나의 사랑은」 ② 전문

'종기처럼' 곪은 사랑이 터지려 하자 '당신들'은 '메스'를 들고 이 사랑을 끝내려 한다. 주체는 그들을 만나면 자신의 사랑이 터질 거라는 두려움에 그들을 피해 다닌다. 이 두려움은 사랑이 끝났음을 '메스를 든 당신들'에게 선고받는 일이다. 그래서 내부로부터 곪는 '종기'는 사랑 그 자체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랑이 끝나고야 말 것이라는 예감일 수도 있다. '종기'를 직접 가를 수 있는 칼을 들지 않은 주체에게 사랑의 끝은 버림받는 것이 된다. 그래서 '당신들'에게서 사랑을 끝낼 '칼 그림자'를 본 주체는 '뒷전으로만 맴돌'지만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 보다 더 깊고 폐쇄적인 '어둠 속으로 숨어'도 점점 사랑은 곪아버려 '종기'는 '짓물러 터지'기 직전의 상황에 놓인다. 그런데 여기서 이 터지기 직전의 사랑은 '당신들'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내 사랑'일 뿐이다. 아마 '당신들'은 이미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지만, 주체는 그걸 알고 속으로 곪아가도 사랑을 끝내지 않고 있었다. 이 모습은 「청파동을 기억하는가」에서 보여주는 '찔림'의 이미지와 비슷하지 않은가? '오래 찔'려왔고, '너'가 떠나 이제 더는 찔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네가 있는 곳'을 찾아가 '최후로 찔리면서/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는 주체의 모습과 말이다. '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는 주체의 소원은 끝이 난 사랑에 매달려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21] 하지만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건 '당신들'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내 사랑'일 뿐이다. 여기서 다시 '청파동을 기억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져와보자. 앞서 말했듯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너'이다. 이 사랑이 주체에게 계속해 자신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 위해서는 '너'가 필요하다. 이 고통스러운 사랑은 사랑의 대상인 '너'가 나를 거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최승자의 사랑은 대상에게 버림받아(혹은 자신을 더는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스스로 버리고) 새로운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게 버림받는 것까지가 사랑의 완성이 아닐까? 사랑의 완성은 어디까지일까. 사랑의 끝은 사랑에 포함되지 않을까? 최승자에게는 사랑의 끝 역시 사랑이다. 비록 그 사랑이 '자폭'(「사랑 혹은 살의랄까 자폭」①」과 같은 것일지라도 말이다.

한밤중 흐릿한 불빛 속에
책상 위에 놓인 송곳이

21) 이 사랑의 방식에 대해 엄경희는 '매저키즘적 전략'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승자의 '님'이 부재하는 연인일 뿐 아니라 폭력적 세계의 일부이기에 이 사랑에서 시적 주체가 '의도적 매맞기'를 자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매저키즘적 사랑의 목적은 '고통 너머의 새로운 가치'로, 폭력적이고 왜곡된 세계 너머의 '진실된 소통 구조를 창조하'기 위해 이별의 고통을 자처하고 있다고 엄경희는 말한다.(엄경희, 「매저키스트의 치욕과 환상」, 『빙벽의 언어』, 새움, 2002.)

내 두개골의 살의처럼 빛난다.
고독한 이빨을 갈고 있는 살의,
아니 그것은 사랑.

칼날이 허공에서 빛난다.
내 모가지를 향해 내려오는
그러나 순간순간 영원히 멈춰 있는.

쳐라 쳐라 내 목을 쳐라.
내 모가지가 땅바닥에 덩그렁
떨어지는 소리를, 땅바닥에 떨어진
내 모가지의 귀로 듣고 싶고
그러고서야 땅바닥에 떨어진
나의 눈은 눈감을 것이다.

– 「사랑 혹은 살의랄까 자폭」① 전문

이 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시적 주체에게 ‘사랑’은 ‘살의’이기도 하며, 이 모든 것은 ‘자폭’과 같다. ‘송곳’의 뾰족함을 「청파동을 기억하는가」의 ‘찔림’ 이미지와 연결해볼 때, ‘송곳이/내 두개골의 살의처럼 빛난다’는 것은 사랑이 끝난 후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주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기억이란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 끝난 후에 떠올리는 기억이란 행복한 기억이든 고통스러운 기억이든 고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그 기억으로부터 떠오른‘살의’는 ‘사랑’으로 전환된다. 최승자의 시적 주체가 사랑이 끝날 것이라는 예감 속에서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사랑이 끝난 뒤에는 그 잔여물인 기억을 곱씹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볼 때, 그 고통은 분명한 ‘사랑’의 흔적이자 스스로를 향하는 ‘살의’이며, ‘자폭’과 다름없는 행위다. 「청파동을 기억하는가」에서도 드러나는 이 ‘자폭’과 다름없는 기억하기를, 주체는 왜 반복하는가?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최승자의 시적 주체가 죽음에 대한 강렬한 운명적 인식 속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버린 난처함을 느끼고 있다고 봤을 때, 이 죽음에 대한 운명적 인식이 사랑의 실패로부터 왔다고 보는 것은 일견 타당해보이지만 이 실패를 스스로 거듭해 반복하고 있음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 이 고통이야말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는 해석 역시 삶의 지속에 대한 난처함과 죽음에 대한 체념적 인식 속에서 기다림을 드러내고 있는 시편들을 아우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주체가 미래의 죽음과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으로 고통의 지속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운명을 앞당기려한다고 보면 어떨까. 죽음에 대한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사랑은 주체에게 삶의 의지를 심어주기보다는 버림받음을 거듭해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사랑으로부터의 버림받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고통을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살의’를 느끼는 주체의 모습이야말로 ‘자폭’을 향한 걸음이지 않을까.[22] 2연에서 볼 수 있듯 ‘내 모가지를 향해’ 죽음의 ‘칼날’은 내려오지만, ‘순간순간 영원히 멈춰’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체는 차라리 그 칼날이 떨어져 자신의 목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이는 죽음에 대한 기다림이 보다 능동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주지 않는가? ‘또다시 치명적인 사랑을 시작하고,/가리라/저 앞 허공에 빛나는 칼날/내 눈물의 단두대를 향하여’(「슬픈 기쁜 생일」①)에서도 볼 수 있듯,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래하지 않는 죽음 앞에서 주체는 거듭 ‘자폭’과 같은 ‘사랑’을 한다. 최승자에게 ‘사랑’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모두 ‘죽음’에 필

22) 이철송 역시 「사랑 혹은 살의랄까 자폭」에서의 ‘살의’가 ‘자기 처벌’처럼 시적 주체 스스로를 향한 것이라며, 사랑의 대상을 상실한 것을 극복하지 못해 죽음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고 말했다.(이철송, 「우울증의 시적 발현 연구-최승자의 시집 『이 시대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8집, 2018.) 그렇지만 본고는 최승자의 시적 주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살의’를 ‘자기 처벌’로 보기보다는 죽음을 기다리는 능동적 자세로 보고자 한다.

수적으로 따라오는 과정이기에, 버림받을 것이라는 예감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찔림' 속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23] 이 '다르게 사랑하는 법'(「올여름의 인생 공부」)은 죽음을 넘어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으로 주체를 끌고 간다.

> 어디까지갈수있을까 한없이흘러가다보면
> 나는밝은별이될수있을것같고
> 별이바라보는지구의불빛이될수있을것같지만
> 어떻게하면푸른콩으로눈떠다시푸른숨을쉴수있을까
> 어떻게해야고질적인꿈이자유로운꿈이될수있을까
> (중략)
> 자신이왜사는지도모르면서 육체는아침마다배고픈시계얼굴을하고 꺼내줘어머니세상의어머니 안되면개복수술이라도해줘 말의창자속같은미로를 나는걸어가고 너를부르면푸른이끼들이 고요히떨어져내리며 너는이미떠났다고대답했다 좁고캄캄한길을 나는 기차화통처럼달렸다 기차보다앞서가는 기적처럼달렸다. 어떻게하면 너를 만날수있을까 어떻게달려야 항구가있는 바다가보일까 어디까지가야 푸른하늘베고누운 바다가 있을까
>
> –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① 부분

'자신이왜사는지도모르면서'삶은 계속되고, '개복수술이라도해줘'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주체가 처해있는 삶은 어둠 그 자체다. 그 어둠 속에서 '꺼내'달라고 '어머니'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다시 태어나'려는 주체가 '세계'이자 '어머니'인 자신의 근원에게 던지는 요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해 볼 점은 '푸른' 색의 이미지다. '푸른콩으로눈떠다시푸른숨을' 쉬고 싶다는 주체의 소망은 '푸른 하늘'과 '바다'로 이어지고자 하는 소망으로 귀결된다. 밤의 색이기도, 아침의 색이기도 한 '푸름'은 어둠과 빛,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색이다. 그렇다면 '푸른하늘베고누운바다'야말로 죽음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는 삶의 공포도 해결된 곳이 아닐까. 그곳까지 주체는 이미 '너'가 떠나간 '말의창자속같은미로'를, '좁고캄캄한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미 그곳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이는 '너'는 결국 '나'의 미래다.[24]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다. '고질적인꿈이자유로운꿈이' 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승자의 시적 주체는 죽음에 대한 강렬한 예감으로 삶을 체념한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의 춤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꿈[25]을 꾸고 있다.

---

23) 김현은 최승자에게 사랑은 '삶을 소진시키는 죽음'이라고 말하며, 시 「내 청춘의 영원한」의 '괴로움/외로움/그리움/내 청춘의 영원한 트라이앵글'에서 최승자를 괴롭히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외로움·그리움'이라고 말했다.(김현, 앞의 글, 226-227쪽.) 하지만 이 '괴로움'은 죽지 못하고 계속되는 삶의 괴로움, '외로움'은 그 삶 속에서 버림받은 외로움, '그리움'은 그 버림받은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봤을 때, 이 '그리움'은 다시 주체를 '괴로움'으로 몰고가지 않을까? '영원한 트라이앵글' 속에서 시적 주체는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의 삼각관계를 거듭해 반복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체의 삶은 그 트라이앵글 위에 세워진 것으로, 사랑이 죽음의 과정이라는 김현의 말을 삶을 좀먹는 죽음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삶을 끝내는 방법으로 선택된 사랑으로도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24) 선우은실은 『이 시대의 사랑』에서 화자가 '죽지 못함'의 상황을 감각하고 '어머니'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 태어나며, 『즐거운 일기』의 '너'를 화자가 다시 태어난 '아이'로 봤다.(선우은실, 「김승희와 최승자의 모성성 연구」, 『사이』 27호, 2019.) 그러나 본고는 분석 대상을 『이 시대의 사랑』에 한정했을 때 '너'는 주체가 재탄생한 결과로의 아이보다는 삶-죽음의 다음 단계로 다시 태어날 미래의 자신으로 보고자 한다.

25) 이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꿈은 두 번째 시집 『즐거운 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작시 「無題」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그려낸 최승자는 "이제 빛나지 않는 나날의 무덤 속에서/그러나 가능한 한 빛을 향해/한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無題2」)며 '어머니'의 죽음 이후 '무덤'에서 태어나는 '아이'로 자신을 그려내고 있으며, 「하산」에서 "이 세상의 고요 속으로/나는 처음으로 내려서겠습니다.(…)/한 경전이 무너지며/도 한 경전을 세우며……//어머니 이것은 누구의 눈알입니까?/어머니 이것은 누구의 심장입니까?"라며 처음으로 삶을 직면하며 새로운 '눈알'과 '심장'을 어머니께 받고자 하는 주체의 의지를 그려내고 있다. 물론 『즐

4. 결론

최승자는 첫 시집 『이 시대의 사랑』에서 죽음에 대한 운명적 인식으로 인해 삶이 죽음을 향한 기다림과 같다고 보는 주체가 처한 삶의 난처함을 그려내고 있다. 3부의 「자화상」에서 스스로를 '어둠의 자손'이라고 칭한 주체는 「수면제」에서 시를 통한 자살로 죽음을 시도해보지만 죽지 못하고 '죽음 근처의 깊은 그늘'로 가서 '무색투명의 시간'을 견뎌야 함을 깨닫게 된다. 2부에서 이런 기다림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승자는 1부의 「일찌기 나는」에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며 '하염없이 죽어가는' 존재라 칭하기에 이른다. 이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나날을 보내는 시적 주체가 미리 '아무것도 아님'의 자리를 선점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며 묵묵히 수행하는 비극적 주체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승자 시에 드러나는 사랑의 주체는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지만, 사랑의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스스로를 고통에 몰아넣는 사랑을 끝내지 않는다. 3부의 「이 시대의 사랑」에서는 이런 사랑이 '이 시대의' 것임을 밝히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데, 사랑에 죽음이 따른다는 불안은 2부에서 버림받을 것을 알면서도 대상을 떠날 수 없는 주체의 모습을 통해 수동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이 수동적 사랑은 이미 떠나간 대상에게 사랑의 순간을 기억하냐고 묻는 시 「청파동을 기억하는가」에서 '최후로 찔리면서/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는 자기 파괴적인 사랑의 극단으로 발아하는데, 이 고통스러운 사랑은 죽음이라는 운명과 가까워지기 위한 주체의 방법적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고통스러운 사랑의 춤 끝에 죽음에 다다른다면 최승자의 시적 주체는 다시 태어나 '푸른콩'의 '푸른숨'을 쉬며 '푸른하늘'과 '바다'를 향해 가고 싶다며, 흐릿하게나마 다시 태어남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최승자의 첫 시집에는 주체가 운명적인 예감이자 버림받음을 통해 체득한 죽음에 대한 인식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의 곤란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사랑의 기억을 반복함으로써 죽음에 다가가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이 운명적 죽음 의식과 고통스러운 기억의 반복을 통해 유지되는 사랑을 시집의 구성에 따라 과거로부터 현재의 흐름 속에서 탐색해봄으로써 최승자의 시 세계에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드러나는 죽음과 사랑의 기원을 탐구하고자 했음을 밝힌다.

참고 문헌

1. 기본자료

최승자, 『이 시대의 사랑』, 문학과지성사, 1981.
최승자,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책세상, 1989.

2. 단행본

김현, 『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말들의 풍경』, 문학과지성사, 1992.
엄경희, 『빙벽의 언어』, 새움, 2002.
이광호, 『위반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93.
장석주, 『문학, 인공정원』, 프리미엄북스, 1995.

거운 일기』를 비롯한 최승자의 전체적인 시 세계에 죽음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만, 『이 시대의 사랑』에서는 어렴풋하게 죽음 이후의 새로운 탄생을 그려내는 윤곽을 제시한 것에 반해 두 번째 시집 『즐거운 일기』에서는 새로운 탄생을 보다 구체적이고 의지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을 주목할만하겠다.

3. 논문

김건형, 「최승자 시에 나타난 비천한 주체의 변모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5집, 2014.
김설해, 「최승자 시에 나타난 에로스와 타나토스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승희, 「한국 현대 여성시의 고백시적 경향과 언술 특성」, 『여성문학연구』 18, 2007.
김정신, 「최승자 시에 나타난 부정의 정신」, 『현대문학이론연구』 30, 2014.
김신정, 「강은교와 최승자 시에 나타난 유기(遺棄) 모티프」, 『비평문학』 46호, 2012.
김혜경, 「최승자 초기시 연구 – 『이 시대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37, 2013.
선우은실, 「김승희와 최승자의 모성성 연구」, 『사이』 27호, 2019.
엄경희, 「여성시에 대한 기대지평의 전환」, 『이화어문논집』 13, 1994.
오형엽, 「최승자 시의 구조화 원리 연구 - 반추와 예언의 순환적 나선 운동」,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제80집, 2020.
이경수, 「1980년대 여성시의 주체와 정동」, 『여성문학연구』 43호, 2017.
이철송, 「우울증의 시적 발현 연구-최승자의 시집 『이 시대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8집, 2018.
이혜원, 「최승자 시에 나타나는 사랑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비평문학』 59, 2016.

「최승자 초기 시에 드러난 죽음과 사랑(문혜연)」에 대한 토론문

정치훈(건국대학교)

문혜연 선생님의 발표문은 최승자 초기 시에서 나타나는 죽음과 사랑을 통해 시인의 시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죽음과 사랑에 대한 근원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개인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이 시대의 사랑』을 통해 접근함으로서 죽음과 사랑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 점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최승자 시를 사유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제시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 '시집 구성'에 대한 접근 방법이 그렇습니다.

시인이 아직 작품 활동을 다하지 않았고 '전집'또한 출간되지 않았기에 개인시집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시집의 출간연도와 수록된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발표문에서는 '구성'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시집이 단지 개별 작품의 모음집이 아닌, 구성물로 봄으로써 의미를 확장시켜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도 인용된 최승자의 산문에서 "나에게 시간은 미래, 앞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뒤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영원히 멈춰있거나였다. 나는 일 년 뒤 혹은 일 년 뒤의 나라는 것을 내 몸과 정신으로 감지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한 대목은 시기의 역순으로 시집을 구성한 것과 맞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짚어냈다는 점에서 연구의 성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토론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를 이끌어나가기는 어렵지만, 발표문을 읽고 나서 해소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최승자 시세계의 시기와 그 기준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작품 활동이 끝나지 않았기에 시기를 구분한다는 것은 다소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많은 연구자들은 '초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기에 따른 전환점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발표문에서는 이에 대해 "첫 시집인 『이 시대의 사랑』에는 시대와 사회보다 주체의 내면에 자리한 죽음과 사랑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더 잘 드러나 있다고 보고"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시기에 대한 변별점이 명확하게 제시될 때 해당시기에 대한 의미 역시 더욱 명징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소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듯 하여, 이에 대한 선생님의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두 번째는 최승자의 죽음에 대한 '운명적 인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문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운명적 인식'이 있다는 근거가 다소 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승자 시인의 경우 '시대적인 불안'을 통해 접근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시집 구성'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 구성'의 시간 역순을 통해 접근해야함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발표문에서 그 구성에 따라 의미를 밝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시집에 수록된 작품을 시기순으로 놓고 본다면 1부 1981년작, 2

부 1977~1980년, 3부 1973-1976년으로 ‘현재에서 과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 구성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1부의 시를 ‘현재’이자 ‘결과’로 놓고 2부와 3부의 ‘과거’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기 역순으로 구성된 것을 다시 시기순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론 첫 문단 서술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3부에서 1부의 순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부에보다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시대의 사랑』의 구성은 “나에게 시간은 미래, 앞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뒤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영원히 멈춰있거나”라고 말한 바와 맥락을 함께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최승자 시인에게 ‘역순’의 구성은 단지 과거라는 시기로 가는 것이 아닌, ‘미래’에 있으며, 그 미래는 곧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닌 ‘뒤로 흘러가거나 영원히 멈춰있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집의 구성은 이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으며 최승자의 ‘미래’에 대한 논의로 이끌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요컨대, 최승자 시에서 나타나는 죽음과 사랑의 근원은 시인이 가장 오래전에 창작한 ‘과거’의 작품이 아닌, 시집의 구성에 따라 ‘뒤로 흘러가거나 영원히 멈춰져있는 미래’에 놓일 때 그 의미를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혜연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해방공간, 장덕조 소설의 젠더화된 인식 고찰
-장편소설『十字路』를 중심으로-

김윤서(대구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해방공간[1]인 1940년대 후반의 새로운 체제와 정비의 역동적이고 거시적인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장덕조의 장편소설『十字路』[2]를 대상으로 여성 이미지의 적확한 고찰과 변혁에 내재된 젠더 탐색에 주목하였다.『十字路』는 해방기 시공간 속의 젠더화된 현실인식과 균열, 수렴의 다층적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문학[3] 중 논구가 미진한 부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토대가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장덕조는『十字路』를 통해 여성성을 사회현실과의 관계망 속에서 재생산하고 있으며, 젠더화된 인식의 문학 담론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방기 장덕조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해방공간은 기존의 제도와 규정에 맞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는 희망의 공간인 동시에 폭력과 억압에 균열을 시도하는 여성들에게는 욕망이 교착된 반란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해방공간의 여성작가들은 좌우익의 선명한 이념적 구도와 여성 관련 담론을 '젠더화'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문학의 제도화를 공고히 한다. '젠더' 담론이 사실성/낭만성, 계급적/반계급적, 세계관/기질과 같은 이항대립적 경계를 형성하며 남성/여성으로 규정지어진 것은 근대 문학 제도에서 반증이 되었다. 성별, 지배적인 문예사조 등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배제의 전략을 통해서 여성작가 및 작품을 주변화하거나 폄하하였으며 위계화된 시각 속에서 근대적 문학 질서를 구축하는 한 축으로 위치되었다. 국민문학이 부상하면서 여성문학 장의 핵심원리로 탈바꿈한 '여성성'과 '감상성', '모성성'은 남성작가와는 다른 방식의 젠더 전략으로 귀착되었으며[4], 그와 같은 양상이 해방기에 이르러 재규정됨으로써 젠더적 특성이 활용된다.

해방 이후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모성애와 인간애를 구현하며 '전통적 회귀로의 역행' 현상을 보이는 작품 등 여성작가의 서사 전략이 돋보이는 장치로 주류를 이룬다.[5] 이는 현실전망이 부재한

---

1) 본고는 1945년에서 한국전쟁 이전의 시기를 해방공간으로 지칭한다.

2)『十字路』는 1949년 12월 5일(?)부터 1950년 6월 26(?)일 사이 『주간서울』에 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한국전쟁 와중인 1953년 2월 5일 대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관리·보존이 필요해 대출 허용이 불가하였다. 이에 필자는 원본의 디지털 열람을 국립중앙도서관 측에 제안하였다. 필자의 의견에 대한 수용으로 본고는 1953년 단행본인 희귀도서의 원본 연구가 가능하였다. 본 연구의 인용문은 당시의 원문을 그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일반적으로 여성문학은 '여류문학'이나 '여성이 쓴 문학'과는 변별되며, '여권론적 문학'과도 구별된다. '여권론적 문학'은 기존 사회 내에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이다. 반면에 '여성문학'은 여성억압의 역사를 그 출발점으로 삼되, 자본주의 사회의 이행과정에서 성 억압이 어떻게 강화, 재형성되어 왔는가를 여성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궁극적으로는 여성해방과 총체적인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문학을 말한다.(김영희(1988),「여성문학의 비판적 검토」,『창작과 비평』, 가을호 / 박광자(1990),「새로운 여성문학의 개념과 특징」,『독일여성문학』, 삼영사, 참조)

4) 김양선(2012),『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장의 형성』, 소명출판, p.66-99.

5) 송인화(2004),「1960년대 여성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의미」,『여성문학연구』, 여성문학회.

상황 속에서 보수적 지배 담론에 대한 순응과 저항, 도전적 시도[6] , 역사적 수난에 대한 개인의 의식, 재생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해방기나 한국전쟁기까지 한정하여 젠더 문제에 집중한 김동현[7], 차희정[8], 유진희[9], 임미진[10]과 1950대 장덕조의 작품을 깊이있게 천착한 김윤서[11]를 통해 젠더 문제가 조명되었다. 그러나 장덕조 작품의 경우 자료확보의 어려움으로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장덕조의 장편소설『十字路』는 임경순이 학계에 소개하며 일제가 물러난 미군정하에서 장덕조의 문학 세계를 밝힌 바가 있으나[12] 작품의 서지, 내용, 의미 등의 개괄적 부분만 다룬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十字路』를 통하여 해방공간 장덕조 문학에 내재된 젠더의식의 민감성, 감상성, 모성성의 발견을 통해 은폐되거나 변용된 부분을 포착하여 유동적인 여성 젠더의 서사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해방공간의 제도적 정착[13]은 여성들에게 민족의 해방과 더불어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중적 해방'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탈식민의 젠더적 메타포는 '훼손된 남성성의 복구'에 의미를 부여하는 등 해방기 주된 젠더 표상은 '부재하는 남성성의 회복'에 있었다.[14] 표면적으로는 남녀평등의 법률적 정책이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조론과 가부장제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역동적 공간에서 남성주체의 '계급화'로 성차별주의는 더욱 증폭되었다.

탈식민지화와 냉전질서의 혼돈 속에서 당시의 여성작가는 '생활'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전쟁으로 7남매를 데리고 풍찬노숙하며 생계를 위해 부단히 글을 써 왔던 장덕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념대립이 극에 달한 동시에 3.8선의 분할이 지속되면서 남한 경제구조의 파탄이 극심해지자 여성작가들의 작품화 경향은 정치적 이념과 그 가능성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에 천착한다.

『十字路』에서 여성 젠더가 중점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은 해방공간의 경제난, 현실생활과 밀착된 노동, 인권, 변이를 보이는 성, 사랑, 결혼의 문제이다.『十字路』에서 '봉건적 굴레'를 벗어난 '자유로운 연애'가 제기 되었다는 것은 여성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의미의 변화와 '새로운 인식'의 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여성문학이 실천으로 연결되기에는 한계를 보이는 부분이 많았으나, 여성 젠더의 여성성, 가정성과 같은 젠더정치학과 결합하면서 내·외면을 탐사하는 유효한 시각을 제공한다. 해방공간은 자립적 근대화의 기로에서 연애와 결혼, 가족의 울타리 내부에 여성을 묶어 두는 내성적·자의식적 변화와 파행적인 근대화의 굴절되고 변용된 양상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한 젠더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생산 양식은 해방기의 혼란과 중첩되어 남성중심사회의 빗장을 열고자 하는 균열과 여성인물의 의식 확장으로 이어진다. 탈식민의 경험을 통해 그간 배제된 여성 하위주체는 집과 가정이라는 사적 경험 내에서의 생활을 벗어나 경제활동의 주체로 생활의 문제에 천착한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재현 대상은 해방공간의 사회현실에 반영되어 새로운 젠더인식의 확보에는 한계를 보인다. 새로운 사회질서가 구축되는 전환점에서 젠더적 관점의 틈새는 모성의 자질로 현현되거나 미국문화 침투의 문화적 논리가 젠더와 관련이 있음을

---

6) 박정애(2006),「'규수작가'의 타협과 배반: 한무숙과 강신재의 50-6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어문학』, 한국어문학회, p.494.
7) 김동현(2012),「"국민"의 상상과 "비국민"의 기억-장덕조의 일제말기 일본어 소설과 해방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순천향대인문과학연구소.
8) 차희정(2012),「해방기 장덕조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위장과 전유 - 잡지 게재 소설을 중심으로」,『한중인문학연구』35, 한중인문학회.
9) 유진희(2014),「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전략 - 여성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0) 임미진(2017),「1945-1953년 한국 소설의 젠더적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1) 김윤서(2017),「장덕조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 - 1950년대 연애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12) 임경순(2019),「장덕조(張德祚) 장편소설『십자로(十字路)』연구」,『우리말글』제83집, 우리말글 학회.
13) 대표적인 제도적 정착으로는 1946년 5월 부녀자 인신매매 금지, 1946년 9월 부녀국 설치, 1947년 9월 보통선거법규정에 의한 참정권 획득, 1947년 11월 공창제도 폐지령 등의 법률적 시행을 들 수 있다.
14) 이혜령(2008),「해방기 식민 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여성문학연구』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p.261.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즉 지배 담론에 대한 대결의식보다는 모성애의 수렴 혹은 미국에 대한 선망의식 등의 담론 생산을 촉발하여 당시의 여성 젠더의 불안정성을 포착할 수 있다.

본고는 해방공간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 속에 '젠더화'된 전략을 구성한 장덕조의 『十字路』에 내재된 여성 이미지의 발현 양상을 민감성, 감각성, 모성성으로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十字路』를 통해 젠더화된 양상의 재현과 발원의 토대는 새로운 여성주체의 사회진출과 남성성을 기준점으로 발생하는 차별성에 대한 젠더 인식의 '민감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十字路』에서 타자로서의 여성이미지가 발현되는 생활과 섹슈얼리티에서 '감각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해방은 극심한 경제난을 동반하였으며 열악한 상황에 노출된 여성들은 가정 밖의 타락한 여성으로 편입된 '감각성'의 주된 모티프로 표출된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에도 적극적 글쓰기로 현실 참여의 메시지를 전달한 장덕조는 사회현실과의 관계를 조망하며, 여성성과 국가주의를 결합함으로써 재편된 여성성인 '모성성'을 호명하며 모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젠더화된 현실인식과 민감성

해방공간(1945-1953년)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격정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여성주체들은 국가형성, 노동, 섹슈얼리티, 조직, 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기존의 제도와 규정, 억압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저항의 시간을 보낸다. 해방 뒤 여성들은 '부엌에서 나와 새 나라 건설에 나서라'라는 요구와 함께 '여성의 역할을 넘어서는 과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중적/양면적인 위치에서 행위와 활동을 규정당했다. 공/사 영역과 자연/문명의 이분법은 남녀평등, 여성 참정권 등의 법제화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호명되면서 젠더에 관한 인식체계와 젠더 위계질서에 극명한 변화를 가져온다.[15]

장덕조는 1932년 등단 이후 식민지 시기 일상적, 가정적, 여성적 제재가 주류를 이루었고, 1943년부터 1945년까지는 집중적으로 친일 성향의 작품[16]을 발표했다. 식민지 시대에 쓰인 장덕조의 초기소설[17]은 장르적으로 볼 때 대중연애소설임에도 연애관계는 약화되고 식민지 여성들의 개인적, 사회적 수난사가 전면화되어 있다.[18] 일제 말기와 한국전쟁 중 장덕조의 문학이 현실적, 정치적 지배 담론에 급격히 소급된 의도적 서사였다는 관점은 식민지-제국 간의 위계 구조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된다. 여성성의 제도화를 꾸준히 수용한 작품활동은 한국전쟁 이후 이념, 사상과는 다소 거리를 둔 애정 소설을 주로 집필하며 관습성을 지속하였다.

진통과 근대의 패러다임이 길항하는 해방공간에 들어서며 장덕조의 글쓰기는 사회참여적 성격을 담고 있으나, 체제의 대립 면에서 사회 비판적 관점을 탈피하며 생활적이고 완만한 흐름의 글쓰기를 지향하였다. 장덕조의 해방공간 소설에서 타자로서의 여성이미지가 변이를 보이며 계몽된 자아의 성립과 더불어 주체적인 여성의 위상이 서서히 확립된다.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성을 나름대로 재의미화하는 당시의 장덕조의 작품 기류는 무질서한 사회에 대한 불안, 우울, 결핍을 조명하는 시각을 탈피한 대중에 영합하는 낭만적 사랑으로 새로운 질서를 희구하는 젠더화된 현실인식이 담겨져 있다. 이에 해방공간 일상에서 여성주체들의 '민감성'[19]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

15) 이임하(2015), 『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철수와 영희, 참조.

16) 대표작으로, 「새로운 군상」, 「행로」, 「우후정천」, 「연화촌」, 「함성」을 들 수 있다.

17) 장덕조의 초기소설은 등단한 1932년부터 1940년까지의 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편 30여 편, 중편 3편, 장편 1편을 포함하여 약 35편 남짓이다.

18) 진선영(2014), 「장덕조 신문 연재 장편 『은하수』 연구 」,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p.451-471.

19) 여성을 타자(other)로 지목하는 보부아르의 이론에 따르면 남성은 부정태(the negative)이며 여성은 남성적 정체성이 스스로를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결핍'으로 본다. 이에 실천적 주체를 주장하는 젠더의식

장덕조 소설의 이채로운 점은 해방공간의 여성주체가 전문직을 가진 엘리트 지식인, 여대생 등 연애와 갈등의 전경화된 주체가 기득권층이라는 점이다. 여성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대부분의 작품 경향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사회 해부학적 주제보다는 연애 갈등이나 애정, 결혼 등의 소재를 통해 작가만의 독특한 기표를 형상화하여 흥미를 중시하는 구성을 취한다.[20]

장덕조의『十字路』도 예외는 아니다. 공적 대의나 정치적 이념 혹은 실존의 진지한 대면보다는, 여성을 기득권 계층과 소외 계층으로 분류하여 젠더화된 인식의 모순과 틈새의 담론을 다루며 현실의 문제에 천착한다.

어학 방면에 천재적 소질을 가진 이영란은 C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외모와 실력이 뛰어난 신세대 여성이다. 학교 추천으로 T무역 회사에 입사한 후 미국 방송을 청취, 타이핑하여 최전무에게 보고하는 등 '사무직' 여성으로 사회에 진출한다. 삯바느질과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영란과 영식 남매를 키우는 홀어머니 슬하에서 어렵게 성장한 영란은 한인준 교수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엘리트 여성이라는 계층적, 성적 정체성을 지닌 모습과 한교수에 대한 존경과 부채 의식은 소설의 흐름에서 '젠더'가 하나의 규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음을 방증(傍證)한다. 영란은 고학력 여성으로 사회에 진출하였으나 안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밖으로는 사회적 차별이 기제화는 '젠더화된 인식'[21] 속에서 정조 관념에 지극히 민감한 성향을 보인다.

"어째 이집은 전부가 일제잔제 그대로야"
하면서도 염씨는 영란의 것까지 잔을이르키고 술을따랐다.
영란은 상에서 두어무릅 물러앉았다. 남자들에게서 거리를 둔 것이다.

(『十字路』-91쪽)

"여기 오자가 여러군데 났어. 웬일이요?"
이렇게 말하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던 전무는 고의인지 우연인지 테블위 에 살프시 집고있는 영란의 손우에 자기 희고 긴손을 턱 갔다 얹었다.
영란은 "헉!"하며 숨을 들이켰다.

(『十字路』-9쪽)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영란은 근대적 커리어우먼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적 대우나 인식 지위에서는 남성주의적 시선이 지배적이다.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보조적 위치로 인식하는 면이 컸다. 가족제도의 봉건성은 거의 일치된 목소리로 남녀차별, 지나친 장유유서의 권위를 지적하고 있으며 직장에까지 젠더화된 인식으로 자리잡았다. 미국문화와 미국식 사고방식의 유입은 여성을 사회의 일원으로 보는 시각에서 근대의 표상으로 젠더적 접근의 단서를 제공한다.

"미쓰.리는 쌜러리가 얼마지요" 하며 불쑥 물었다.
"네?"하고 딴생각을 하고있던영란은 되묻지 않을수 없었다.
"미쓰.리의 지금 받고있는 쌜러리가 글세 얼마지요?"
"웨요? 전무께서 알고계시지 않아요?"
"모릅니다. 난 회계가 아니니깐"
"그러시다면 - 건 알아 뭘 허시게요?"

은 불균형의 관계 속에 '민감성'을 지니게 된다.

20) 김영덕(1958),「여류 문단 40년」,『한국 여성 문화 논총』,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99-132.

21) '젠더화된 인식'은 여성 의식 혹은 페미니즘적 인식을 대변하는 용어이다. 장덕조의 장편소설『十字路』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의 개인적인 정서나 내면에서 젠더 위계질서 속에 여성 원리와 자기대상화의 진폭을 넓히고 있어 차이를 위계화하고 계토화하는 논리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하여 본 용어를 차용한다.

(『十字路』-77쪽)

위의 예문은 미국에서 돌아온 '미스터 민주주의', '젠틀맨'이라고 불리는 T무역 회사의 전무인 최한직이 영란에게 호의를 갖고 다가서려 하자, 영란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그러한 호의에 경계를 하는 대목이다. 여성교육이 확대되면서 지식노동 분야로의 진출이 이루어졌고 극소수에 불과한 '사무직'에서 영문 타이피스트로 업무를 보는 영란이지만, 임금불평등과 사회적 성차별의 기제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따라서 철저한 도덕관념의 화신인 영란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주는 직장이었지만, 상사의 가벼운 스킨십에도 늘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영란이는 참 좋겠어"
이 의외의 말에 영란은 의아한 듯이 은희의 표정을 엿보았다.
"영란이같은 사람은 정말 진정한 의미루 신시대의 여성야. 외형으로나 실 력으로나…… 최씨도 정신있는 남자라면 매력을 느낄만하거든 그렇지만 어쩌면 최전무가 본 나같은건 낙오자야"
"낙오자라니 은희두 최전무하고 무슨일이 있었어?"
"아-니 그런사람이나같은걸 거들떠 보기나헐라구. 그저 최씬 내이상의 남 성이야. 그봐 내가 이렇게 되기전에 최전무같은 사람이 날붙잡아 주었어봐. 이렇게 했겠나?"

(『十字路』-99쪽)

당시 오은희는 영란과 함께 근무하는 T무역 회사의 타이프라이터로 정신 이상자가 된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 학비 마련 등 열두 식구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따라서 돈이 필요했고, 실직의 공포 속에서 타락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기생이 된다. 친절하고 생활력 있는 최전무를 이상적 남성으로 존경하고 숭배하고 있으나 자신의 처지를 평가절하하며 최전무의 구애를 받는 영란을 부러워한다. 총명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영란에게 남성들의 호의와 관심이 늘 향하고 있었으나, 순결과 정조관념으로 무장된 영란은 한 발짝 물러서며 담담한 자세를 취한다.

이처럼 해방공간의 젠더화된 인식은 유능한 사무직 여성의 위상이든, 생존을 위한 절박함의 위치에 있든 '순결 이데올로기'의 이상은 비껴가지 않았다. 즉 해방공간의 젠더화된 반응과 젠더 트러블에 대한 민감성은 미국문화의 수용으로 새로운 섹슈얼리티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젠더화된 인식을 표상하는 시점을 부여한다.

3. 젠더화된 균열과 감각성

전통적인 사회질서에서는 "자기육체[22]의 나르시시즘적 열중도, 구경거리로서의 취급도 없었으며, 노동과정 및 자연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주술적이고 도구적인 육체관"[23]이 있어왔을 뿐이다. 그러나 해방공간의 젠더화된 인식은 남성의 주도로 만들어진 성의 '관계적 공간'[24]을 전복하는 등 남녀 간의 권력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젠더 공간에서 재편성과 일탈의 젠더 정치학을 구현하는 여성의 현실이 드러난다.

22) 마르셀에 따르면 몸은 실존의 중심문제이며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관련이 있는 <존재being>의 질서에 속하는 느끼는 주체이다. 더 나아가서, 몸은 사회적인 것으로 연결하는 탯줄이다. 몸이 있기에 우리는 타인에게 보일 수 있고, 다른 몸들, 다른 정신들과 교류할 수 있다. 몸은 세계 속에서의 사회적 처소이다. 감각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몸은 우리를 세계에 조율시킨다. 정화열, 『몸의 정치』, 민음사, 1999.
23)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역(1991),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p.190.
24)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2010), 『젠더, 정체성, 장소-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 공간 연구회, p.28.

젠더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여성의 몸은 남성에 의한 억압의 근원처인 동시에 거부와 저항의 주체라는 점에서 젠더 정체성을 설정하는 지점이자 위치이다.[25]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적 대립에 기반한 근대적 사유에서 여성의 몸은 열등한 위치에서 차별화되었다. 육체가 학문적 담론이나 공론의 장에서 범주화되기도 했으나, 섹슈얼리티 측면에서 남성의 관능적 욕구와 성적환상을 충족하는 장소로 남성의 감각 취향에 맞게 식민화되었다.

근대와 탈근대가 착종된 지점에서 젠더화된 주체들은, 여성의 범주화인 '여성다움'(femininity)에 대한 문화적 규범과 '육체적 상황'이라는 여성의 틀·경계·속박을 둘러싼 관습과 구성을 간파했다. 근대의 주변인 혹은 타자로서 인식되어온 여성들은 배제와 은폐의 담론과 그 안에 잠복해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선회하며 생존의 서사를 확인한다. 젠더의 전유 방식이 사회·역사적 맥락의 부정적 현실에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육체를 성욕/소비/노동의 도구로 물화해 온 도구적인 육체관은 또 다른 위치를 갖는다. 즉 자유주의의 생산 양식 속에서 여성의 육체는 자본, 물신(物神), 성계급[26] 모순이 착종된 자리에서 욕망의 대상이 된다. 특히 에로틱한 육체의 재발견은 소비를 지배하는 교환의 사회적 기능을 이끈다. 소비의 심층에 관여한 문화 내적 논리에서, 여성은 성의 해방을 통해 자신을 소비하고 한편으로 타자화된 욕망의 대상이 된다. 육체와 사물의 상동성(相同性)으로 인한 육체의 재발견은 '교환가치'의 기호화를 통해 소비의 영역에 깊이 침투한다.

이때 소비의 심층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매커니즘은 '에로티즘'이다. 바따이유(Georges Bataille)는 『에로티즘(L'Erotisme)』의 서문에서 "에로티즘, 그것은 죽음까지 파고드는 삶이다"[27]라고 하였다. 즉 에로티즘이란 아이나 생식 등의 자연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심리적 추구이자, 풍요롭고 꽉 찬 삶이며, 동시에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바따이유는 욕망과 에로티즘을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여자에게는 남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힘이 있으며, 욕망의 대상이며, 유혹적이며 욕망의 표적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28]

'여성'을 남성들이 자신의 두려움이나 공포를 투사하는 장소(혹은 타자)로 파악했던 보부아르의 분석에 따르면, 남성에 의한 여성의 재현은 이데올로기적 환상 속에 내재하는 불일치나 모순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29] 따라서 여성 정체성의 좀 더 복잡한 이해의 전제에는 여성/남성의 이분법적 시각을 견지하는 관점을 경계해야 한다. 알코프의 주체의 유동성과 위치성(positionality)의 개념은 성 정체성을 더욱 정교화한다. 그에 따르면, 여성주체는 구체적 습관, 실천, 담론과 같은 구성과정과 특정 위치에 의해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본다. 행동하는 주체가 자신의 위치를 재생산한다는 위치성의 개념은 푸코의 통찰력을 통합한다.[30] 반면에 이리가라이(Luce Irigaray)는 남녀 신체의 특징은 문화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즉 여성의 몸은 차이를 존중하는 반면, 가부장제 사회라는 거대한 남성의 몸은 차이를 배제하고 계급 서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제는 타자인 여성 착취로 가부장적 질서를 존속시킨다. 즉 여성을 교환가치의 역할만을 부과하여 상품으로 취급한다고 분석한다.

해방기 시·공간의 현실은 다양한 기대와 욕망이 상충 되는 역사적 격동기의 공간이었다. 격동과 전환이라는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 여성의 육체는 거부와 저항을 모르는 온순한 육체 혹은 폭압적 현실에 대항하는 육체로 형상화되고 있다. 장덕조의 『十字路』는 여성의 육체가 남성 권력의 폭압적

---

25) 베아트리츠 콜로미나,강미선외 역(2005), 『섹슈얼리티와 공간』, 동녘, p.81

26) 고갑희는 계급개념을 성에 붙여 '성계급'이라 하였을 때의 강점은 사회적 불평등을 강력하게 포착하는 점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불평등의 이데올로기 측면만이 아니라 물질적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갑희(1999), 「여성주의적 주체 생산을 위한 이론 - 성계급과 성의 정치학에 대하여」, 『여/성이론』, 여성문화이론 연구서, p.35).

27) 조르쥬 바따이유, 조한경 역(1996),『에로티즘』, 민음사, p.9.

28) 욕망의 대상과 에로티즘에 대한 이같은 견해는 훗날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다.

29) 팸 모리스, 강희원 번역(1997),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p.3.

30) 장미경(1999),『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 문화과학사, p.161.

상황 속에 때로는 지배받는 온순한 육체로, 또 때로는 남성의 방종 아래 훼손된 몸으로 물신화되는 균열을 보여준다. 즉 균열을 통해 여성을 다시 타자화시키며 주체적 재현 가능성으로부터 추방시킨다.

『十字路』의 서사구조에서 일탈된 여성의 육체는 오은희, 강명자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열 식구 중 오빠와 둘이서 어린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오은희는 국문타이피스트에서 실직의 공포로 언제나 핏기없고 창백한 모습으로 우울한 삶을 지탱해 간다.

> "영란이 난 참 돈이 필요했어 이 한달동안 돈, 돈, 돈생각만 했으니깐. 게 다가 언제 실직을 당할는지 모른다는 마음이 노아있었거든 그래 기회만 있으면 타락이라도 할것같은 잠재의식이 있었는모양이야"
>
> 은희는 영란의 손을 놓드니 다시 두손으로 자기 얼골을 싸 쥐었다.
>
> "내가 어저께 어디갔었는지 영란이 알아?" -중략-
>
> 호기심도 있고해서 우연히 만난 여학교 친구가 이끄는대로 같이 차를 마 시고 진고개를 걸으는동안 젊은 여자가 힘안들이고 잘살수도있는 방법을 알았다. 주저할 여유도 없었다.
>
> (『十字路』-21쪽)

은희는 경제적 궁핍의 단애(斷崖)와 자본의 위력에 굴복하여 '윤락의 심연'으로 육체를 던지며 기생으로 전락하게 된다. 당시 여성들의 현실인식은 물화 되는 삶을 받아들이는 여성과 이와는 반대로 타락한 현실에 대한 저항적 인식으로 대항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오은희의 몸은 경제적 궁핍으로 속물적 현실에 굴복하면서 순결 이데올로기나 섹슈얼리티로 훈육되는 몸을 부정하는 등 당시의 사회현실에 젠더화된 반응을 보인다.

> "머리가 거 뭐야 부끄러서 데리고 댕길수가 있어야지"하고 분명 그 남자는 말했다. 육체! 여인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그렇듯 육체가 중요한 조건이 되는가 싶었다. 남자들은 누구나— 교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여자에게서는 육체만 본다. 그러면 그육체안에 깃들은 인간의 영혼이란 그렇게도 무력한 무용한것이란 말인가. 여인의 영혼보담 그 육체가 아름답기를 원하는 남성들! 모든 여성에게 대한 유혹의 원인이 이같은곳에 있을것을 깨달으며 영란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없는 크나큰 문제에 부딧친듯 망연하는것이었다. —그러면 이같은 남성들에게 어떻게 버릇을 가르켜 주어야 할까 이같은 남자들을 어떻게 복수하나—
>
> (『十字路』-28~29쪽)

위의 예문은 육체적 욕망을 발화하며 '밤이면 오색불빛 영농한 빠-로 돌변'하는 다방에 들른 영란이 여성의 육체가 상품가치로 밖에 계산되지 않는 물신화된 현실에 분노하는 장면이다. 물신 사상이 팽배하고 성의 매매가 자본주의의 상품과 맞물려 여성의 육체를 남성의 시선에 포착된 애욕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향락산업을 비판하고 있다. 빠-의 윤락녀가 텅 빈 기표로서 남성의 성적 횡포에 대상화되는 타락한 현실에 영란은 저항 의지를 보인다.

경제적 절박함으로 현실계의 위협을 섹슈얼리티로 타개하고자 하는 경향은 강명자에게서도 볼 수 있다. 강명자는 오은희가 회사를 그만둔 후 뒤를 이은 타이피스트로서 자유분방한 김민수의 욕망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적극적 유혹으로 일탈을 강행한다. 사회의 권력 구조에 영합하며 영악함과 당찬 태도를 보이는 강명자를 통해 가치관의 혼란한 전도된 시대상을 발견할 수 있다.

> 명자는 중얼중얼 불분명하게 짓거리는 김의사의 말을 반박하고싶은 듯이 몸을 움직이고 있다가, "그럼 저같이 자격없는 여자들은 평생 결혼두 제대루 못해보겠네요"하고 남자를 흘겨보는것이었다. "그렇

> 지만 선생님두 생각해보세요 그런 무자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전도를 개척해야 잖아요. 정말 저의 동무들은 모두 눈을부라리고 기회를 엿보고있어요. 자기맘에 그만하면 만족하겠다는 상대자를 발견만한다면 우린 뛰어가서 움켜쥐구 놓지지않을 작정이에요.
>
> (『十字路』-201쪽)

위의 예문에서 보여지듯이 명자는 육체를 통한 교환의 경제논리를 당연시하고 있다. 명자에게 육체는 상품적 효용(utility)[31] 가치로 서열화되며 경제논리 위에서 교환되는 섹슈얼리티이다. 명자는 김민수에게 육체를 매개로 결핍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며, 육체적 욕망을 발화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김민수의 성적 방종 아래 훼손되는 몸으로 대상화된다. S의과대학 교수인 김민수는 쾌락적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영란이 인준을 단념하고 그를 선택하자 생애를 바쳐 영란을 사랑할 것이라 말하며 영란의 육체를 요구한다. 정조 관념이 뚜렷한 영란이 욕망을 채우려는 김민수의 요구를 거절하자 '선정성의 기표'를 발산하며 적극적인 유혹으로 다가서는 강명자와 속물적인 욕망을 취하게 된다. 이때 명자의 육체는 타락의 대상화인 동시에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몸의 일탈을 표상한다. 순결 이데올로기나 섹슈얼리티로 훈육되는 젠더 통제의 기능을 부정하며, 거부와 저항의 모르는 타락의 대상화가 된다.

섹슈얼리티는 일부 낭만적 사랑이나 육체적 쾌락과 결합하기도 하지만『十字路』의 오은희, 강명자, 황금주 등의 소외된 계층의 여성들에게서는 욕망을 향한 도구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몸을 상품으로 파편화시키고 여성의 '가치'를 남성지배경계의 그물망 속에 포획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해방공간 '감각성'[32]에 노출된 여성의 삶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욕망 혹은 자본과 결탁되었을 때 가부장제의 섹슈얼리티는 파행적이고 파격적인 형상을 추구하게 된다. 물신사상이 팽배하고 성의 매매가 자본주의의 상품과 맞물리면서, 향락산업을 통한 인간의 성으로부터 소외와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가속화되었다. 질곡의 현대사라는 사회적 배경과 신산스런 삶의 다양한 모습과 깊은 함수 관계를 가지며, 직설적인 정공법의 어조로, 혹은 비유와 상징, 알레고리 등의 은유적인 어조로 성의 본능을 수면 위로 노출시키고 있다.

이처럼 해방기부터 성 담론이 본능적인 쾌락이나 사랑의 일체감에 의한 희열이라는 성의 속성을 떠나, 젊은 여성들의 향락산업으로의 유입이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경제적 의존을 위해 남성을 잡으려는 여성의 욕망이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낭만화되어 타자화된 섹슈얼리티에 조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해방공간의 젠더 인식이 균열과 불협화음 드러내는 또 하나의 과정임을 예증한다는 측면에서 숙고의 여지가 있다.

4. 젠더화된 수렴과 모성성

장덕조는 해방공간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흥미롭고 활달한 문체를 구사하며 이념과 무관한 듯한 남녀의 애정문제를 토대로 당대 사회를 표출하였다.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진솔하게 다루는 동시에 '여성적·가정적·모성적·정신적'이라는 여성 정체성의 지배적 이름하에 당대의 사회변화에 부합한 여성성의 의미를 구현하였다. 즉 일제강점기에 민족 결속의 필요를 강조하는 모성 담론을 강화하듯이, 본질적인 속성으로서의 여성성[33]을 유지하면서 일제강점기 모성담론을 다시 호명

31) 경제학 용어에서 효용(utility)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얻는 주관적 만족감이다.(조신호·홍성인(2003),『경제학원론』, 강남대출판부, p.64)

32) 미국문화의 유입으로 해방 이후를 '성애의 시대'라고 규정할 만큼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강화되었다. 본고에서 '감각성'은 정조론과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감각을 지칭한다.

33) '여성성'은 단일하고 고정된 속성이 다양한 의미로 맥락화 된다. 근대 비판의 맥락에서 보면 이성중심주의,

하였다. 일제 말기 형성된 총후부인, 애국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해방기에도 정숙하고 교양있는 여성으로 호출되었다. 해방기의 여성성은 해방 현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경험체로 변이를 보이며, 모순과 균열 속에 공조·협상·배제 등의 다층적 형식으로 모성을 확대 재생산하였다. 이러한 장덕조의 해방기 '여성성'은 나름의 내적 일관성으로 여성성과 국가주의를 결합한 '모성성'을 전유함으로써 여성작가로서의 존립 근거를 확보하는 등 여성문학 장의 중심을 차지했다.[34]

요컨대 당시의 여성작가들이 국가주의와 지배 담론에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기존 문학제도에서 자기 위상을 정립하고 선명한 젠더적 특성을 형상화하였고 그 유사점이 장덕조 소설에서도 발견된다.

해방공간 장덕조의 소설에는 모성성의 변천을 지속적으로 형상화하는 내적 일관성을 보여준다. 장덕조는 일제말기부터 해방 후,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당시 지배적인 담론이 요구한 역할에 적극적으로 공명하면서 해방 후 여성문학 장의 '주류'로 안착하였다.[35] 장덕조의 일제말기나 한국전쟁기 소설에서는 '고정화된' 모성에서 '잠재적인 자기-전복성'에 이르기까지 여성-어머니의 모성 서사의 결합 양상이 다양하게 발견된다.[36] 이는 전통적 규범으로 계승되어온 '강하고 희생적인 어머니'의 이상화된 모성 담론의 구축으로, 여성 고유의 영역이 '모성성'의 자질로 압축되는 근대적 현모양처의 귀결이며 젠더적 위계질서를 내면화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등가적 의미로 구현된 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작품인『十字路』는 1949년 3월 16일부터 12월 중순까지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37]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여성인 박정숙과 이영란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는 합리적인 주체자로, 하위주체 여성인 오은희와 강명자를 다른 한 축에 두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체로 동원, 전유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 담론을 통해 해방기 사회 전반의 담론으로 확대된 여성의 삶을 설계하여 국가와 가정에 헌신하는 여성 주체를 설파한다. 이처럼『十字路』에서는 해방 현실 속 지배담론에 전유된 여성성의 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동시에 우방국인 미국을 미화하며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계몽적 성격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황금주 언니가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떠나는 이집을 나도 지금 이렇게 떠나간다. 결국 영란만이 행복된 승리자였다. 나는 또다시 기생이 될 결심이다. 이번에야말로 좋은 기생 기생다운 기생이 될수있을 것 같단다. 영란이는 끝까지 최선생님과 메아리-를 도아드리기 바란다. 미국에도 같이 가 드릴 줄 믿는다. 그나라에서 참다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줄줄 믿는다. 그리고 또 하나. 멀지 않아 메아리-가 영란이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대신 <마마>라 부를수 있을 것을 믿는다」
>
> (『十字路』-312쪽)

위의 예문은 미국으로 떠나는 영란에게 보내는 은희의 편지 내용이다. '미국에서 참다운 민주주의의 씨를 받아다 한국 땅 위에 찬란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줄 것'과 메아리의 '마마'가 되어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에서 목적의식에 기인한 사회현실과의 관계망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의 개인적인 욕망과 성취보다는 그들을 가정과 국가의 책임 주체로 호명하고 재배치하면서 여성의 삶을 설계하고 있다.

남성중심주의의 폐단을 메워줄 수 있는 속성, 보살핌과 배려, 타자를 위한 윤리, 모성성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기에 남성성보다 열등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본고에서 규정하는 장덕조의 여성성은 여성을 규정하는 다양한 층위나 항목을 고려할 때, 여성적, 가정적, 모성적, 정신적인 토픽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4) 김양선(2012),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장의 형성』, 소명출판, p.167-187.

35) 위의 책, p.261-262.

36) 해방기 장덕조의 소설 중 모성담론을 호명하며 여성성의 의미를 구현하는 작품은 <蒼空>, <喊聲>, <三十年>, <猪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7) 전체 구성으로 14장으로 되어 있다.

결말 부분은 가정과 국가에 순응하는 여성주체를 더욱 노골화한다. 삼팔선의 광경을 바라보다가 '<불행한 조국>에 대한 결의를 다시 새롭게 가다듬'는 영란의 모습은 해방기에 발표된 장덕조 소설의 특성인 공론의 장(場)으로서의 역할이 표출된다. 이는 전쟁 직전 사회의 심각한 정치적 부패는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하여 당선되기까지의 한인준을 둘러싼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 「나는 정치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삼천만의 대변인 국회의원 제공은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배가 고파 우는 어린 아이들과 거리에 범람한 실업자를 바라보고 있을 수 없어 나는 이에 입후보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인준의 부르짖음인 동시에 영란자신의 부르짖음이요, 이가랑비 나리는 거리를 막연히 헤매고 있는 모든사람의 부르짖음일 것이다.
>
> (『十字路』 - 120쪽)

위의 예문에서 보이는 한인준의 정견 내용은 자신을 공천하려던 당과는 견해를 달리하며 애국의식을 드러낸다.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과 동떨어진 계몽사상은 '이상화된' 모성으로 인준과 영란의 목소리를 빌어 작가의 목적의식을 반영하고 전파하는데 핵심적인 동인이 된다.

이상화된 모성의 구현은 가부장제에서 소외된 홀어머니의 헌신적인 양육과 '좋은 어머니(Good Mother)'의 숭고함을 계승하는 영란에게서 발견된다.[38] 서사의 전반부는 '삯바느질과 조고만 구멍가게를 의지하고' 남매를 키워가는 '가정의 주권자'로서 '자애의 정(精)'과 '책임'을 다하는 영란 모친을 등장시켜 다소 통속적인 서사 속에 '모성'으로 회귀하는 논리로 전개된다. 영란은 모성의 진화양상이 담보된 '어머니의 이해관계'가 잠재되어 유지되고 계승된 여성의 유형을 보여준다.[39] (자녀의)양육과 (어머니 자신의)부양 등 모성의 다양한 양상은 영란 모녀를 통해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영란은 집안의 천사 역할을 하며 '현대여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부합한 교육받은 여성이면서 그 지식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순결한 여성이다. 모성성의 젠더적 특성은 영란이 악인으로 생각했던 최한직을 이해하게 되고 그와 결혼함으로써 '메아리'라는 혼혈아를 훌륭히 양육한다는 동일성의 논리로 복속된다.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삼는 주부, 성적으로 순결한 여성, 바람직한 가정성을 담지한 여성을 이상적으로 형상화하며 여성성의 제도화에 기여한다.

주목할 것은 "해방기의 민족적 아이덴티티, 작게는 각 개인의 자기동일성의 회복과 확립이라는 과제에 맞서 싸워야 했다"[40]는 해방기의 특성이다. 기존의 공간적 질서를 재배치하는 장덕조의 소설은 현실 공간에서 파생된 적극적인 교섭으로 다층적 주체의식과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존립을 위한 참여의 메시지를 구현함으로써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렴했다. '노란 머리털과 하얀 피부'를 가진 '병약한 아이'인 혼혈아 <메아리>의 어머니가 되는 길을 선택한 영란을 통한 '모성의 추동'은, '동양의 전통적 여성성'이라는 이름하의 지배적인 여성 정체성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어머니' 혹은 '모성'으로 현현되는 '모성성'의 공고화는 여성문학 장을 다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여성성의 제도화가 현실의 다양한 맥락을 충분히 포착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특히 해방기의 '모성'은 단일한 성격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특수한 공간에서 많은 변수를 포함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재생의 욕망을 체화하고 있다.

---

38) 양극단의 어머니상을 내세우는 일부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좋은 어머니(Good Mother)'와 '나쁜 어머니(Bad Mother)'로 모성을 조망하기도 한다.

39) 엘리자베트 바댕테르는 어머니의 자식 양육과 교육의 이행에는 자신의 가정 내에서의 지위향상이라는 이해관계가 전제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모성의 역사를 통해 모성이 본능이 아니라 만들어진 우발적인 것임을 역설한다.(Elisabeth Badinter, 심성은 옮김(2009), 『만들어진 모성』,동녘, p.5-15)

40) 조남형, 이우영 편저(1990), 「해방직후 소설에 나타난 선택적 행위」, 『해방공간의 문학연구』, 태학사, p.34.

5. 맺음말

본고는 해방공간의 여성 인물을 통해 젠더화된 인식의 역동성과 복합성을 재현하는 장덕조의『十字路』를 대상으로 민감성, 감각성, 모성성의 구도 파악과 제반 영역을 고찰하였다.

‘젠더화된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타자화된 여성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에서 젠더 문제에 진지하게 천착한『十字路』는 서사구조의 평이함에 한계를 보이는 아쉬움이 있다. 여성 인물의 젠더화된 인식은 성차에 근거한 위계화·서열화에 대한 배제의 논리와 생물학적 환원론을 견지한다. 그 형성의 한 축으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시각을 견제하며 이면에는 도덕의식과 ‘모성성’의 전유를 보인다. 젠더화된 내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공간에서 여성 지식인으로 교육의 기회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진출을 향한 여성의 지위와 인권의 확장이 주된 인물인 이영란과 박정숙을 통해 보여진다. 여성 교양인을 대변하는 두 여성을 통해 여성주체에 대한 인식은 다소 확장되었으나, 내부구성원에 대한 차별적 젠더 질서는 한계를 보인다.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혼성은 여성을 사회의 일환으로 호출하고 있으나 남성 권력의 틈에서 차별적 젠더질서는 더욱 강력해졌다.

『十字路』에서 이영란은 주체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사회진출을 통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득권층인 여성인물 박정숙과 이영란의 응집된 힘을 바탕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차별적 인식이 지배적인 제도와 규정에 ‘민감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여성주체의 한계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둘째,『十字路』에서 해방공간의 젠더화된 인식은 남성의 주도로 만들어진 성의 ‘관계적 공간’을 전복하는 등 남녀 간의 권력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젠더 공간에서 재편성과 일탈의 젠더 정치학을 구현하는 여성의 현실이 드러난다. 해방기 시·공간의 현실은 다양한 기대와 욕망이 상충 되는 역사적 격동기의 공간이었다. 격동과 전환이라는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 여성의 육체는 거부와 저항을 모르는 온순한 육체 혹은 폭압적 현실에 대항하는 육체를 위상이 형상화되고 있다.

『十字路』는 여성의 육체가 남성 권력의 폭압적 상황아래 때로는 지배받는 온순한 육체로, 또 때로는 남성의 방종 아래 훼손된 몸으로 물신화되는 균열을 보여준다. 섹슈얼리티는 일부 낭만적 사랑이나 육체적 쾌락과 결합하기도 하지만『十字路』의 오은희, 강명자, 황금주 등의 소외된 계층의 여성들에게서는 욕망을 향한 도구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몸을 상품으로 파편화시키고 여성의 ‘가치’를 남성지배경계의 그물망 속에 포획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해방공간 ‘감각성’에 노출된 여성의 삶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장덕조는『十字路』를 통해 모성성의 변천을 지속적으로 형상화하는 내적 일관성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의 등가적 의미로 구현된 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작품인『十字路』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여성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는 합리적인 주체자로, 하위주체 여성을 다른 한 축에 두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체로 동원, 전유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 담론은 혼혈아인 ‘메아리’의 헌신적인 엄마가 되어줄 것을 영란에게 당부하는 은희의 간곡함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삯바늘질과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헌신적으로 남매를 키워낸 영란 모친을 긍정적 시각으로, 최한직과 혼인하였으나 의붓딸 메아리에 집중하지 않고 밖으로 도는 황금주를 부정적 인물로 재현한 작가의 시선은 자유민주주의나 이념의 옹호가 전근대적 모성을 바탕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 전반의 담론으로 확대된 여성성의 재구성이 국가와 가정에 헌신하는 계몽적 성격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十字路』에서는 해방 현실 속 지배담론에 전유된 여성성의 테두리 안에서 당시의 젠더의식을 적확하게 보여준다. 해방공간에 이어 다른 시기 여성인물과의 젠더의식의 비교, 확장, 분석 등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원리 규명의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張德祚(1953),『十字路』, 文星堂.
張德祚(1950.1.23), 「十字路」,『週刊서울』71, 케포이북스.
張德祚(1950.4.10), 「十字路」,『週刊서울』82, 케포이북스.
張德祚(1950.4.17), 「十字路」,『週刊서울』83, 케포이북스.
張德祚(1950.4.24.), 「十字路」,『週刊서울』84, 케포이북스.
張德祚(1950.5. 1), 「十字路」,『週刊서울』85, 케포이북스.

<논문 및 단행본>

김양선(2009),『경계에 선 여성문학』, 역락.
(2012),『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장의 형성』, 소명출판.
김윤서(2017),「장덕조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 영남대학교박사논문.
김은주(2014),『한국의 여기자, 1920~1980』, 케뮤니케이션 북스.
류진희(2015),「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전략: 여성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논문.
박지향 외(2006),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송남헌(1985), 『해방 3년사 1』, 까치.
심영희 외(1999),『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진선영(2020),『한국 베스트셀러 여성작가의 러브스토리 코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이승희(1994),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백산서당.
이혜숙(2008),『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해방 이후 국가 - 시민사회 관계의 역사적 구조화』, 선인.
이혜령(2008),「해방기 식민 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여성문학연구』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이진경(2005),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이임화(2015),『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철수와 영희.
임경순(2019),「장덕조(張德祚) 장편소설 『십자로(十字路)』 연구」,『우리말글』 제83집, 2019, 우리말글학회.
임미진(2017),「1945-1953년 한국 소설의 젠더적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박사논문.
조남현, 이우영 편저(1990),『해방공간의 문학연구』, 태학사.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2010), 『젠더, 정체성, 장소-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 공간 연구회.
메리 E. 위스너-행크스, 노영순 옮김(2006),『젠더의 역사』, 역사비평사.
베아트리츠 콜로미나, 강미선외 역(2005), 『섹슈얼리티와 공간』, 동녘.
엠마뉴엘 레이오, 김희정 옮김(2001),『강요된 침묵-억압과 폭력의 남성 지배문화』, 책갈피.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2000),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옮김(1996),『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2008),『젠더트러블』, 문학동네.
케이트 밀레트, 정의숙·조정호 역(1976),『性의 政治學』, 現代思想社.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2002), 『젠더연구』, 나남출판사.

「해방공간, 장덕조 소설의 젠더화된 인식 고찰(김윤서)」에 대한 토론문

손미란(동국대학교)

김윤서 선생님의 「해방공간, 장덕조 소설의 젠더화된 인식 고찰– 장편소설 『십자로』를 중심으로 –」는 지금까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장덕조의 소설 『십자로』를 천착한 글로서 해방공간이 가지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보이는 젠더의식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장덕조의 문학을 꾸준히 연구하신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며 이번에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1. 이 논문의 가장 큰 의의는 해방공간 여성 문학의 장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에 있습니다. 해방공간이라는 사회현실과 관계망 속에서 여성성을 어떻게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여성작가의 젠더적 인식을 통해 살펴본다는 것은 해방공간이 가진 특수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여성 문학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방법론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해방공간에서 여성의 육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때로는 훼손된 몸으로 재현되고 때로는 균열을 통해 여성이 다시 주체적 재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오은희, 강명자가 일탈된 여성의 육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오은희 몸은 경제적 궁핍으로 속물적 현실에 굴복하면서 순결 이데올로기나 섹슈얼리티로 훈육되는 몸을 부정하는 등 당시의 사회현실에 젠더화된 반응을 보인다.”(14쪽)라고 하셨는데요. “‘윤락의 심연’으로 육체를 던지며 기생으로 전락했다”(14쪽)라고 바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다소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경제적 궁핍에 의해 기생으로 전락은 했으나 기생이 됨으로써 순결 이데올로기나 섹슈얼리티로 훈육되는 몸을 부정한 것이라 보신 것 같은데 맞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전근대적 훈육의 대표적인 신체인 ‘기생의 몸’이 여전히 전근대적 양상을 보이는 근대공간에서는 어떤 원리로 ‘훈육을 부정한 몸’으로서의 ‘기생의 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연장선에서 강명자가 육체를 스스로 상품화함으로써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몸’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해석에 일면 동조하지만 일면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신체를 교환의 가치로 두고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 여전히 남성에게 귀속되고자 하는 전근대적 욕망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부끄러워하지 않음’과 목적 달성을 위해 스스로 도구화를 선택해 욕망을 이룬다는 점은 전복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 스스로 가부장제에로의 귀속을 바란다는 점에서 이중적 욕망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방공간이라는 특수성 아래에서 이러한 이중적 욕망이 가지는 양가성의 의미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다소 지엽적일 수 있지만 의미 전달에 왜곡이 있진 않을까해서 여쭙습니다. 다음은 4쪽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 표면적으로는 남녀평등의 법률적 정책이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조론과 가부장제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역동적 공간에서 남성 주체의 '계급화'로 성차별주의는 더욱 증폭되었다. (4쪽.)

여기서 '역동적 공간'이라는 용어를 모순된, 모순적 공간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는 않을지요? 혹은 역동적임에도 한편으로 모순이 내재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해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다음은 18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 일제강점기의 등가적 의미로 구현된 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작품인 『十字路』는 1949년 3월 16일부터 12월 중순까지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①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여성인 박정숙과 이영란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는 합리적인 주체자로, ②하위 주체 여성인 오은희와 강명자를 다른 한 축에 두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체로 동원, 전유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 담론을 통해 해방기 사회 전반의 담론으로 확대된 여성의 삶을 설계하여 국가와 가정에 헌신하는 여성 주체를 설파한다. (18쪽.)

①과 ②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범박하게 여성 담론일 수는 있지만 모성 담론이라 지칭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소설 『십자로』에는 헌신하는 엄마에 대한 재현이 중요한 여성 담론으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성 담론(헌신하는 엄마)을 추가 제시하고 소설 속에서 표상되는 여성 담론으로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일제강점기에서 보인 장덕조의 모성성이 해방공간에서는 모성과 등가적 의미에서 '합리적 주체자'로 등장했음을 말하는 거였다면 어떤 원리에서 등가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소 부족한 이해에서 온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의 윤리와 고집의 무덤
이청준의 「줄광대」, 「과녁」을 중심으로-

조소명(한양대학교)

1. 들어가며

이청준의 문학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지적인 문학”으로 자리매김해 있다. 이른바 4·19세대의 분열된 의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러한 분열을 낳은 근대의 현실을 집요하게 탐구하고 반성할 뿐만 아니라,[1] 그 탐구와 반성의 과정을 추리소설 및 액자소설이라는 고도의 지적인 형식 안에 담아냈다는 점이 주요한 근거로 작용한다.[2]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과는 별개로, 작가가 “지적”인 것과는 판이한 경향의 작품세계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방을 배경으로 속신이나 구전 설화, 장인과 예인의 기예 등을 소재로 삼거나, 시골 사람들의 토속적 정서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작품들이 이에 해당한다.[3]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방적”인 경향의 소설은 대개 전통적인 가치체계에 매어 있는, 따라서 자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근대의 가치체계와는 동떨어져 있거나 충돌을 겪는 인물을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는 전통과 근대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읽어내기도 했다.[4] 이청준 소설이 전통을 내세워 근대화의 의미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가 뒤따르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전통과 근대의 대립에서 전자를 일방적으로 긍정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전통에 매어 있는 인물의 한 전형으로 꼽히는 ‘장인’을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이런 평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장인을 소재로 삼고 있는 이청준의 소설 또한 통상적으로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와 같은 평가의 주요 골자는,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는 일상적 행복을 누릴 수 없도록 ‘진정한 가치’만을 추구”[5]하여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릴 운명에 처해 있”[6]는 장인을 비극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전통적 직업 그 자체의 존폐를 문제 삼”[7]을뿐 아니라 “모든 노동이 삶과 분리된 채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산업 사회적 상황”[8]과 “이들이 안착할 수 없는 근대 문명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9]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전통사회 내에서는 자신의 자리를 보장받고 있던 장인들이 더

---

1) 김윤식, 「감동에 이르는 길」, 『이청준론』, 삼인행, 1991.
2) 김 현, 「자기 반성의 뜻」,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1993.
3) 이청준 소설에서 이러한 상반되는 경향이 발견된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김윤식, 「심정의 넓힘과 심정의 좁힘—이청준론」, 『한국현대소설비판』, 일지사 1981, 27-28면.; 김병익, 「말의 탐구, 화해에의 변증」,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1981, 286-290면 참조.
4) 대표적인 논의로는, 류보선, 「귀향의 변증법」, 『또 다른 목소리들』, 소명출판, 2006 참조.
5) 김치수, 「소설에 대한 두 질문」,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134면.
6) 오윤호, 「이청준 소설의 직업 윤리와 소설 쓰기 연구」, 『우리말글』 제35집, 우리말글학회, 2005, 310면.
7) 위의 글.
8) 오양진,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정치학과 수사학의 거리」, 『현대소설연구』 제50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239면.
9) 한순미, 「이청준 예술가소설의 서사 전략과 “재현”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2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335면.

이상 기예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 결과 소멸하게 된다는 소설의 설정에서 근대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읽어낼 수 있고, 기예의 고유한 가치를 교환가치로 환원하지 않는 장인들에게서 산업화에 대한 저항을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치의 절대성을 맹목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 신념은 한편으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는 동인(動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자나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고립이나 재앙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 부정적인 측면까지 함께 살펴야만 장인 계열의 소설이 지니는 의미를 풍부하게 독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변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고집스럽게 풍속을 지켜나가는 장인의 태도를 긍정하는 것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점 가운데 유독 장인의 관점만을 고려한 결과일 수 있다. 가령, 「과녁」에서 이전부터 계승되어 온 궁도(弓道)는 그 풍속 안에 있는 노인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수호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일지 모르지만, 석주호나 지역 유지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석주호가 궁도를 훼손하는 것은 부당하고, 노인이 그것을 고집하고 석주호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비판의 화살은 석주호만이 아니라 궁도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은 채로 고집하는 노인에게도 공정하게 겨누어져야 하지 않는가? 「과녁」은 공유된 가치판단의 기준이 부재하는 두 인물 사이에서 양쪽의 관점에 서보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격자 형식으로 쓰인 「줄광대」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두 작품은 내화(內話)와 외화(外話)에서 상이한 관점을 취함으로써 다각적인 입장에서 장인을 바라보도록 만든다.

이 글은 작가가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윤리'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장인들은 재래로부터 이어져 온 풍속을 지켜나간다는 점에서 전통의 수호자인 것처럼 보인다. 「과녁」의 노인은 그런 인물의 한 전형이다. 그러나 「줄광대」의 허 노인 부자는 '전통적'이라거나 '전근대적'이라는 규정만으로는 전부 설명될 수 없는 상당히 독특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부과한 예술적 사명에 절대적으로 동일화되어, 기예 활동을 자기 자신이나 타자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공동체의 선(善)에 이바지하는 수단을 넘어서서 무조건적인 당위의 수준에까지 격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10] 그들의 기예 활동이 미(美)의 차원뿐만 아니라 윤리의 차원과 접목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11]

여기서 '윤리'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이지만, 이청준의 소설은 그 '도리나 규범',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척도가 근대화의 과정에서 그 실체적인 성격을 상실하는 국면, 김현이 말한 것처럼 "사회적·문화적 변동 때문에 그들의 삶을 지탱해 나갈 재래의 관습·질서 체계를 잃"[12]게 되면서 "보편적 질서의 파괴라는 중대한 문제"[13]에 봉착하게 되는 국면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청준은 이와 같은 근대화의 마당에서 상황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사명을 고집하는 장인을 통해, 소설가의 윤리란 무엇이며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소설 또는 소설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 점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10) 이와 관련하여 "장인이라는 인물이 과연 근대와 대립하는 전근대 혹은 전통이라는 가치 체계를 대변하는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들 각자의 서사는 특정 집단의 대변자적 성격보다는 개인서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홍진석의 논의는 이 글의 입장과 동궤에 놓인다. 하지만 이 글은 장인에게 '개인서사의 성격'이 강한 이유를 '장인들의 소수자적 성격'에서 찾기보다 그들의 자기 윤리에서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궤를 달리 한다. (홍진석, 「소수자로서의 '장인'과 자기진술의 고유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참조.)

11) 세 작품을 전통 놀이나 미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논의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정남,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예술관 연구」, 『국어국문학』 제133집, 국어국문학회 2003.; 김주현, 「1960년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민속의 미의식 규명」, 『상허학보』, 상허학회, 제21집, 2007.

12) 김 현, 「장인의 고뇌」,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6, 414면.

13) 위의 글, 407면.

2. 전통과 근대 사이의 통약 불가능성

명석한 두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겸손을 몸에 익혀 왔다고 자인하는 석주호 검사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뒤 자기를 꾸미고 과시할 목적으로 활쏘기를 익히다가, 궁사 노인의 고집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저지른다는 내용의 「과녁」은, 전승되어 온 궁도에 따라 활쏘기 풍속을 지켜가고 있는 폐쇄적인 노인의 가족이 석주호를 비롯한 외부인들에 의해 파괴되는 경위를 그리고 있다. 스토리의 표면적인 내용에서 속악하고 타락한 현실에 의한 전통의 파괴를 논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소설의 초점은 폐쇄적인 공동체가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서로 다른 정체성으로 인해 조성되는 긴장과 대립 그 자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노인과 석주호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과 둘의 대립 속에서 초래되는 정체성의 동요과 위기를 섬세하게 묘파하고 있는바, 이 글은 이 지점에 대한 다시 읽기로부터 시작한다.

> 그[석주호]는 자신의 두뇌가 너무나 명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너무나 유복한 환경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물론 그것 자체는 약점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자기에게 약점을 심게 될 위험을 느꼈다. 누구에게든 경멸을 당할 수는 없었다. 극복하리라 했다. 그는 그것을 인간 악의 연원쯤으로 생각해버리려고 했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는 바로 자기에게 굴복한 패자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넘볼 수 없는 승자가 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그에게는 있었다. 대학 생활의 초반은 말하자면 그런 그의 약점의 가능성을 억누르고 오히려 그것을 이롭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문약에는 몇 가지 운동 경기로(특히 권법은 오래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인간 이해의 방법은 신중한 독서로,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술, 춤, 등산, 당구에서까지도 자기 경험을 만들어냈다. (…) 친구들은 그를 '멋쟁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때 그는 그 별명이야말로 자신에게 썩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만에 대해서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겸손을 조심스럽게 몸에 익혔다.[14]

인용은 석주호가 검사가 되기까지 그의 성장 과정을 서술한 부분이다. 대법관을 역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석주호는 "자신의 두뇌가 너무나 명석하"며 자신에게 "너무나 유복한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행여 그것이 타자에게 약점으로 작용하여 경멸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자기를 계발해온 인물이다.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자의 눈에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타자로부터 "승자"로 인정받는 것, 그것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승자"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넘볼 수 없는 승자"보다도 더 위에 있는, 말하자면 최종적인 승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운동, 독서에서 시작해서 술, 춤, 등산, 당구에 이르기까지 온갖 "자기 경험"을 쌓으면서 대학 생활 초반을 보내고, 그 결과 친구들 사이에서 "멋쟁이"로 자리매김한다. 하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검사가 되고 난 뒤에도 "언제나 사람을 잡아 묶을 일을 캐내야 하는 직업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 "무릇 생명 있는 것 앞에 겸허해지고 경건하게 그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몸에 익힌다.

이처럼 약점을 보완하면서 "물 흐르듯 한 전진"을 계속해오던 그는 뜻밖에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실의에 빠진다. 게다가 부임하고 나서 어울리게 된 지역 유지들 역시 그에게 "자기 수모"를 안겨준다. 석주호는 유지들과 바둑 내기를 하곤 했는데 항상 지기만 해서 "그들에게 허점을 보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곳에서의 재임 기간을 도회에 남은 동료들이나 또는 그 자신이 도회에 남았을 경우에 비해 훨씬 값진 것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지역 유지들에게 당한 수모를 되갚을 것인지 궁리를 거듭하던 그는, 어느 날 새벽 공원에서 궁사 노인 가족의 활쏘기 경기를 보고는 "상당히 충격적인 감명"을 받고 궁술을 익혀 성공적인 지방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겠다는 기대에

14) 이청준, 「과녁」, 『매잡이』(문학과지성 이청준 전집2권), 문학과지성사, 2010, 49-50면. 이하의 인용은 인용문 말미에 면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부푼다.

> 석주호는 불운을 행운으로 바꿔버린 자신의 현명함에 슬그머니 감탄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겸손하려고 애를 썼다.
>
> 그러나 북호정이 가까워올수록 **그는 그 북호정의 뜰에 활을 겨누고 설 자신의 기품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쉽사리 지워버리지 못했다.**
>
> 바둑집에서 그 친구들을 끌어내야지. 그리고 거기서 당한 것을 여기서 갚아준다.
>
> 바둑은 친구들이 너무 좀스럽고 게다가 수까지 월등 높았다. 나이대접도 대접이려니와 바둑이란 원래 인품 수련의 도거니 여기고 점잖게 감수함으로써 오히려 저쪽을 제압하고, 거기서 오는 수련과 만족감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던 것인데, 활쏘기라면 그런 점에서만이 아니라 승패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했다. 그리고 자신도 있었다. (52면, 강조는 인용자)

인용에서 석주호가 “북호정의 뜰에 활을 겨누고 설 자신의 기품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장면은 주목을 요한다. 그 모습은 단지 그의 ‘이상적 자아’(Ideal-Ego), 즉 그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이미지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타자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지 상상하면서 그러한 타자의 시선을 반영하여 만들어낸 가상의 모습, 그의 ‘자아-이상’(Ego-Ideal)이다.[15] 다시 말해, 그는 지금 “도회에 남은 동료들”과 바둑 내기에서 수모를 겪게 했던 지역 유지들이 기품 있게 활을 쏘는 자기를 존경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최종적인 승자의 자리에 우뚝 선 자기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에게 활쏘기란 대학에서의 수많은 활동, 검사 생활 동안의 인격적인 수양과 매한가지로 타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한낱 수단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작가가 짧지 않은 분량을 들여 서술하고 있는 석주호의 성장 과정과 현재의 외양을 종합해 보면, 그는 어떤 고정된 기준이나 준칙에 따라 생활해 왔던 것이 아니라, 타자의 인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멸을 당하지 않고 높은 위치에 설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 그가 북호정 활터에서 마주한 것은 일생을 정해진 법도에 따라 활을 쏴온 완고한 궁사 노인이다. 이제 노인의 정체성의 확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해 본다.

> 장 노인. 저세상 사람이 되기 며칠 전까지도 이 북호정을 찾아준 지기지우. 어린애처럼 장난을 좋아하면서도 북호정을 자기 집처럼 아끼고 궁도에 대한 훼손에는 크게 혀를 차며 잘 노하던 노인. 그의 얼굴이 지나갔다.
>
> 뿐이랴. 전근으로 이 고을을 떠난 뒤로도 이따금 북호정 소식을 물어주던, 그러다가 해방으로 아주 소식이 끊어져버린 일본인 군수.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스무 해가 가까운 곱사등이 한의원. 꼽추라도 그 영감의 활 솜씨는 단(段)을 넘었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북호정의 옛 주인, 그 백발 수염의 위풍당당하고도 인자스럽던 백부의 얼굴……, —너밖에 이 북호정을 지킬 사람이 없다—굵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했다. (57-58면)

인용은 처음으로 북호정에 방문한 석주호에게 활을 쏘게 했다가 수양아들 건이가 위험에 처할 뻔한 일이 있고 난 뒤, 노인이 “몸이 잡히지 않은 사람”에게 화살을 내어준 것을 후회하면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대목이다. 노인이 과거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다는 것, 즉 노인이 북호정을 거쳐 간 여러 사람에 대한 기억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다. “너밖에 이 북호정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백부의 당부, “궁도에 대한 훼손에는 크게 혀를 차며 잘 노하던” 지기지우 장 노인의 엄숙한 태도, 그 외 활쏘기의 가치를 인정해주었던 이들을 기억하면서, 노인은

---

15) 이상적 자아와 자아 이상에 관해서는,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176면 참조.

지금까지 활쏘기 풍속을 이어가고 있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전승되어 온 법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이자 노인에게만 의미 있는 이야기일 뿐이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북호정을 소중히 여겼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전에는 활을 배우는 사람도 더러 있고 해서 그걸로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요즘은 그런 거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는 권 서기의 말에서 엿볼 수 있듯 일단 사람들은 활 따위에는 관심이 없거니와, 나아가 노인과 그의 가족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기까지 하는 형편이다. 노인에게는 수양딸이 있는데, 활장이의 딸이자 활을 쏘는 여자라는 이유로 결혼 시기가 한참 지나도록 "혼인발"이 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북호정에 대한 외부인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은 북호정의 주인으로 남더라도 딸만큼은 자기 길을 찾아가게 해주어야겠다는 바람을 품고 있는 노인은, 이와 같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딸과는 새벽으로만 활을 쏘기 시작한다. 평생을 활쏘기 풍속을 지켜온 노인의 삶과 생활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위기는 석주호가 활을 배우면서 더욱 심화된다. 노인은 석주호와 대화적 관계를 맺기보다 과거의 사람들에 비추어 그를 평가하고 궁도에 따라 가르치려 한다. 그 궁도의 요체란 "몸으로 익히고 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석주호는 "그러는 법도거니" 여기면서 묵묵히 "노인의 처분에 따르리라" 다짐하지만, 사실상 궁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의 목적은 훈련을 그럭저럭 견뎌내서 하루빨리 '북호정 뜰에 활을 겨누고 선 자신의 기품 있는 모습'을 지역 유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인은 보이지 않는 내면을 다스리고 나서야 활쏘기에 뜻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석주호에게 그런 자세와 의지를 요구하지만, 내면보다 타자에게 보이는 외양에 가치를 두는 석주호는 그 요구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이행하지도 못한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른 까닭이다.

그 기준의 다름은 근대의 상황에서 비롯된다. 근대성의 도래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공통의 규범을 쉽사리 전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나'와 '너'가 '우리'라는 공동체의 규범 및 관습 속에서 안정적인 정체성을 부여받으며, 그 규범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던 시대가 종언을 맞이한 것이다. 이제 '나'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옳은 것이 '너'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전의 규범에 호소함으로써 간단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과 석주호의 관계에서처럼 한쪽은 과거의 법도를, 다른 한쪽은 자아-이상을 일말의 타협 없이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내세운다면, 둘 사이에 공통의 기준이 마련될 수 없고, 따라서 통약 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노인과 석주호가 서로를 그럭저럭 감내한다면 이러한 기준의 차이가 문제되지 않겠지만, 작가는 두 주인공 사이의 차이를 극단적인 대립 속으로 밀어 넣는다. 석주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역 유지들을 북호정 활터로 끌어들이고, 원하던 대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낸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일이 없었지만, "양조장 영감"이 수양딸을 시집보내지 않을 생각이냐는 "어떤 금기"를 범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건이 발생한다. 노인은 "활장이는 딸을 시집보내기 싫어하거나 활장이 딸은 시집갈 생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당신네들"이고, "허물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다르게 생각하려 드는 쪽"이라며 외부인들의 편견을 힐책한다. 그는 활장이나 외부인이나 동일한 욕구를 지닌 동일한 인간임을 강조한다. 이에 맞서 "파나마모"는 "노인넨 활을 쏘고 또 활을 만들어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게 여느 사람과는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다시금 활장이와 외부인을 구분한다. 지역 유지들은 딸아이의 활 솜씨를 보자고 덤벼들고, "그들의 요구 속에서 묘한 희롱기를 느끼"던 석주호 역시 노인에게 그렇게 하기를 "고압적"으로 권유하기에 이른다.

> 아름다운 것은 충분히 자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한다. 저 늙은 사내들이 어떤 동기로 그것을 요구하든 적어도 궁도에 바른 이해를 가지고자 하는 이 석주호는 그럴 권리가 있

다—

주호가 노인을 권했다. 그러자 노인은 아주 난감한 얼굴이 되어, 그럼 다음 날 새벽으로 때를 잡자고 했다. 낮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였다. 그러나 주호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은 없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떳떳이 자랑되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목소리는 노인보다 더 엄숙하고 법정에서처럼 고압적이었다.

노인은 갑자기 힘이 빠진 얼굴이 되어 딸과 소년을 불렀다. (71면, 강조는 인용자)

이 장면은 외양을 중요시하는 석주호의 가치판단 기준이 노인의 그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극화하고 있다. 노인에게 활쏘기란 자신이나 타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완성을 지향하는 기예 활동이다. 누군가의 욕망이 개입된다면 오히려 그 가치가 훼손되고 만다. 하지만 무엇이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아야만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석주호는 “아름다운 것”을 숨길 이유가 없으며 “자랑되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노인을 몰아세운다. 마침내 노인은 딸과 건이를 불러 석주호들에게 활쏘기 시범을 보이게 하고, 자신이 고수해오던 풍속의 가치가 눈앞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지켜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 저녁을 들지 않”고 “눈을 감고 깊이 상처 받은 짐승처럼 낮은 신음 소리”를 내는 노인의 모습은, 풍속에 붙들려 있던 그의 자기 정체성이 붕괴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며, 소설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애초에 노인은 딸에게 “짐승처럼 먹고 자고 일만 하는 게 대수냐고 활을 가르친”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짐승”과 “활”의 대비다. 이는 노인이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지금 여기의 현실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기 자신을 구분 짓고 있음을, 그것도 “짐승”과 “인간”으로 구분하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그가 그토록 고집스럽게 풍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은 세상과 다르다는 은밀한 우월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딸의 혼사 문제 앞에서 노인은 외부의 시선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점차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는 활을 쏜다는 이유로 딸의 혼삿길이 막히자 “활을 가르친 게 잘못이었”다고 후회하면서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딸과는 새벽에만 활을 쏘기 시작하고, 석주호와 지역 유지들이 딸의 혼사를 문제 삼자 “뭔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사람으로 밥 먹고 짝 찾아 살고 싶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와도 마찬가지”라면서 자신에게도 세속적인 욕구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마침내 딸의 활쏘기 시범을 허용함으로써 노인의 정체성의 중핵을 이루는 그 우월감은 무참히 짓밟히고 만다.

이 소설에서 두 주인공의 대립, 즉 과거의 풍속에 매어 있는 노인과 타자로부터의 인정만을 추구하는 석주호의 대립 구도는, 단순히 근대 현실의 타락을 고발하고 전통의 순수함을 긍정하기 위한 설정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정체성을 의문에 부치도록 만드는 설정이다. 작가는 타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외양을 꾸며온 석주호의 내면이 비어 있으며, 그러한 인정에의 맹목적인 추구가 차이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석주호가 노인에게 굴욕감을 안겨준 뒤로도 겉으로 보이는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반역을 음모하기 시작”하고 끝내는 고전동 건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소설의 결말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피한 변화를 거부하는 노인의 태도가 긍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전통적 가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른 석주호에게 그것을 강요하며, 그러면서 세상과 다르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음험하게 즐기는 노인의 모습을 작가는 또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3. 장인의 고집과 소설가의 윤리

이처럼 근대성의 도래가 “보편적 질서의 파괴”[16]를 불러왔다면, 그리하여 ‘나’와 ‘너’ 사이에 공통

의 규범을 쉽게 전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때 '나'는 무엇에 준거하여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가. 석주호와 같이 그때그때마다 주관적인 경험에 맞춰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도 있고, 노인과 같이 구식관습을 가치 기준으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과녁」은 둘의 만남이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장인 계열의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장인이 궁사 노인과 같지는 않다. 이 장에서는 「줄광대」[17]의 허 노인 부자에게서 나타나는 윤리의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소설가의 윤리를 정립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격자 형식의 이 소설은 한때 문학 지망생이었으며 지금은 문화부 기자인 '나'(남 기자)가 취재차 전라남도 C읍을 향하면서 시작된다. 문화부 부장으로부터 그곳에 승천한 줄광대가 있다는 "꽤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있으니 "자세히 취재를" 하여 "이야기로 만들어 오"라는 지시를 받고 난 뒤였다. '나'는 부장의 지시를 "거짓말 같은 걸 참말로 만들어 오라"는 "어려운 일"로 받아들인다.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 '나'에게 부장은 "문학적 센스"가 있으니 잘 해낼 것이라고 격려하지만, '나'는 속으로 "나에게는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 전부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에 어떤 소설적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이 없"으며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면 멀쩡하게 조리가 정연하던 생각의 흐름이 갑자기 혼란을 일으"킨다고 자신 없어 한다. "미지근한 책임감"을 안고서 출장을 떠나 취재는 아예 잊어버리고 줄곧 잠만 자던 '나'는, C읍의 읍내를 배회하다 <승천장의사>라는 간판을 보고서 그제야 겨우 자신의 목적을 상기하고 다음 날부터 취재를 시작한다.

<승천장의사>의 주인은 승천한 줄광대에 관해서는 "C읍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의 대강을 들려준다. 1949년에 C읍에 서커스단이 들어왔고 단원 가운데는 특별히 젊은 줄광대 하나가 있었다. 원래 그는 "꼿꼿한 자세로 하늘을 건너다"니는 식으로 줄을 탔는데, 언젠가부터 재주를 부리기 시작하여 관람객의 흥을 돋우더니 어느 밤에 줄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 후 서커스단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트럼펫을 불던 사내 하나만 몸이 좋지 않아 C읍에 남았다. 그리고 C읍의 사람들은 죽은 줄광대가 승천했다고 믿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는 "갑자기 생각난 꿈을 해득해 보려 할 때처럼 좀 허황한 느낌"을 가지면서도, "문화부장이 말한 내 문학적 센스 때문에 생긴 오해인진 모르겠"으나 "기대 이상의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트럼펫 사내를 찾아가 보기로 한다.

이처럼 문화부장으로부터 승천한 줄광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장의사 사내로부터 이야기의 대강을 접했을 때, '나'는 우선 '사실'의 층위에서 그 진위를 의심하면서 비판적 거리를 취하고, "문학적 센스"를 언급하면서 다음 절차를 밟아간다. 그러면서 마치 '나'가 '사실'의 세계, 즉 '현실'(reality)로부터 '허구'(fiction)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격자 외부에서 내부의 트럼펫 사내 이야기로 이동한다. 그리고 다시금 '나'가 '허구'에서 자신의 '현실'로, 격자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오면서 소설은 끝난다. 요컨대, 격자 양식의 이 소설은 '나'의 '허구' 체험처럼 구성되어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를 통해 작가는 소설가 지망생이었지만 한 편의 소설도 쓰지 못한 '나'를 서술자로 내세워, '소설(허구)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있다.

트럼펫 사내의 이야기는 줄광대 허 노인과 허운 부자에 관한 것이다. 허 노인은 "자기 밖의 의지가 만들어 놓은 풍속에 끝내 거부의 눈길 한 번 보내지 못하고 동화되고 마는 비개성의 피에로"[18]라거나, "직업에 대한 끈질긴 집념, 질서에의 맹목적 신념"[19]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과녁」의 노인과 같이 재래로부터 전해진 법도, 즉 "자기 밖의 의지가 만들어 놓은 풍속"을 따른다기보다 스스로 세운 예술적 사명을 따르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16) 김 현, 앞의 책, 407면.
17) 이청준, 「줄광대」, 『병신과 머저리』(문학과지성 전집2권), 문학과지성사, 2010. 이하의 인용은 인용문 말미에 면수만 표기. 원제는 「줄」이며, 단행본 『황홀한 실종』(나남, 1984)부터 「줄광대」로 수록되었다.
18) 김주연, 「새 시대 문학의 성립」, 『김주연문학평론선』, 문학사상사, 1992, 34면.
19) 김 현, 앞의 책, 409면.

> —줄 끝이 멀리 보여서는 더욱 안 되지만, 가깝고 넓어 보여서도 안 되는 법이다. 그 줄이라는 것이 눈에서 아주 사라져버리고, 줄에만 올라서면 거기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하는 게야. 제일 위험한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줄에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다. (84면)

인용은 허 노인이 줄에서 떨어져 죽기 전 아들 운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당부인데, 그의 예술적 사명의 요체가 잘 드러나 있다. 그 사명이란 자신과 줄이 하나가 될 만큼 줄타기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즉, 세속적인 모든 것에 무관심해야 한다. 그 '모든 것'에 예외란 있을 수 없으며, 생각을 땅에 머무르게 하는 정념적인 방해물들이 있다면 가차 없이 제거해야 한다. 실제로 허 노인은 그 사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마저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다. 인륜(人倫)마저도 버린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허 노인은 전근대적 가치체계에 속한 인물이 아니다. 만약 전근대적 가치체계에 속했다면 삼강오륜과 같은 외부의 윤리적 실체에 따라 부부간의 도리를 지켰을 텐데, 그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윤리적 실체가 자신의 예술적 사명을 추구하는 데 있어 정념적인 유혹이자 방해물로 작용한다. 또한, 그는 서커스단의 이윤을 위해 "구경꾼 놈들의 간덩이를 덜컹덜컹 내려앉게" "재주를 좀 부"리라는 단장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대적 가치체계에 속한 인물도 아니다. 그는 어떠한 외부적 질서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그 질서가 요구하는 인륜과 이윤을 거스르면서 오로지 '줄의 질서', 자신이 세운 예술적 사명에만 의존하여 고집스럽게 줄을 탄다. 하지만 타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완고한 고집은 어떠한 선(善)이나 즐거움에도 이바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도무지 이해될 수 없고 추문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허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나'가 충격에 휩싸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이 믿어지지 않는 집요한 이야기로써 사내가 나에게 떠맡기려는 것의 무게가 나로서는 매우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
> 도대체 노인의 운명—그 논리 이상으로 정연한 질서는 허 노인이 죽은 지금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허 노인은 줄을 지배하지 못하고 줄이 그를 지배했다.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인가. 또 운은 노인의 무거운 운명을 떠맡아 지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구축해갈 수 있었는지. 장의사 사내의 이야기로는 운도 마찬가지로 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다. 그렇다면—운은 노인의 인생을 어떻게 배반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그것은 또 운에게 무슨 의미를 줄 수 있는가…… (85면)

허 노인이 보여준 "논리 이상으로 정연한 질서"는 '나'에게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그의 고집은 전근대적 가치체계의 논리로도, 근대적 가치체계의 논리로도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어떤 합리적인 해석을 덧붙이기보다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이는 어떤 질서에도 포섭되지 않는 영역에 예술의 차원을 위치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허 노인은 줄 위에서 한 번 실수를 한 뒤, 줄의 질서를 따라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노인으로부터 줄의 질서를 이어받은 아들 허운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운이 허 노인의 당부대로 줄을 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역시 전에 허 노인이 당하던 단장의 꾸지람을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트럼펫 사내의 말을 참조한다면, 운 역시 '아버지의 법'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따랐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난 뒤부터 그는 줄에서 "재주를 피우기 시작"하는데, 특이한 것은 줄에서 내려와 "운이 자꾸 귀와 눈을 때리면서 무언가 혼잣소릴 중얼거리곤" 했으며 "자신을 몹시 못 견뎌" 했다는 점이다. 이는 운이 여인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법'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법'에 따르면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지만, 그는 여인에 대한 사랑에 이끌려 법도를 배반

하고 줄에서 재주를 피운 것이다. “운이 자꾸 귀와 눈을 때”린 것은 그 배반에 대한 자기 처벌이다.

운은 결단을 내린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던 ‘아버지의 법’을 버리고 여인에 대한 사랑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

> —난 이제 줄을 탈 수가 없다. 넌 나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
> 운은 마치 줄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땀을 흘리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여자는 운이 그렇게 가까이만 있으면 언제나 무서워서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 —전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 —그럼? 그럼?
> 운이 미친 사람처럼 여자를 안은 팔에 바싹 힘을 주었습니다.
> —아아, 이젠 난 줄을 탈 수가 없는데……
> 그리고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 운의 손이 천천히 여자의 목으로 올라오더니 조금 있다가 그 손이 경련이 난 듯이 갑자기 여자의 가는 목을 조르기 시작하더랍니다. 여자는 별로 반항도 하지 않고 걸상으로 쓰러졌는데, 운은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풀에 다시 손을 놓아버리고는 일어서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더랍니다.
>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이고 다시 줄을 탈 수 있었지만, 아아…… 나는…… (90-91면)

허운에게 줄과 사랑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사랑을 택하려면, 이제까지 자기 삶을 규정하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운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그 정도의 무게로 사랑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는 여인으로부터 거절당하며, 줄의 질서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고자 한 그의 바람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다. 그는 잠깐 줄의 질서로 되돌아가기 위해 여인의 목을 졸라보기도 하지만, 이미 되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이내 손을 놓아버린다. 그리고 다시 서커스단으로 돌아가 줄 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아버지 허 노인은 어떤 외부의 질서에 속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예술적 사명에 절대적으로 동일화되어 있었기에, 그것을 준거로 삼아 아내를 죽이고 계속해서 줄을 탈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줄의 질서에도, 지상에도 발을 디딜 수 없게 된 운은, 자신을 규정하던 모든 것의 공허함과 무가치함을 경험한다. 어디에도 의존할 수 없는 주체성의 영점(零點)에 놓인 것이다.

트럼펫 사내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나’는 여관방으로 돌아와 운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지만, “무엇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천천히 정리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는 데는 고맙게도 그 나의 문학적 센스가 도움이 되어줄는지도 모를 일이다.”고 해석을 유보하면서, 다시 “문학적 센스”를 언급한다. C읍의 사람들은 허운이 승천했다고 믿으면서 그의 죽음을 신화화했지만, ‘나’는 그 믿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C읍에서 (…) 거짓말을—적어도 나에게는 거짓말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야기만을—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허운의 이야기에 사로잡힌 채 계속해서 “혼돈”에 휘말려든다.

> 소설을 생각할 때와 같은 그런 혼돈이 휘몰아들었다. —나는 적합하지가 않다. 좀더 확실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길 왔어야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 (…) 이 혼돈 속에서 나의 소재를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을 영영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 그러나 나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에게는 이 이야기는 아주 죽어버릴 것인지, 또 누구에게로 가서 그 사람의 어떤 질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96-97면)

이 글은 앞서 격자 양식의 「줄광대」가 소설가 지망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허구’와 ‘현실’을 오가면서 ‘소설(허구)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줄광대」의 결말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인용에서 ‘나’는 허운의 죽음을 어떻게든 언어화해보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혼

돈”에 휩싸인다. 그런데 “나의 소재를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을 영영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혼돈”의 상태는 줄의 질서에도, 지상에도 발을 디딜 수 없었던 허운의 마지막 모습과 닿아 있다. 다시 말해, 허운이 그로 인해 최후를 맞이했던 “혼돈”의 상태는 ‘나’에게 ‘소설 쓰기’의 출발 지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혼돈”에서 작가가 생각하는 ‘소설가의 윤리’를 검토해볼 수 있다. 어떤 확고한 이념이나 질서, 혹은 가치에 기대어 ‘소설 쓰기’를 시작한다면, “확실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확실한’ 언어로는 운의 죽음을 담아낼 수 없다. 그는 공허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담아낼 수 있는 언어란, 소설이란 어떤 것인가. ‘나’의 “혼돈”은 이미 그 답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질서나 가치를 사전에 전제하거나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서 주체성의 영점을 모색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정초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4. 나가며

참고문헌

이청준, 「과녁」, 『매잡이』, 문학과지성사, 2010.
이청준, 「줄광대」, 『병신과 머저리』, 문학과지성사 2010.

김윤식, 「감동에 이르는 길」, 『이청준론』, 삼인행, 1991.
김주연, 「새 시대 문학의 성립」, 『김주연문학평론선』, 문학사상사, 1992.
김치수, 「소설에 대한 두 질문」,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김 현, 「자기 반성의 뜻」,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1993.
김 현, 「장인의 고뇌」,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6.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오양진,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정치학과 수사학의 거리」, 『현대소설연구』 제50집, 2012, 한국현대소설학회.
오윤호, 「이청준 소설의 직업 윤리와 소설 쓰기 연구」, 『우리말글』 제35집, 우리말글학회, 2005.
이수형, 『이청준과 교환의 서사』, 역락, 2013.
한순미, 「이청준 예술가소설의 서사 전략과 “재현”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2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홍진석, 「소수자로서의 ‘장인’과 자기진술의 고유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장인의 윤리와 고집의 무덤(조소명)」에 대한 토론문

곽은희(동아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우리말글학회 연구윤리 규정

윤리위원회

<2007년 12월 26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규정은 '우리말글학회 연구윤리 규정(이하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말글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칙 제2장 제12조(연구윤리)에 따라 본 회 회원들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회 회원의 학술활동과 학회지 『우리말글』이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한 자와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회원의 연구윤리

제 4 조 (업적 인정) 저자의 연구 업적의 인정과 저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1. 저자는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업적으로 인정한다.
2. 논문이나 기타 연구 성과물의 저자 표기는 직급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우선 순위에 따라 저자로 표기한다. 즉 제1 저자가 홍길동, 제2 저자가 김한국일 경우에 '홍길동·김한국'으로 표기하고 각주에 명기한다.

제 5 조 (부정 행위) 저자의 연구 부정 행위 및 도덕적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중복 게재(이중 출판)·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로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자료, 분석 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표지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물에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와 인용 내용을 독자가 변별할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다.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저서의 내용을 재수록하거나 여러 논문들을 합성하여 새로운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 표절 행위

4) '중복 게재(이중 출판)'은 저자가 이전에 출판한 연구물이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통칭한다.

2. '도덕적 부정행위'는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진실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결정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한다.

1) 부당한 인사에 개입하거나 연구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3)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4)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6 조 (인용 및 참고문헌) 공개된 학술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때에는 반드시 내각주 또는 외각주로 그 출처를 쪽수까지 밝혀야 하며, 자신의 글과 인용, 또는 참고한 글을 독자가 변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7 조 (목적) 본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행위 및 도덕적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8 조(구성 및 의결)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와 도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심사위원은 국어학・(한)국어교육・고전문학・현대문학 분야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회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고, 간사(1인)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임원회(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4. 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9 조 (위원장)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제2장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학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제2장 각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게 하고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이 위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위원의 역할과 자격) 1. 위원은 학회장이 추천한 2인, 편집위원장과 부회장이 추천한 3인으로 한다.
2. 위원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조사와 학술적 판단을 충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자신이 심의 안건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위원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사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6. 위원은 제2장 각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7. 제2장 각항과 관련되어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즉각 해당 심의 안건의 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11 조 (간사) 1. 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장 및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를 위한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회의에 따른 조치, 확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심의 안건과 관련한 학회 기구 간의 협조 사항
4) 기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조정 사항

제 12 조 (심의 내용) 위원회는 제2장의 내용과 관련된 다음 각항을 심의한다.
1. 본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인 『우리말글』을 포함한 모든 학술 저작물(이하 '학회지'라 칭함)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2.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기타 공식적인 학술 담론들(이하 '학술행사'라 칭함)의 발표 내용이 지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3. 본회가 주관·후원·추천한 연구 계획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어학・(한)국어교육・고전문학・현대문학 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3 조 (자문위원)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2. 심의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그 의견 내용을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보고)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다음 각항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2. 위원회의 명단과 심사 절차
3. 심사 내용 및 결과

제 4 장 연구윤리 규정의 시행과 결과 조치

제 18 조 (시행)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연구윤리 규정의 발효 시 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9 조 (결과 조치)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징계 및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회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지 및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회지 게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도덕적 부정행위가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본회 감사에게 즉각 통보하는 한편, 연구 취소나 연구비 회수 등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1) 회원 제명 및 논문 투고 금지
   2) 학회 학술지의 휘보 게재 및 소속 기관에 위반 사실 통지

제 5 장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 17 조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1항의 제보 내용은 지체 없이 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회장은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한다.

제 18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보자가 본회의 회원인 경우, 본회는 제보자가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 19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또는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 또는 피감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본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연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최종 판정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6 장 규정 개정

제 20 조 (규정 개정) 편집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고,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모두 폐기한다.
(2)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우리말글학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